프랑켄슈타인

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

메리 셸리 (Mary Shelley)

1818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8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Claude Opus 검수

책 정보

원전

메리 셸리 (Mary Shelley), "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 (Lackington, Hughes 1818 (개정 1831))

저자

메리 셸리 (Mary Shelley) · 1797–1851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84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검수

Claude Opus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8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원작의 분위기와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지 1

영국에 계신 사빌 부인께.

17—년 12월 1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당신이 그토록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걱정하던 이번 여정이, 다행히도 아무런 재난 없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무척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어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우선은 사랑하는 누이에게 내가 무사히 잘 도착했으며, 계획한 일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미 런던에서 멀리 북쪽으로 올라왔다. 페테르부르크의 거리를 걷다 보면 차가운 북풍이 뺨을 스치는데, 그 바람은 내 신경을 깨우고 기쁨을 선사한다. 이 기분을 이해하겠는가? 내가 나아가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불어온 이 바람은, 곧 마주하게 될 얼음의 땅을 미리 맛보게 해준다. 약속과도 같은 이 바람에 힘입어 나의 공상은 더욱 뜨겁고 생생해진다. 북극이 그저 서리와 황량함만이 가득한 곳이라고 스스로

를 설득하려 애써보지만, 내 상상 속의 북극은 언제나 아름다움과 환희가 넘치는 낙원이다.

마거릿, 그곳에서는 태양을 영원히 볼 수 있다. 태양의 거대한 원반이 지평선 끝에 걸린 채 영원한 광채를 흩뿌리고 있을 것이다. 나의 누이여, 앞서 항해했던 이들의 기록을 믿어보자면, 그곳에는 눈과 서리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며, 지금까지 인류가 거주하는 지구상에서 발견한 그 어떤 지역보다도 경이롭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될 것이다. 천체의 현상들이 저 미지의 고독한 공간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독특하게 나타나듯, 그곳의 자연과 풍경 또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영원한 빛이 머무는 나라에서 무엇을 기대하지 못하겠는가? 나는 그곳에서 나침반의 바늘을 끌어당기는 경이로운 힘을 발견할 수도 있고, 이 항해를 통해서만 비로소 그 기이한 움직임들이 영원히 일관되게 설명될 수 있는 수많은 천체 관측값들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한 번도 발을 들인 적 없는 세상의 일부를 목격하며 나의 뜨거운 호기심을 채울 것이고,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땅을 직접 밟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은 나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 위험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모두 이겨내고, 마치 어린아이가 휴일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고향 강으로 탐험을 떠나며 작은 배에 올라탈 때 느끼는 그 즐거움으로 이 고된 항해를 시작하게 한다. 설령 나의 이 모든 추측이 틀렸다고 해도, 인류에게 가져다줄 헤아릴 수 없는 이점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는 수개월이 걸리는 저 먼 나라들로 향하는 북극 근처의 항로를 발견함으로써, 마지막 세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자석의 비밀을 밝혀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오직 나 같은 모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나니, 편지를 시작할 때 느꼈던 동요가 가라앉았다. 이제 내 마음은 하늘에 닿을 듯한 열정으로 뜨겁게 달아오른다. 확고한 목적, 즉 영혼이 지적인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때 마음은 그 무엇보다 평온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탐험은 내 어린 시절부터 간절히 꿈꿔온 일이었다. 나는 북극을 둘러싼 바다를 거쳐 북태평양에 도달하려 했던 여러 항해의 기록을 열정적으로 읽어 내려갔다. 아마 당신도 기억할 것이다. 우리 토마스 삼촌의 서재가 온통 탐험을 목적으로 떠난 항해들의 기록으로 가득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당시 나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독서만큼은 지독히도 좋아했다. 밤낮없이 그 책들에 파묻혀 지냈던 나는, 어린 시절 느꼈던 그 회한을 더욱 깊이 되새기게 되었다. 아버지가 임종 직전 남기신 유언 때문에 삼촌이 나의 해상 생활을 허락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그 회한 말이다.

그 환상들은 내가 처음으로 시인들의 작품을 읽으며 사라졌다. 그들의 넘쳐흐르는 감성은 내 영혼을 매료시켰고, 나를 천상으로 이끌었다. 나 또한 시인이 되었고, 일 년 동안은 내가 스스로 창조한 낙원에서 살았다. 호메로스와 셰익스피어의 이름이 신성하게 모셔진 그 성전 안에, 나 또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나의 실패와 그 실망감이 나를 얼마나 무겁게 짓눌렀는지는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무렵 사촌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고, 나의 관심사는 다시 예전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지금의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한 지도 벌써 6년이 흘렀다. 이 거대한 과업에 내 삶을 바치기로 마음먹었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나는 우선 육체를 고난에 단련시키는 일부터 시작했다. 북해로 떠나는 고래잡이 배에 여러 번 동행하며 추위와 기아, 갈증, 그리고 수면 부족을 스스로 견뎌냈다. 낮에는 일반 선원들보다 더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고, 밤에는 수학과 의학 이론, 그리고 해양 탐험가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될 만한 자연과학 분야들을 공부하는 데 전념했다. 그린란드행 포경선에서 부선원으로 일하며 두 번이나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선장이 내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배의 이인자 자리를 제안하고는, 간곡히 내게 남을 것을 청했을 때 내가 약간의 자부심을 느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겠다.

이제 대답해 주게, 사랑하는 마거릿. 나도 마땅히 위대한 업적을 이뤄낼 자격이 있지 않은가? 내 삶은 안락함과 사치 속에서 흘러갈 수도 있었네. 하지만 나는 부가 내 앞길에 놓아둔 그 어떤 유혹보다도 영광을 택했네. 아, 누군가 격려하는 목소리로 내게 그렇다고 답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용기와 결단은 확고하네. 하지만 희망은 요동치고, 마음은 자주 가라앉곤 한다네. 나는 이제 길고도 험난한 항해를 시작하려 하네. 그 여정에서 마주할 돌발 상황들은 나의 모든 인내심을 시험할 것이네. 나는 타인의 사기를 북돋워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의지가 꺾일 때면 때때로 내 자신의 의지마저 붙들어야만 하네.

러시아를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사람들은 썰매를 타고 눈 위를 빠르게 달린다. 그 움직임은 쾌적하며, 내 생각에는 영국의 마차를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다. 모피 옷을 잘 갖춰 입는다면 추위도 견딜 만하다. 나 역시 이미 모피 옷을 챙겨 입었다. 갑판 위를 걷는 것과, 움직임 없이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은 천지 차이기 때문이다. 운동이라도 하지 않으면 혈액이 정말로 혈관 속에서 얼어붙을 정도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아르한겔스크 사이의 가도를 달리다 목숨을 잃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2주나 3주 뒤면 그 마을로 떠날 예정이야. 그곳에서 배를 한 척 빌릴 생각인데, 선주에게 보험료를 지불하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야. 선원들은 고래잡이에 익숙한 사람들 중에서 필요한 만큼 고용할 생각이고. 6월이 되기 전까지는 출항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아, 사랑하는 누이여,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답할 수 있겠어? 만약 내가 성공한다면,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아주 긴 몇 달, 어쩌면 몇 년의 시간이 흐를지도 몰라. 하지만 만약 내가 실패한다면, 누이는 나를 곧 다시 보게 되거나, 아니면 영영 보지 못하게 되겠지.

안녕히 계세요, 나의 사랑스럽고 훌륭한 마거릿. 하늘이 당신에게 축복을 내려주기를, 그리고 저를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이 베풀어 준 그 모든 사랑과 친절에 대해, 제가 몇 번이고 거듭 감사를 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의 다정한 오라버니가,

로버트 월턴

편지 2

영국에 계신 사빌 부인께.

아르한겔스크, 17—년 3월 28일.

서리와 눈에 갇혀 지내다 보니, 이곳의 시간은 참으로 더디게만 흐른다! 하지만 나의 계획은 이미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다. 배를 한 척 빌렸고, 이제 선원들을 모으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이미 계약을 마친 이들은 믿음직한 사람들이며, 분명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를 지닌 자들이다.

하지만 내게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하나 있네. 그 대상이 곁에 없다는 사실이 지금 내게는 너무나 가혹한 고통으로 다가온다네, 마거릿. 내게는 친구가 없네. 성공의 열정에 휩싸여 들뜰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이가 없고, 실망에 부딪혀 쓰러질 때 나를 붙들어 주려 애써줄 이도 없네. 물론 내 생각을 글로 옮겨 적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종이는 감정을 전달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매체라네. 나는 나와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내 눈빛에 눈빛으로 답해줄 수 있는 동료를 갈망하네. 사랑하

는 내 누이여, 자네는 나를 몽상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친구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네. 내 곁에는 다정하면서도 용기 있고, 넓고 깊은 지성을 갖춘 이가 없네. 나의 계획을 지지하거나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나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 말일세.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이 불쌍한 오라비의 결점을 얼마나 잘 보완해 주겠나! 나는 일을 추진할 때 너무 열정적이고, 난관 앞에서는 너무 조급해지곤 한다네.

하지만 내게 더 큰 불행은 독학으로 공부했다는 사실이라네. 인생의 첫 14년 동안 나는 들판을 뛰어다니며 거칠게 자랐고, 토마스 숙부님의 항해기 외에는 아무것도 읽지 않았네. 그 무렵에는 우리 나라의 유명한 시인들을 접하기도 했지. 하지만 모국어라는 언어 하나만으로는 더 이상 큰 배움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 언어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지나버린 뒤였네. 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들을 익혀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지. 이제 나는 스물여덟 살이 되었지만, 사실 열다섯 살 어린 학생들보다도 아는 것이 없네. 물론 나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방대하고 화려한 공상을 펼치기도 하지만, 화가들이 말하는 '형태를 유지하는 힘'이 부족하다네. 그래서 나에게는 친구가 절실하네. 나를 그저 몽상가라며 무시하지 않을 만큼 분별력이 있고, 나의 정신을 다스려 주려 노력할 만큼 나를 아껴줄 친구가 말일세.

이런 불평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드넓은 대양 위에서도, 혹은 이곳 아르한겔의 상인과 선원들 사이에서도 결코 친구를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인간 본성의 저급한 면모와는 거리가 먼 어떤 감정들이, 저 거친 가슴 속에서도 고동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부관은 놀라운 용기와 결단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는 명예를 미친 듯이 갈망하는데, 내 표현을 좀 더 그 사람답게 고쳐 말하자면, 자신의 직업적 지위를 높이는 데 열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는 영국인입니다. 교양을 쌓을 기회가 없어 민족적, 직업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결한 자질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경선에서 그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사업을 도울 인력으로 그를 쉽게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선장은 성품이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배 안에서도 온화한 성격과 부드러운 훈육 방식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의 잘 알려진 정직함과 용맹함에 이러한 면모까지 더해졌으니, 나는 그와 꼭 함께 일하고 싶었습니다. 홀로 보낸 어린 시절을 지나, 당신의 다정하고 여성스러운 보살핌 아래 내 가장 빛나는 시절을 보낸 덕분에 내 인격의 기초는 매우 섬세하게 다져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선상에서 흔히 행해지는 야만적인 행위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폭력이 결코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마음씨가 따뜻할 뿐만 아니라 선원들에게 존경과 복종을 함께 받는 선장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를 고용할 수 있게 된 것이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는 꽤나 낭만적이었습니다. 그에게 삶의 행복을 빚지고 있는 한 여인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였지요. 그의 사연을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그는 적당한 재산을 가진 러시아의 한 젊은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전리품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모았고, 마침내 그녀의 아버지가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했습

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그는 정인과 단 한 번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에 젖은 채 그의 발치에 엎드려 자신을 놓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지만, 그 남자는 가난하여 아버지가 결코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너그러운 친구는 간청하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의 이름을 듣자마자 즉시 구애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은 돈으로 남은 생을 보낼 농장을 사두었으나, 그 재산 전부를 연적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가축을 살 수 있도록 남은 전리품까지 모두 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직접 그 여인의 아버지를 찾아가, 그녀가 사랑하는 이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내 친구에게 진 신세 때문에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완강하게 버티자 내 친구는 고국을 떠났고, 예전의 정인이 자신의 뜻대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돌아왔습니다.

"정말 고결한 사람이군요!"라고 당신은 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터키인처럼 말수가 적고, 무지함에서 오는 무심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그의 행동이 더욱 놀랍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불러일으킬 법한 흥미와 공감을 반감시키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 불평을 늘어놓거나, 혹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고생에 대한 위안을 상상해 본다고 해서 내 결심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내 결심은 운명만큼이나 확고합니다. 다만 날씨가

허락되어 배를 띄울 수 있을 때까지 항해가 잠시 지체되고 있을 뿐입니다. 겨울은 지독하게 혹독했으나 봄의 기운은 희망적입니다. 올해는 봄이 유난히 일찍 찾아온 듯하니, 어쩌면 예상보다 더 빨리 출항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코 경솔하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타인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때 얼마나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앞두고 느끼는 감정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는 지금, 내 마음을 뒤흔드는 이 떨림을 당신에게 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즐거움인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나는 안개와 눈의 땅, 즉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나는 알바트로스를 죽이지 않을 것이니, 나의 안전을 걱정하거나 내가 '늙은 수부'처럼 초췌하고 비탄에 잠긴 모습으로 돌아올까 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런 비유를 듣고 당신은 미소 짓겠지만, 나는 비밀 하나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나는 바다의 위험한 신비에 매료되어 열정적으로 몰두하는 이유를, 현대 시인 중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이가 남긴 그 작품 덕분이라고 자주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 속에는 나조차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일하는 숙련된 일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나의 모든 계획 속에는 경이로운 것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얽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나를 평범한 인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내가 탐험하려는 거친 바다와 아무도 발 들이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나를 내몰고 있습니다.

이제 더 소중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광활한 바다를 가로지르고,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의 가장 남쪽 끝 곶을 돌아 돌아온 뒤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성공을 감히 기대할 수는 없지만, 반대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조차 견디기 힘듭니다. 당분간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계속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때로는 제 마음을 다잡기 위해 간절히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당신의 편지가 도착할지도 모르니까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만약 저에게서 다시는 소식이 없더라도, 부디 저를 애틋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다정한 형제, 로버트 월턴으로부터

편지 3

영국에 계신 사빌 부인께.

17—년 7월 7일.

사랑하는 누이에게,

내가 무사하며 항해를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급히 전하고자 몇 줄 적어 보냅니다. 이 편지는 아르한겔스크에서 귀국길에 오른 상선에 실려 영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아마도 나는 여러 해 동안 고국을 보지 못할 테니, 나보다는 그 상선이 훨씬 운이 좋은 셈이지요.

하지만 내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선원들은 용맹하고 의지도 확고해 보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지역의 위험을 알리듯 끊임없이 떠다니는 유빙들이 우리 앞을 지나가지만, 선원들은 전혀 위축된 기색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매우 높은 위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은 한여름이라 영국만큼 따뜻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해안을 향해 우리

를 빠르게 몰아주는 남풍이 예상치 못한 생기 넘치는 온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지에 적을 만한 특별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센 바람이 한두 차례 불고 배에 물이 조금 새는 정도는 노련한 항해사들이 굳이 기록조차 하지 않을 사소한 일입니다. 항해하는 동안 이보다 더 나쁜 일만 생기지 않는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마거릿. 당신을 위해서나 나 자신을 위해서나, 결코 경솔하게 위험에 뛰어들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나는 침착하고 인내하며,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노력은 반드시 성공이라는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어찌 그러지 못하겠습니까? 길 없는 바다 위에서 나는 이미 안전한 길을 찾아내며 여기까지 나아왔습니다. 저 별들조차 나의 승리를 지켜보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찌 거칠면서도 순종적인 이 바다를 향해 계속 나아가지 못하겠습니까? 인간의 단호한 마음과 굳은 의지를 무엇이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벅차오르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속내를 쏟아내고 맙니다. 하지만 이제 이야기를 끝맺어야겠습니다. 하늘이 나의 사랑하는 누이를 축복하기를!

R.W.

편지 4

영국에 계신 사빌 부인께.

17—년 8월 5일.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이한 일이 벌어져서, 이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 편지들이 당신의 손에 닿기도 전에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말입니다.

지난 월요일(7월 31일), 우리는 거의 얼음에 포위되었습니다. 얼음이 배의 사방을 에워싸는 바람에, 배가 떠 있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바닷길조차 남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상황은 다소 위험했습니다. 특히 아주 짙은 안개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 더욱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기상과 날씨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를 바라며, 배를 멈춰 세운 채 머물렀습니다.

두 시쯤 되자 안개가 걷혔습니다.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듯한 거대하고 불규칙한 얼음 평원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동료 몇몇은

신음 섞인 소리를 내뱉었고, 나 역시 불안한 생각에 휩싸여 마음을 졸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이한 광경이 갑자기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덕분에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걱정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약 0.5마일 떨어진 곳에서, 개들이 끄는 썰매 위에 실린 낮은 마차가 북쪽을 향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썰매에는 사람의 형상을 했으나 분명 거대한 체구를 가진 존재가 앉아 개들을 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망원경으로 그 여행자가 빠르게 나아가는 모습을, 그가 멀리 울퉁불퉁한 얼음 지형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육지에서 수백 마일이나 떨어져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나타난 그 형체는 실제로는 육지가 우리 생각만큼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얼음에 갇힌 탓에, 우리가 그토록 주의 깊게 지켜보던 그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두 시간쯤 지났을 때, 거친 너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이 되기 전에 얼음이 깨지면서 우리 배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둠 속에서 얼음이 깨진 뒤 떠다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과 부딪칠까 두려워, 아침이 올 때까지 배를 멈춰 세운 채 기다렸습니다. 나는 이 시간을 이용해 몇 시간 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갑판으로 올라간 나는 선원들이 배 한쪽에서 무언가를 향해 말을 걸며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발견했다. 바다 위에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과 같은 썰매 하나가 커다란 얼음 덩어리에 실려 밤사이 우리 쪽으로 떠내려와 있었다. 개는 단 한 마리만이 살아남아 있었으나, 그 썰매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고 선원들은 그를 배로 올라오도록 설득하고 있었다. 그는 이전에 보았던 여행자처럼 미지의 섬에서 온 야만인이 아니라 유럽인이었다. 내가 갑판에 나타나자 항해장이 말했다. “우리 선장님이 오셨소. 선장님께서는 당신을 저 망망대해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오.”

나를 발견한 낯선 이는 외국인 특유의 억양을 섞어 영어로 말을 걸어왔다. "배에 오르기 전에," 그가 말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디로 향하는 배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멸망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에게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얼마나 경악했는지 짐작조차 못 할 것이다. 나는 그가 세상의 그 어떤 보물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내 배를 간절한 구원의 수단으로 여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북극을 향해 탐험을 떠나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만족한 듯 보였고, 배에 올라타는 데 동의했다. 세상에, 마거릿!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이토록 쉽게 굴복하는 남자의 모습을 당신이 직접 보았더라면, 아마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놀랐을 것이다. 그의 사지는 거의 얼어붙어 있었고, 피로와 고통 때문에 몸은 처참

할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다. 나는 그렇게 비참한 상태의 인간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그를 선실 안으로 옮기려 했으나, 그는 신선한 공기를 벗어나자마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래서 다시 그를 갑판 위로 데려온 뒤, 브랜디를 몸에 문지르고 소량을 억지로 마시게 하여 의식을 되찾아 주었다. 그가 생기를 되찾기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그를 담요로 감싸 주방 난로 근처에 뉘었다. 그는 서서히 기운을 차렸고, 수프를 조금 먹더니 눈에 띄게 상태가 좋아졌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겨우 입을 뗄 수 있었다. 나는 그가 겪은 고통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자주 두려웠다. 그가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자, 나는 그를 내 선실로 옮겨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를 돌보았다. 나는 그토록 흥미로운 존재를 본 적이 없다. 그의 눈에는 대개 야생의 기운과 광기마저 서려 있지만, 누군가 그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아주 사소한 도움이라도 준다면 눈빛이 변하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면 그의 얼굴 전체가 마치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애로움과 달콤한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곤 한다. 그러나 그는 대개 우울과 절망에 빠져 있으며, 때로는 자신을 짓누르는 슬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이를 갈기도 한다.

손님이 기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자, 그에게 수만 가지 질문을 퍼붓고 싶어 하는 선원들을 떼어놓느라 무척 애를 먹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완전한 휴식이 필요해 보였기에, 선원들의 쓸데없는 호기심에 그가 시

달리게 둘 수는 없었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깊은 어둠이 드리워졌다. 그는 대답했다. "나로부터 도망친 자를 찾고 있소."

"당신이 뒤쫓던 그 남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행했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본 게 분명합니다. 당신을 구조하기 전날, 얼음 위를 가로질러 썰매를 끄는 개들과 그 안에 탄 한 남자를 보았거든요."

그 소리에 낯선 이의 주의가 끌렸다. 그는 자신이 악마라고 부르는 존재가 어떤 경로를 따라갔는지에 대해 쉴 새 없이 질문을 퍼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나와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내가 이 선량한 사람들은 물론 당신의 호기심까지 자극했겠군요. 하지만 당신은 워낙 사려 깊은 분이라 차마 먼저 묻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물론입니다. 저의 호기심 때문에 당신을 번거롭게 해 드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례하고 비인간적인 일이 되겠지요."

"하지만 당신은 기이하고도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에게 생명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 직후 그는 얼음이 깨지면서 다른 썰매까지 파괴되었을지 내게 물었다. 나는 확답을 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얼음이 깨진 것은 자정이 다 되어서였기에, 여행자가 그전에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나로서도 그 사실을 판단할 길은 없었다.

그때부터 낯선 이의 쇠약해진 몸에는 새로운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 보았던 썰매를 다시 확인하겠다며 갑판으로 나가겠다고 무척이나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거친 날씨를 견디기에는 너

무나 기력이 없기에, 선실에 머물도록 설득했다. 대신 누군가에게 그를 살피게 하여, 시야에 새로운 물체가 나타나면 즉시 알려주겠노라 약속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 기이한 사건과 관련하여 내가 기록한 일지의 내용이다. 그 낯선 이는 점차 건강을 회복하고 있으나, 매우 침묵을 지키며 나 이외의 누군가가 그의 선실로 들어오면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인다. 하지만 그의 태도가 워낙 상냥하고 부드러운 덕분에, 선원들은 그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모두 그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 나 역시 그를 형제처럼 사랑하기 시작했으며, 그가 겪는 끊임없고 깊은 슬픔은 내 마음을 동정심과 연민으로 가득 채운다. 지금처럼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도 이토록 매력적이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니, 그는 분명 전성기 시절에 고결한 인물이었음이 틀림없다.

사랑하는 마거릿, 나는 지난 편지에서 이 넓은 대양 위에서는 그 어떤 친구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지요. 하지만 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비극에 짓눌려 영혼이 꺾이기 전이었다면, 내 마음을 나눌 형제로 삼았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낯선 이와 관련해 기록할 새로운 사건이 생긴다면, 틈틈이 일기를 계속 써 내려가겠습니다.

17—년 8월 13일.

손님을 향한 나의 애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간다. 그는 나로 하여금 경탄과 연민을 동시에 느끼게 하며, 그 감정의 폭은 실로 놀라울 정

도다. 이토록 고결한 존재가 비극에 짓눌려 파멸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가장 사무치는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는 더없이 온화하면서도 지혜롭다. 학식 또한 깊어, 그가 입을 열 때면 정제된 언어들이 거침없이 흘러나오며 비할 데 없는 달변을 뽐낸다.

그는 이제 병에서 많이 회복되어 연일 갑판 위에 머물고 있다. 겉보기에는 자신의 썰매에 앞서 출발한 다른 썰매를 기다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불행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극에만 완전히 매몰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는 타인의 계획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나의 계획에 대해서도 자주 대화를 나누었으며, 나는 숨김없이 그 모든 것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내가 결국 성공할 것이라는 논거를 주의 깊게 경청했고,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내가 취한 조치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파고들었다. 그는 나에게 깊은 공감을 보여주었기에, 나는 그에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가 쉬웠다. 나는 내 영혼을 뜨겁게 달구는 열망을 쏟아냈고, 내 안의 열기를 담아 이렇게 말했다. 이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서라면 나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모든 희망까지도 기꺼이 희생하겠노라고 말이다. 내가 추구하는 지식을 얻고, 인류의 원초적 적들을 지배하며 그 권능을 후대에 전수할 수만 있다면, 한 인간의 삶이나 죽음 따위는 아주 사소한 대가에 불과했다.

내가 말을 이어가던 중, 내 말을 듣던 그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다. 처음에는 그가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빠르게 흘러내리는 것을 본 순간, 내 목소리는 떨리며 잦아들었다. 이윽고 그

의 들썩이는 가슴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말을 멈추었다. 마침내 그가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불행한 사람이여! 당신도 나와 같은 광기에 빠져 있는 건가? 당신 또한 그 취하게 만드는 잔을 들이켰단 말이오?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내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그러면 당신도 입술에 댄 그 잔을 내던지게 될 것이오!"

상상하시겠지만, 그 말은 나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이가 겪고 있던 슬픔의 발작이 그의 쇠약해진 기력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그가 평정심을 되찾기까지는 휴식과 차분한 대화가 필요한 시간이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격정적인 감정을 다스린 그는, 스스로가 열정의 노예가 된 처지를 경멸하는 듯 보였다. 그는 절망이라는 어두운 폭압을 억누르고는, 다시 나 개인의 이야기에 대해 대화를 이어가도록 나를 이끌었다. 그는 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물었다. 이야기는 금방 끝났지만, 그 이야기는 여러 갈래의 사색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친구를 찾고 싶어 했던 갈망과, 지금까지 내가 겪어온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친밀한 정신적 교감을 나누고 싶었던 갈증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행복도 자랑할 수 없다는 확신을 전했다.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낯선 이가 대답했다. "우리는 미완의 존재들입니다. 만약 우리보다 더 현명하고, 더 선하며, 더 소중한 존재—마땅히 친구라면 그래야만 하는 존재—가 우리의 약하고 결함 있는 본성을 완벽하게 다듬어 주도록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반쪽짜리 존

재일 뿐이지요. 내게도 한때 친구가 있었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가장 고결한 이였기에, 나는 우정에 관해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고 눈앞에 세상이 펼쳐져 있으니,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다시 삶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그의 얼굴에는 차분하면서도 깊게 자리 잡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 모습은 내 마음을 울릴 만큼 애처로웠다. 하지만 그는 이내 침묵을 지키더니 자신의 선실로 물러갔다.

비록 정신이 무너져 내린 상태일지라도, 그 누구도 그만큼 자연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과 바다, 그리고 이 경이로운 풍경들이 선사하는 모든 광경은 여전히 그의 영혼을 지상에서 끌어올리는 힘을 지닌 듯하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중적인 삶이 존재한다. 그는 비참한 고통을 겪고 실망감에 짓눌릴 수도 있지만, 스스로의 내면으로 침잠할 때만큼은 마치 머리 주위에 후광을 두른 천상적 존재가 된다. 그 후광의 영역 안에는 그 어떤 슬픔이나 어리석음도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한다.

이 신성한 방랑자에 대해 내가 품은 열정을 보고 당신은 미소 지을까요? 만약 당신이 그를 직접 보았다면 차마 웃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책과 은둔의 삶을 통해 교양을 쌓고 세련된 인품을 갖추었기에, 다소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덕분에 당신은 이 경이로운 인물이 지닌 비범한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가끔 그가 가진 어떤 자질이 그를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게 만드는지 알아내려 애쓰곤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직관적인 통찰력입니다. 빠르면서도 결코 틀리는 법이 없는 판단력이며, 사물의 원인을 꿰뚫어 보는 명석하고 정밀한 능력입니다. 여기에 유려한 표현력과, 변화무쌍한 억양으로 영혼을 압도하는 음악 같은 목소리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17—년 8월 19일.

어제 그 이방인이 내게 말했다. "월턴 선장, 당신도 내가 전례 없는 거대한 불행을 겪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한때는 이 모든 비극의 기억을 나 자신과 함께 묻어버리겠다고 결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그 결심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당신 또한 한때의 나처럼 지식과 지혜를 갈구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당신의 그 열망이 이루어졌을 때, 나의 소망이 그러했듯 당신을 찌르는 독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으며,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것과 똑같은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내 이야기가 당신에게 적절한 교훈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일을 성공시킨다면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고, 만약 실패한다면 위로가 되어줄 수도 있겠지요.

이제부터 보통의 상식으로는 믿기 힘든 기이한 일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온순한 풍경 속에 있었다면, 당신이 내 말을 믿지 않거나 혹은 비웃을까 봐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거칠고

신비로운 지역에서는 자연의 변화무쌍한 힘을 모르는 이들이 비웃을 법한 일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이야기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속에 담긴 사건들이 모두 사실임을 증명하는 내적인 근거들을 당신이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을 때, 나는 무척 기뻤다. 하지만 그가 겪은 불행을 일일이 늘어놓으며 슬픔을 다시 되새기는 것만은 차마 견딜 수 없었다. 그럼에도 약속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갈망은 매우 컸다. 한편으로는 호기심 때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내게 힘이 있다면 그의 운명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해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다. 나는 그에게 답하며 이러한 내 심정을 전했다.

"동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 운명은 이제 거의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단 한 가지 사건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일이 끝나면 비로소 평온히 안식할 수 있겠지요."

내가 그의 말을 가로막으려 한다는 것을 눈치챈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친구라고 불러도 실례가 안 된다면 말하건대, 당신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내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내 운명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이 결정되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내가 한가해질 내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 약속에 나는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나는 매일 밤, 맡은 업무로 인해 도저히 짬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가 낮 동안 들려준 이야기

를 최대한 그의 말투 그대로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다. 만약 일이 생겨 기록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메모라도 남겨둘 생각이다. 이 원고를 읽는 당신은 분명 큰 즐거움을 느끼겠지만, 그를 알고 그의 입술을 통해 직접 이야기를 듣는 나에게는 어떠할까. 훗날 내가 이 기록을 다시 읽게 될 때, 얼마나 큰 흥미와 연민을 느끼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지금 이 작업을 시작하는 순간에도 그의 울림 있는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린다. 그의 빛나는 눈동자는 애처로우면서도 달콤한 빛을 머금은 채 나를 응시하고 있다. 열정적으로 말을 이어가며 들어 올린 그의 가냘픈 손과, 내면의 영혼이 뿜어내는 빛으로 환해진 그의 얼굴 윤곽이 눈앞에 선하다. 그의 이야기는 분명 기이하고도 고통스러울 것이며, 용맹한 배가 항로에서 마주한 폭풍은 그 배를 이토록 처참하게 파괴할 만큼 끔찍할 것이다!

제1장

나는 제네바 태생이며, 우리 가문은 그 공화국에서 가장 명망 높은 가문 중 하나다. 조상들은 오랫동안 고문과 시의원을 지냈고, 나의 아버지는 여러 공직을 맡아 명예와 명성을 쌓았다. 아버지는 정직하고 공무에 지칠 줄 모르는 헌신적인 태도 덕분에 그를 아는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았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을 온통 조국의 대소사를 돌보는 데 바치며 보냈다.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 결혼이 늦어졌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이 될 수 있었다.

그의 결혼 과정이 그의 성품을 잘 보여주기에, 나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 중 한 명은 상인이었는데, 번창하던 사업이 수많은 불운을 겪으며 빈곤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보포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자존심이 강하고 굽힐 줄 모르는 성격이었다. 그는 과거에 지위와 부귀로 이름을 떨쳤던 바로 그 나라에서, 가난과 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결국 그는 가장 명예로운 방식으로 빚을 모두 청산한 뒤, 딸을 데리고 루체른이라는 마을로 물러났다. 그곳에서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참한 삶을 이어갔다. 아버

지는 보포르를 진심으로 아끼며 우정을 나누었기에, 그가 이런 불행한 상황 속에서 자취를 감춘 것을 몹시 가슴 아파하셨다. 아버지는 두 사람을 묶어주던 깊은 우정에 어울리지 않는, 친구의 그 헛된 자존심을 몹시 안타까워하셨다. 아버지는 지체 없이 그를 찾아 나섰다. 자신의 신용과 도움을 빌려 그가 다시 세상에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설득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보포르가 자신을 숨기기 위해 철저히 조처를 한 탓에, 아버지가 그의 거처를 찾아내기까지는 열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그를 찾아낸 아버지는 기쁨에 겨워 로이스 강 근처의 어느 허름한 거리, 그곳에 자리 잡은 보포르의 집으로 서둘러 달려갔다. 하지만 막상 문을 열고 들어선 그를 맞이한 것은 오직 비참함과 절망뿐이었다. 보포르는 무너진 재산 가운데 아주 적은 액수의 돈만을 건져냈으나, 그 돈은 몇 달간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그사이 상점에서 번듯한 일자리를 구해보리라 희망했다. 그러나 결국 그 기간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채 흘러갔다. 보포르는 혼자 생각할 여유가 생길 때마다 슬픔이 더욱 깊고 쓰라리게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결국 그 슬픔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잠식했고, 석 달이 지날 무렵 그는 병석에 누워 아무런 기력조차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의 딸은 지극한 정성으로 아버지를 돌보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마 안 되는 재산이 빠르게 바닥나고 있으며, 앞으로 생계를 이어갈 다른 방도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딸은 절망했다. 그러나 캐롤라인 보포르는 남다른 정신력을 지닌 여인이었다. 그녀는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스스로를 지탱했다. 캐롤라인은 바느질거리를

구해왔고, 짚을 엮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겨우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적은 돈을 벌어들였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그녀의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되었고, 그녀는 간병에 전념하느라 온종일 시간을 보내야 했다. 생활비마저 바닥나가던 중, 열 번째 달에 이르러 아버지는 그녀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녀는 고아가 된 채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 마지막 불행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보포르의 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서럽게 울고 있었다. 그때 나의 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오셨다. 아버지는 가련한 소녀를 보살피는 수호신처럼 나타나셨고, 소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을 맡겼다. 아버지는 친구의 장례를 마친 뒤 그녀를 제네바로 데려가 친척의 보살핌을 받게 하셨다. 이 일이 있고 2년 뒤, 캐롤라인은 나의 아버지의 아내가 되었다.

부모님의 연세 차이는 꽤 컸지만, 그 사실이 두 분을 갈라놓기는커녕 오히려 헌신적인 애정의 결속으로 더욱 가깝게 묶어주는 듯했다. 정직하고 곧은 성품을 지닌 아버지에게는 정의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성품 탓에 아버지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기에 앞서 그 사람을 높이 신뢰하고 인정해야만 했다. 아마도 과거에 사랑했던 이가 뒤늦게 가치를 드러내지 못해 상처를 입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아버지는 검증된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었던 모양이다.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애정에는 감사와 경외의 마음이 깃들어 있었다. 이는 노년의 망령된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미덕을 존경했고, 어머니가 견뎌온 슬픔을 조금이라도 보상해

주고 싶어 했다. 이러한 마음은 어머니를 대하는 아버지의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품격을 더해주었다. 모든 일은 어머니의 뜻과 편의에 맞춰 이루어졌다. 아버지는 마치 정원사가 귀한 외래 식물을 거친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듯 어머니를 보살폈으며, 어머니의 부드럽고 자애로운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도록 온갖 정성을 다했다.

그간 겪어온 고난 탓에 어머니의 건강은 물론, 늘 평온하던 마음마저 흔들린 상태였다. 두 분이 결혼하기 전 2년 동안 아버지는 공직에서 서서히 물러나 있었다. 결혼 직후, 두 사람은 약해진 어머니의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온화한 기후를 찾아 떠났다. 경이로운 풍경과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그곳을 여행하며 두 분은 안식을 찾고자 했다.

이탈리아를 떠난 그들은 독일과 프랑스를 여행했다. 그들의 첫째 아이인 나는 나폴리에서 태어났고, 갓난아기 때부터 부모님의 유람길에 동행했다. 나는 몇 년 동안 그들의 외동아이로 자랐다. 부모님은 서로를 무척 아꼈지만, 그 사랑의 광산에서 끊임없이 애정을 길어 올려 내게 쏟아부어 주시는 듯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과 나를 바라보며 인자한 미소를 짓던 아버지의 모습이 내 생애 첫 기억이다. 나는 그들의 장난감이자 우상이었으며, 그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다. 바로 하늘이 그들에게 내려준 순수하고 무력한 생명, 즉 그들의 자식이었다. 부모님이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느냐에 따라, 나를 선하게 키워낼지 혹은 나의 미래를 불행으로 몰아넣을지가 결정될 운명이었다. 생명을 부여한 존재에 대해 마땅히 져야 할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데다, 두 분 모두 자애로운 마음이 넘쳐흘렀기에 나는 아주 세심한 보살

핌 속에서 자랐다. 덕분에 유년 시절의 매 순간 인내와 자애, 그리고 자제력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그 모든 과정이 그저 즐거운 일들의 연속처럼 느껴졌다.

오랫동안 나는 부모님의 유일한 보살핌을 받는 존재였다. 어머니는 딸을 간절히 원하셨으나, 나는 부모님의 외동아이로 남았다. 내가 다섯 살쯤 되었을 때, 부모님은 이탈리아 국경 너머로 여행을 떠나셨고 코모 호숫가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셨다. 자애로운 성품을 지닌 부모님은 가난한 이들의 오두막을 자주 찾아가곤 하셨다. 어머니에게 이 일은 단순한 의무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필연이었고 열정이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그때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며, 이제는 자신이 고통받는 이들의 수호천사가 되어야 한다고 믿으셨기 때문이다.

어느 날 산골짜기 굽이진 곳에 자리 잡은 어느 가난한 오두막이 부모님의 눈에 띄었다. 그곳은 유독 쓸쓸해 보였고, 주변에 모여 있는, 제대로 옷도 걸치지 못한 아이들의 모습은 극심한 빈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아버지가 홀로 밀라노로 떠나신 어느 날, 어머니는 나와 함께 그 집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고된 노동과 삶의 무게에 짓눌린 농부 부부가 다섯 명의 굶주린 아기들에게 얼마 되지 않는 끼니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 아이들 중에서도 유독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이가 하나 있었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혈통부터가 달라 보였다. 다른 네 아이는 눈매가 검고 억척스러운 떠돌이 아이들이었으나, 이 아이만은 가냘프고 매우 창백했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살아있는 황금처럼 눈부시

게 빛났고, 비록 옷차림은 초라했으나 그 모습은 마치 머리에 고귀한 왕관을 쓴 듯했다. 아이의 이마는 깨끗하고 넓었으며, 푸른 눈동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입술과 얼굴의 윤곽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세함과 다정함은, 누구라도 그 아이를 보면 마치 다른 종족처럼, 하늘이 내려준 존재처럼, 혹은 온 얼굴에 천상의 흔적을 간직한 존재처럼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농가 여인은 내 어머니가 이 사랑스러운 소녀를 경이와 찬탄이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고는, 소녀의 내력을 들뜬 목소리로 전해주었다. 소녀는 그들의 친자식이 아니라 밀라노 귀족의 딸이었다. 소녀의 어머니는 독일인이었는데, 소녀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갓난아기였던 소녀는 이 선량한 부부에게 맡겨져 양육되었다. 당시 그들의 형편은 지금보다 나았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첫째 아이도 막 태어난 참이었다.

소녀의 친부는 이탈리아의 옛 영광을 가슴에 품고 자란 이탈리아인 중 하나였다. 그는 조국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언제나 분노하는 노예들(*schiavi ognor frementi*)'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조국의 나약함 때문에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그가 이미 죽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오스트리아의 지하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의 아이는 고아가 되어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다. 소녀는 양부모와 함께 지내며 그 투박한 거처에서 꽃을 피웠다. 마치 검은 잎의 가시덤불 사이에서 피어난 정원의 장미처럼 아름답게 말이다.

아버지가 밀라노에서 돌아오셨을 때, 우리 저택 홀에서 나와 함께 놀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셨다. 그 아이는 그림 속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웠다. 얼굴에서는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고, 몸짓과 움직임은 산등성이를 누비는 영양보다도 가뿐했다.

그 아이의 정체는 곧 밝혀졌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아이를 돌보던 시골 양부모를 설득하여 그들이 맡아 키우던 아이를 넘겨받으셨다. 양부모는 이 사랑스러운 고아를 무척 아꼈다. 아이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축복 같았으나, 신께서 이토록 강력한 보호자를 보내주셨는데도 아이를 가난과 결핍 속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은 아이에게 도리가 아니었다.

양부모가 마을 신부님과 상의한 끝에, 엘리자베스 라벤차는 우리 부모님 댁의 식구가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나의 누이 그 이상의 존재였으며, 나의 모든 일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다.

모두가 엘리자베스를 사랑했다.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품은 열정적이고도 경외심마저 느껴지는 애정은, 나 또한 그 마음을 함께 나누었기에 나의 자부심이자 기쁨이 되었다. 엘리자베스가 우리 집으로 오기 전날 저녁, 어머니는 장난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빅터를 위해 예쁜 선물을 준비했단다. 내일이면 그 아이에게 줄 거야.”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가 약속했던 선물이라며 엘리자베스를 내게 소개했을 때, 나는 어린아이 같은 진지함으로 어머니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 나는 엘리자베스를 온전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보호

하고, 사랑하고, 아껴야 할 나의 소유라고 믿었다. 그녀에게 쏟아지는 모든 찬사는 마치 내 소유물을 칭송하는 것처럼 내게 들렸다. 우리는 서로를 친근하게 사촌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녀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 그 관계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이나 문구는 세상에 없었다. 그녀는 나의 누이 그 이상이었다.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그녀는 오직 나만의 존재가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제2장

우리는 함께 자랐다. 나이 차이는 채 일 년도 나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 불화나 다툼 따위는 결코 없었다는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화목함은 우리 우정의 근간이었으며, 서로 다른 성격과 대조적인 기질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가깝게 묶어주었다.

엘리자베스는 차분하고 침착한 성품을 지녔다. 반면 나는 열정이 넘쳤고, 무언가에 몰두하는 힘이 더 강했으며, 지식에 대한 갈증 또한 훨씬 깊었다. 엘리자베스는 시인들이 노래하는 천상의 세계를 좇는 일에 마음을 쏟았다. 또한 스위스 우리 집을 둘러싼 장엄하고 경이로운 풍경들, 즉 웅장한 산맥의 형상과 계절의 변화, 폭풍과 평온, 겨울의 정적, 그리고 알프스의 여름이 보여주는 생동감과 격동 속에서 그녀는 마음껏 감탄하며 기쁨을 누렸다.

나의 동반자가 만물의 장엄한 모습을 진지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관조할 때, 나는 그 현상의 원인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나에게 세상이란 반드시 알아내고야 말 비밀이었다. 호기심, 자연의 숨겨진 법

칙을 배우려는 간절한 탐구심, 그리고 그 법칙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 느꼈던 황홀경에 가까운 기쁨은 내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의 감각들이다.

나보다 일곱 살 어린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부모님은 떠돌이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고향에 자리를 잡으셨다. 우리 가족은 제네바에 집이 한 채 있었고, 호수 동쪽 해안인 벨리브에는 도시에서 1리그(league)가 조금 넘는 거리에 있는 별장이 하나 더 있었다. 우리는 주로 별장에서 지냈으며, 부모님은 꽤나 은둔하며 생활하셨다. 나는 군중을 피하고 소수의 사람에게만 깊이 마음을 주는 성격이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에게는 대체로 무관심했으나, 그중 한 명과는 더할 나위 없는 절친한 우정을 나누었다.

앙리 클레르발은 제네바 상인의 아들이었다. 그는 유달리 재능이 뛰어나고 상상력이 풍부한 소년이었다. 모험과 고난, 심지어 위험 그 자체를 즐기기도 했다. 그는 기사도 문학이나 로맨스 소설을 깊이 있게 읽었다. 영웅적인 노래를 지어 부르기도 했고, 마법과 기사의 모험을 다룬 수많은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에게 연극을 하자고 권하거나 가면무도회를 열자고 제안하곤 했다. 그 연극 속 등장인물들은 론스발의 영웅들이나 아서 왕 원탁의 기사들, 그리고 이교도들로부터 성묘를 되찾기 위해 피를 흘린 용맹한 기사단에서 따온 것이었다.

그 어떤 사람도 나보다 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의 부모님은 친절함과 너그러움 그 자체를 타고난 분들이었다. 우리는 부모님이 그저 변덕에 따라 우리의 운명을 휘두르는 폭군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즐거움을 만들어주고 선사해 주는 존재라고 느꼈다. 다른 가족들과 어울릴 때면 나의 처지가 얼마나 유달리 행운이었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고, 그 고마움은 부모님을 향한 효심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다.

내 성미는 때로 격렬했고 열정은 맹렬했다. 하지만 내 기질에는 어떤 법칙이 작용하는지, 그 열정은 어린아이 같은 유희가 아니라 배움에 대한 간절한 갈망으로 향했다. 또한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배우려 들지도 않았다. 고백하건대, 언어의 구조나 정부의 법전, 혹은 여러 국가의 정치 체제는 내 흥미를 끌지 못했다. 내가 배우고자 갈망한 것은 하늘과 땅의 비밀이었다. 사물의 외적인 실체든, 자연의 내면적 정신이든, 혹은 인간의 신비로운 영혼이든,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을지는 모르겠으나 나의 탐구는 언제나 형이상학적인 것, 더 나아가 가장 높은 의미에서의 물리적 세계의 비밀을 향해 있었다.

그사이 클레르발은 말하자면 사물의 도덕적 관계를 탐구하는 데 몰두했다. 그는 삶의 분주한 무대와 영웅들의 미덕, 그리고 인간의 행적을 주제로 삼았다. 인류의 용맹하고 모험적인 은인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이들 중 한 명이 되는 것이 그의 희망이자 꿈이었다.

엘리자베스 라벤차의 성스러운 영혼은 평화로운 우리 집 안에서 성소의 등불처럼 빛났다. 그녀의 공감은 우리 모두의 것이었다. 그녀의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천사 같은 눈망울의 달콤한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사랑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정신 그 자체였다. 그녀는 거칠고 열정적인 내 성미 때문

에 내가 학문에 몰두하다 자칫 침울해질 수도 있었던 마음을 다독여 주었고, 그녀 특유의 온화함을 닮아가도록 나를 길들여 주었다.

그리고 클레르발은 어떠한가. 클레르발의 고결한 정신을 해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지만 만약 엘리자베스가 그에게 선행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을 그의 드높은 야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모험적인 업적에 대한 열정 속에서도 이토록 완벽하게 인애롭고, 관대하며, 친절과 다정함이 넘치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불행이 내 마음을 더럽히기 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새기는 일은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다. 그때의 내 마음은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밝은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이제는 그 꿈들이 사라진 자리에 오로지 자신만을 향한 어둡고 좁은 회한만이 남았다.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나는 내 삶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사건들도 함께 기록하려 한다.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으나, 그 사건들이 나를 서서히 불행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훗날 내 운명을 지배하게 될 그 격정적인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스스로 되짚어보니, 그것은 마치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강물처럼 비천하고 거의 잊힌 근원에서부터 솟아나고 있었다. 그 감정은 흐를수록 점점 거세지더니, 결국 내 모든 희망과 기쁨을 휩쓸어 가버린 거대한 급류가 되었다.

자연 철학은 내 운명을 결정지은 천재적인 힘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회고록을 통해, 내가 어떻게 그 학문에 매료되었는지 그 사실들을 밝히고자 한다.

내가 열세 살이었을 때, 우리 가족은 모두 통농 근처의 온천으로 유람을 떠났다. 하지만 날씨가 궂은 탓에 우리는 하루 동안 여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서 나는 우연히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의 저작집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책을 펼쳤으나, 그가 증명하려는 이론과 그가 서술하는 경이로운 사실들을 접하자 곧 무관심은 열정으로 바뀌었다. 내 정신에는 새로운 빛이 밝아오는 듯했다. 나는 기쁨에 겨워 이 발견을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내 책의 속표지를 무심하게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로구나! 사랑하는 빅터, 이런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건 그저 쓸모없는 쓰레기일 뿐이란다."

만약 아버지가 그저 한마디 던지는 대신, 애써 나를 설득하셨더라면 어땠을까. 아그리파의 원리들은 이미 완전히 부정되었으며, 이제는 고대의 학문보다 훨씬 강력한 현대 과학 체계가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고대의 힘은 허황된 환상에 불과하지만, 현대의 힘은 실재하며 실용적이라는 점을 설명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분명 아그리파의 책을 내팽개쳤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뜨겁게 달아오른 나의 상상력을 달래며, 예전의 학문들로 더욱 열정적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어쩌면 내 생각이 파멸로 치닫게 만든 그 치명적인 충동조차 아예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 책을 그저 훑어보셨을 뿐,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신다는 확신을 내게 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탐욕스럽게 독서를 이어갔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저자의 전집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 후에는 파라셀수스와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저작들도 차례로 찾아 읽었다. 나는 이 작가들이 펼쳐놓은 거친 상상력들을 즐겁게 읽고 연구했다. 그 내용들은 마치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보물처럼 느껴졌다. 나는 언제나 자연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다는 뜨거운 갈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현대 철학자들이 치열하게 연구하고 경이로운 발견들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늘 불만족스럽고 허탈한 마음뿐이었다. 아이작 뉴턴 경은 진리라는 거대하고 미지의 바다 곁에서 조개껍데기를 줍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분이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내가 알고 지낸 자연 철학 각 분야의 후계자들 역시, 어린 시절의 내가 보기에는 그저 같은 목표를 쫓는 초보자들에 불과해 보였다.

배우지 못한 농부도 주변의 자연 현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알고 있었다. 가장 학식 높은 철학자라 해도 그보다 더 아는 것은 거의 없었다. 철학자는 자연의 겉모습을 부분적으로 드러냈을 뿐, 자연이 지닌 불멸의 형상은 여전히 경이로움이자 신비로 남아 있었다. 철학자는 해부하고 분석하며 이름을 붙일 수는 있었으나, 궁극적인 원인은커녕 그 원인이 파생되는 2차적, 3차적 단계의 원인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인간이 자연이라는 성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듯한 방벽과 장애물들을 바라보며, 무모하고도 무지하게도 그것들을 원망하곤 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책들이 있었고, 더 깊은 진리를 파고들어 더 많은 것을 아는 이들도 있었다. 나는 그들이 단언하는 모든 말을 그대로 믿

었고, 그들의 제자가 되었다. 18세기에 그런 학구열을 가진 이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생경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제네바의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 과정을 따르는 동안, 내가 가장 좋아하던 학문 분야에서만큼은 상당 부분 독학으로 지식을 쌓았다. 아버지는 과학에 식견이 없으셨기에, 나는 지식에 대한 갈증을 품은 학생의 마음과 어린아이 특유의 무지함을 안고 홀로 고군분투해야 했다. 새로 모신 스승들의 지도 아래, 나는 현자의 돌과 생명의 영약을 찾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 그중에서도 곧 나의 모든 정신을 사로잡은 것은 생명의 영약이었다. 부를 쌓는 일은 하찮은 목표에 불과했다. 만약 내가 인간의 몸에서 질병을 몰아내고, 폭력에 의한 죽음을 제외한 그 어떤 것으로도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로 인간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그 발견이 가져다줄 영광은 얼마나 찬란하겠는가!

내가 꿈꾼 환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내가 탐독하던 작가들은 유령이나 악마를 불러내는 이야기를 아낌없이 들려주었고, 나는 그 약속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비록 나의 주문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나는 그 실패를 스승들의 기술이나 충실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의 미숙함과 실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한동안 나는 이미 폐기된 이론들에 몰두했다. 마치 미숙한 연금술사처럼 수천 가지의 모순된 이론들을 뒤섞었고, 뜨거운 상상력과 어린아이 같은 논리에 이끌려 방대한 지식의 늪 속에서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다. 그러던 중, 하나의 우연한 사건이 내 생각의 흐름을 다시금 바꾸어 놓았다.

내가 열다섯 살쯤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벨리브 근처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매우 격렬하고도 무시무시한 뇌우를 목격했다. 폭풍우는 쥐라 산맥 뒤편에서부터 밀려왔고, 천둥은 하늘 곳곳에서 순식간에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뿜으며 터져 나왔다. 폭풍이 지속되는 동안 나는 호기심과 즐거움에 사로잡혀 그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문가에 서 있던 나는 갑자기 우리 집에서 약 20야드 떨어진 곳에 서 있는 크고 아름다운 참나무 한 그루에서 불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았다. 눈부신 빛이 사라지자마자 참나무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타버린 밑동만이 남았다. 다음 날 아침 그곳을 찾아갔을 때, 우리는 나무가 기이한 모습으로 산산조각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무는 충격으로 인해 갈라진 것이 아니라, 마치 얇은 나무띠처럼 완전히 조각나 있었다. 나는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된 광경은 생전 처음 보았다.

그전에도 전기와 관련된 명백한 법칙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마침 그때 우리와 함께 있던 한 남자는 자연철학 분야에서 깊은 연구를 수행한 학자였다. 그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전기와 갈바니즘에 관해 자신이 세운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내게 매우 새롭고도 놀라웠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들은 내 상상력을 지배하던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파라켈수스를 단숨에 빛바랜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이 학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나는 오히려 평소 하던 공부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다. 세상에 더 이상 새로이 알려질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내 관심을 사로잡았던 모든 것들

이 갑자기 하찮게 느껴졌다. 아마도 청춘의 시기에 흔히 겪는 마음의 변덕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즉시 이전의 학업을 포기했다. 자연사와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학문을 기형적이고 불완전한 창조물로 치부해 버렸고, 진정한 지식의 문턱조차 넘지 못할 가련한 과학이라며 극도의 경멸을 품었다. 나는 이런 심경으로 수학에 매달렸다. 수학과 그에 속한 여러 학문 분야는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으며, 충분히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은 이토록 기묘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아주 가느다란 인연에 묶인 채 번영 혹은 파멸로 흘러가곤 한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내 의지와 성향이 이토록 기적처럼 변한 것은 마치 내 삶을 수호하는 천사가 직접 건넨 제안처럼 느껴진다. 그것은 이미 별들에 드리워져 나를 집어삼킬 준비를 마친 폭풍을 막아보려, 생존의 본능이 마지막으로 쏟아부은 힘이었다. 오래도록 나를 괴롭혔던 학문들을 포기하자, 이례적일 만큼 평온하고 기쁜 마음이 찾아왔으니 이것이 바로 수호천사의 승리였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학문에 몰두하는 것은 악과 연결되고, 학문을 멀리하는 것은 행복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선한 의지가 강하게 발동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운명은 너무나 강력했다. 운명의 변치 않는 법칙은 나의 완전하고도 처참한 파멸을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

제3장

내가 열일곱 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나를 잉골슈타트 대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하셨다. 그전까지 나는 제네바에 있는 학교들을 다녔으나, 아버지는 내 교육을 완성하려면 고향과는 다른 풍습도 익혀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그리하여 떠날 날짜를 조만간으로 정해두었으나, 약속한 날이 오기도 전에 내 생애 첫 불행이 닥쳤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겪게 될 비극을 예고하는 징조와도 같았다.

엘리자베스가 성홍열에 걸렸다. 병세가 매우 위중하여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태였다. 어머니가 엘리자베스의 간호를 자제하도록 설득하려는 목소리가 병중 내내 높았다. 처음에는 우리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셨으나, 가장 아끼는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소식을 듣자 어머니는 불안함을 더는 억누르지 못하셨다. 결국 어머니는 엘리자베스의 곁을 지켰다. 어머니의 지극한 간호 덕분에 병마의 악의를 이겨내고 엘리자베스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솔함이 불러온 결과는 어머니에게 치명적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어머니께서 병석에 누우셨다. 열과 함께 나타난 증상들은 매우 위태로웠고, 의사들의 표정 또한 최악의 상황을 예고하고 있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이토록 선한 여인은 강인함과 자애로움을 잃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엘리자베스와 나의 손을 맞잡으셨다.

"얘들아,"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너희가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살 모습을 보며 미래의 행복을 가장 간절히 꿈꿨단다. 이제 그 기대가 너희 아버지에게는 위안이 되겠구나. 엘리자베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네가 남겨진 어린 동생들의 빈자리를 채워주어야 한다. 아아, 너희 곁을 떠나게 되어 정말 가슴이 아프구나. 비록 내가 행복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너희 모두를 두고 떠나는 것이 어찌 이리도 힘들단 말이냐? 하지만 이런 생각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구나. 나는 기쁘게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할 것이며, 저세상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마."

그녀는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다. 죽음의 순간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애정이 서려 있었다.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즉 영혼에 들이닥친 거대한 공허와 그로 인해 얼굴에 드러나는 절망으로 인해 소중한 인연이 끊겨버린 이들의 심정을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매일같이 마주하며 우리 존재의 일부처럼 느껴졌던 그녀가 영원히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이의 빛나던 눈동자가 꺼져버렸고 귀에 익숙하고 다정했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이 받아들이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것은 상실 직후 며칠 동안의 단상일 뿐이다. 시간이 흘러 그 비극이 현실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슬픔의 진정한 쓰라림이 시작된다. 하지만 거친 운명의 손길에 소중한 인연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그리고 모두가 느껴왔고 앞으로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슬픔을 내가 왜 굳이 묘사해야 한단 말인가?

결국 슬픔은 필연적인 고통이라기보다 차라리 하나의 탐닉에 가까워지는 때가 온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이 마치 신성모독처럼 느껴질지언정, 그 미소마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남아 있었다. 우리는 남은 이들과 함께 삶을 이어가야 했으며, 파괴의 손길이 아직 앗아가지 않은 누군가가 곁에 남아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미뤄졌던 잉골슈타트행 결심을 나는 다시 굳혔다. 아버지께는 몇 주간의 유예를 얻어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긴 집안의 그 죽음과도 같은 고요를 뒤로하고, 곧장 삶의 소란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마치 신성모독처럼 느껴졌다. 슬픔은 내게 생소한 것이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가시지는 않았다. 나는 내 곁에 남은 이들을 차마 떠날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엘리자베스가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녀는 슬픔을 억누르며 우리 모두를 위로하려 애썼다. 삶을 정면으로 마주한 그녀는 용기와 열정을 다해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 그녀는 삼촌과 사촌이라 불러야 한다고 배운 이들에게 온 마음을 쏟았다. 미소를 머금은 채 우리에게 그 따스함을 나누어 주던 그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혹적이었다. 그녀는 우리를 위로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작 자신의 슬픔조차 잊고 있었다.

마침내 떠나는 날이 왔다. 클레르발은 마지막 저녁을 우리와 함께 보냈다. 그는 아버지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나를 따라가 동료 학생이 되고자 노력했으나, 결국 허사였다. 그의 아버지는 속이 좁은 상인이었다. 그는 아들의 포부와 야망을 그저 게으름과 파멸의 씨앗으로만 여겼다. 앙리는 폭넓은 학문을 접할 기회를 박탈당한 자신의 불운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 때마다, 나는 타오르는 그의 눈빛과 생기 넘치는 눈길 속에서 상업이라는 비참한 세부 사항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억눌려 있으나 확고한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우리는 밤늦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다. 서로에게서 마음을 떼어낼 수도 없었고, 차마 "작별"이라는 말을 내뱉을 용기도 나지 않았다. 결국 작별 인사를 나누고는 잠시 쉬려는 척하며 각자의 방으로 물러났는데, 저마다 상대방이 그 핑계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으리라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나를 떠나보낼 마차로 내려갔을 때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여 있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나를 축복해 주셨고, 클레르발은 내 손을 다시 한번 꽉 쥐어 주었다. 그리고 나의 엘리자베스는 자주 편지를 써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어린 시절 놀이 친구이자 벗이었던 나에게 마지막 여인다운 다정함을 건넸다.

나는 나를 실어 나를 마차에 몸을 던지듯 올라타 깊은 우울에 빠져들었다. 늘 다정한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려 애쓰

며 살아온 내가, 이제는 홀로 남겨진 것이다. 이제 곧 도착할 대학에서는 스스로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스스로를 지켜내야만 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은 유달리 한적하고 가정적이었기에, 낯선 얼굴들을 마주하는 일은 내게 견딜 수 없는 거부감을 주었다. 나는 형제들과 엘리자베스, 그리고 클레르발을 사랑했다. 그들은 내게 '익숙하고 정겨운 얼굴들'이었지만, 정작 나는 낯선 이들과 어울릴 자질이 전혀 없다고 믿었다.

여정을 시작할 무렵에는 이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길을 나설수록 나의 기운과 희망은 점차 살아났다. 나는 지식을 갈구하고 있었다. 집에 머물던 시절, 나는 젊은 나이에 한곳에만 갇혀 지내는 것이 고달프다고 생각하곤 했다. 세상 밖으로 나가 다른 인간들 사이에서 내 자리를 찾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제 그 염원이 이루어졌으니, 지나온 일을 후회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일 터였다.

잉골슈타트로 향하는 여정은 길고도 고단했다. 그 덕분에 나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길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마침내 마을의 높고 하얀 첨탑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마차에서 내려, 저녁 시간을 내 마음대로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독방으로 안내받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추천서를 전달하고 주요 교수들을 몇 분 찾아뵈었다. 우연,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악의적인 영향력이 나를 이끌었다. 내가 아버지의 집 문을 나서며 마지못해 발걸음을 돌린 그 순간부터, 나를 전능하게 지배하기 시작한 파멸의 천사가 나를 이끈 것이다. 그 영향력은 나를 자연철학 교수인 크렘프 씨에게로 먼저 데려갔다. 그는

거친 사람이었으나 자신의 학문적 비결에는 깊이 정통해 있었다. 그는 자연철학에 속하는 여러 과학 분야에서 내가 그동안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약간은 경멸하는 태도로 대답하며 내가 주로 공부했던 연금술사들의 이름을 언급했다. 교수는 나를 빤히 응시했다.

"자네," 교수가 말했다. "정말로 그런 터무니없는 것들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허비했단 말인가?"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단 일 분도, 단 일 초도!" 크렘프 씨가 열을 올리며 말을 이었다. "자네가 그 책들에 쏟아부은 시간은 완전히, 그리고 통째로 날려버린 것이나 다름없네. 이미 폐기된 이론들과 쓸모없는 이름들로 자네의 기억력을 낭비했을 뿐이야. 세상에! 대체 어떤 황무지에서 살았기에, 자네가 그토록 탐욕스럽게 흡수한 그 공상들이 천 년이나 된, 곰팡내 나는 옛것이라는 사실을 친절히 알려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인가? 이토록 깨어 있고 과학적인 시대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나 파라켈수스의 추종자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여보게, 자네는 공부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하네."

그는 말을 마치고 옆으로 물러나더니, 내가 구해오길 바라는 자연철학 관련 서적들을 목록으로 적어 내려갔다. 그러고는 다음 주 초부터 자연철학의 일반적인 관계에 관한 강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자신이 강의하지 않는 격일에는 동료 교수인 발트만 씨가 화학 강의를 맡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나를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실망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교수님이 비난했던 저 저자들을 나 역시 오래전부터 무용하다고 여겨왔다고 앞서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학문을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지는 않았다. 크렘프 씨는 목소리가 거칠고 인상도 불쾌한, 키가 약간 작은 체구의 사내였다. 그러한 스승의 모습은 내가 추구하는 학문에 대해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다. 아마도 내가 어린 시절 내린 결론들을 너무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으로 설명하려 한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나는 현대 자연과학 교수들이 약속하는 결과물에 만족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너무 어렸고 이 분야를 이끌어줄 인도자도 없었기에, 내 생각은 다소 혼란스러웠다. 나는 지식의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가며, 근래의 탐구자들이 이뤄낸 발견들을 잊힌 연금술사들의 꿈과 맞바꾸고 있었다. 게다가 나는 현대 자연철학의 쓰임새를 경멸했다. 과거의 학자들이 불멸과 권력을 갈구했을 때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비록 헛된 꿈일지라도 그 관점만큼은 숭고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탐구자들의 야망은 내가 과학에 매료되었던 근본적인 환상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데에만 국한된 듯 보였다. 나는 무한한 장엄함을 품은 환상들을 버리고, 가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잉골슈타트에 머문 첫 이삼일 동안 나는 이런 생각들을 했다. 그 기간에는 주로 새로운 거처 주변의 지형을 익히고 주요 이웃들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어진 한 주가 시작될 무렵, 나는 크렘프 씨가 강의에 대해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다. 그 오만하고 옹졸한 자가 강단에 서서 훈계하듯 늘어놓는 강의를 들으러 갈 마음은 도저히 생기

지 않았다. 하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발트만 씨에 대해 그가 했던 말은 기억났다. 발트만 씨는 그때까지 마을을 떠나 있었기에 나는 그를 만난 적이 없었다.

호기심 때문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할 일이 없어서이기도 했다. 나는 강의실로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트만 교수가 그곳으로 들어왔다. 이 교수는 동료 교수와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쉰 살 정도로 보였으나, 인상은 더없이 자애로웠다. 관자놀이에는 희끗한 머리카락이 몇 가닥 섞여 있었지만, 뒷머리는 거의 검은색이었다. 체구는 작았으나 자세는 놀라울 정도로 곧았고, 목소리는 내가 들어본 중 가장 감미로웠다.

그는 화학의 역사와 여러 학자가 이룩한 다양한 발전 과정을 요약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저명한 발견자들의 이름을 열정적으로 하나하나 불러 나갔다. 이어 그는 현재 화학의 발전 수준을 대략적으로 훑어본 뒤, 기초적인 용어들을 설명했다. 몇 가지 예비 실험을 마친 그는 현대 화학을 찬양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는데, 그때 그가 남긴 말은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이 학문을 연구했던 옛 스승들은 불가능한 일들을 약속하기만 했을 뿐,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소." 그가 말했다. "현대의 거장들은 약속을 크게 하지 않소. 금속을 변환할 수 없다는 사실과 불로장생의 영약이란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오. 하지만 오로지 흙을 만지기 위해 만들어진 듯한 손을 가졌고, 현미경이나 도가니만을 들여다보는 듯한 눈을 가진 이 철학자들은 참으로 기적을 행하고 있소.

그들은 자연의 깊숙한 구석까지 파고들어, 자연이 숨겨진 장소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고 있소. 그들은 하늘 높이 올라가기도 하며, 혈액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성질이 무엇인지도 밝혀냈소. 그들은 새롭고 거의 무한한 힘을 얻었소. 하늘의 천둥을 부릴 수도 있고, 지진을 흉내 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 세계의 그림자로 조롱할 수도 있게 되었단 말이오."

교수가 내뱉은 말은 이러했다. 아니, 나를 파멸시키겠다고 선언한 운명의 목소리라고 하는 편이 옳으리라.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나는 마치 내 영혼이 눈앞의 실체적인 적과 사투를 벌이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내 존재를 구성하는 기계 장치의 여러 열쇠가 하나씩 건드려지는 것 같았다. 건반이 차례로 울려 퍼지듯 내 정신은 이내 단 하나의 생각, 하나의 관념, 하나의 목적에 사로잡혔다. 프랑켄슈타인의 영혼은 외쳤다. 지금까지 이룬 것도 많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을,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해 내리라고. 이미 닦여 있는 길을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이다. 미지의 힘을 탐구하고, 창조의 가장 깊은 신비를 세상 앞에 펼쳐 보일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눈을 감지 못했다. 내 내면은 반란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다. 그 혼돈 끝에 질서가 찾아오리라는 예감은 들었으나, 그것을 만들어낼 힘이 내게는 없었다. 아침이 밝아오고 나서야 서서히 잠이 찾아왔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젯밤의 생각들은 마치 꿈결처럼 느껴졌다. 다만 예전의 학업으로 돌아가, 내게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믿는 그 학문에 전념하겠다는 결심만이 남았을 뿐이다.

같은 날, 나는 발트만 씨를 찾아갔다. 그의 사적인 태도는 공적인 자리에서보다 훨씬 더 온화하고 매력적이었다. 강의할 때 보여주던 특유의 위엄은 그의 집에서 더없이 다정한 친절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른 교수에게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내가 이전에 무엇을 공부했는지 설명했다. 그는 내 학업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다.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와 파라셀수스의 이름을 듣고는 미소를 지었지만, 크렘프 교수가 보였던 것과 같은 경멸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현대 철학자들이 지식의 토대 대부분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준 인물들이라네. 그들이 사실을 밝혀내는 데 큰 역할을 해준 도구가 되어 주었기에, 우리는 그저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그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만 하면 되는 한결 수월한 과제를 물려받은 셈이지. 천재들의 노력이란 비록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지언정, 결국 인류에게 실질적인 이득으로 돌아가지 않는 일은 거의 없다네."

나는 자만심이나 허세 없이 담담하게 이어지는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러고 나서 그의 강의 덕분에 현대 화학자들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사라졌다고 말씀드렸다. 나는 스승을 대하는 청년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겸손과 예우를 지키며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다. 동시에 앞으로 시작할 연구를 부추기던 그 뜨거운 열정만큼은 결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삶의 경험이 부족한 내가 그런 열정을 드러냈다가는 부끄러움을 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앞으로 어떤 책들을 구비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다.

"제 제자가 생겨서 참으로 기쁩니다." 발트만 교수가 말했다. "그대의 열정이 그대의 능력만큼 뒷받침된다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학은 자연철학의 여러 분야 중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분야입니다. 제가 화학을 특별히 연구해 온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과학 분야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화학이라는 지식의 영역에만 매달린다면, 결코 제대로 된 화학자가 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대가 단순히 실험이나 반복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진정한 과학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수학을 포함한 자연철학의 모든 분야를 두루 섭렵하라고 조언하고 싶군요."

그는 나를 실험실로 데려가 여러 가지 기계의 용도를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일러주며, 내가 과학적 지식을 충분히 쌓아 기계의 장치를 망가뜨리지 않을 정도가 되면 자신의 기계들도 마음껏 쓰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내가 요청했던 책 목록을 건네주었고, 나는 그만 인사를 하고 물러났다.

그렇게 내게 잊을 수 없는 하루가 저물었다. 그리고 그날은 내 앞날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제4장

그날부터 자연철학, 특히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화학이 나의 거의 유일한 일과가 되었다. 나는 현대의 탐구자들이 이 주제에 관해 써 내려간, 천재성과 통찰력이 가득한 저작들을 열정적으로 읽어 내려갔다. 대학의 강연에 참석하고 과학자들과 교류하며 친분을 쌓았다. 크렘페 씨에게서도 상당한 상식과 실질적인 지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록 그의 인상과 태도가 불쾌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진 지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발트만 씨에게서는 진정한 친구를 만났다. 그의 온화함에는 독단적인 기색이 전혀 없었으며, 가르침 또한 솔직하고 친절한 태도로 이루어져 학자 특유의 잘난 체하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았다. 그는 수만 가지 방식으로 내가 지식의 길을 순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가장 난해한 탐구 내용조차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풀어주었다.

처음에는 학업에 매진하는 태도가 기복이 있고 불확실했다. 하지만 공부를 거듭할수록 열정은 점점 강해졌다. 머지않아 나는 너무나도 열렬히 연구에 몰두한 나머지, 실험실에서 작업을 이어가는 동안 아침 빛에 별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서야 깨닫곤 했다.

학업에 이토록 몰두했으니, 나의 발전 속도가 빨랐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나의 열정은 학생들을 놀라게 했고, 나의 숙련도는 교수들을 경탄케 했다. 크렘페 교수는 종종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의 이론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내게 묻곤 했고, 발트만 씨는 나의 진보에 진심 어린 환희를 표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나는 제네바에 단 한 번도 들르지 않은 채, 간절히 바랐던 발견을 이루기 위해 온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었다. 과학이 주는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는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다른 학문은 앞서간 이들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갈 뿐이며, 그 이상의 새로운 지식을 찾기란 어렵다. 하지만 과학의 탐구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발견과 경이로움이 기다리고 있다. 평범한 지적 능력을 갖춘 이라도 한 가지 학문에 매진한다면 반드시 그 분야에서 뛰어난 숙련도에 도달하기 마련이다. 오로지 하나의 목표만을 쫓으며 그 일에만 전념했던 나는 눈부시게 성장했다. 2년이 지날 무렵, 나는 화학 기구를 개량하는 데 몇 가지 성과를 거두었고, 이 공로로 대학에서 큰 존경과 찬사를 받았다. 잉골슈타트의 교수들이 가르치는 범위 내에서 자연철학의 이론과 실무를 충분히 익혔고, 더 이상 이곳에 머무는 것이 학문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했을 때, 나는 친구들과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나의 체류는 길어지고 말았다.

내 관심을 특별히 사로잡은 현상 중 하나는 인체의 구조였다. 사실 생명이 깃든 동물이라면 그 무엇이든 마찬가지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을 던졌다. 생명의 원리는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그것은 대담한 질문이었고, 언제나 신비의 영역으로 여겨져 온 문제였다. 하지만 겁이나 부주의가 우리의 탐구를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아내기 직전에 와 있는 것일까. 나는 이러한 생각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생리학과 관련된 자연철학 분야에 더욱 전념하기로 결심했다. 만약 내게 거의 초자연적이라고 할 만큼 강렬한 열정이 없었더라면, 이 학문에 몰두하는 일은 지루하고 참기 힘든 고역이었을 것이다.

생명의 원인을 규명하려면 먼저 죽음을 마주해야만 했다. 나는 해부학을 공부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인체가 자연적으로 부패하고 썩어가는 과정 또한 관찰해야 했다. 나의 교육 과정에서 아버지는 내가 초자연적인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셨다. 그래서인지 나는 미신적인 이야기에 몸을 떨거나 유령의 출현을 두려워했던 기억이 전혀 없다. 어둠은 내 상상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나에게 공동묘원이란 그저 생명을 잃은 육신들이 머무는 장소일 뿐이었다. 한때 아름다움과 힘의 근원이었던 육신이 벌레의 먹이가 된 곳 말이다.

이제 나는 부패의 원인과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지하 묘지와 시신 안치소를 밤낮없이 드나들어야 했다. 나의 시선은 인간의 섬세한 감수성으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모든 대상에 고정되었다. 나는 인간의 고결한 형체가 어떻게 타락하고 소멸하는지 목격했다. 생기 넘치던 뺨이

죽음의 부패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고, 눈과 뇌라는 경이로운 기관을 벌레들이 차지하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나는 삶에서 죽음으로, 다시 죽음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변화 속에 나타나는 인과관계의 모든 세세한 부분들을 멈추어 서서 검토하고 분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작스러운 빛이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은 너무나 찬란하고 경이로우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명쾌했다. 그 빛이 비추는 전망의 거대함에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학문을 탐구해 온 수많은 천재들 사이에서, 어째서 오직 나만이 이토록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도록 선택받았는지 말이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미친 사람의 환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진실이라고 단언하는 이 사실은, 하늘에 해가 떠 있는 것만큼이나 명백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일지도 모르나, 그 발견에 이르는 과정은 분명했고 개연성도 있었습니다. 믿기 힘들 만큼 고된 노동과 피로가 밤낮으로 이어졌지만, 마침내 나는 생명과 탄생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생명 없는 물질에 생기를 불어넣는 능력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을 처음 마주했을 때 느꼈던 경악은 곧 환희와 황홀경으로 바뀌었다. 고통스러운 노력을 쏟아부은 끝에, 그토록 갈망하던 목표의 정점에 단숨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내 모든 수고를 보상해 주는 더할 나위 없는 결실이었다. 하지만 이 발견은 너무나 거대하고 압도적이어서, 내가 그곳에 이르기까지 거쳐온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잊혔고 오직

결과만이 내 눈앞에 선명히 보였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가장 현명한 이들이 연구하고 갈망해 온 진리가 이제 내 손안에 들어온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마법의 장면처럼 모든 것이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니었다. 내가 얻은 정보는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내가 추구하는 대상을 향해 나아갈 방향을 일러주는 지침에 가까웠다. 나는 마치 죽은 자들과 함께 매장되었다가, 희미하고 보잘것없는 빛 한 줄기에 의지해 삶으로 향하는 통로를 찾아낸 아라비아 사람과도 같았다.

내 친구여, 자네의 열망 어린 눈빛과 그 안에 서린 경이로움과 희망을 보니, 내가 알고 있는 그 비밀을 듣고 싶어 하는 모양이군. 하지만 그건 안 될 일이네. 내 이야기를 끝까지 인내심 있게 들어주게나. 그러면 내가 왜 그 주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지 자연스레 깨닫게 될 걸세. 당시의 나처럼 무방비 상태로 열정에 사로잡힌 자네를, 파멸과 피할 수 없는 비극으로 이끌 수는 없네.

내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의 사례를 통해서라도 부디 배우게나. 지식을 얻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자신의 본성이 허락하는 것보다 더 거대한 존재가 되려 갈망하는 사람보다, 자신이 태어난 마을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으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더 행복한지를 말일세.

내 손에 이토록 놀라운 힘이 쥐어졌음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 힘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할지 두고 오랫동안 망설였다. 생명을 불어넣을 능력은 갖추었으나, 그 생명이 깃들 수 있도록 섬세한 섬유와 근육,

혈관이 얽힌 신체 구조를 만드는 일은 여전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고된 작업이었다. 처음에는 나처럼 복잡한 존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구조가 더 단순한 존재를 만들 것인지 고민했다. 하지만 첫 성공으로 고양된 나의 상상력은, 인간처럼 복잡하고 경이로운 생명체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내 능력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현재 내가 가진 재료만으로는 이 험난한 과업을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였으나, 결국에는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나는 수많은 역경이 닥칠 것임을 각오했다. 작업은 끊임없이 방해받을 수도 있고, 결국 불완전한 결과물로 끝날지도 몰랐다. 하지만 매일같이 발전하는 과학과 기계 기술을 생각하면, 지금의 시도가 적어도 미래의 성공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또한 계획의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근거가 될 수도 없었다. 나는 이런 마음을 품은 채 인간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부품들이 너무나 미세하여 작업 속도가 더뎌지자, 나는 처음 의도와는 달리 피조물을 거대한 체구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즉, 키를 8피트 정도로 하고 그에 맞춰 몸집도 아주 크게 만들기로 한 것이다. 결심을 굳히고 몇 달 동안 재료를 성공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한 뒤, 나는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성공의 첫 열광 속에서, 폭풍처럼 나를 몰아붙였던 그 복잡한 감정들을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게 삶과 죽음은 넘어서야 할 관념적인 경계에 불과했다. 나는 그 경계를 처음으로 허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의 줄기를 쏟아붓고 싶었다. 새로운 종이 창조주이자 근원인 나를 찬양할 것이며, 수많은 행복하고 고결한 존재들이 나 덕분에 생명을 얻게 되리라 믿었다. 그 어떤 아버지도 내가 그들의 감사를 받

아 마땅한 만큼 온전하게 제 자식의 감사를 받을 수는 없으리라. 이러한 생각에 잠겨, 나는 만약 생명 없는 물질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죽음이 육신을 부패로 몰아넣은 곳에서도 생명을 되살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비록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말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내가 쉼 없는 열정으로 연구를 이어가는 동안 정신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 되었다. 학문에 몰두하느라 뺨은 창백해졌고, 외부와 단절된 생활 탓에 몸은 수척해졌다. 때로는 확신에 거의 다다랐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실패하곤 했다. 하지만 나는 다음 날, 혹은 다음 시간 안에 그 희망이 실현될지도 모른다는 믿음에 여전히 매달렸다. 오직 나만이 간직한 비밀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바친 그 희망뿐이었다. 달빛만이 나의 한밤중 노동을 지켜보았고, 나는 숨 가쁜 열망을 늦추지 않은 채 자연의 은밀한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무덤의 불경한 습기 속을 헤집고 다니거나, 생명 없는 진흙에 생기를 불어넣으려 살아있는 동물을 고문했던 나의 비밀스러운 노고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내 사지는 떨리고 눈앞은 아찔해진다. 하지만 당시의 나는 거부할 수 없는, 거의 광기에 가까운 충동에 휩쓸려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이 단 하나의 목표를 제외하면, 나는 영혼도 감각도 모두 잃어버린 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때 스쳐 지나가는 무아지경에 불과했다. 그 비정상적인 자극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아 내가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무아지경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새삼 더 예민하게 느끼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유골 안치소에서 뼈를 모았고, 불경한 손길로 인체의 거대한 비밀을 파헤쳤다. 복도와 계단으로 다른 방들과 격리된 집 꼭대기의 외딴 방, 아니 차라리 독방에 가까운 그곳에서 나는 추잡한 창조를 위한 작업실을 꾸렸다. 작업에 몰두하느라 눈알이 안와 밖으로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해부실과 도살장은 내 연구의 재료를 공급해 주는 곳이었다.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혐오감에 휩싸여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할 때도 많았지만, 끊임없이 커져만 가는 열망에 떠밀려 나는 결국 작업을 마무리 단계로 이끌었다.

나는 오로지 한 가지 일에 온 마음과 영혼을 쏟으며 여름을 보냈다. 그해 여름은 더없이 아름다운 계절이었다. 들판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수확을 선사했고 포도덩굴은 유례없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지만, 내 눈에는 자연의 그 어떤 아름다움도 들어오지 않았다. 주변의 풍경을 돌보지 못하게 만든 그 몰입은, 멀리 떨어져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들조차 잊게 만들었다. 나의 침묵이 그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네가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지내는 동안에는 우리를 애틋하게 떠올릴 것이고, 소식도 꾸준히 전해주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다만 네 편지가 끊기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네가 다른 의무들 역시 똑같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로 여길 터이니, 그리 여기더라도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그렇기에 나는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이실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도무지 작업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 일 자체는 혐오스러운

것이었으나, 이미 내 상상력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사로잡은 뒤였다. 나는 마치 내 본연의 모든 습관을 집어삼켜 버린 그 거대한 목적을 완수할 때까지, 애정 어린 감정과 관련된 모든 일을 뒤로 미뤄두고 싶을 뿐이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아버지가 나의 태만을 두고 내가 부도덕하거나 결함이 많다고 비난하신다면 그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결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아버지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신한다. 완벽한 인간이라면 언제나 차분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야 하며, 격정이나 일시적인 욕망이 그 평온을 깨뜨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지식을 추구하는 일 또한 이 규칙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만약 당신이 몰두하는 학문이 당신의 애정을 약화시키고,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일 수 없는 순수한 즐거움에 대한 감각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 학문은 분명 부당한 것이다. 즉, 인간의 정신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뜻이다. 만약 사람들이 이 규칙을 항상 지켰더라면, 즉 그 어떤 추구하는 일도 가정의 평온한 애정을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는 노예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카이사르도 조국에 해를 끼치지 않았을 것이다. 아메리카 대륙은 더 점진적으로 발견되었을 것이며, 멕시코와 페루의 제국들도 파괴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 이야기가 가장 흥미진진한 대목에 이르렀는데, 내가 너무 도덕적인 훈계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었군요. 당신의 표정을 보니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야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편지에서 나를 비난하지 않으셨다. 다만 이전보다 더 자세히 내 근황을 물으심으로써, 내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셨을 뿐이다. 겨울과 봄, 그리고 여름이 내 작업과 함께 흘러갔다. 하지만 나는 꽃이 피어나거나 잎이 무성해지는 광경을 살필 겨를이 없었다. 예전 같으면 무엇보다 큰 기쁨을 주었을 그 풍경들에, 나는 내 일에 너무나 깊이 몰두해 있었다.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그해의 잎들이 이미 다 시들어 버렸고, 매일같이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일을 해냈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열정은 불안감에 가로막혔다. 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예술가라기보다, 광산이나 다른 해로운 업종에서 노역에 매이도록 운명지어진 노예처럼 보였다. 밤마다 서서히 달아오르는 열병에 시달렸고, 신경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날카로워졌다. 낙엽 하나가 떨어지는 소리에도 깜짝 놀랐으며,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동족들을 멀리했다. 때로는 내가 망가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다. 오직 목표를 향한 의지만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작업은 곧 끝날 것이었다. 적당한 운동과 즐거움을 찾으면 이 초기 증상 같은 병도 물러갈 것이라 믿었다. 나는 피조물을 완성하는 날, 반드시 그 두 가지를 실천하겠노라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제5장

내가 공들여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은 어느 우울한 11월 밤이었다. 나는 고통에 가까운 불안을 느끼며 내 주변에 생명의 도구들을 모았다. 발치에 놓인 생기 없는 존재에게 생명의 불꽃을 불어넣기 위해서였다. 이미 새벽 한 시를 넘긴 시각이었다. 창문에는 비가 쓸쓸하게 두드리고 있었고, 촛불은 거의 다 타들어 가고 있었다. 그때 꺼져가는 희미한 불빛 사이로 피조물의 탁한 노란 눈이 떠지는 것이 보였다. 피조물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고, 경련하듯 사지를 떨었다.

이 참혹한 재앙 앞에서 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토록 무한한 고통과 정성을 쏟아 만들어 내려 했던 그 가련한 존재를 대체 어떻게 묘사해야 한단 말인가. 사지의 비율은 적절했고, 이목구비 또한 아름답게 골라 만들었다. 아름답게! 세상에, 신이시여! 누르스름한 피부는 그 아래 꿈틀거리는 근육과 혈관을 겨우 가리고 있을 뿐이었다. 머리카락은 윤기 나는 검은색으로 길게 흘러내렸고, 치아는 진주처럼 하얗게 빛났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함은 오히려 그의 눈과 더욱 끔찍한 대조를 이룰 뿐이었다. 물기가 어린 그 눈은 눈을 담고 있는 칙칙한 흰

빛 안와와 거의 같은 색으로 보였고, 쪼글쪼글한 안색과 일자로 곧게 뻗은 검은 입술은 더욱 기괴함을 더했다.

삶의 여러 우연한 사건들은 인간 본성의 감정만큼이나 변덕스럽지는 않다. 나는 생명 없는 몸에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거의 2년 동안 고된 노동을 이어왔다. 이를 위해 나는 휴식과 건강마저 포기했다. 절도를 훨씬 넘어선 열정으로 그 일을 갈망했으나, 막상 일을 마치고 나니 꿈의 아름다움은 사라져 버렸다. 대신 숨 막히는 공포와 혐오감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내가 창조한 존재의 모습을 차마 견딜 수 없었던 나는 방을 뛰쳐나왔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잠을 청하려 애썼지만, 한동안 침실을 서성일 뿐이었다. 마침내 격렬했던 소란이 지나가고 무력감이 찾아왔다. 나는 잠시라도 망각의 세계에 빠져보고자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몸을 던졌다. 하지만 허사였다. 잠들기는 했으나 온갖 기괴한 꿈이 나를 괴롭혔다. 꿈속에서 나는 건강한 모습으로 잉골슈타트 거리를 걷고 있는 엘리자베스를 보았다. 기쁨과 놀라움에 나는 그녀를 껴안았다. 그러나 그녀의 입술에 첫 입맞춤을 남기는 순간, 입술은 죽음의 빛깔로 창백하게 변했다. 그녀의 이목구비가 변해가는 듯하더니, 나는 내 품에 안긴 것이 죽은 어머니의 시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몸은 수의에 싸여 있었고, 플란넬 천의 주름 사이로 무덤 벌레들이 기어 다니는 것이 보였다.

나는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어났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이가 맞부딪히며 떨렸으며, 온몸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때 창문 덧창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희미하고 노란 달빛 아래에서, 나는 그 가련한 존재, 즉 내가 창조한 비참한 괴물을 목격했다. 그가 침대 커튼을

걷어 올리고 있었다. 눈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의 눈은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고, 뺨에는 비죽거리는 미소가 주름을 만들었다. 그가 무언가 말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듣지 못했다. 한 손을 뻗어 나를 붙잡으려는 듯 보였으나, 나는 그를 피해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갔다. 나는 내가 살던 집의 안뜰로 도망쳐 밤이 다 지나도록 그곳에 머물렀다. 극도의 불안 속에서 안뜰을 이리저리 서성이며 귀를 기울였다. 나는 모든 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두려워했다. 마치 그 소리들이, 내가 그토록 비참하게 생명을 불어넣은 저 악마 같은 시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아, 그 형상을 마주하고도 버텨낼 수 있는 필멸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생명을 얻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미라라 할지라도, 그 비참한 존재만큼 흉측하지는 않았으리라. 나는 그가 미완성 상태였을 때도 지켜보았었다. 그때도 추했지만, 근육과 관절이 움직일 수 있게 되자 그 모습은 단테조차 상상하지 못했을 법한 무언가로 변해버렸다.

나는 비참하게 밤을 지새웠다. 때로는 맥박이 너무 빠르고 거칠게 뛰어서 온 몸의 동맥이 요동치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고, 또 어떤 때는 기력이 다하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질 뻔하기도 했다. 이 공포와 더불어 실망감의 쓰라림이 밀려왔다. 오랫동안 나를 지탱해 준 양식이었고 달콤한 휴식이었던 꿈들이, 이제는 나에게 지옥이 되어버렸다. 그 변화는 너무나 급격했고, 몰락은 너무나도 철저했다!

우울하고 축축한 아침이 마침내 밝아왔다. 잠을 이루지 못해 아픈 내 눈에 잉골슈타트의 교회와 그 하얀 첨탑, 그리고 여섯 시를 가리키는 시계가 들어왔다. 문지기가 그날 밤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안뜰의 문을 열었다. 나는 거리로 나섰다. 길모퉁이를 돌 때마다 그 불쌍한 존재와 마주칠까 두려워, 마치 그를 피하려는 듯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가로질러 걸었다. 내가 머물던 방으로 다시 돌아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검고 암울한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에 온몸이 흠뻑 젖어 들어갔지만, 나는 그저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나는 한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 걸었다. 몸을 움직여 마음을 짓누르는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 애쓰면서 말이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맸다. 공포로 인한 병적인 두근거림이 심장을 압박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불규칙한 발걸음으로 서둘러 나아갔다.

외딴 길을 걷는 이와 같도다.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채 발을 내딛다가, 한 번 뒤를 돌아본 뒤에는 다시는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계속 걸어가는 이와 같도다. 무시무시한 악마가 바로 뒤를 바짝 뒤쫓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로다.

[콜리지의 「노수부(老水夫)」]

그렇게 계속 나아가다 보니, 마침내 여러 마차와 역마차가 정기적으로 멈춰 서는 여관 맞은편에 다다랐다. 나는 왠지 모를 이끌림에 그곳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길 건너편에서 나를 향해 달려오는 마차 한 대를 멍하니 바라보며 몇 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 마차가

가까워지자 그것이 스위스에서 온 역마차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마차는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자 앙리 클레르발이 보였고, 나를 발견한 그는 즉시 마차 밖으로 뛰어내렸다.

"나의 친애하는 프랑켄슈타인!" 그가 외쳤다. "자네를 만나다니 정말 기쁘네! 내가 막 내리는 이 순간에 자네가 이곳에 있다니, 이 얼마나 운이 좋은 일인가!"

클레르발을 다시 만난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그가 곁에 있자 아버지와 엘리자베스, 그리고 기억 속에 소중히 남아 있는 고향의 정겨운 풍경들이 다시금 떠올랐다. 나는 그의 손을 꽉 맞잡았다. 그 순간, 나를 짓누르던 공포와 불행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지난 수개월 동안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한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나는 진심을 다해 친구를 환영하며 함께 대학을 향해 걸었다.

클레르발은 한동안 우리의 공통된 친구들 이야기와, 잉골슈타트까지 올 수 있게 된 자신의 행운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내 말을 믿어주겠나?" 클레르발이 말했다. "회계라는 고귀한 기술만 익히면 필요한 지식은 충분하다고 믿으시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야. 사실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믿지 않으셨던 것 같아. 내가 끈질기게 간청할 때마다 아버지는 소설 『웨이크필드의 목사』에 나오는 네덜란드 학교 선생처럼 늘 똑같이 대답하셨거든. '그리스어를 몰라도 일 년에 만 플로린을 버는데, 그리스어를 몰라도 배불리 먹는 데 아무 지장 없다'라고 말이야. 하지만 결국 나를 향한 아버지

의 애정이 배움에 대한 거부감을 이겨내셨고, 덕분에 나는 지식의 세계를 탐험하는 여정을 떠날 수 있게 되었네."

"자네를 다시 만나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네. 하지만 말해 주게.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어떤 모습으로 두고 왔는지."

"모두 아주 잘 지내고, 더없이 행복하다네. 다만 자네 소식을 워낙 가끔 듣다 보니 조금 걱정하고 있을 뿐이지. 아, 참, 그 일이라면 내가 직접 그들을 대신해 자네에게 잔소리를 좀 해야겠네. 하지만, 나의 친애하는 프랑켄슈타인," 그는 말을 멈추고 내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자네 안색이 이토록 나빠 보이는 줄은 전에는 미처 몰랐네. 어찌나 수척하고 창백한지, 마치 며칠 밤을 꼬박 새운 사람 같군."

"짐작이 맞았네. 자네도 보다시피, 최근 한 가지 일에 너무 깊이 몰두한 나머지 충분한 휴식조차 취하지 못했다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났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네. 드디어 자유를 얻기를 말이야."

나는 몸을 심하게 떨었다. 지난밤에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는 것조차, 아니 입에 올리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걸음을 재촉했고, 우리는 곧 나의 대학에 도착했다. 그러다 문득 내가 방에 남겨두고 온 피조물이 아직 그곳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다. 나는 이 괴물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앙리가 그를 보게 될까 봐 더욱 겁이 났다. 나는 앙리에게 계단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뒤, 내 방을 향해 급히 뛰어 올라갔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손이 문 잠금장치에 닿아 있

었다. 나는 잠시 멈춰 섰고, 온몸에 차가운 전율이 일었다. 마치 아이들이 문 뒤에 유령이 기다리고 있을까 봐 겁을 내면서도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듯, 나도 문을 힘껏 밀어 열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겁에 질린 채 발을 들여놓았다. 방은 비어 있었고, 침실에서도 그 끔찍한 손님은 사라진 상태였다. 내게 이토록 큰 행운이 찾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적이 정말로 도망쳤다는 확신이 들자 나는 기뻐서 손뼉을 치며 클레르발에게 달려 내려갔다.

우리는 내 방으로 올라갔고, 곧 하인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다. 하지만 나는 도저히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다. 단순히 기쁨에 휩싸인 것만이 아니었다. 온몸의 신경이 과도하게 예민해져 살갗이 떨리는 듯했고, 맥박은 거세게 요동쳤다. 단 한 순간도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의자 위를 뛰어넘고 손뼉을 치며 크게 소리 내어 웃었다. 클레르발은 처음에는 나의 이런 이례적인 활기가 자신의 도착을 반기는 기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를 더 주의 깊게 살피던 그는 내 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광기를 발견했다. 또한 절제 없이 터져 나오는 나의 거친 웃음소리에 그는 겁을 먹으며 경악했다.

"나의 친애하는 빅터," 그가 외쳤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제발 부탁이니 그렇게 웃지 말게. 몸 상태가 왜 이리 좋지 않은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이란 말인가?"

"내게 묻지 말게!" 나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린 채 비명을 질렀다. 그 공포스러운 망령이 방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것을 본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놈이 말해 줄 거야. 오, 날 살려줘! 살려줘!" 괴물이 나

를 움켜쥐는 환각이 보였다. 나는 격렬하게 몸부림치다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가여운 클레르발! 그가 느꼈을 감정은 대체 어떠했을까? 그토록 기쁘게 기다려온 만남이 이토록 기이하고도 비통하게 변해버리다니. 하지만 나는 그의 슬픔을 지켜볼 수 없었다. 나는 생기를 잃은 채 아주 오랫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신경성 열병이 나를 덮쳤고, 나는 그 병으로 몇 달 동안이나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누워 있어야 했다. 그 기간 내내 앙리만이 나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앙리는 나의 병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족에게 숨겼다.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셔서 그 긴 여정을 견디기 힘드셨고, 나의 병이 엘리자베스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와 엘리자베스가 겪을 슬픔을 덜어주고자 병의 깊이를 감추기로 결심했다. 앙리는 자신보다 더 친절하고 세심하게 나를 돌볼 사람은 없으리라 믿었다. 또한 내가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자신의 행동이 그들에게 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최선의 배려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실제로 매우 위독한 상태였다. 친구가 보여준 끝없고 끊임없는 정성만이 나를 다시 삶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으리라. 내가 생명을 불어넣었던 그 괴물의 형상이 눈앞에 끊임없이 아른거렸고, 나는 그에 대해 쉴 새 없이 횡설수설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나의 말은 앙리 클레르발을 놀라게 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내 말이 그저 불안정한 상상

이 만들어낸 망상이라고 믿었겠지만, 내가 같은 주제를 집요하게 반복하자 그는 내 병세가 정말로 어떤 기이하고도 끔찍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클레르발," 나는 외쳤다. "자네는 어찌 이리도 친절하고 너그러운가. 자네는 스스로 공부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정작 이번 겨울 내내 공부 대신 내 병실을 지키며 시간을 보냈지 않은가.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자네의 계획을 망쳐놓은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죄스러울 따름이지만, 자네라면 분명 나를 용서해 주리라 믿네."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최대한 빨리 기운을 차려야 나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네. 자네가 아주 밝아 보이는 걸 보니,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겠나?"

나는 몸을 떨었다. 단 하나의 주제라니! 대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혹시 내가 감히 떠올리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그 존재를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진정하게." 내 안색이 변하는 것을 눈치챈 클레르발이 말했다. "자네를 불안하게 만든다면 더는 말하지 않겠네. 하지만 자네가 직접 쓴 편지를 받는다면 아버지와 사촌 누이도 무척 기뻐할 거야. 그들은 자네가 얼마나 앓았는지 거의 모르고 있거든. 자네가 오랫동안 소식이 없으니 무척 걱정하고 있네."

"그게 전부인가, 사랑하는 앙리?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그 소중한 친구들에게 내 첫 마음이 달려가지 않을 거라고 어찌 생각했나?"

"친구여, 지금 마음 상태가 정녕 그러하다면, 며칠 전부터 여기 놓여 있던 편지를 보고 기운을 차릴지도 모르겠군. 자네 사촌이 보낸 편지인 것 같네."

제6장

클레르발은 내 손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건넸다. 엘리자베스가 내게 보낸 편지였다.

"사랑하는 사촌에게,

"당신은 앓아누웠어요. 아주 심하게요. 다정하고 친절한 앙리 클레르발이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오지만, 그 편지들만으로는 당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안심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당신은 글을 쓰는 것도, 펜을 잡는 것도 금지된 상태죠. 하지만 사랑하는 빅터,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려면 당신이 직접 써 내려간 한 마디가 꼭 필요해요.

오랫동안 저는 우편물이 올 때마다 당신의 소식이 담긴 이 한 줄을 기다려 왔어요. 당신이 곧 나을 거라는 믿음 덕분에, 삼촌께서 잉골슈타트까지 직접 가시려는 것을 겨우 말릴 수 있었지요. 삼촌께서 그 먼 길을 오가며 겪으실 불편함과 어쩌면 마주할지도 모를 위험을 막아낸 셈이지만, 정작 제가 직접 그 길을 떠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병수발을 드는 일이 돈만 밝히는 늙은 간병인에게 맡겨져 있을 거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 노인은 당신의 바람이 무엇인지 결코 헤아리지 못할 테고, 불쌍한 사촌인 저처럼 애정과 정성을 다해 보살펴 줄 수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다 지나간 일이지요. 클레르발의 편지에 따르면 당신이 정말로 호전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당신이 직접 쓴 친필로 이 소식이 사실임을 곧 확인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서 몸을 회복해서 우리 곁으로 돌아오세요. 당신이 돌아오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친구들과 행복하고 화기애애한 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건강은 아주 정정하시답니다. 아버지는 그저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실 뿐, 당신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실 뿐이에요. 그것만 확인되면 아버지의 자애로운 얼굴에 근심이 서릴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우리 에르네스트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당신이 직접 보면 정말 기뻐할 텐데요! 이제 열여섯 살이 된 에르네스트는 아주 활기차고 생기가 넘쳐요. 그 아이는 진정한 스위스인이 되어 외국 군대에 들어가 복무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애의 형인 당신이 우리 곁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아이를 보낼 수가 없어요. 삼촌께서는 아이가 먼 타국에서 군인의 길을 걷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에르네스트는 당신처럼 학문에 몰두하는 재능이 없답니다. 그 아이는 공부를 지긋지긋한 속박처럼 여기거든요. 그저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며 언덕을 오르거나 호수에서 노를 젓곤 하지요. 우리가 아이의 뜻을 꺾지

않고 원하는 직업을 갖도록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아이가 게으름뱅이가 될까 봐 걱정이에요."

당신이 우리 곁을 떠난 뒤로, 사랑하는 아이들이 자란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푸른 호수와 눈 덮인 산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온한 집과 만족스러운 마음 또한 그와 같이 변치 않는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소한 일들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 즐거움이며, 애쓰는 보람은 제 주변을 둘러싼 행복하고 다정한 얼굴들을 마주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떠난 후, 우리 작은 가정에 단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쥐스틴 모리츠가 우리 가족이 된 것이 어떤 계기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마 기억하지 못하실 테니, 그녀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인 모리츠 부인은 네 아이를 둔 과부였는데, 쥐스틴은 그중 셋째였습니다. 이 아이는 늘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으나, 어머니는 이상할 정도로 쥐스틴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모리츠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는 쥐스틴을 매우 모질게 대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 숙모님은 쥐스틴이 열두 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를 설득하여 아이가 우리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공화제 제도는 주변의 거대한 군주국들보다 더 소박하고 행복한 풍습을 만들어냈습니다. 덕분에 계층 간의 격차도 적습니다. 하층민들도 아주 가난하거나 멸시받는 처지가 아니기에, 그들의 예절은 더 세련되고 도덕적입니다. 제네바의 하인이 프랑스나 영국의 하인과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

족의 일원이 된 쥐스틴은 하인의 직무를 배웠습니다. 우리처럼 운 좋은 나라에서 하인이라는 신분은 무지함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쥐스틴은 당신이 무척 아끼던 아이였지요. 당신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쥐스틴을 한 번 바라보기만 하면 금세 기분이 풀린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리오스토가 안젤리카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며 썼던 말처럼, 쥐스틴은 워낙 솔직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숙모님은 쥐스틴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셨고, 그 마음 덕분에 쥐스틴에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쥐스틴은 그 은혜를 충분히 갚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마움을 아는 아이였거든요. 쥐스틴이 입 밖으로 직접 고마움을 표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 자신을 돌봐준 숙모님을 거의 숭배하다시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쥐스틴은 성격이 밝고 여러 면에서 생각이 깊지 못한 구석도 있었지만, 숙모님의 몸짓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며 따랐습니다. 쥐스틴은 숙모님을 모든 미덕의 본보기로 여겼고, 숙모님의 말투와 행동을 닮으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쥐스틴을 볼 때면 숙모님이 자주 떠오르곤 합니다."

사랑하는 숙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두가 각자의 슬픔에 빠져 있느라 가련한 쥐스틴에게는 눈길조차 돌리지 못했습니다. 쥐스틴은 숙모님이 병석에 계시는 동안 지극한 정성으로 곁을 지켰던 아이였습니다.

가련한 쥐스틴은 몸도 몹시 좋지 않았으나, 그녀에게는 그보다 더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들과 언니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방치된 딸 하나만을 남겨둔 채 자식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아이들이 죽어 나가는 것이 편애를 저지른 자신을 벌하기 위한 하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그녀에게 고해성사를 맡았던 신부 또한 그녀가 품은 그 생각을 뒷받침해 주었다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잉골슈타트로 떠나고 몇 달 뒤, 참회하는 어머니의 부름을 받은 쥐스틴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여운 아이! 우리 집을 떠날 때 쥐스틴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숙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아이는 몰라보게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생기 넘치는 모습이 특징이었으나, 슬픔을 겪으며 성품은 부드럽고 상냥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집에서 지내는 생활도 아이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 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참회하는 과정에서도 마음이 몹시 불안정했습니다. 때로는 쥐스틴에게 자신의 불친절함을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다가도, 훨씬 더 자주 쥐스틴 때문에 오빠들과 언니가 죽었다며 아이를 탓하곤 했습니다. 끊임없는 괴로움 끝에 결국 모리츠 부인은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신경질적인 증상이 심해지더니, 이제는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부인은 지난 겨울이 시작될 무렵, 날씨가 처음으로 추워지던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쥐스틴은 이제 막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에게 약속하건대, 나는 아이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쥐스틴은 매우 영리하고 온순하며 무척 아름답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아이의 태도와 표정은 볼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숙모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촌, 우리 귀여운 윌리엄에 대해서도 당신에게 몇 마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도 이 아이를 꼭 봤으면 좋겠어요. 또래보다 키가 아주 크고, 웃을 때면 달콤함이 묻어나는 푸른 눈동자에 검은 속눈썹, 그리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가졌거든요. 아이가 미소 지을 때면 건강한 혈색이 도는 양 볼에 작은 보조개가 두 개씩 쏙 들어간답니다. 벌써 '아내'라고 부를 만한 아이가 한두 명 있긴 하지만, 다섯 살 된 예쁜 여자아이 루이즈 비롱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예요."

"자, 사랑하는 빅터, 제네바의 선량한 사람들에 관한 소소한 소문을 듣고 싶어 하겠지요. 예쁜 맨스필드 양은 곧 있을 결혼을 축하받고 있어요. 신랑은 존 멜버른이라는 젊은 영국인이라더군요. 그녀의 못생긴 동생 마농은 지난 가을, 부유한 은행가 뒤비야르 씨와 결혼했어요. 당신이 아끼던 학창 시절 친구 루이 마누아르는 클레르발이 제네바를 떠난 뒤로 여러 차례 불행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기운을 차렸고, 곧 생기 넘치고 아름다운 프랑스 여인 타베르니에 부인과 결혼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녀는 과부인 데다 마누아르보다 나이도 훨씬 많지만,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는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에요."

“사랑하는 사촌, 글을 쓰다 보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하지만 편지를 마무리하려니 다시 불안한 마음이 밀려드네요. 빅터, 제발 답장

을 써 주세요. 단 한 줄이라도, 아니 단 한 마디라도 좋으니 소식을 전해준다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거예요. 앙리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해 주세요. 그가 보여준 친절과 애정, 그리고 보내준 수많은 편지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럼 이만 작별을 고할게요, 사촌. 몸조심하세요. 그리고 간절히 부탁하건대, 꼭 답장을 써 주세요!"

"엘리자베스 라벤차."

"제네바, 17—년 3월 18일."

"아,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그녀의 편지를 다 읽은 나는 외쳤다. "당장 답장을 써서 그들이 느끼고 있을 불안을 덜어주어야겠어." 나는 곧바로 글을 써 내려갔다. 무언가에 집중하는 일은 나를 몹시 지치게 했으나, 회복은 이미 시작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보름 정도가 더 지나자 나는 방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기력을 회복한 뒤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클레르발을 대학의 여러 교수에게 소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는 마음의 상처에 어울리지 않는 가혹한 대우를 받아야만 했다. 내 노력이 끝난 그 운명적인 밤, 그리고 내 불행이 시작된 그날 이후로 나는 자연철학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격렬한 혐오감을 느꼈다. 몸은 거의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화학 실험 기구만 보면 신경증으로 인한 고통이 다시금 되살아났다. 앙리는 이 사실을 알아채고 내 시야에서 실험 기구들을 모두 치워 주었다. 그는 내가 예전에 실험실로 쓰던 방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점을 눈치채고 내 방을 옮겨 주기도 했다.

그러나 교수들을 방문할 때면 클레르발의 이런 배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발트만 씨는 내가 과학 분야에서 이룬 놀라운 성취를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칭찬했는데, 그 칭찬은 내게 고문과도 같았다. 그는 곧 내가 그 주제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짐작하지 못한 채, 나의 반응을 그저 겸손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대화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눈치였고, 화제를 나의 성취에서 과학 그 자체로 돌렸다.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는가? 그는 나를 기쁘게 해 주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가 건네는 말들은 마치 나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죽음으로 몰아넣을 도구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내 눈앞에 갖다 놓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몸서리쳤지만, 차마 고통을 내색할 수는 없었다.

타인의 감정을 예리하게 살피는 눈과 마음을 가진 클레르발은, 자신이 아는 것이 전혀 없다는 핑계를 대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 주었다. 덕분에 대화는 일반적인 주제로 흘러갔다. 나는 친구에게 마음 깊이 고마움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당황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보였으나, 그는 결코 내 비밀을 캐내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한계 없는 애정과 경외심으로 사랑했지만, 자꾸만 떠오르는 그 사건을 그에게 털어놓을 용기는 끝내 내지 못했다. 그 일을 상세히 말해버리면 오히려 그 기억이 내 마음속에 더 깊이 각인될 것만 같아 두려웠기 때문이다.

크렘프 씨는 그만큼 유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당시 나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예민해진 상태였기에, 그의 거칠고 무뚝뚝한 칭찬은 발트만 씨의 자애로운 승인보다도 내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빌어먹을 친구 같으니!" 그가 외쳤다. "클레르발 씨, 장담컨대 그 친구는 우리 모두를 앞질렀소. 그래요, 마음껏 쳐다보시오. 하지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복음서만큼이나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를 굳게 믿던 어린 학생이, 이제는 대학의 선두에 서게 되었단 말이오. 만약 그를 곧바로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체면을 구기게 될 거요. 아, 아……."

고통이 역력한 내 표정을 살피며 그가 말을 이었다. "프랑켄슈타인 씨는 겸손하구려. 젊은이에게는 아주 훌륭한 자질이지. 클레르발 씨,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낮출 줄 알아야 하는 법이라오. 나 역시 젊었을 때는 그랬지. 하지만 그런 성품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지기 마련이라오."

크렘프 씨는 이제 자기 자신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그 덕분에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화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클레르발은 자연과학에 대한 나의 취향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그의 문학적 관심사 또한 내가 몰두했던 분야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동양 언어를 완벽히 마스터하겠다는 계획을 품고 대학에 왔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스스로 설계한 삶의 경로를 열어가고자 했다. 결코 보잘것없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는, 자신의 진취적인 기상을 펼칠 수 있는 동양으로 눈을 돌렸다. 페르시아어와 아랍어, 그리고 산스크리트어가 그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나 역시 자연스럽게 그 공부에 뛰어들게 되었다. 나는 늘 빈둥거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깊은 사색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고 이전의 학문들이 싫증 나던 차에,

친구와 함께 학우가 된 것은 커다란 위안이 되었다. 동양 학자들의 저작을 읽으며 나는 배움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식까지 얻었다. 다만 나는 클레르발처럼 그 언어들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려 들지는 않았다. 그저 잠시 즐거움을 얻는 용도 외에는 다른 쓸모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 읽었을 뿐인데, 그 책들은 나의 수고에 충분한 보답을 해주었다. 동양 문학의 우울함은 마음을 달래주었고, 그 기쁨은 고양시켜 주었다. 다른 나라의 저술을 공부할 때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감흥이었다. 그들의 글을 읽다 보면, 삶이란 따스한 햇살과 장미 정원, 그리고 아름다운 적이 보여주는 미소와 찌푸린 얼굴, 그리고 자신의 심장을 태워버리는 불꽃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스와 로마의 강인하고 영웅적인 시들과는 참으로 대조적이었다.

이러한 일들에 몰두하며 여름이 지나갔고, 나는 가을 끝자락에 제네바로 돌아가기로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여러 차례 예기치 못한 사고가 겹치며 발이 묶이고 말았다. 겨울이 찾아와 눈이 내리자 길마저 끊겨버렸고, 결국 나의 여정은 이듬해 봄까지 지체되었다. 고향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간절히 보고 싶었기에, 나는 이 지연을 몹시 괴롭게 느꼈다. 사실 나의 귀환이 이토록 늦어진 것은, 클레르발이 낯선 곳에서 현지인들과 안면을 트기도 전에 그를 홀로 두고 떠나고 싶지 않았던 마음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겨울은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봄은 유난히 늦게 찾아왔지만, 막상 봄이 왔을 때 그 아름다움은 기다림의 지루함을 모두 보상해주고도 남았다.

5월이 이미 시작되었다. 언제쯤 편지가 올지, 편지를 받으면 언제 떠날지 매일같이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때 앙리 클레르발이 제안을 하나 해왔다. 잉골슈타트 근교를 따라 도보 여행을 떠나자는 것이었다. 내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 땅에 직접 작별 인사를 건넬 기회를 만들어 주려는 배려였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평소 운동하는 것을 즐기기도 했거니와, 고향의 풍경을 찾아 떠나는 이런 나들이에는 언제나 클레르발이 나의 가장 친한 동행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산책을 하며 보름간을 보냈다. 나의 건강과 기운은 이미 오래전에 회복된 상태였는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여정 중에 마주하는 자연스러운 일상들을 즐기며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기운은 더욱 더 솟구쳤다. 이전까지 학문에만 몰두하느라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성도 잃은 상태였다. 하지만 클레르발은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선한 감정들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내가 다시금 대자연의 모습과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훌륭한 친구여! 당신은 얼마나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었는가. 그리고 당신의 고결한 정신과 나란히 설 수 있을 때까지 내 마음을 드높이려 얼마나 애써 주었는가. 이기적인 탐구에 매몰되어 나의 세계는 좁고 답답하게 갇혀 있었으나, 당신의 다정함과 애정이 내 감각을 깨우고 따스하게 녹여 주었다. 나는 몇 년 전, 모두에게 사랑받고 또 사랑하며 아무런 슬픔이나 근심 없이 지내던 그 행복한 사람으로 돌아갔다.

마음이 즐거울 때면 생명 없는 자연조차 내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선사했다. 평온한 하늘과 푸른 들판을 보고 있으면 황홀경에 빠져들

곤 했다. 지금의 계절은 참으로 경이로웠다. 울타리에는 봄꽃이 만발해 있었고, 여름꽃들도 이미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짓눌렀던 생각들은 아무리 떨쳐내려 애써도 떼어낼 수 없는 굴레처럼 나를 괴롭혔지만, 지금만큼은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앙리 클레르발은 나의 즐거움에 함께 기뻐하며 내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채운 감정들을 털어놓으면서도, 나를 즐겁게 해주려 애를 썼다. 그럴 때마다 보여준 그의 지적 능력은 참으로 놀라웠다. 그의 대화는 상상력이 풍부했다. 그는 페르시아와 아랍 작가들의 문체를 본떠, 경이로운 환상과 열정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시를 읊어주기도 했고, 때로는 나를 논쟁으로 이끌어 자신만의 기발한 논리로 맞서기도 했다.

우리는 일요일 오후에 대학으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춤을 추고 있었고, 우리가 마주치는 이들은 모두 즐겁고 행복해 보였다. 나 역시 기분이 무척 고조되어, 억누를 수 없는 기쁨과 활기찬 마음으로 발걸음을 가볍게 내디뎠다.

제7장

돌아와 보니, 아버지께서 보내신 다음과 같은 편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빅터에게,

"아마도 네가 언제쯤 돌아올지 날짜를 정해줄 편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겠구나. 처음에는 네가 돌아올 날짜만 짧게 적어 보내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잔인한 친절이 될 것 같아 차마 그러지 못했다. 아들아, 기쁘고 행복한 환대를 기대하며 돌아온 네가 마주하게 될 것이 눈물과 비참함뿐이라면 얼마나 놀라겠느냐?

빅터, 내가 우리의 불행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니? 네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다고 해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에 무뎌졌을 리 없는데, 오랫동안 곁을 비운 아들에게 어떻게 이 고통을 안겨줄 수 있겠느냐. 비극적인 소식을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고 싶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할 단어를 찾아 눈으로 종이 위를 훑고 있겠지."

"윌리엄이 죽었다! 그 미소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따스하게 데워 주던 사랑스러운 아이, 그토록 다정하면서도 늘 밝게 웃던 그 아이가 말이다! 빅터, 윌리엄이 살해당했다!

"너를 위로하려 들지는 않으마. 그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경위만을 담담히 들려주마.

지난 목요일(5월 7일), 나와 조카, 그리고 너의 두 동생은 플랭팔레로 산책을 나갔다. 저녁 공기는 따뜻하고 평온해서 우리는 평소보다 더 멀리까지 산책을 이어갔다. 돌아갈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그러다 앞서 달려 나갔던 윌리엄과 에르네스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벤치에 앉아 쉬었다. 잠시 후 에르네스트가 나타나 형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에르네스트의 말에 따르면, 형과 함께 놀고 있었는데 윌리엄이 숨으려고 달아나 버렸다고 한다. 에르네스트는 형을 찾아 헤맸고 한참을 기다려 보았지만, 형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는 덜컥 겁이 났다. 밤이 깊도록 우리는 그를 찾아 헤맸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이미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없었다. 나는 도저히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사랑스러운 내 아이가 길을 잃은 채 밤의 습기와 이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횃불을 들고 우리는 다시 집을 나섰다. 엘리자베스 역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새벽 다섯 시쯤, 나는 내 사랑스러운 아이를 발견했다. 바로 어젯밤까지만 해도 생기 넘치고 건강해 보였던 아이가, 풀밭 위에 창백한 모습으

로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다. 아이의 목에는 살인자의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집으로 옮겨졌다. 내 얼굴에 역력히 드러난 고통 탓에 엘리자베스는 그 비밀을 눈치채고 말았다. 그녀는 시신을 보고 싶다며 간절히 매달렸다. 처음에는 만류하려 했으나 그녀는 막무가내였다. 결국 그녀는 시신이 놓인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둘러 희생자의 목을 살피고는 두 손을 맞잡고 비명을 질렀다. '오, 신이시여! 내가 내 사랑하는 아이를 죽였구나!'

"그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다. 다시 깨어난 그녀는 오직 눈물을 흘리며 탄식할 뿐이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날 저녁 윌리엄이 네 어머니를 그린 아주 귀한 초상화 펜던트를 자기도 걸게 해 달라며 끈질기게 졸랐다고 한다. 그 그림은 사라졌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 그림이 살인자를 자극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만든 것이리라. 범인을 찾으려 끊임없이 애쓰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 어떤 노력도 나의 사랑하는 윌리엄을 되돌려 놓지는 못하리라!

"어서 오게, 사랑하는 빅터. 엘리자베스를 위로할 사람은 자네뿐이라네. 그녀는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그 아이를 죽게 했다며 스스로를 부당하게 자책하고 있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후벼 파는구먼. 우리 모두가 불행에 빠졌네. 하지만 아들아, 그 사실이 자네가 돌아와 우리를 위로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되지 않겠나? 자네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 빅터! 이제야 이런 말을 하게 되는구나.

어머니께서 막내가 겪은 그 잔인하고 비참한 죽음을 목격할 때까지 살아 계시지 않았던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말일세!"

"자, 빅터. 살인자를 향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지 말게. 대신 평온하고 온화한 마음을 갖게나. 그래야 마음의 상처가 덧나지 않고 아물 수 있을 테니까. 친구여, 슬픔에 잠긴 그 집으로 들어가되,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네를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다정함과 애정을 품고 들어가게."

자네를 사랑하며, 비통에 잠긴 아버지가.

"알폰스 프랑켄슈타인."

"제네바, 17—년 5월 12일."

내가 이 편지를 읽는 동안 내 표정을 살피던 클레르발은, 친구들의 소식을 듣고 처음 느꼈던 기쁨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편지를 탁자 위에 내팽개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나의 친애하는 프랑켄슈타인," 내가 비통함에 젖어 우는 모습을 본 앙리가 외쳤다. "자네는 언제까지 이렇게 불행해야만 하는 건가? 나의 소중한 친구여,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나는 극도로 불안해하며 방 안을 서성였고, 클레르발에게는 편지를 읽어보라고 손짓했다. 클레르발 역시 나의 불행한 사연을 읽어 내려가며 눈물을 쏟았다.

"친구여, 내가 해줄 수 있는 위로가 없구려." 그가 말했다. "자네의 비극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네. 이제 무엇을 할 생각인가?"

"당장 제네바로 떠나야겠어. 앙리, 나와 함께 가서 말부터 준비하자고."

우리가 걷는 동안 클레르발은 위로의 말을 건네려 애썼다. 그는 그저 진심 어린 동정의 뜻을 표할 뿐이었다.

"가엾은 윌리엄!" 클레르발이 말했다.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가 이제 천사 같은 어머니 곁에서 잠들었구나. 그 밝고 즐거운 어린 시절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사람이라면, 이 이른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거야. 그토록 비참하게 죽다니, 살인자의 손아귀에 붙들린 채로! 그토록 찬란한 순수함마저 파괴할 수 있었던 살인자는 또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가! 가여운 어린 것!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안은 단 하나뿐이구나. 친구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지만, 아이는 이제 평온해졌다는 것 말이다. 고통은 끝났고, 아이의 괴로움도 영원히 멈추었단다. 부드러운 몸 위로 흙이 덮였으니, 이제 아이는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않을 거야. 아이는 더 이상 우리가 가여워할 대상이 아니란다. 그 가여움은 살아남은 불행한 이들을 위해 남겨두어야겠지."

우리가 거리를 서둘러 지나갈 때 클레르발은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은 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고, 나중에 홀로 있을 때도 문득 떠올랐다. 하지만 곧 말이 도착하자, 나는 서둘러 마차에 올라타며 친구에게 작별을 고했다.

나의 여정은 매우 우울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나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고향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은 점차 느려졌다. 마음속으로 밀려드는 수많은 감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시절 익숙했던 풍경들을 지나쳤다. 거의 6년 만에 마주하는 모습이었다. 그 세월 동안 모든 것이 얼마나 변했을까! 단 한 번의 갑작스럽고 황량한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을 수도 있다. 혹은 수천 가지의 사소한 상황들이 서서히 변화를 일으켰을지도 모른다. 비록 그 변화들이 훨씬 차분하게 일어났을지라도,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이 나를 압도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이름 모를 불행이 나를 떨게 했고, 나는 그 불행들이 두려워 몸을 사릴 뿐이었다.

나는 이 고통스러운 심경을 안고 로잔에 이틀간 머물렀다. 호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수면은 잔잔했고 주변은 온통 평온했다. '자연의 궁전'이라 불리는 설산의 모습 또한 변함이 없었다. 고요하고 천상적인 풍경은 서서히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었고, 나는 다시 제네바를 향한 여정을 이어갔다.

길은 호숫가를 따라 이어졌고, 고향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점점 좁아졌다. 쥐라 산맥의 검은 능선과 몽블랑의 빛나는 정상도 더욱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나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운 산들이여! 나의 아름다운 호수여! 방랑자로 돌아온 나를 어찌 이리 반겨주는가? 산봉우리는 맑고, 하늘과 호수는 푸르고 평온하기만 하구나. 이 풍

경은 내게 평화가 올 것을 예고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불행을 조롱하는 것인가?"

친구여, 이런 서두의 사정들을 너무 길게 늘어놓아 그대를 지루하게 만들까 두렵구려. 하지만 그 시절은 비교적 행복한 나날이었기에,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때를 회상하곤 하오. 나의 조국, 나의 사랑하는 조국이여! 그곳 태생이 아니고서야, 다시 마주한 조국의 시냇물과 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호수를 보며 내가 느꼈던 그 환희를 누가 알 수 있겠소!

하지만 집이 가까워질수록 슬픔과 두려움이 다시 나를 짓눌렀다. 밤이 깊어 어둠이 내려앉았고, 검게 물든 산맥조차 겨우 보일 정도가 되자 마음은 더욱 우울해졌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거대하고 희미한 악의 현장처럼 보였다. 나는 내가 인류 중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될 운명임을 막연하게나마 예감했다. 아! 나의 예언은 적중했다. 다만 단 한 가지, 내가 상상하고 두려워했던 그 모든 불행 속에서도, 앞으로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의 백 분의 일조차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만 제외하고 말이다.

제네바 근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다. 마을의 성문은 이미 닫혀 있었기에, 나는 도시에서 0.5리그 떨어진 세셰롱이라는 마을에서 하룻밤을 지내야만 했다. 하늘은 고요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나는 불쌍한 윌리엄이 살해당했던 그곳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마을을 가로질러 갈 수 없었기에, 플랭팔레에 도착하려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야 했다. 짧은 항해를 하는 동안, 나는 몽블랑의

정상에서 번개가 가장 아름다운 형상을 그리며 춤추는 모습을 보았다. 폭풍이 빠르게 다가오는 듯했다. 나는 육지에 내리자마자 폭풍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 낮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폭풍은 점점 다가왔다.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곧 커다란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거세게 몰아쳤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속 걸음을 옮겼다. 어둠과 폭풍은 매 순간 거세졌고, 머리 위로는 무시무시한 천둥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살레브 산과 쥐라 산맥, 그리고 사보이의 알프스 산맥까지 메아리쳤다. 번뜩이는 번개가 눈을 멀게 할 듯 번쩍이며 호수를 비추자, 호수는 마치 거대한 불의 장막처럼 보였다. 그러다 눈이 앞선 번개의 잔상에서 회복될 때까지, 아주 짧은 순간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곤 했다. 스위스에서 흔히 그렇듯, 폭풍은 하늘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몰아치는 듯했다. 가장 격렬한 폭풍은 마을 바로 북쪽, 벨리브 곶과 코페 마을 사이의 호수 위를 덮쳤다. 또 다른 폭풍은 희미한 번갯불로 쥐라 산맥을 비추었고, 또 다른 폭풍은 호수 동쪽에 솟은 봉우리인 몰 산을 어둠 속에 가두었다가 때때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를 반복했다.

아름다우면서도 공포스러운 폭풍우를 지켜보며, 나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하늘에서 펼쳐지는 이 숭고한 전쟁은 오히려 내 기운을 북돋웠다. 나는 두 손을 맞잡고 크게 외쳤다. “윌리엄, 나의 사랑스러운 천사여! 이 폭풍이 바로 너의 장례식이요, 너를 위한 장송곡이로구나!”

말을 내뱉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내 근처의 나무 덤불 뒤로 어떤 형체가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형체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번갯불이 번쩍이며 그 형체를 비추었고, 그 모습이 내 눈에 선명히 드러났다. 거대한 체구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기괴하고 흉측한 외양을 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저것은 바로 내가 생명을 불어넣었던 그 비참한 존재, 그 더러운 악마라는 사실을 말이다.

저자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설마 저자가—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다—내 동생을 죽인 살인범이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나는 그것이 사실임을 확신했다. 이가 덜덜 떨렸고, 나는 버티기 위해 나무에 몸을 기대야만 했다. 형체는 내 곁을 빠르게 지나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인간의 형상을 한 존재라면 결코 그 아름다운 아이를 해칠 수 없었다. 바로 '그'가 살인범이었다! 나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 생각이 떠오른 것만으로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악마를 뒤쫓을까 생각도 해보았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다시 한번 번개가 번쩍였을 때, 그는 플랭팔레 남쪽 경계를 이루는 몽 살레브 언덕의 거의 수직에 가까운 바위 절벽 사이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곧 정상에 도달하더니 자취를 감추었다.

나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천둥소리는 멎었으나 비는 여전히 내렸고, 주변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애써 잊으려 했던 사건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다. 창조를

향해 나아갔던 그 모든 과정부터, 내 침상 곁에 나타난 내 손으로 만든 피조물의 모습, 그리고 그가 떠나던 순간까지 말이다. 그에게 처음 생명이 깃들었던 그날 밤으로부터 어느덧 2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죄악이었을까? 아아, 나는 살육과 비극에서 즐거움을 찾는 타락한 괴물을 세상에 풀어놓고 말았던가. 그가 내 동생을 죽이지 않았던가?

그날 밤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젖은 채로 차가운 밤공기 속에 홀로 서 있었다. 하지만 날씨가 주는 고통은 느껴지지도 않았다. 내 상상력은 온통 악과 절망의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인류 가운데 던져 놓은 그 존재를 떠올렸다. 방금 저지른 짓처럼 끔찍한 일을 저지를 의지와 힘을 부여한 그 존재를 말이다. 나는 그를 마치 나 자신의 흡혈귀처럼 느꼈다. 무덤에서 풀려나 내가 아끼는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강요받은, 나의 영혼이 형상화된 존재처럼 느껴졌다.

날이 밝아왔고, 나는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성문은 열려 있었고, 나는 서둘러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살인범에 대해 아는 것을 알아내어 즉시 추격에 나서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이야기를 떠올리자 곧 망설임이 생겼다. 내가 직접 형체를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은 존재가, 한밤중에 접근조차 힘든 산맥의 절벽 사이에서 나를 마주했다니. 또한 피조물을 탄생시킨 바로 그 무렵에 내가 앓았던 신경열도 떠올랐다. 그 열병 때문에, 자칫 믿기 힘든 이 이야기가 마치 헛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나 역시 미친 사람의 횡설수설이라

여겼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설령 친척들을 설득해 추격을 시작하게 한다 해도, 그 괴물의 기이한 특성 때문에 도저히 붙잡을 수 없을 터였다. 그리고 추격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몽 살레브의 깎아지른 절벽을 타고 오를 수 있는 존재를 대체 누가 붙잡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생각 끝에 나는 결국 침묵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의 저택에 들어선 것은 새벽 다섯 시쯤이었다. 나는 하인들에게 가족들을 방해하지 말라고 일러둔 뒤, 가족들이 평소처럼 일어나는 시간이 될 때까지 서재에서 기다렸다.

그간의 6년은 마치 꿈처럼 흘러갔으나, 단 하나의 지워지지 않는 흔적만이 남았다. 나는 잉골슈타트로 떠나기 전,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포옹했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 다행히 아버지는 여전히 내 곁에 계셨다. 나는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어머니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요청으로 그려진 역사적인 장면을 담은 그림이었다. 그림 속 캐롤라인 보포르트 여사는 죽은 아버지의 관 곁에 무릎을 꿇은 채, 절망에 빠져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옷차림은 소박했고 뺨은 창백했으나, 그 모습에는 품위와 아름다움이 서려 있어 차마 가련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였다. 초상화 아래에는 윌리엄의 초상화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작은 그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그렇게 정신을 놓고 있을 때, 어니스트가 들어왔다. 내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를 맞이하러 서둘러 온 것이었다.

"어서 오세요, 사랑하는 빅터 형님." 어니스트가 말했다. "아, 형님이 석 달만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랬다면 우리 모두가 기쁨과 환희에 찬 모습으로 형님을 맞이했을 거예요. 하지만 형님은 지금, 그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는 비극을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군요. 그래도 형님이 오셨으니, 불행 속에 시들어가는 아버님도 기운을 차리시리라 믿어요. 그리고 형님이 설득해 주시면, 가여운 엘리자베스도 헛된 자책을 멈추고 마음을 추스를 수 있겠지요. 아, 불쌍한 윌리엄! 그 아이는 우리의 사랑이자 자랑이었는데!"

형의 눈에서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나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온몸을 엄습하는 것을 느꼈다. 이전까지 나는 황폐해진 우리 집의 비참함을 그저 상상만 해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마주한 현실은 그 상상만큼이나 새롭고도 끔찍한 재앙이었다. 나는 어니스트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아버지에 관해 더 자세히 물었다. 그리고 이때 사촌 엘리자베스에 대해서도 물었다.

"엘리자베스야말로 무엇보다도," 어니스트가 말했다. "위로가 가장 절실해요. 그녀는 자신이 동생의 죽음을 초래했다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고, 그 때문에 무척이나 비참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살인범이 밝혀졌으니—"

"살인범을 찾아냈다고! 세상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대체 누가 그를 쫓을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를 잡으려는 건 바람을 뒤쫓거나 빨대로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막으려는 것만

큼이나 허망한 짓이다. 나도 그를 보았다. 그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자유로웠단 말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형이 의아해하는 말투로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번 발견은 비극의 완성일 뿐이에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으려 할 거예요. 지금도 엘리자베스는 모든 증거를 보고도 믿으려 하지 않고요. 사실, 그토록 상냥하고 우리 가족 모두를 아꼈던 쥐스틴 모리츠가, 어떻게 갑자기 그토록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누가 믿겠어요?"

"쥐스틴 모리츠라고! 가엾고 가엾은 아이, 그 아이가 피고인인가요? 하지만 이건 억울한 일이에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어서 말해봐요, 어니스트. 설마 아무도 믿지 않는 건 아니겠죠?"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거의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행동 또한 너무나 갈팡질팡하여, 드러난 사실들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제 의구심을 품을 여지조차 남지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 재판을 받을 것이니, 그때 모든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어 불행한 윌리엄의 살해 사실이 밝혀진 그날 아침, 쥐스틴의 몸 상태가 나빠져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다고 말했다. 그 사이 하인 중 한 명이 쥐스틴이 살인이 일어난 밤에 입었던 옷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 주머니 안에서 우리 어머니의 초상화를 발견했다. 사람들은 그 초상화가 범인이 유혹에 빠지게 만든 물건이라고 판단했다. 하인은 즉시 이 사실을 다른 하인에게 알렸고, 그 하인은 가족들에

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곧장 치안 판사에게 달려갔다. 그들의 진술을 토대로 쥐스틴은 체포되었다. 혐의를 추궁받자, 가여운 소녀는 극도로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그 의심을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시켜 주고 말았다.

기이한 이야기였으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다. 나는 간절하게 대답했다. “모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저는 살인범이 누구인지 압니다. 불쌍하고 선량한 쥐스틴은 결백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으나, 나를 반겨주시려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하셨다. 우리는 슬픔이 가득한 인사를 나누었다. 만약 어니스트가 "세상에, 아버지! 빅터가 불쌍한 윌리엄을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 안다고 해요!"라고 외치지만 않았더라면, 아버지는 우리의 비극과는 다른 화제로 대화를 돌리려 하셨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란다,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대답하셨다. “내가 그토록 아끼던 이에게서 이토록 깊은 타락과 배은망덕함을 발견하느니, 차라리 영원히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남는 편이 나았을 게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잘못 알고 계세요. 쥐스틴은 결백합니다.”

“그 아이가 정말 결백하다면, 부디 하느님께서 그 아이가 죄인으로 고통받는 일만은 막아주시기를 빈다. 그 아이는 오늘 재판을 받는다. 나는 그 아이가 무죄로 풀려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란다.”

그의 말은 나를 진정시켜 주었다. 나는 쥐스틴이, 아니 세상의 그 어떤 인간이라도 이 살인을 저지를 리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니 어떤 정황 증거가 나타난다 한들, 그녀를 유죄로 몰아세울 만큼 강력하지는 못할 것이라 믿었다. 또한 나의 이야기는 세상에 공개할 성질의 것도 아니었다. 그 경악스러운 공포를 대중은 그저 미친 소리로 치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자인 나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있을까? 자신의 감각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 내가 세상에 풀어놓은 이 오만과 무모한 무지의 살아있는 기념비가 실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줄 사람이 과연 존재하기는 할까?

곧 엘리자베스가 우리에게 합류했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와 비교하면 시간은 그녀를 변화시켜 놓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매혹적인 여인이 되어 있었다. 예전과 같은 순수함과 생기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모습에 감수성과 지성이 더해져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지극한 애정을 담아 나를 맞이했다.

"사랑하는 사촌 오라버니, 오라버니가 오시니 정말 희망이 생겨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오라버니라면 죄 없는 가련한 쥐스틴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을 찾으실 수 있겠지요. 아, 만약 쥐스틴이 죄인으로 몰린다면 그 누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의 결백을 믿는 것만큼이나 쥐스틴의 무죄를 확신해요. 우리에게 닥친 불행은 너무나 가혹하기만 합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소년을 잃은 것도 모자라, 제가 진심으로 아끼는 이 가여운 소녀마저 더 비참한 운명에 휘말려 우리 곁을 떠나게 생겼으니까요. 만약 쥐스틴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저는 다시는 기쁨을 알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분명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린 윌리엄의 슬픈 죽음 이후에도, 저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엘리자베스, 그녀는 결백해." 내가 말했다. "그 사실은 반드시 증명될 거야.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그녀가 무죄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운을 내길 바라."

"오라버니는 어찌 이리도 친절하고 너그러우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죄를 지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 사실이 저를 너무나 괴롭게 했답니다. 그녀가 범인일 리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모두가 그토록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힌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제게 절망과 무력감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사랑하는 조카야,"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제 그만 눈물을 닦으렴. 네 믿음대로 그 아이가 정말 결백하다면, 우리 법의 정의를 믿어라. 내가 조금의 편견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 막아내마."

제8장

재판이 시작될 열한 시까지, 우리는 슬픔에 잠겨 몇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기에, 나는 그들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정의를 모독하는 이 비참한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나는 살아있는 채로 고문을 당하는 듯한 고통을 겪었다. 나의 호기심과 불법적인 시도가 동료 인간 두 명의 죽음을 불러왔는지를 결정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한 명은 순수함과 기쁨이 넘치는, 미소 짓는 아기였고, 다른 한 명은 공포스러운 기억으로 남을 만큼 온갖 치욕스러운 악행이 더해진 채 훨씬 더 참혹하게 살해당한 이였다. 쥐스틴 또한 훌륭한 소녀였으며, 행복한 삶을 살 자질을 충분히 갖춘 아이였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수치스러운 무덤 속으로 사라지게 생겼고, 그 원인은 바로 나였다! 차라리 쥐스틴에게 씌워진 죄를 내가 지었다고 수천 번이라도 자백하고 싶었다. 하지만 범행 당시 나는 그 자리에 없었기에, 그런 고백은 미친 사람의 헛소리로 치부될 뿐이었고, 나 때문에 고통받는 그녀를 결코 구해낼 수도 없었을 것이다.

쥐스틴의 모습은 차분했다. 상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본래 매력적이었으나, 슬픔에 잠긴 엄숙한 표정까지 더해지자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 보였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음에도, 쥐스틴은 자신의 결백을 확신하는 듯 떨지 않았다. 그녀의 아름다움이 불러일으켰을 법한 호감은, 그녀가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그 끔찍한 죄악에 대한 상상에 가려져 구경꾼들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그녀는 평온해 보였으나, 그 평온함은 분명 억지로 붙들고 있는 듯했다. 이전에는 그녀가 당황하는 모습이 유죄의 증거로 지목되었기에, 쥐스틴은 마음을 다잡아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려 애쓰고 있었다. 법정에 들어선 그녀는 눈을 돌려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을 재빨리 찾아냈다. 우리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듯했으나,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 서린 슬픈 애정은, 그녀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듯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녀를 기소한 변호사가 공소 사실을 진술한 뒤, 여러 증인이 법정에 불려 나왔다. 그녀에게 불리한 기이한 사실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만약 나처럼 그녀의 무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면, 누구라도 그 사실들 앞에 정신을 잃었을 것이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밤, 그녀는 밤새 밖에 있었다. 새벽녘에는 살해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시장 상인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그 여인이 그녀에게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으나, 그녀는 매우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횡설수설만을 내뱉었다. 그녀는 여덟 시쯤 집으로 돌아왔다. 밤을 어디서 지냈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아이를 찾고 있었다고 답하며, 혹시 아이

에 대해 들은 소식이 없느냐고 간절하게 되물었다. 시신을 확인한 뒤 그녀는 격렬한 히스테리 증세를 보였고, 그 후 며칠 동안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이어서 하인이 그녀의 주머니에서 찾아낸 그림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엘리자베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가 사라지기 한 시간 전 자신이 아이의 목에 걸어주었던 바로 그 그림임을 증명하자, 법정 안은 경악과 분노 섞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쥐스틴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법정에 불려 나갔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그녀의 얼굴빛은 변해갔다. 경악과 공포, 그리고 비참함이 그녀의 얼굴에 역력히 드러났다. 때때로 그녀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기도 했다. 하지만 변론을 시작하라는 요청을 받자,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히 들릴 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하느님은 아십니다." 그녀가 말했다. "제가 얼마나 결백한지를요. 하지만 제 항변만으로 죄를 면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불리하게 제기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명쾌하고 단순하게 설명함으로써 저의 무죄를 증명하고자 할 뿐입니다. 또한, 그동안 제가 쌓아온 품성이 판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황이 의심스럽거나 수상하게 보일지라도, 저를 믿고 너그럽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엘리자베스의 허락을 받아 살인이 일어난 그날 밤을 제네바에서 약 1리그 떨어진 셰느 마을에 있는 이모 댁에서 보냈다고 했다. 돌아오는 길인 밤 9시쯤, 그녀는 길을 잃은 아이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한 남자를 만났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겁에 질려 몇 시간 동안 아이를 찾아 헤맸다. 그러다 제네바의 성문이 닫히는 바람에, 잘 아는 이웃들을 깨우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어느 오두막에 딸린 헛간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깨어 경계하며 시간을 보냈다. 새벽녘에 아주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았으나, 누군가의 발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고 말았다. 동이 트자 그녀는 내 동생을 다시 찾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그 은신처를 벗어났다. 만약 그녀가 동생의 시신이 놓인 곳 근처까지 갔더라도, 본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밤을 꼬박 새운 데다 가여운 윌리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 시장 상인이 질문했을 때 그녀가 정신을 못 차리고 당황해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림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었다.

"알고 있습니다." 불행한 희생자가 말을 이었다. "이 단 하나의 정황이 저에게 얼마나 무겁고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이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나면, 남은 것은 그 보석이 어떻게 제 주머니에 들어갔을지 그 가능성을 추측해 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조차 막히고 맙니다. 세상에 저를 해칠 원수가 없다고 믿고 있으며, 설령 있다 해도 아무도 저를 아무 이유 없이 파멸시키려 할 만큼 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살인자가 그 보석을 거기 두었을까요? 그에게 그럴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설령 기회가 있었다 한들, 보석을 훔쳐서 왜 그렇게 곧바로 다시 버려두었단 말입니까?"

"저의 결백을 재판관들의 정의에 맡기지만,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 인품을 증언해 줄 몇 명의 증인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만약 그들의 증언이 제 죄를 덮기에 부족하다면, 저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되겠지요. 설령 제 결백을 걸고 영혼의 구원을 맹세한다 해도 말입니다."

그녀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증인들이 여럿 소환되었고, 그들은 그녀에 대해 좋게 말해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감 때문에, 증인들은 겁에 질려 선뜻 나서기를 주저했다. 엘리자베스는 피고인을 변호할 마지막 수단인 그녀의 선한 성품과 결점 없는 행실마저 무용지물이 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엘리자베스는 몹시 동요하면서도 법정에 발언할 허가를 요청했다.

"저는 살해당한 불행한 아이의 사촌입니다. 아니, 차라리 누이라고 하는 편이 맞겠군요. 아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부모님 곁에서 교육을 받고 함께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니 이런 자리에 나서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식적인 친구들의 비겁함 때문에 한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그녀의 성품에 대해 제가 아는 바를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피고인을 잘 압니다. 한때는 5년 동안, 또 다른 때는 거의 2년 동안 그녀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모든 기간 동안 제가 본 그녀는 인간 중 가장 상냥하고 자애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투병 중이던 제 이모, 프랑켄슈타인 부인을 지극한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그 후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지루하고 긴 병치레를 할 때도 곁을

지켰는데, 그녀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탄할 만큼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그녀는 다시 숙부님의 집에서 지냈고, 그곳에서도 온 가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금은 죽은 그 아이를 무척 아꼈으며, 마치 지극한 사랑을 가진 어머니처럼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녀를 몰아세우는 그 어떤 증거 앞에서도 저는 그녀가 결백하다고 믿으며, 그 결백을 확신합니다. 그녀에게는 그런 일을 저지를 만한 동기조차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된 그 장신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만약 그녀가 그것을 간절히 원했다면 저는 기꺼이 내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녀를 그만큼 존중하고 아끼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의 소박하면서도 강렬한 호소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찬성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반응은 그녀의 관대한 개입에 의한 것일 뿐, 가여운 쥐스틴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대중의 분노는 오히려 쥐스틴을 향해 다시금 격렬하게 쏟아졌고, 사람들은 그녀가 극악무도한 배은망덕을 저질렀다고 몰아세웠다. 쥐스틴은 엘리자베스가 말하는 동안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나는 극심한 동요와 고통에 휩싸였다. 나는 그녀의 무죄를 믿었고, 또 확신했다. 내 동생을 지옥 같은 유희로 살해한 그 악마가(나는 단 한 순간도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 결백한 이를 죽음과 치욕으로 몰아넣는 배신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 참혹한 상황을 견뎌낼 재간이 없었다. 대중의 목소리와 판사들의 표정이 이미 불행한 희생양을 단죄하고 있음을 깨달은 순간, 나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법정을

뛰쳐나왔다. 피고인이 겪는 고통은 나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녀는 결백함으로 버텨내고 있었지만, 내 가슴은 자책이라는 송곳니에 짓이겨져 도무지 놓아줄 줄을 몰랐다.

나는 오로지 비참함만이 가득한 밤을 보냈다. 아침이 되어 법원으로 향하는 내 입술과 목구멍은 바짝 말라 있었다. 나는 그 치명적인 질문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나를 알아봤고, 담당관은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짐작했다. 투표는 이미 끝난 뒤였다. 투표용지는 모두 검은색이었고, 쥐스틴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때 느꼈던 감정을 차마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이전에도 공포를 느낀 적이 있었고, 그 감정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려 애써 보기도 했지만, 당시 내가 겪었던 그 가슴 미어지는 절망감을 전달하기엔 어떤 단어도 부족하다. 내 말을 듣던 그는 쥐스틴이 이미 죄를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렇게 말했다.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증언까지는 그리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자백이 나와서 다행이군요. 사실 우리 판사들은 아무리 결정적인 정황 증거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을 꺼리니까요."

이것은 기이하고도 뜻밖의 소식이었다. 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눈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 만약 내가 의심하는 바를 밝힌다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될까?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엘리자베스는 내가 알아낸 결과가 무엇인지 간절히 물었다.

“사촌 동생, 자네도 예상했겠지만 이미 결정되었네. 판사들은 유죄인 한 명을 놓치느니 차라리 무고한 열 명을 벌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거든. 하지만 그녀가 자백을 해버렸네.”

쥐스틴의 결백을 굳게 믿어왔던 가여운 엘리자베스에게 이것은 참혹한 타격이었다. “아!” 그녀가 탄식했다. “이제 인간의 선함을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어요? 내 자매처럼 사랑하고 존경했던 쥐스틴이, 어떻게 그런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을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 온화한 눈망울에는 조금의 모진 기색이나 간사함도 담겨 있지 않아 보였는데, 정작 그녀는 살인을 저질렀군요.”

불행한 희생자가 내 사촌을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은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아버지는 그녀가 가지 않기를 바라셨지만, 결정은 그녀 자신의 판단과 감정에 맡기겠다고 말씀하셨다. "네, 갈게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녀가 죄를 지었더라도 가겠습니다. 하지만 빅터,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어야 해요. 혼자서는 갈 수 없어요." 이 방문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고통스러웠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다.

우리는 어두컴컴한 감옥 방으로 들어갔다. 방 저편에는 쥐스틴이 짚더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두 손은 수갑에 채워져 있었고, 고개는 무릎 위에 떨구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본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윽고 우리만 남게 되자, 그녀는 엘리자베스의 발치에 쓰러지듯 엎드려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내 사촌 역시 함께 울었다.

"오, 쥐스틴!" 그녀가 말했다. "어찌하여 나의 마지막 위안마저 앗아간 것이냐? 나는 네 결백을 믿었단다. 그때도 무척 괴로웠지만, 지금처럼 비참하지는 않았단다."

"당신마저 내가 그토록, 그토록 사악한 존재라고 믿는 건가요? 당신도 나의 적들과 손을 잡고 나를 짓밟으려는 건가요? 나를 살인자로 단죄하려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일어나렴, 가여운 아이야."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네가 결백하다면 왜 무릎을 꿇고 있니? 나는 네 적이 아니란다. 모든 정황이 너를 범인으로 가리켰을 때조차 나는 네가 죄가 없다고 믿었어. 네가 스스로 죄를 자백했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 소문이 거짓이라고 했지? 약속하마, 사랑하는 쥐스틴. 네가 직접 자백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너에 대한 나의 믿음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거야."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고백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자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거짓이 다른 어떤 죄보다도 무겁게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이시여, 저를 용서하소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로 고해 신부는 저를 쉴 새 없이 몰아세웠습니다. 그는 저를 위협하고 겁박했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 저는 정말로 제가 그가 말하는 그런 괴물이 아닐까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신부는 제가 계속해서 완고하게 굴 경우, 죽음을 맞이하기 전 파문과 지옥의 불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협박했습니다. 다정한 부인이여, 제 곁에는 저를 지지해 줄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치욕과 파멸을 맞

이할 가련한 죄인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행한 순간에 저는 거짓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저는 진정으로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사랑하는 아가씨, 저는 공포에 질려 생각했어요. 당신의 복된 숙모님께서 그토록 높게 기리셨고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쥐스틴이, 오직 악마만이 저지를 법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당신이 믿게 될까 봐 두려웠답니다. 사랑하는 윌리엄! 나의 가장 소중하고 복된 아이야! 머지않아 천국에서 너를 다시 만나겠구나. 그곳에선 우리 모두 행복할 테니, 치욕과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지금의 나에게는 그 사실이 유일한 위안이 된단다."

"오, 쥐스틴! 단 한 순간이라도 당신을 의심했던 나를 용서하세요. 왜 자백한 건가요?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착한 아이야.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내가 당신의 결백을 세상에 알리고 증명해낼게요. 나의 눈물과 기도로 당신을 적대하는 이들의 돌 같은 마음을 녹여버리겠어요. 당신은 죽지 않을 거예요! 나의 놀이 친구이자 동료이며, 나의 누이인 당신이 저 사형대 위에서 스러지게 둘 순 없어요! 안 돼! 안 돼! 이런 끔찍한 불행을 겪고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쥐스틴은 슬픔에 잠겨 고개를 저었다.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 고통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신께서 저의 연약함을 보살피시고, 최악의 상황도 견뎌낼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슬프고도 비정한 세상을 떠납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억울하

게 죄를 뒤집어쓴 사람으로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저에게 닥칠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부인, 저를 보고 배우십시오. 하늘의 뜻에 인내하며 순응하는 법을 말이에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나는 감옥 방 한구석으로 물러났다. 나를 집어삼킨 이 끔찍한 고통을 차마 보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절망이라니! 감히 누가 절망을 입에 올릴 수 있겠는가? 내일이면 삶과 죽음이라는 그 두려운 경계를 넘어야 할 가련한 희생자조차, 나처럼 그토록 깊고 쓰라린 고통을 느끼지는 않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갈며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신음 소리를 내뱉었다. 그 소리에 쥐스틴이 깜짝 놀랐다. 나를 확인한 그녀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저를 찾아와 주시다니 정말 친절하시네요. 부디 제가 죄를 지었다고 믿지는 않으시겠지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니야, 쥐스틴."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는 나보다도 네 결백을 더 확신하고 있어. 네가 자백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는 그 말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지금, 저를 선의로 생각해주시는 분들께 형언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 같은 비참한 존재에게 타인의 애정은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 온기가 제 불행의 절반 이상을 씻어주는 듯합니다. 친애하는 부인, 그리고 당신의 사촌께서 저의 결백을 인정해주셨으니, 이제야 비로소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련한 희생자는 타인과 자기 자신을 위로하려 애썼다. 그녀는 마침내 바라던 대로 체념의 평온을 얻었다. 하지만 진정한 살인자인 나는 가슴 속에서 죽지 않는 벌레가 꿈틀거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 고통은 그 어떤 희망도, 위안도 허락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역시 눈물을 흘리며 불행해했지만, 그녀의 비극은 결백한 자가 겪는 고통이었다. 그것은 마치 밝은 달을 잠시 가리는 구름과 같아서, 잠시 빛을 가릴 뿐 그 광채를 더럽히지는 못한다. 반면 고뇌와 절망은 내 심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내 안에는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지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쥐스틴의 곁을 지켰고, 엘리자베스는 간신히 몸을 돌려 그곳을 떠날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울부짖으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비참한 세상 속에서 더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쥐스틴은 쓰라린 눈물을 간신히 참아내며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엘리자베스를 껴안고는, 억눌린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히 계세요, 다정한 분,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나의 소중하고 유일한 친구여. 하늘의 자비가 당신을 축복하고 지켜주기를 빕니다. 당신이 겪는 불행은 이것이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살아남아 행복해지세요, 그리고 다른 이들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

다음 날, 쥐스틴은 죽음을 맞이했다. 엘리자베스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호소로 설득하려 했으나, 성스러운 희생자인 그녀를 범죄자로 단정 지은 판사들의 확고한 신념을 돌려놓지는 못했다. 격분한 내가 열정

적으로 호소해 보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다. 판사들의 냉담한 답변을 듣고, 그들의 가혹하고 무정한 논리를 마주하자, 진실을 밝히겠다는 나의 결심은 입술 끝에서 힘없이 사그라들었다. 차라리 내가 미치광이라 불릴지언정, 비참한 희생자에게 내려진 판결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처형대 위에서 생을 마감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나는 엘리자베스가 겪는 깊고 소리 없는 슬픔을 바라보았다. 이 또한 내가 저지른 일이었다! 아버지의 비탄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웃음꽃이 피던 그 집의 황량함까지, 이 모든 것이 세 번이나 저주받을 내 손이 불러온 결과였다! 불행한 이들이여, 울어라. 하지만 이것이 그대들의 마지막 눈물은 아닐 것이다! 그대들은 다시금 장례의 곡소리를 높일 것이며, 그 애통한 울음소리는 몇 번이고 다시 들려올 것이다!

그대들의 아들이자 친척이며, 한때 지극히 사랑받았던 친구인 프랑켄슈타인이 말한다. 그대들을 위해서라면 생명의 피 한 방울까지도 기꺼이 바칠 이가, 그대들의 소중한 얼굴에 비친 모습이 아니면 기쁨을 느끼지도 생각하지도 못할 이가, 공기를 축복으로 채우고 평생을 그대들을 섬기며 살고자 했던 이가, 그대들에게 울라고, 셀 수 없는 눈물을 흘리라고 말한다. 만약 가혹한 운명이 이로써 만족하고, 그대들의 슬픈 고통이 무덤의 평온으로 이어지기 전에 파멸이 멈출 수만 있다면, 그는 자신의 희망보다 더 큰 행복을 느낄 것이다.

후회와 공포, 그리고 절망에 짓눌린 채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윌리엄과 쥐스틴의 무덤 앞에서 헛된 슬픔을 쏟아내는 모습을 말이다. 그들은 나의 불경한 기술이 낳은 첫 번째 불행한 희생자들이었다. 나의 영혼은 이미 이 비극을 예견하고 있었다.

제9장

급박하게 몰아치는 사건들로 감정이 격앙된 뒤에 찾아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정지된 확신이 주는 죽은 듯한 고요함만큼 인간의 정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없다. 그 고요는 영혼에서 희망과 두려움을 모두 앗아간다. 쥐스틴은 죽었고, 그녀는 안식을 얻었으나, 나는 살아남았다. 내 혈관에는 피가 힘차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 무엇으로도 걷어낼 수 없는 절망과 후회의 무게가 심장을 짓눌렀다. 잠은 눈꺼풀을 떠나갔다. 나는 마치 악령처럼 방황했다. 형언할 수 없이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며, (스스로 믿기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아직 뒤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내 마음은 여전히 선함과 미덕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자애로운 의도를 품고 삶을 시작했으며, 그 의도를 실천에 옮겨 인류에게 도움이 될 날만을 갈망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은 산산조각 났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스스로 만족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약속을 찾아낼 수 있게 해주던 양심의 평온함 대신, 나

를 사로잡은 것은 후회와 죄책감뿐이었다. 그 죄책감은 나를 어떤 언어로도 묘사할 수 없는 격렬한 고통의 지옥으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심리 상태는 내 건강을 갉아먹었다. 아마도 내 몸은 처음 겪었던 충격에서 채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기를 피했다. 기쁨이나 만족감이 서린 모든 소리는 내게 고통일 뿐이었다. 오직 고독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깊고 어두우며, 죽음과도 같은 고독 말이다.

아버지는 내 성격과 습관이 눈에 띄게 변해가는 모습을 고통스럽게 지켜보셨다. 아버지는 평온한 양심과 결백한 삶을 근거로 나를 설득하려 애쓰셨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먹구름을 걷어낼 수 있도록, 내게 인내심을 불어넣고 용기를 북돋아 주려 하신 것이다.

"빅터,"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나라고 왜 괴롭지 않겠느냐? 그 누구도 내가 네 동생을 사랑했던 것만큼 자식을 사랑할 수는 없을 게다." 말씀을 이어가시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남겨진 이들의 슬픔을 지나친 비탄으로 더 키우지 않는 것이 그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또한 그것은 너 자신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과도한 슬픔은 삶을 개선하거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일상적인 책무조차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란다."

이 조언은 분명 옳은 말이었으나, 내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았다. 만약 후회라는 감정이 비통함을 더하고, 공포가 경악을 불러일으키며 내 다른 감정들과 뒤섞이지 않았더라면, 나 역시 슬픔을 숨기고 친구들을

위로하는 데 앞장섰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절망 어린 눈빛으로 아버지를 마주할 뿐이었고, 그저 아버지의 시선으로부터 나 자신을 숨기려 애쓸 수밖에 없었다.

이 무렵 우리는 벨리브에 있는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러한 변화는 내게 무척 반가운 일이었다. 매일 밤 열 시면 성문이 닫혔고, 그 시간 이후에는 호수에 머무는 것조차 불가능했기에, 제네바 성벽 안에서 지내는 생활은 내게 매우 지루하고 답답했다. 이제 나는 자유로워졌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이면, 나는 종종 배를 타고 나가 호수 위에서 긴 시간을 보냈다. 돛을 올리고 바람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길 때도 있었고, 호수 한가운데까지 노를 저어 나간 뒤에는 배가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둔 채 나 자신의 비참한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평온한 가운데, 이토록 아름답고 천상 같은 풍경 속에서 오직 나만이 불안하게 떠도는 유일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면, 나는 자주 유혹을 받았다. 물론 박쥐나 개구리들이 예외일 수는 있겠지만, 개구리들의 거칠고 끊어질 듯한 울음소리는 내가 해안에 가까이 다가갈 때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럴 때면 나는 고요한 호수 속으로 몸을 던져, 저 물결이 나와 나의 불행을 영원히 덮어버리기를 갈망하곤 했다.

하지만 내가 지극히 사랑하며, 나의 삶과 운명이 떼려야 뗄 수 없이 얽혀 있는 용기 있고 고통받는 엘리자베스를 생각하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또한 나의 아버지와 살아남은 동생도 떠올렸다. 내가 비겁

하게 도망쳐 버린다면, 내가 풀어 놓은 그 악마의 악의로부터 그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마다 나는 비통하게 울며, 내 마음에 다시 평온이 찾아오기만을 바랐다. 오직 그 평온을 빌려 그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자책감이 모든 희망을 앗아갔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악을 저지른 장본인이었고, 내가 만들어 낸 괴물이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매일같이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막연한 예감이 나를 괴롭혔다. 그가 언젠가 다시 한번 커다란 범죄를 저지를 것만 같았다. 그 죄가 너무나 막대하여 과거의 기억조차 무색하게 만들 만큼 말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남아 있는 한, 두려움이 머물 자리는 언제나 존재했다.

이 악마에 대한 나의 혐오감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를 생각하면 이를 갈게 되었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내가 그토록 경솔하게 부여했던 그 생명을 당장이라도 꺼뜨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뿐이었다. 그의 범죄와 악의를 되새길 때면, 나의 증오와 복수심은 절제를 넘어 폭발하듯 치밀어 올랐다. 만약 안데스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그를 데려가 그 절벽 아래로 내던질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곳까지 순례를 떠날 용의가 있었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에게 내가 가진 혐오를 남김없이 쏟아붓고, 윌리엄과 쥐스틴의 죽음을 복수하고 싶었다.

우리 집은 슬픔에 잠긴 집이었다. 최근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로 인해 아버지의 건강은 크게 나빠졌다. 엘리자베스 역시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소 하던 일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했다. 그녀에게 모든 즐거움은 죽은 이들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졌다. 무참히 짓밟히고 파괴된 순결함에 바쳐야 할 마땅한 조의는 오직 영원한 비탄과 눈물뿐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예전처럼 행복한 모습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 호숫가를 함께 거닐며 우리의 앞날에 대해 황홀하게 이야기 나누던 그 소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찾아오는 수많은 슬픔 중 첫 번째 슬픔이 그녀를 찾아왔고, 그 어두운 그림자는 그녀의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앗아갔다.

"사랑하는 사촌 오빠,"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쥐스틴 모리츠의 비참한 죽음을 되새길 때면, 세상과 그 속의 일들이 예전처럼 보이지 않아요. 전에는 책에서 읽거나 남에게 들은 악행과 불의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저 옛날이야기나 상상 속의 재앙 정도로만 여겼어요. 적어도 그런 일들은 저와는 먼 일이었고, 상상력보다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비극은 제 삶 속으로 파고들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피를 갈구하는 괴물처럼 보여요.

하지만 제가 분명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모두가 그 가여운 소녀가 유죄라고 믿었으니까요. 만약 그녀가 실제로 그 죄를 저질렀다면, 그녀는 분명 인류 중 가장 타락한 존재였을 거예요. 고작 보석 몇 개를 탐내어 은인인 동시에 친구였던 이의 아들을 살해하다니요. 태어날 때부터 정성껏 돌보며 마치 제 자식처럼 사랑했던 아이를 말이에요! 저는 그 어떤 인간의 죽음도 원치 않지만, 만약 그런 괴물이 정말 존재했다면 인간 사회에 머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결백했어요. 저는 그녀가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또 온몸으로 느껴요. 오빠도 같은 생각이니 제 믿음이 더 확고해지네요. 아, 빅터, 거짓이 이토록 진실과 닮아 보일 수 있다면, 누가 스스로의 행복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저는 마치 낭떠러지 끝을 걷고 있는 기분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저를 심연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몰려드는 것만 같아요. 윌리엄과 쥐스틴은 살해당했고, 살인자는 도망쳤어요. 그는 세상 속을 자유롭게 거닐며, 어쩌면 존경까지 받고 있을지도 모르죠. 설령 제가 똑같은 죄를 지어 처형대 위에서 고통받아야 한다 해도, 저는 저런 비열한 자와 처지를 바꾸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내가 바로 진정한 살인자였다. 엘리자베스는 내 얼굴에 서린 고통을 읽어내고는 다정하게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의 소중한 친구여, 제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신께서 아시겠지만, 이 사건들은 저에게도 무척이나 깊은 충격을 주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만큼 비참하지는 않아요. 당신의 얼굴에는 절망과 때로는 복수심마저 서려 있어 저를 떨게 만드네요. 사랑하는 빅터, 이 어두운 감정들을 떨쳐버리세요. 당신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주변의 친구들을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 줄 능력을 잃어버린 건가요? 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는 한,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땅이자 당신의 고향에서 우리는 모든 평온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평화를 어지럽힐 수 있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도 내가 애틋하게 아끼던 그녀의 말이라면, 내 마음속에 도사린 악마를 쫓아내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녀가 말을 하는 동안 나는 마치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이라도 파괴자가 나타나 그녀를 내게서 앗아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우정의 다정함도, 대지나 하늘의 아름다움도 내 영혼을 비탄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사랑의 속삭임조차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그 어떤 선한 영향력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먹구름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다. 화살을 맞은 사슴이 기력을 잃어가는 다리를 끌며 아무도 찾지 않는 덤불 속으로 숨어들어, 제 몸을 꿰뚫은 화살을 응시하다 죽어가는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

때로는 나를 집어삼키는 침울한 절망을 견뎌낼 수 있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때로는 내 영혼을 휘몰아치는 격정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감각에서 벗어나고자 육체적인 운동을 하거나 장소를 옮겨보며 안식을 찾아 헤매기도 했다. 갑작스럽게 집을 떠난 것도 바로 이런 상태에서였다. 나는 발길을 돌려 가까운 알프스의 계곡으로 향했다. 그 웅장하고 영원한 풍경 속에서, 나 자신과 인간이기에 겪어야만 하는 이 덧없는 슬픔을 잊고 싶었다. 나의 방랑은 샤모니 계곡을 향했다. 어린 시절 그곳을 자주 방문하곤 했다. 그로부터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나는 폐허처럼 무너져 내린 상태였으나, 저 거칠고도 영구한 풍경만은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여정의 첫 구간은 말을 타고 이동했다. 그 후에는 노새를 한 마리 빌렸다. 이 험한 길에서는 노새가 발을 헛디딜 염려가 적고 다치기도 덜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날씨는 맑았다. 때는 8월 중순쯤이었다. 내 모든 불행이 시작된 비극적인 시기, 즉 쥐스틴이 죽은 지 거의 두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아르브 협곡 깊숙이 들어갈수록 내 마음을 짓누르던 무게도 눈에 띄게 가벼워졌다. 사방에서 나를 압도하는 거대한 산들과 절벽, 바위 사이를 거칠게 몰아치는 강물 소리, 그리고 주변에서 쏟아지는 폭포 소리는 마치 전능자에 버금가는 거대한 힘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리하여 나는, 이곳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펼쳐진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존재—그 존재보다 못한 그 어떤 대상에게도 더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게 되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계곡은 더욱 장엄하고 경이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소나무 숲이 우거진 산맥의 절벽에 위태롭게 매달린 폐성들과 거세게 흐르는 아르브 강, 그리고 나무 사이로 군데군데 얼굴을 내민 오두막들이 어우러져 기이할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풍경을 더욱 웅장하고 숭고하게 만든 것은 바로 거대한 알프스 산맥이었다. 하얗게 빛나는 피라미드와 돔 모양의 설산들이 모든 것 위로 우뚝 솟아 있었는데, 마치 다른 세상의 것이거나 다른 종족이 사는 거처처럼 보였다.

펠리시에 다리를 지나자 강이 만들어낸 협곡이 눈앞에 펼쳐졌고, 나는 그 위로 솟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샤모니 계곡에 들어섰다. 이 계곡은 방금 지나온 세르복스 계곡보다 훨씬 경이롭고 웅장했지만, 그곳만큼 아름답거나 그림처럼 예쁘지는 않았다. 높고 눈

덮인 산들이 계곡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으나, 폐허가 된 성이나 비옥한 들판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거대한 빙하들이 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눈사태가 쏟아지는 천둥 같은 굉음이 들려왔고, 눈사태가 지나간 자리에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주변의 암봉들 사이로 지고한 위엄을 자랑하는 몽블랑이 솟아 있었고, 그 거대한 돔 형태의 봉우리가 계곡을 굽어보고 있었다.

이 여정 동안, 잊고 지냈던 즐거움이 전율처럼 문득문득 나를 찾아오곤 했다. 길을 꺾어 돌 때마다, 혹은 갑자기 눈에 들어온 새로운 풍경을 알아볼 때마다 지나간 날들이 떠올랐고, 그 기억들은 소년 시절의 천진난만한 즐거움과 맞물려 되살아났다. 바람조차 달래는 듯한 어조로 속삭였고, 대자연은 마치 어머니처럼 나에게 이제 그만 울라고 다독였다.

하지만 그러한 다정한 위로도 잠시뿐이었다. 이내 그 온기는 사라졌고, 나는 다시 슬픔의 굴레에 묶여 고통스러운 사색에 잠겼다. 그럴 때면 나는 세상과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말을 채찍질하며 달려 나갔다. 혹은 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면, 공포와 절망에 짓눌린 채 말에서 내려 풀밭 위로 쓰러지기도 했다.

마침내 샤모니 마을에 도착했다. 몸과 마음이 겪은 극심한 피로 뒤로 탈진 상태가 찾아왔다. 나는 잠시 창가에 머물며 몽블랑 위로 번뜩이는 창백한 번개들을 지켜보았다. 발치 아래로는 아르브 강이 거친 물살을 일으키며 세차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 일정한 물소리는 너무도 예민해진 내 감각을 달래주는 자장가처럼 들렸다. 베개에 머리를 누이자

잠이 스르르 밀려왔다. 나는 잠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며, 망각을 선사하는 이에게 축복을 빌었다.

제10장

다음 날 나는 온종일 계곡을 헤매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아르베이롱강의 발원지 곁에 서 있었다. 그 강물은 빙하에서 시작되는데, 이 빙하는 느린 속도로 언덕 정상에서 내려오며 계곡을 가로막고 있었다. 눈앞에는 거대한 산맥의 가파른 절벽이 펼쳐져 있었고, 빙하의 얼음 벽은 머리 위를 짓누르듯 드리워져 있었다. 여기저기 부서진 소나무 몇 그루가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제왕과도 같은 대자연이 위엄 있게 자리한 이 영광스러운 공간의 엄숙한 침묵을 깨뜨리는 것은, 오직 요동치는 파도 소리나 거대한 암석이 떨어지는 소리뿐이었다. 때로는 눈사태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때로는 쌓인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산맥을 타고 메아리쳤다. 변치 않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묵묵히 움직이는 그 얼음은, 마치 대자연의 손놀림에 휘둘리는 장난감처럼 끊임없이 갈라지고 찢겨 나갔다.

이 숭고하고 장엄한 풍경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위안을 주었다. 그 풍경은 나를 온갖 옹졸한 감정에서 끌어올려 주었다. 비록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으나, 그 슬픔을 가라앉히고 평온하게 만들

어 주었다. 또한 지난 한 달 동안 나를 괴롭혔던 생각으로부터 어느 정도 마음을 돌리게 해주기도 했다. 밤이 되어 휴식을 취하려 누우면, 낮 동안 바라보았던 거대한 형상들이 마치 내 잠자리를 돌보고 보살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오염되지 않은 설산의 정상과 반짝이는 봉우리, 소나무 숲과 거친 황무지, 그리고 구름 사이를 날아오르는 독수리까지, 그 모든 것들이 내 주변으로 모여들어 나에게 평안을 빌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영혼을 북돋아 주던 그 모든 기운은 다 어디로 달아나 버린 것일까. 잠과 함께 모든 활력이 사라졌고, 어두운 우울함이 모든 생각 위로 먹구름처럼 드리워졌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고 짙은 안개가 산봉우리를 가로막아, 그 거대한 친구들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안개라는 장막을 뚫고 들어가 구름 속에 숨은 그들을 찾아내고 싶었다. 비와 폭풍 따위가 내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문 앞으로 노새가 끌려오자, 나는 몽탕베르 정상까지 올라가기로 마음먹었다. 처음 그 거대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빙하를 마주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기억났다. 당시 빙하는 내 영혼에 날개를 달아주었고, 어두운 세상에서 벗어나 빛과 기쁨을 향해 날아오르게 하는 숭고한 황홀경을 선사했다. 자연의 경외롭고 장엄한 광경은 언제나 내 마음을 경건하게 만들었고, 삶의 덧없는 근심을 잊게 해주었다. 나는 길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안내인 없이 가기로 결심했다. 누군가 동행한다면 이 풍경이 지닌 고독한 장엄함이 훼손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오르막은 가파르지만, 길은 끊임없이 짧은 굽잇길로 이어져 있어 산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풍경은 무서울 정도

로 황량하다. 곳곳에서 겨울철 눈사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부러진 나무들이 땅 위에 흩어져 있다. 어떤 나무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어떤 나무는 산의 돌출된 바위나 다른 나무에 기대어 꺾인 채 놓여 있다. 위로 올라갈수록 길은 눈이 쌓인 협곡과 교차하는데, 그곳에서는 위에서 돌들이 끊임없이 굴러떨어진다. 특히 위험한 구간이 하나 있는데, 큰 소리로 말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소리만 내도 공기가 진동하여 말하는 이의 머리 위로 재앙을 불러올 정도다. 소나무들은 키가 크거나 무성하지는 않지만, 어둡고 침울한 빛을 띠며 풍경에 엄숙함을 더한다.

발아래 펼쳐진 계곡을 내려다보았다. 계곡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에서는 거대한 안개가 피어올라 맞은편 산들을 두꺼운 화환처럼 휘감고 있었다. 산봉우리들은 온통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검은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져 내리며 주변 풍경이 주는 우울한 인상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아, 슬프도다! 인간은 어찌하여 짐승보다 뛰어난 감수성을 가졌다고 자만하는가. 그 감수성 때문에 인간은 오히려 더욱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만약 우리의 충동이 허기와 갈증, 욕망에만 국한되었다면 우리는 거의 자유로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스치는 바람 하나에도, 혹은 그 바람에 실려 온 우연한 말 한마디나 풍경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만다.

우리는 잠에 들지만, 꿈은 그 잠을 독으로 물들일 만큼 강력하다. 우리는 깨어나지만, 떠도는 생각 하나가 온종일의 평온을 더럽힌다. 느끼고, 구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웃거나 울기도 한다. 애틋한 슬픔을 품기도 하고 근심을 떨쳐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같

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것이 떠나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어제는 결코 내일과 같을 수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오르막길 끝에 다다랐을 때는 거의 정오 무렵이었다. 나는 한동안 얼음 바다를 내려다보는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안개가 바위와 주변 산들을 뒤덮고 있었다. 이윽고 산들바람이 불어와 구름을 걷어냈고, 나는 빙하를 향해 내려갔다. 빙하의 표면은 매우 울퉁불퉁했다. 마치 요동치는 바다의 파도처럼 높게 솟았다가 낮게 가라앉았고, 그 사이사이에는 깊게 패인 균열들이 흩어져 있었다. 얼음 벌판의 너비는 거의 1리그에 달했지만, 그곳을 가로지르는 데 거의 두 시간이 걸렸다. 맞은편 산은 가파른 수직 절벽이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정확히 1리그 떨어진 곳에 몽탕베르가 마주 보고 있었고, 그 위로는 몽블랑이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위엄을 떨치며 솟아 있었다. 나는 바위 움푹 팬 곳에 머물며 이 경이롭고 거대한 광경을 응시했다. 바다, 아니 거대한 얼음의 강은 주변 산들 사이로 굽이쳐 흘렀고, 산들의 높은 봉우리들은 얼음 강이 파고든 골짜기 위로 아스라이 걸려 있었다. 얼음으로 뒤덮인 반짝이는 봉우리들은 구름 위로 햇빛을 받아 빛났다. 슬픔에 잠겨 있던 내 마음은 이제 기쁨과도 같은 감정으로 부풀어 올랐다. 나는 외쳤다. "방랑하는 영혼들이여, 만약 당신들이 정말로 방랑하며 좁은 안식처에 머물지 않는 존재라면, 부디 내게 이 미약한 행복이라도 허락해 주소서.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의 동반자로 삼아 나를 이 삶의 기쁨으로부터 데려가 주소서."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멀리서 한 남자의 형체가 보였다. 그는 초인적인 속도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얼음 사이의 틈새를 조심스레 살피며 걸어왔건만, 그는 그 틈들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그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체구 또한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듯 보였다.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눈앞이 흐릿해지며 정신이 아득해졌으나, 산맥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강풍 덕분에 곧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 형체가 점점 가까워지자 나는 깨달았다. (참으로 경악스럽고 혐오스러운 광경이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만들어낸 그 불쌍한 피조물이었다. 나는 분노와 공포로 몸을 떨며, 그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목숨을 건 결투를 벌이기로 결심했다.

그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멸시와 악의가 뒤섞인 지독한 고통이 서려 있었고, 그 기괴한 추함은 인간의 눈으로 차마 바라보기 힘들 만큼 끔찍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었다. 처음에는 분노와 증오에 휩싸여 말문이 막혔으나, 겨우 정신을 차린 뒤에는 그를 향해 격렬한 혐오와 경멸을 담은 말들을 쏟아부었다.

"악마 같은 놈!" 내가 외쳤다. "감히 내게 다가오겠다고? 네 비참한 머리통에 내 팔이 내리칠 무시무시한 복수가 두렵지도 않으냐? 꺼져라, 비열한 벌레 같은 놈! 아니, 차라리 그대로 있어라. 내가 너를 짓밟아 먼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도록! 아, 차라리 네 그 비참한 생명을 끊어버림으로써, 네가 그토록 악마같이 살해한 희생자들을 다시 되살릴 수만 있다면!"

"이런 대접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악마가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비참한 자를 증오하기 마련이지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비참한 나는 얼마나 더 큰 증오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창조주인 당신은, 당신과 나 사이의 유대란 우리 중 한 명이 죽어야만 끊어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피조물인 나를 경멸하며 내팽개치는군요.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이토록 잔인한 장난을 칠 수 있습니까? 나에 대한 당신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면 나 또한 당신과 인류를 향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만약 내 조건을 들어준다면,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을 평온하게 내버려 두겠습니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당신에게 남은 친구들의 피로 죽음의 아가리가 배불리 채워질 때까지 나는 살육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괴물 같으니! 네놈은 악마로구나! 네가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지옥의 고통조차 너무나 가벼운 형벌이다. 비참한 악마 놈! 네놈은 네가 만들어낸 존재를 빌미 삼아 나를 비난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어서 오너라. 내가 그토록 부주의하게 불어넣었던 그 생명의 불꽃을, 내 손으로 직접 꺼뜨려 주마."

내 분노는 끝을 모르고 치솟았다. 나는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한 존재가 다른 존재의 생존을 부정하며 품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나를 몰아붙였다.

그는 손쉽게 나를 따돌리며 말했다.

"진정하십시오! 나를 향한 증오를 쏟아내기 전에 내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 나의 비참함을 더 키우려 하십니까? 삶이란 비록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내게는 무엇보다 소중하기에 나는 이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나를 당신 자신보다 더 강력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키도 당신보다 크고, 관절은 더 유연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맞서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기만 한다면, 나는 나의 타고난 주인이자 왕인 당신에게 한없이 온순하고 고분고분하게 굴 것입니다.

오, 프랑켄슈타인, 다른 이들에게는 공정하면서 어찌하여 당신의 정의와 자비, 심지어 애정까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나만 짓밟으려 하십니까? 내가 당신의 피조물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아담이 되었어야 마땅하나, 도리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당신에 의해 기쁨으로부터 쫓겨난 타락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를 보든 행복이 가득하지만, 오직 나만이 그 행복에서 영원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나는 본래 선량하고 착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이 나를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다시 선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당장 사라져! 네 목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너와 나 사이에는 어떠한 유대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적이다. 당장 떠나거라. 아니면 차라리 싸워 힘을 겨루어 보자.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쓰러져야 끝이 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당신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선함과 자비에 호소하는 이 피조물을, 당신은 어찌하여 단 한 번도 너그러운 눈길로 바라봐 주지 않으십니까? 프랑켄슈타인, 믿어 주십시오. 나는 본래 선량한 존재였습니다. 내 영혼은 사랑과 인류애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홀로, 비참할 정도로 홀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나의 창조주인 당신조차 나를 혐오하는데, 나에게 아무런 의무도 없는 당신의 동족들에게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나를 거부하고 증오합니다. 황량한 산맥과 음울한 빙하만이 나의 안식처입니다. 나는 이곳을 수일 동안 떠돌았습니다. 오직 얼음 동굴만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곳이며, 인간이 시기하지 않는 유일한 거처입니다. 이 황량한 하늘을 나는 환영합니다. 이 하늘이 당신의 동족들보다 내게는 훨씬 더 다정하니까요. 만약 인류가 나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들도 당신처럼 나를 파멸시키려 무기를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혐오하는 그들을 내가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적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비참하며, 그들도 나의 이 비참함을 함께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내게 보답할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저지르려는 그 재앙이 너무나 거대해져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분노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사라지기 전에, 그들을 그 재앙으로부터 구해낼 힘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경멸하지 마십시오. 내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분이라 판단된다면 나를 버리든 가엽게 여기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일단 내 말을 들어 주십시오. 인간의 법은 비록 잔혹할지언정, 죄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전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허용합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

오, 프랑켄슈타인. 당신은 나를 살인자로 몰아세우면서도, 정작 당신 자신의 피조물을 파괴하려는 일에는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군요. 오, 인간의 영원한 정의란 참으로 대단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내 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이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의 손으로 만든 이 피조물을 파괴하십시오."

"내가 비참한 근원이자 창조주라는 사실을 왜 다시 떠올리게 하는가!" 나는 대꾸했다. "그 사실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지는구나. 네가 처음 세상의 빛을 본 그날이 저주받기를! 너를 빚어낸 이 손이 저주받기를! 비록 나 자신을 저주하는 처지일지라도 말이다! 너는 나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 속으로 몰아넣었다. 내가 너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 따져볼 기력조차 남겨 두지 않았단 말이다. 당장 사라져라! 그 혐오스러운 모습이 내 눈에 띄지 않게 해다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을 해방해 주겠소, 나의 창조주여."

그는 그렇게 말하며 혐오스러운 손을 내 눈앞에 들이밀었다. 나는 격렬하게 손을 쳐내며 시선을 돌렸다.

"이렇게 당신이 끔찍이 싫어하는 광경을 거두어 주었소. 그래도 당신은 내 말을 들으며 나를 가련히 여겨 줄 수 있을 것이오. 한때 내가 지녔던 미덕을 걸고, 나는 당신에게 이것을 요구하오.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길고도 기이한 이야기요. 게다가 이곳의 기온은 당신처럼 예민한 이가 견디기엔 너무나 가혹하니, 산 위에 있는 오두막으로 갑시다. 태양은 아직 하늘 높이 떠 있소. 태양이 저 눈 덮인 절벽 뒤로 몸을

숨기며 다른 세상을 비추기 전까지, 당신은 내 이야기를 다 듣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오. 내가 인간의 곁을 영원히 떠나 무해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동족들을 휩쓰는 재앙이 되어 당신을 파멸로 몰아넣을 것인지는 오로지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소."

그는 말을 마치며 얼음 위로 앞장서 나갔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가슴이 벅차올라 차마 대답할 수 없었으나, 발걸음을 옮기며 그가 내세운 여러 논거를 곱씹어 보았다. 적어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마음을 굳혔다. 호기심이 나를 부추기기도 했지만, 연민의 마음이 내 결심을 굳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나는 그를 내 동생을 죽인 살인자로 생각했기에,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간절히 확인하고 싶었다. 또한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달았다. 피조물의 사악함을 탓하기에 앞서, 그를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러한 마음들이 나를 움직여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했다.

우리는 얼음을 가로질러 건너편 바위 언덕으로 올라갔다. 공기는 차가웠고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악마는 환희에 찬 기색이었으나, 나는 무거운 마음과 가라앉은 기분뿐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혐오스러운 동행자가 피워 놓은 불가에 자리를 잡고 앉자,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11장

내가 처음 존재하기 시작했던 시기를 기억해 내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 무렵의 사건들은 모두 혼란스럽고 불분명하게만 느껴진다. 당시에는 기이할 정도로 수많은 감각이 한꺼번에 나를 덮쳐왔다. 나는 보고, 느끼고, 듣고, 냄새 맡는 일을 한꺼번에 겪었다. 여러 감각이 제각기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분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점차 강렬한 빛이 내 신경을 압박해 왔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눈을 감아야만 했다. 그러자 어둠이 나를 덮쳐 괴롭혔다. 하지만 어둠을 느끼기가 무섭게, 지금 생각해보건대 나는 다시 눈을 떴고 빛은 다시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걸었고, 아마도 아래로 내려갔던 것 같다. 그러다 곧 내 감각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음을 깨달았다. 이전에는 어둡고 불투명한 물체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 만지려 해도 만져지지 않았고 보려 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장애물이 나타나도 넘거나 피할 수 있었기에, 나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

빛은 갈수록 나를 짓눌렀고, 걷는 동안 느껴지는 열기는 나를 지치게 했다. 나는 그늘을 찾으려 애썼다. 그곳은 잉골슈타트 근처의 숲이었다. 나는 그곳 시냇가 옆에 누워 피로를 풀었다. 그러다 허기와 갈증이 나를 괴롭힐 때까지 한참을 누워 있었다. 그 고통 덕분에 거의 잠든 것과 다름없던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 나는 나무에 매달려 있거나 땅에 떨어져 있는 열매들을 찾아 먹었다. 시냇가에서 갈증을 해소한 뒤, 나는 다시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깨어났을 때 주변은 어두웠다. 몸은 차가웠고,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에 본능적인 두려움마저 느껴졌다. 당신의 방을 나서기 전, 한기가 느껴져 옷가지로 몸을 감싸기도 했으나 밤이슬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나는 가련하고 무력하며 비참한 불행아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분간할 수도 없었다. 다만 사방에서 고통이 밀려드는 것을 느끼며, 나는 그저 주저앉아 울 뿐이었다.

곧 하늘 위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더니, 나는 기분 좋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몸을 일으켜 나무 사이에서 떠오르는 찬란한 형체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달이었다. 나는 경이로운 마음으로 달을 응시했다. 달은 천천히 움직였지만, 내 앞길을 환히 비추어 주었다. 나는 다시 베리를 찾아 나섰다. 여전히 추위가 느껴졌지만, 나무 아래에서 커다란 망토 하나를 발견했다. 나는 그것으로 몸을 감싼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은 명확한 생각 하나 없이 온통 혼란스러웠다. 몸은 가벼웠고, 허기와 갈증, 그리고 어둠이 느껴졌다. 셀 수 없이 많은 소리가 귓가에 울렸고, 사방에서 온갖 향기가 나를 반겼다. 내가 분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밝은 달뿐이었기에,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달에 시선을 고정했다.

밤낮이 여러 번 바뀌고 밤을 밝히던 달의 형체가 눈에 띄게 작아졌을 무렵, 나는 비로소 나의 감각들을 하나하나 구분하기 시작했다. 마실 물을 대어 주던 맑은 시냇물과 잎사귀로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던 나무들이 점차 선명하게 보였다. 내 눈앞을 자주 가로막던 작은 날개 달린 짐승들의 목구멍에서, 종종 내 귀를 반갑게 맞이하던 그 즐거운 소리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나는 무척 기뻤다. 또한 나를 둘러싼 형체들을 더욱 정확하게 관찰하기 시작했고, 나를 덮고 있는 빛나는 하늘의 경계도 인지하게 되었다. 때때로 나는 새들의 즐거운 노래를 흉내 내 보려 했으나 실패했다. 때로는 나만의 방식으로 내 감각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칠고 형편없는 소리에 겁을 먹고 다시 침묵 속으로 숨어버리곤 했다.

밤하늘에서 달이 사라졌다가, 내가 여전히 숲속에 머무는 동안 달은 다시금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달의 모양이 조금 작아져 있었다. 그 무렵 나의 감각은 점차 뚜렷해졌고, 매일 새로운 생각들이 머릿속에 차올랐다. 눈은 빛에 익숙해지면서 사물의 본래 형태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곤충과 풀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점차 풀과 풀 사이의 차이까지도 구별해 나갔다. 참새는 거친 소리만을 내뱉는 반면, 검은지빠귀와 지빠귀의 울음소리는 달콤하고 매혹적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어느 날, 추위에 짓눌려 고통받던 나는 떠돌이 거지들이 남겨두고 간 불을 발견했다. 그 온기가 전해지자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휩싸였다. 기쁜 나머지 나는 타오르는 불씨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으나, 이내 비명을 지르며 손을 급히 빼내고 말았다.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같은 원인이 이토록 상반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

나는 불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고, 다행히 나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나는 서둘러 나뭇가지들을 모았지만, 그것들은 젖어 있어서 불이 붙지 않았다. 나는 실망한 채 가만히 앉아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자 내가 열기 근처에 두었던 젖은 나무들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스스로 불길에 휩싸였다. 나는 이 과정을 곰곰이 되새겼다. 여러 나뭇가지를 만져보며 그 원리를 깨달은 나는, 나무를 말려 불을 넉넉히 피울 수 있도록 엄청난 양의 땔감을 모으는 데 몰두했다.

밤이 찾아오고 잠 기운이 몰려왔을 때, 나는 혹여 불이 꺼질까 봐 몹시 두려웠다. 나는 마른 나무와 잎사귀로 불을 조심스럽게 덮고, 그 위에 젖은 나뭇가지들을 얹어두었다. 그러고 나서 망토를 펼쳐 땅 위에 누운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불을 살피는 것이었다. 덮여 있던 불씨를 들춰내자,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금세 불꽃을 일으켰다. 나는 이 광경을 유심히 관찰한 뒤 나뭇가

지를 엮어 부채를 만들었다. 덕분에 불씨가 거의 꺼져갈 때마다 다시 살려낼 수 있었다.

다시 밤이 찾아왔을 때, 나는 불이 열기뿐만 아니라 빛도 내뿜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뻐했다. 이 사실을 알아낸 덕분에 음식을 먹는 일도 훨씬 수월해졌다. 여행자들이 남기고 간 음식 찌꺼기 가운데 일부가 불에 구워져 있었는데, 나무에서 딴 열매를 먹을 때보다 훨씬 맛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 뒤로 나는 음식을 불이 붙은 불씨 위에 올려 구워 먹으려 노력했다. 열매는 구우면 맛이 변해버렸지만, 견과류와 뿌리 채소는 구웠을 때 맛이 훨씬 좋아졌다.

하지만 먹을 것이 부족해졌다. 허기를 달래려 도토리 몇 알을 찾아 온종일 헤매고 다녀도 허사일 때가 많았다. 사정이 이러함을 깨닫고, 나는 지금까지 머물던 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내가 겪는 이 몇 안 되는 결핍이나마 조금이라도 더 쉽게 채울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주를 결정하며 나는 우연히 얻었던 불을 잃은 것을 몹시 한탄했다. 불을 다시 만드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몇 시간 동안이나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지만, 결국 불을 피울 방법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망토를 몸에 두른 채, 지는 해를 향해 숲을 가로질러 나아갔다.

그렇게 방랑하며 사흘을 보낸 끝에 마침내 탁 트인 들판에 다다랐다. 전날 밤에 눈이 아주 많이 내린 탓에 들판은 온통 하얀 빛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 모습은 참으로 쓸쓸해 보였고, 땅을 덮은 차갑고 축축한 눈 때문에 내 발은 얼어붙는 듯했다.

아침 일곱 시쯤 되었을 무렵, 나는 무엇보다도 먹을 것과 쉴 곳이 간절했다. 그러다 마침내 언덕 위에서 작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다. 분명 양치기를 위해 지어놓은 곳일 터였다. 내게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에, 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건물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불가에 앉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노인이 고개를 돌리더니, 나를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오두막 밖으로 뛰쳐나갔다. 노인은 그 허약한 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만큼 빠른 속도로 들판을 가로질러 달아났다. 생전 처음 보는 노인의 모습과 그 갑작스러운 도주에 나는 다소 당황했다. 하지만 나는 그 오두막의 모습에 매료되었다. 이곳은 눈과 비를 막아주었고 바닥도 말라 있었다. 불의 호수에서 고통을 겪은 지옥의 악마들에게 판데모니움이 눈부시고 신성한 안식처처럼 보였듯, 내게도 그곳은 그러한 안식처였다. 나는 양치기가 먹다 남긴 빵과 치즈, 우유, 그리고 포도주로 이루어진 아침 식사를 허겁지겁 먹어 치웠다. 다만 포도주는 입에 맞지 않았다. 그러고는 밀려오는 피로를 이기지 못한 채 짚더미 사이에 몸을 뉘어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정오였다. 하얀 땅 위로 눈부시게 내리쬐는 햇살의 온기에 이끌려, 나는 다시 여행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근처에서 찾아낸 자루에 농부의 아침 식사 잔해를 챙겨 넣은 뒤, 나는 몇

시간 동안 들판을 가로질러 나아갔다. 해가 질 무렵에야 한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광경은 얼마나 경이로웠던가! 오두막과 깔끔한 집들, 그리고 웅장한 저택들이 차례로 내 감탄을 자아냈다. 정원의 채소들과 몇몇 집 창가에 놓인 우유와 치즈를 보니 식욕이 돋았다. 나는 그중 가장 좋아 보이는 집 한 곳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문턱을 넘자마자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고, 여인 중 한 명은 기절하고 말았다.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어떤 이들은 도망쳤고, 어떤 이들은 나를 공격했다. 돌과 온갖 투척 무기에 맞아 온몸이 엉망이 된 채로, 나는 겨우 마을을 벗어나 탁 트인 들판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겁에 질린 채 낮은 오두막 하나를 찾아 몸을 숨겼다. 마을에서 보았던 화려한 저택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곳이었다.

이 오두막은 깔끔하고 쾌적해 보이는 집 한 채와 붙어 있었지만, 방금 겪은 뼈아픈 경험 탓에 나는 감히 그곳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내가 몸을 피한 곳은 나무로 지어진 구조물이었는데, 천장이 너무 낮아 똑바로 앉아 있기도 힘들 정도였다. 바닥은 나무판조차 깔려 있지 않은 맨땅이었지만 다행히 말라 있었다. 수많은 틈새로 바람이 들이치긴 했으나, 눈과 비를 피하기에는 더없이 아늑한 안식처였다.

나는 그곳으로 물러났다. 비록 비참한 곳이었으나, 혹독한 날씨와 인간의 야만성으로부터 몸을 피할 안식처를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내가 머물던 개집에서 살금살금 기어 나왔다. 근처 오두막을 살펴보고, 내가 발견한 이 거처에 계속 머물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개집은 오두막 뒷면에 붙어 있었는데, 옆으로는 돼지우리와 맑은 연못이 펼쳐져 있었다. 한쪽 면은 뚫려 있어서 그 사이로 기어 들어올 수 있었지만,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들킬지도 모를 모든 틈새를 돌과 나무로 메워 막아두었다. 물론 필요할 때 언제든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절해가며 막았다. 나에게 들어오는 빛은 모두 돼지우리를 통해 들어왔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거처를 정리하고 깨끗한 짚을 깔아둔 뒤 나는 물러나 쉬었다. 멀리서 한 남자의 형체가 보였기 때문이다. 전날 밤에 겪었던 일이 너무도 생생하게 떠올랐기에, 감히 그자의 손아귀에 나를 맡길 엄두가 나지 않았다. 우선 그날 하루를 버틸 양식을 챙겨두었다. 훔쳐 온 거친 빵 한 덩이와, 은신처 옆으로 흐르는 맑은 물을 손으로 직접 마시는 것보다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컵 하나를 준비했다. 바닥은 약간 높게 만들어져 있어 아주 건조했고, 오두막의 굴뚝과도 가까워 온기도 적당히 유지되었다.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게 되자, 나는 상황이 바뀌어 결심을 수정해야 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오두막에서 지내기로 마음먹었다. 비가 들이치는 나뭇가지와 축축한 흙바닥뿐이었던 이전 거처, 그 황량한 숲에 비하면 이곳은 참으로 낙원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마쳤다. 그리고 물을 조금 얻으려고 바닥 판자를 들어 올리려던 찰나, 발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니, 한 소녀가 머리에 양동이를 이고 내 오두막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소녀는 어리고 태도가 정숙해 보였다. 이후 내가 보아온 농가 식구들이나 하인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소녀의 옷차림은 초라했다. 거

친 푸른색 속치마와 리넨 재킷이 그녀가 입은 전부였다. 금발 머리는 땋아 내렸으나 별다른 장식은 없었다. 소녀는 인내심이 있어 보이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였다.

이내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니, 15분쯤 지나자 소녀가 다시 나타났다. 소녀의 양동이에는 우유가 어느 정도 채워져 있었다. 소녀가 양동이 무게 때문에 힘겨워하며 걸어올 때, 한 젊은 남자가 그녀를 맞이했다. 남자의 얼굴에는 깊은 낙담이 서려 있었다. 남자는 우울한 기색으로 몇 마디 말을 건네더니, 소녀의 머리에서 양동이를 받아 직접 오두막으로 옮겼다. 소녀는 그 뒤를 따랐고, 두 사람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잠시 후, 손에 연장을 든 젊은 남자가 오두막 뒤편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이 다시 보였다. 소녀 역시 집 안팎을 오가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머무는 곳을 살펴보니, 오두막 창문 중 하나가 예전에는 그 자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나무판자로 메워져 있었다. 그 판자 중 하나에는 눈을 겨우 들이밀 수 있을 만큼 아주 작고 미세한 틈이 나 있었다. 그 틈 사이로 작은 방 하나가 보였다. 방은 흰칠이 되어 있어 깨끗했지만 가구는 거의 없었다. 한쪽 구석, 작은 화로 근처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낙담한 듯 두 손에 머리를 기댄 채였다. 한 소녀는 오두막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그러다 소녀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을 움직이더니, 노인의 곁에 앉았다. 노인은 악기를 들어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지빠귀나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보다도 달콤했다.

그 광경은 아름다웠다. 이전에 그 무엇도 아름다운 것을 본 적 없는 가련한 나에게조차 말이다. 백발의 노인이 지닌 자애로운 얼굴은 나로 하여금 경외심을 느끼게 했고, 소녀의 다정한 태도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노인은 애잔하고 감미로운 곡조를 연주했다. 그 선율에 상냥한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나는 보았다. 노인은 소녀가 소리 내어 흐느끼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다 노인이 몇 마디 말을 건네자, 아름다운 소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노인은 소녀를 일으켜 세우며 더없이 친절하고 애정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형언할 수 없는 압도적인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고통과 즐거움이 뒤섞인, 지금까지 굶주림이나 추위, 혹은 온기나 음식으로부터 느껴보았던 그 어떤 감각과도 다른 생소한 것이었다. 나는 이 감정들을 견디지 못하고 창가에서 물러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청년이 어깨에 땔감을 한 가득 짊어지고 돌아왔다. 소녀는 문앞에서 그를 맞이하며 짐을 덜어주었다. 소녀는 땔감 일부를 오두막 안으로 들여 화로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소녀와 청년은 오두막 한구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청년은 그녀에게 커다란 빵 한 덩이와 치즈 한 조각을 보여주었다. 소녀는 기뻐하는 기색이었다. 소녀는 정원으로 나가 뿌리 채소와 식물 몇 가지를 가져왔다. 소녀는 그것들을 물에 담가 두었다가 화로 위에 올렸다. 소녀가 다시 하던 일을 계속하는 동안, 청년은 정원으로 나가 땅을 파고 뿌리를 뽑으며 분주히 움직였다. 그렇게 한 시간쯤 지났을까, 여인이 청년의 곁으로 다가갔고 두 사람은 함께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사이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으나, 동료들이 나타나자 이내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일행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고, 식사는 금세 끝났다. 젊은 여인은 다시 오두막을 정리하는 일에 몰두했고, 노인은 청년의 팔에 몸을 기댄 채 햇살이 내리쬐는 오두막 앞을 잠시 거닐었다. 이 두 선한 존재가 이루는 대비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한 명은 은빛 머리칼을 가진 노인이었는데, 그 얼굴에는 자애로움과 사랑이 가득 넘쳐흘렀다. 다른 한 명은 체구가 가냘프고 우아한 청년이었는데, 이목구비는 더할 나위 없이 조화롭고 아름다웠으나 눈빛과 몸짓에는 깊은 슬픔과 절망이 서려 있었다. 노인이 오두막으로 돌아가자, 청년은 아침에 쓰던 것과는 다른 도구들을 챙겨 들고 들판을 가로질러 발걸음을 옮겼다.

밤은 빠르게 찾아왔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집의 거주자들에게는 양초를 이용해 빛을 더 오래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해가 진다고 해서 이웃 인간들을 관찰하며 느끼는 즐거움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기에 나는 무척 기뻤다. 저녁이 되자 젊은 여자와 그 동료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에 몰두했다. 노인은 아침에 나를 매료시켰던 신성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다시 들었다. 노인이 연주를 마치자마자 청년이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연주가 아니었다. 청년은 단조로운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노인의 악기가 들려주는 화음과도 달랐고 새들의 노래와도 닮지 않았다. 나중에야 나는 그가 글자를 소리 내어 읽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당시의 나는 글자나 단어라는 학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가족들은 잠시 그렇게 시간을 보낸 뒤 등불을 끄고, 내 짐작으로는 쉬려고 자리에 든 듯했다.

제12장

짚더미 위에 누웠으나 잠은 오지 않았다. 그저 그날 있었던 일들을 되새길 뿐이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 사람들의 다정한 태도였다. 나도 그들 곁에 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지만, 감히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았다. 전날 밤 야만적인 마을 사람들에게 당했던 수모가 너무도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걷는 것이 옳을지 고민하겠지만, 적어도 지금만큼은 이 오두막에 조용히 머물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동기를 살피며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오두막의 가족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났다. 젊은 여인은 집 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으며, 젊은이는 첫 끼니를 마친 뒤 집을 나섰다.

그날도 전날과 다를 바 없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젊은이는 줄곧 밖에서 일을 했고, 소녀는 집 안에서 여러 가지 고된 일들을 도맡아 했다. 곧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인은 남는 시간을 악기를 연주하거

나 사색을 하며 보냈다. 젊은 농가 식구들이 연로한 동거인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존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은 노인에게 애정과 도리를 다하며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정성껏 보살폈고, 노인은 자애로운 미소로 그들에게 화답했다.

그들은 온전히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젊은이와 그의 동행은 자주 떨어져서 눈물을 흘리곤 했다. 나는 그들이 왜 불행한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모습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저토록 아름다운 존재들조차 저토록 비참하다면, 불완전하고 외로운 존재인 내가 괴로워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닐 터였다.

하지만 저토록 온화한 이들은 대체 왜 불행한 것일까? 그들에게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일 만큼) 아주 근사한 집과 온갖 사치스러운 물건들이 있었다. 추울 때는 몸을 녹여줄 불이 있었고, 배가 고플 때는 맛있는 음식이 있었다. 옷차림 또한 훌륭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그들은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나누었고, 매일같이 다정한 눈빛과 친절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눈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눈물은 정말로 고통을 나타내는 것일까? 처음에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끊임없이 관찰하고 시간을 들인 끝에, 처음에는 수수께끼처럼 보였던 많은 모습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다정한 가족이 왜 그토록 불안해하는지, 그 원인 중 하나를 알아차리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원인은 가난이었다. 그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수준으로 빈곤을 견뎌내고 있었다. 식사는 온전히 정원

의 채소와 소 한 마리가 내어주는 우유에 의존했는데, 겨울이면 소를 먹일 음식조차 구하기 힘들어 우유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내 생각에 그들은 종종 뼈를 깎는 듯한 허기를 느꼈을 것이다. 특히 젊은 두 사람은 더욱 그러했을 터였다.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은 채, 노인 앞에 음식을 가져다 놓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친절한 태도는 내 마음을 깊이 울렸다. 밤마다 그들이 모아둔 식량을 몰래 가져다 먹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러한 행동이 집주인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로는 그만두었다. 대신 나는 근처 숲에서 베리류와 견과류, 뿌리 식물들을 채집하며 허기를 달랬다."

그들의 노동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냈다. 젊은이는 매일 상당한 시간을 가족들이 쓸 땔감을 모으는 데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밤마다 그의 연장을 가져가곤 했다. 연장을 사용하는 법도 금세 익혔기에, 나는 며칠 동안 넉넉히 쓸 수 있는 만큼의 땔감을 집으로 가져다 놓았다.

내가 처음 이 일을 했을 때가 기억난다. 아침에 문을 연 그 젊은 여인은 문밖에 쌓인 커다란 장작 더미를 보고 몹시 놀란 기색이었다. 여인이 큰 소리로 무어라 외치자, 그 청년도 놀라움을 표하며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나는 그날 청년이 숲으로 가지 않고, 대신 오두막을 수리하고 정원을 가꾸는 데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점차 나는 훨씬 더 중대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이 사람들이 명확한 소리를 내어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들이 내뱉는 말들이 때로는 듣는 이의 마음과 얼굴 표정에 기쁨이나 고통, 미소나 슬픔을 불러일으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참으로 신의 영역에 맞닿은 학문 같았기에, 나는 그 언어를 익히고 싶어 간절히 갈망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시도한 모든 노력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들의 발음은 너무나 빨랐고, 그들이 내뱉는 단어들은 눈에 보이는 사물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그 말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 실마리를 도무지 찾아낼 수 없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그리고 내가 사는 오두막에서 달이 몇 번이나 차고 기우는 시간을 보낸 뒤에야 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물들의 이름을 알아낼 수 있었다. 나는 '불', '우유', '빵', '나무'라는 단어를 배우고 직접 사용해 보기도 했다. 또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도 익혔다. 젊은이와 그 동료는 각각 여러 이름으로 불렸지만, 노인은 '아버지'라는 이름 하나뿐이었다. 소녀는 '누이' 혹은 '아가사'라고 불렸고, 젊은이는 '펠릭스', '형제', 혹은 '아들'이라 불렸다.

각각의 소리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그 단어들을 직접 발음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느꼈던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나는 아직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활용하지는 못했지만, '선한', '사랑하는', '불행한'과 같은 다른 단어들도 몇 가지 구별해낼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겨울을 보냈다. 오두막 가족들의 온화한 품성과 아름다움은 나를 그들에게 깊이 빠져들게 했다. 그들이 불행하면 나 역시 우

울해졌고, 그들이 기뻐하면 나 또한 그 기쁨에 동참했다. 그들 외에는 인간을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다. 혹여 다른 이가 오두막에 들어오기라도 하면, 그들의 거친 태도와 무례한 걸음걸이는 오히려 내 친구들의 뛰어난 인품을 더욱 돋보이게 할 뿐이었다.

노인은 종종 자식들이 우울함을 떨쳐내도록 격려하려 애쓰는 듯 보였다. 가끔 그가 그들을 자식이라 부르는 것을 들었기에 나도 그렇게 칭한다. 노인은 쾌활한 어조로 말하곤 했는데, 그 선한 표정은 나에게까지 즐거움을 전해주었다. 아가타는 경건하게 그 말을 경청했다. 가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으나, 그녀는 남몰래 그 눈물을 닦아내려 애썼다. 하지만 대개 아버지의 권고를 듣고 나면 아가타의 표정과 목소리는 한결 밝아지곤 했다.

펠릭스는 달랐다. 그는 언제나 가족 중 가장 슬픈 모습이었다. 경험이 부족한 나의 감각으로 보아도, 그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을 겪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슬픔이 서린 얼굴과는 달리, 그의 목소리는 누이보다 훨씬 쾌활했다. 특히 그가 노인에게 말을 건넬 때면 더욱 그러했다.

이 다정한 오두막 식구들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례는 비록 사소할지라도 셀 수 없이 많다.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펠릭스는 눈 덮인 땅 사이로 처음 고개를 내민 작은 하얀 꽃 한 송이를 기쁜 마음으로 누이에게 가져다주곤 했다. 이른 아침, 누이가 깨어나기도 전에 그는 우유 창고로 가는 길을 가로막은 눈을 치웠다. 그러고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고 헛간에서 땔감을 가져왔는데, 신기하게도 그가 모아둔 땔감은 언제

나 보이지 않는 손이 채워놓은 듯 다시 가득 차 있어 그는 늘 놀라워했다. 그는 낮 동안 이웃 농부의 일을 돕기도 했던 것 같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돌아오는 일이 잦았는데, 그때 그는 땔감을 전혀 들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어떤 때는 정원을 가꾸기도 했지만, 추운 계절이라 할 일이 많지 않았기에 그는 노인과 아가타에게 책을 읽어주곤 했다.

처음에는 이 읽기 방식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무척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깨달은 사실이 있었다. 그는 말을 할 때나 글을 읽을 때나 거의 같은 소리를 낸다는 점이었다. 나는 그가 종이 위에 적힌 기호들을 보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말소리로 받아들인다고 추측했다. 나 역시 그 기호들을 간절히 이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기호가 상징하는 소리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나는 온 정신을 다해 이 공부에 매달렸고, 덕분에 언어에 대한 식견이 눈에 띄게 나아지기는 했다. 하지만 어떤 대화도 이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준은 아니었다. 나는 오두막 가족들에게 내 존재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우선 그들의 언어를 완벽히 익히기 전에는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언어를 깨우친다면 내 흉측한 외모를 그들이 너그럽게 넘겨줄 수도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내 눈앞에 끊임없이 비치는 나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 사이의 극명한 대비를 보며, 나는 이미 그 차이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나는 함께 사는 이들의 완벽한 형상을 동경하곤 했다. 그들의 우아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고운 피부를 말이다. 하지만 투명한 물웅덩이

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얼마나 큰 공포에 휩싸였던가! 처음에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정말 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뒷걸음질 쳤다. 그러다 내가 정말로 지금의 이 괴물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자, 나는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함과 굴욕감에 휩싸였다. 아, 슬프도다! 그때의 나는 이 비참한 외형이 불러올 치명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아직 전부 알지 못했다."

햇살이 따스해지고 낮이 길어지면서 눈이 녹아내렸고, 마침내 앙상한 나무와 검은 흙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때부터 펠릭스는 더욱 분주히 움직였으며, 곧 닥쳐올 기근을 예고하던 가슴 아픈 징조들도 사라졌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이 먹는 음식은 거칠었으나 건강에는 이로웠고 양도 충분했다. 정원에는 여러 종류의 새로운 식물들이 돋아나 그들이 정성껏 가꾸었고, 계절이 깊어갈수록 삶의 안락함을 알리는 이러한 징조들도 나날이 늘어갔다.

그 노인은 아들에게 몸을 기댄 채 매일 정오가 되면 산책을 나갔다.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면 말이다. 하늘에서 물을 쏟아붓는 현상을 사람들은 비가 온다고 표현하곤 했는데, 그런 날이 잦았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 금세 땅을 말려 놓았기에, 계절은 이전보다 훨씬 쾌적해졌다.

오두막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다. 아침에는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고, 그들이 각자의 일로 흩어지면 나는 잠을 잤다. 남은 하루는 나의 친구들을 관찰하며 보냈다.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러 들어가면, 달이 떠 있거나 별빛이 밝은 밤을 틈타 숲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나는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고 오두막에서 쓸 땔감을 모았다. 돌아올 때

마다 필요할 때면 눈을 치워 그들의 길을 터주었고, 펠릭스가 하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 하며 집안일을 도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해놓은 듯한 이 수고로운 일들은 사람들을 무척 놀라게 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선한 영혼이다, 경이롭구나"라고 말하는 것을 한두 번 들었지만, 당시의 나는 그 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생각은 점점 더 활발해졌고, 나는 이 사랑스러운 존재들의 동기와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왜 펠릭스는 저토록 비참해 보이며, 아가타는 왜 저토록 슬퍼 보이는지 알고 싶은 호기심이 일었다. 나는 이 선한 이들에게 다시 행복을 되찾아주는 것이 내 능력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 어리석은 자여!) 잠이 들거나 자리를 비울 때면, 존경스러운 눈먼 아버지와 온화한 아가타, 그리고 훌륭한 펠릭스의 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들을 내 미래의 운명을 결정지을 고결한 존재로 여겼다. 나는 그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과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두고 수천 가지 장면을 상상했다. 처음에는 그들이 나를 혐오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온화한 태도와 다정한 말로 먼저 그들의 호감을 사고, 그다음에는 사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상상했다.

이러한 생각은 나를 고무시켰고, 언어를 익히는 일에 새로운 열정을 쏟게 만들었다. 나의 발성 기관은 확실히 거칠었으나 유연했다. 내 목소리가 그들의 부드러운 음색과는 매우 달랐음에도, 나는 이해한 단어들을 꽤 수월하게 발음할 수 있었다. 마치 당나귀나 강아지가 흉내를 내는 것 같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비록 태도는 거칠지언정 마음만은

다정한 당나귀라면, 매질과 저주보다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분명히 있지 않은가.

봄의 감미로운 단비와 온화한 온기는 대지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계절이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동굴 속에 숨어 지내는 듯했던 사람들은 이제 밖으로 나와 저마다 농사일과 다양한 노동에 전념했다. 새들은 한층 더 경쾌한 소리로 노래했고, 나무에는 잎사귀가 돋아나기 시작했다. 행복하고, 또 행복한 대지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량하고 축축하며 불쾌한 기운이 감돌던 이곳이, 이제는 신들이 머물기에 부족함이 없는 안식처가 되었다. 자연의 황홀한 모습에 나의 마음도 고양되었다. 과거의 기억은 씻은 듯 사라졌고, 현재는 평온했으며, 미래는 밝은 희망과 기쁨에 대한 기대라는 금빛 광채로 물들었다.

제13장

이제 내 이야기에서 더욱 절절한 부분으로 서둘러 넘어가려 한다. 과거의 내가 겪은 일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듯, 내 영혼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사건들을 이제 들려주려 한다.

봄은 빠르게 다가왔고, 날씨는 화창해졌으며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이전에는 황량하고 음울하기만 했던 곳이 이토록 아름다운 꽃과 푸른 잎들로 만개한 모습에 나는 경탄했다. 수만 가지의 향기로운 내음과 아름다운 풍경은 내 감각을 즐겁게 했고, 지친 마음을 상쾌하게 달래주었다.

그날은 오두막 식구들이 주기적으로 노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던 날 중 하루였다. 노인은 기타를 연주했고 아이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나는 펠릭스의 얼굴에 형언할 수 없는 우울함이 서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연신 한숨을 내뱉었다. 한 번은 그의 아버지가 연주를 멈추기도 했는데, 그 몸짓을 보고 나는 아버지가 아들의 슬픔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묻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했다. 펠릭스는

밝은 어조로 대답했다. 노인이 다시 연주를 시작하려던 찰나,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말을 탄 여인이 나타났다. 곁에는 길을 안내할 시골 사람이 동행하고 있었다. 여인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두꺼운 검은 베일을 쓰고 있었다. 아가타가 질문을 던졌으나, 낯선 여인은 그저 감미로운 말투로 펠릭스의 이름을 부를 뿐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음악처럼 아름다웠지만, 내 친구들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그 이름을 듣자마자 펠릭스가 서둘러 여인에게 다가갔다. 여인은 펠릭스를 보자 베일을 걷어 올렸고, 나는 그 순간 천사처럼 아름답고 자애로운 얼굴을 마주했다. 윤기 흐르는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기묘하게 땋여 있었고, 눈동자는 검었으나 생기 있으면서도 부드러웠다. 이목구비는 조화로웠으며, 피부는 놀라울 정도로 희고 양 볼에는 사랑스러운 분홍빛이 감돌았다.

펠릭스는 그녀를 보자마자 환희에 젖은 듯 보였다. 얼굴에서 슬픔의 흔적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내가 믿기 힘들 정도로 황홀한 기쁨이 차올랐다. 그의 눈은 반짝였고 뺨은 즐거움으로 상기되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저 낯선 여인만큼이나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또 다른 감정에 휩싸인 듯 보였다. 아름다운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낸 그녀가 펠릭스에게 손을 내밀자, 그는 황홀하게 그 손에 입을 맞추며 그녀를 '사랑스러운 아라비아 여인'이라 불렀다. 내가 듣기로는 그녀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듯했지만,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펠릭스는 그녀가 말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준 뒤 안내인을 물러가게 하고 그녀를 오두막 안으로 이끌었다. 펠릭스와 그의 아버지 사

이에 대화가 오갔다. 젊은 여인은 노인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려 했으나, 노인은 그녀를 일으켜 세워 다정하게 품에 안아주었다.

낯선 여인이 명확한 소리를 내뱉고 나름의 언어를 가진 듯 보였으나, 곧 그녀가 오두막 가족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그녀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족들은 내가 알 수 없는 몸짓을 많이 해 보였지만, 그녀의 존재가 마치 아침 안개를 걷어내는 햇살처럼 오두막의 슬픔을 몰아내고 기쁨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펠릭스는 유독 행복해 보였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아라비아 여인을 반겼다. 언제나 다정한 아가타는 아름다운 이방인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는 오빠를 가리키며, 그녀가 오기 전까지는 그가 무척 슬퍼했다는 뜻인 듯한 몸짓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지만,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여인이 가족들의 말을 따라 하며 특정 소리를 자주 반복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그들의 언어를 배우려 노력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순간, 나 또한 같은 목적으로 언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여인은 첫 수업에서 스무 단어 정도를 익혔다. 사실 그중 대부분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단어들이었으나, 나는 그 외의 다른 단어들을 배우며 도움을 얻었다.

밤이 깊어지자 아가타와 아라비아인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두 사람이 헤어질 때 펠릭스는 낯선 이의 손에 입을 맞추며 "잘 자요, 사랑스러운 사피"라고 말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앉아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의 이름이 반복해서 들리는 것을 보니,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바로 이 아름다운 손님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의 말을 간절히 이해하고 싶어 모든 감각을 집중해 보았으나,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을 깨달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펠릭스는 일하러 나갔다. 아가타의 일과가 모두 끝나자, 아라비아 여인은 노인의 발치에 앉아 기타를 들었다. 그녀가 연주하는 선율은 넋을 잃을 만큼 아름다웠고, 그 소리에 매료된 나는 슬픔과 환희가 뒤섞인 눈물을 곧바로 흘리고 말았다. 그녀가 노래를 시작하자, 그 목소리는 숲속의 나이팅게일처럼 풍성한 울림을 만들어내며 커졌다가 다시 잦아들기를 반복했다.

연주를 마친 그녀는 아가타에게 기타를 건넸다. 아가타는 처음에는 사양했다. 아가타가 단순한 선율을 연주하자 그녀의 목소리가 감미로운 음조로 뒤따랐으나, 낯선 이가 들려주었던 그 경이로운 선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노인은 황홀경에 빠진 듯 보였다. 그는 무언가 말을 내뱉었고, 아가타는 그 뜻을 사피에게 설명하려 애썼다. 노인의 말은 그녀의 음악이 자신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선사했다는 진심을 전하려는 듯했다.

그 후로도 나날은 이전처럼 평온하게 흘러갔다. 유일한 변화가 있다면, 내 친구들의 얼굴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쁨이 깃들었다는 점뿐이었다. 사피는 언제나 밝고 행복한 모습이었다. 그녀와 나는 언어를 익히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고, 덕분에 두 달 만에 나를 돌봐주는 이들이 하는 말 대부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사이 검은 땅은 풀밭으로 뒤덮였고, 초록빛 강둑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꽃이 피어났다. 달빛이 비치는 숲속에서 꽃들은 은은한 빛을 내뿜는 별처럼 흩어져 있었으며, 향기와 색채 모두 달콤했다. 태양은 점점 따뜻해졌고, 밤은 맑고 향긋했다.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탓에 밤 산책 시간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나는 밤에 거니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다. 낮에는 결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처음 발을 들였던 마을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일을 다시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언어를 더 빨리 익히기 위해 온종일 집중하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아라비아인보다 훨씬 빠르게 실력을 키웠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 아라비아인은 이해력도 부족하고 말도 서툴게 더듬거렸지만, 나는 상대가 하는 거의 모든 말을 알아듣고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었다.

말하기 실력이 늘어감과 동시에, 나는 그 이방인에게 가르쳐지던 방식 그대로 글을 읽고 쓰는 법도 익혔다. 덕분에 경이로움과 기쁨이 가득한 넓은 세계가 내 앞에 펼쳐졌다.

펠릭스가 사피를 가르칠 때 사용한 책은 볼네의 『제국의 폐허』였다. 펠릭스가 책을 읽어주며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책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펠릭스의 말에 따르면, 이 책의 문체가 동양 작가들의 방식을 모방하여 격정적으로 쓰였기에 이 책을 선택했다고 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역사를 대략적으로 파악했고,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제국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책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민족의 풍습과 정부, 그리고 종교를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었다. 나는 나태한 아시아인들에 대해, 그리

스인들의 경이로운 천재성과 지적 활동에 대해, 그리고 초기 로마인들의 전쟁과 놀라운 미덕에 대해 들었다. 이후 로마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쇠락했는지, 그리고 기사도와 기독교, 그리고 왕들에 대해서도 배웠다.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곳의 원주민들이 겪은 불행한 운명을 생각하며 사피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 경이로운 이야기들은 내 안에 기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인간이란 진정 이토록 강력하고 도덕적이며 위대한 존재인 동시에, 이토록 사악하고 비열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인간은 때로 악의 원리에서 태어난 단순한 후손처럼 보이다가도, 또 어떤 때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신성한 존재처럼 보이기도 했다. 예민한 감각을 지닌 존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는 위대하고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반면, 기록에 남은 수많은 이들처럼 비열하고 사악해지는 것은 눈먼 두더지나 해롭지 않은 벌레보다도 더 비참하고 낮은 상태, 즉 가장 밑바닥의 타락이라 여겨졌다. 오랫동안 나는 어떻게 한 인간이 동족을 살해하러 나설 수 있는지, 심지어 왜 법과 정부가 존재하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악행과 유혈 사태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듣게 되자, 나의 경이로움은 사라졌고 나는 혐오와 가증스러움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다.

그 오두막 가족들이 나누는 대화는 매번 내게 새로운 경이로움을 선사했다. 펠릭스가 아랍인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곁에서 듣고 있노라면, 인간 사회가 이루는 기묘한 체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재

산이 나뉘어 있다는 사실과 막대한 부, 그리고 비참한 가난에 대해 들었다. 또한 계급과 가문, 그리고 고귀한 혈통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그 말들은 나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나는 동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고귀하고 순결한 혈통과 부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갖추어도 존경을 받을 수 있었지만, 둘 다 없다면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랑자나 노예로 취급받았다. 선택받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탕진하며 살아야 하는 운명인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를 만든 존재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다만 내게는 돈도, 친구도, 그 어떤 재산도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았다. 게다가 나는 끔찍하게 기형적이고 혐오스러운 외형까지 갖추고 있었다. 나는 인간과 같은 본성을 가진 존재조차 아니었다. 나는 인간보다 몸놀림이 민첩했고, 거친 음식으로도 연명할 수 있었다. 극심한 더위와 추위도 내 몸에 큰 해를 끼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으며, 키 또한 인간보다 훨씬 컸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나와 닮은 존재는 보이지 않았고, 나와 같은 존재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나는 괴물인가? 모든 사람이 도망치고 모두가 외면하는, 이 땅의 오점인가?

"이런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차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떨쳐내려 애써 보았지만, 무언가를 알아갈수록 슬픔은 오히려 더 깊어만 갔습니다. 아, 차라리 영원히 고향의 숲속에 머물 수만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더위 같

은 감각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식이라는 것이 참으로 기묘한 성질을 가졌구나! 지식이 한 번 마음을 사로잡으면, 마치 바위에 달라붙은 이끼처럼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고통을 이겨낼 방법은 오직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죽음이란 두렵기는 해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나는 그 오두막 가족들의 미덕과 선한 마음을 경외했고, 그들의 다정한 태도와 친절한 성품을 사랑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 어울릴 수 없었다. 남몰래 훔쳐보는 것 외에는 그들과 교류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몰래 지켜보는 일은, 인간들 틈에 섞이고 싶다는 나의 갈망을 채워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키울 뿐이었다. 아가타의 부드러운 말씨도, 매력적인 아라비아 여인의 생기 넘치는 미소도 내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노인의 온화한 권고도, 사랑하는 펠릭스의 활기찬 대화도 내 것이 아니었다. 비참하고 불행한 가련한 존재여!

다른 교훈들은 내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겨졌다. 나는 남녀의 차이를 알게 되었고, 아이가 태어나 자라는 과정도 배웠다. 아버지가 갓난아기의 미소와 조금 더 자란 아이의 활기찬 재롱에 어떻게 마음을 빼앗기는지도 알게 되었다. 어머니의 모든 삶과 정성이 그 소중한 자식에게 어떻게 온전히 쏟아지는지도 깨달았다. 또한 어린 마음이 어떻게 확장되며 지식을 쌓아가는지,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비롯하여 인간과 인간을 상호 간의 유대로 묶어주는 그 다양한 관계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의 친구와 친척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나의 어린 시절을 지켜봐 준 아버지는 없었고, 미소와 애정 어린 손길로 나를 축복해 준 어머니도 없었다. 설령 그런 이들이 있었다 한들, 나의 지난 삶은 이제 흔적조차 남지 않은 얼룩이자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공백일 뿐이었다. 아주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나는 지금과 같은 키와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나를 닮은 존재나, 나와 관계를 맺으려는 존재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다시금 되풀이되었고, 나는 오직 신음 섞인 탄식으로만 답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감정들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졌는지는 곧 설명하겠다. 하지만 지금은 그 오두막 가족들에게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내 안에서 분노와 기쁨, 그리고 경이로움이라는 온갖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은 결국 나의 보호자들을 향한 더 깊은 사랑과 경외심으로 귀결되었다. (순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자기기만에 빠져, 나는 그들을 보호자라 부르고 싶었다.)

제14장

친구들의 사연을 알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 그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 있었는데, 당시의 나처럼 경험이 전무한 이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흥미롭고도 경이로운 일들이었다.

그 노인의 이름은 드 레이시였다. 그는 프랑스의 명망 있는 가문 출신으로, 그곳에서 오랫동안 풍요롭게 살았다. 그는 윗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동료들에게는 사랑받는 이였다. 그의 아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자랐고, 아가타는 고귀한 신분의 귀부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내가 그들에게 도착하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파리라고 불리는 크고 화려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며, 적당한 재산과 덕성, 지적인 세련미, 그리고 뛰어난 취향이 선사하는 모든 즐거움을 누리며 지냈다.

사피의 아버지는 그들의 파멸을 불러온 원인이었다. 그는 터키인 상인으로 파리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왔으나,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로 정부의 눈 밖에 나고 말았다. 사피가 그와 합류하기 위해 콘스탄티노플에서 파리에 도착한 바로 그날, 그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 그는 재판을 받은 끝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 판결은 너무나도 명백히 부당했다. 파리 전체가 분노했고, 사람들은 그가 저질렀다는 범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종교와 재산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펠릭스는 우연히 재판 현장에 있었는데, 법정의 판결을 듣는 순간 그는 억누를 수 없는 공포와 분노를 느꼈다. 그 순간 그는 반드시 그를 구해내겠노라 엄숙히 맹세하고는, 방법을 찾기 위해 주위를 살폈다. 감옥 안으로 들어가려 수없이 시도했으나 모두 허사였다. 그러다 그는 건물의 경비가 허술한 곳에서 창살이 튼튼하게 박힌 창문 하나를 발견했다. 그 창문은 불행한 무슬림의 지하 감옥을 비추고 있었다. 쇠사슬에 묶인 그는 야만적인 형 집행을 기다리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펠릭스는 밤마다 그 창살을 찾아가 자신이 그를 도와주려 한다는 의사를 죄수에게 전했다. 터키인은 놀라움과 기쁨에 겨워, 보상과 부를 약속하며 자신을 구해줄 이의 열정에 불을 지피려 애썼다. 펠릭스는 그 제안들을 경멸하며 거절했다. 하지만 아버지를 면회할 수 있도록 허락된 아름다운 사피를 보았을 때, 그리고 몸짓으로 생생한 감사를 표하는 그녀를 보았을 때, 청년은 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 포로가 자신의 노고와 위험을 충분히 보상해 줄 보물을 가졌다는 사실을 말이다.

터키인은 자신의 딸이 펠릭스의 마음을 사로잡았음을 금세 알아차렸다. 그는 딸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대로 결혼을 시켜주겠노라 약속하며, 펠릭스를 자신의 편으로 확실히 끌어들이려 애썼다. 펠릭스는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섬세한 성격이었으나, 머지않아 그 약속이 이루어져 행복의 결실을 맺게 될 날을 간절히 고대했다.

상인이 탈출할 준비가 진행되던 그 후 며칠 동안, 펠릭스는 그 사랑스러운 소녀로부터 받은 여러 통의 편지 덕분에 열정에 불이 붙었다. 소녀는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아버지의 하인인 한 노인의 도움을 빌려, 연인의 언어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소녀는 아버지를 돕고자 하는 펠릭스의 의지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뜨거운 감사를 표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가혹한 운명을 애처롭게 한탄했다.

"이 편지들의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두막에 머무는 동안 필기구를 구할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그 편지들은 펠릭스나 아가타의 손에 들려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 편지들을 당신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가 이미 저물어버려서,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만을 다시 말씀드릴 시간밖에 없습니다."

사피는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는 기독교를 믿는 아랍 여인이었는데, 터키인들에게 붙잡혀 노예가 되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빼어난 미모 덕분에 사피의 아버지를 사로잡았고, 결국 그와 결혼했다. 사피는 어머니를 매우 열정적이고 찬사 어린 어조로 이야기했다. 자유로운 몸으로 태어난 어머니는 지금 처한 노예 신분을 몹시 혐오했다. 어머니는 딸에게 자신의 종교적 교리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무함마드의 여신도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높은 지적 능력과 독립적인 정신을 갈망하도록 가르쳤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가르침은 사피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다. 사피는 다시 아시아로 돌아가 하렘의 벽 안에 갇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몸서리쳤다. 그곳에서는 고결한 덕을 추구하고 원대한 사상을 품는 데 익숙해진 그녀의 영혼에 어울리지 않는, 유치한 유희에만 몰두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반면, 기독교인과 결혼하여 여성이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나라에 머물 수 있다는 기대는 그녀에게 더할 나위 없는 황홀한 꿈이었다.

터키인이 처형될 날짜가 정해졌다. 하지만 처형 전날 밤, 그는 감옥을 탈출했다. 아침이 밝기도 전에 그는 파리에서 수십 리그나 떨어진 곳까지 멀리 달아났다. 펠릭스는 아버지와 누이,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행증을 구해 두었다. 그는 미리 아버지에게 계획을 전해 두었고, 아버지는 여행을 떠난다는 핑계로 집을 비워 이 기만책을 도왔다. 그러고는 딸과 함께 파리의 어느 외딴곳에 몸을 숨겼다.

펠릭스는 도망자들을 데리고 프랑스를 가로질러 리옹으로 향했다. 이어 몽스니를 넘어 레그호른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상인은 터키 영토로 넘어갈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기다리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다.

사피는 아버지가 떠나기 전까지는 곁에 머물기로 결심했다. 그전에 터키인은 사피를 자신을 구해준 이와 맺어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펠릭스 역시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그동안 펠릭스는 아라비아 여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녀는 펠릭스에게 더없이 순수하고 다정한 애정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통역사를 통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눈빛으로 서로의 뜻

을 전하기도 했다. 사피는 그에게 고국에서 불리던 신성한 노래들을 불러주었다.

터키인은 이들의 친밀한 관계를 허용하며 젊은 연인들의 희망을 북돋아 주었으나,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기독교인과 결합한다는 생각 자체에 혐오감을 느꼈다. 하지만 펠릭스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가는 그의 원한을 살까 두려웠다. 만약 펠릭스가 자신을 이탈리아 정부에 밀고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여전히 자신은 그를 구해준 이의 손아귀에 있는 처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기만극을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수천 가지 방책을 구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떠날 때 딸을 몰래 데려갈 방법도 함께 고민했다. 파리에서 날아온 소식은 그의 계획을 실행하기에 더욱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

프랑스 정부는 자신들의 희생자가 탈출한 것에 격분했다. 그들은 탈출을 도운 자를 찾아내 처벌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결국 펠릭스의 음모가 금세 탄로 났고, 드 레이시와 아가타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이 소식은 펠릭스에게 전해졌고, 그는 즐거움에 잠겨 있던 꿈에서 깨어났다. 자신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며 사회적 교류를 누리고 있는데, 눈먼 노쇠한 아버지와 온순한 누이는 악취 나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펠릭스는 서둘러 터키인과 약속을 하나 했다. 만약 자신이 이탈리아로 돌아가기 전에 터키인이 탈출할 좋은 기회를 잡게 된다면, 사피는 레그호른에 있는 수녀원의 하숙생으로 머물게 하자는 것이었다. 약속

을 마친 펠릭스는 사랑스러운 아라비아 여인을 뒤로한 채 파리로 향했다. 그는 이 일을 통해 드 레이시와 아가타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스스로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나아갔다.

그는 성공하지 못했다. 재판이 열리기까지 다섯 달 동안 그들은 갇힌 채 지내야 했다. 재판의 결과로 그들은 전 재산을 몰수당했고, 고국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형벌을 받았다.

내가 그들을 발견했던 독일의 그 오두막은 그들에게 비참한 안식처였다. 펠릭스는 곧 가슴 아픈 소식을 알게 되었다. 그와 그의 가족이 그토록 유례없는 고초를 견뎌내며 구해주었던 그 배신자 터키인이,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이렇게 빈털터리로 몰려 파멸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선의와 명예를 저버린 것이다. 그 터키인은 딸을 데리고 이탈리아를 떠나면서, 펠릭스에게는 나중에 생활비에 보태 쓰라며 모욕적일 만큼 보잘것없는 돈을 보내왔다.

그 사건들은 펠릭스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내가 그를 처음 보았을 때, 그가 가족 중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는 가난쯤은 견뎌낼 수 있었다. 게다가 그 고난이 자신의 미덕에 따른 대가라면 그는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터키인의 배은망덕함과 사랑하는 사피를 잃은 슬픔은 그 무엇보다 쓰라리고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었다. 그러던 중 아라비아 여인이 도착하면서, 그의 영혼에는 다시금 새로운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펠릭스가 재산과 지위를 모두 잃었다는 소식이 레그호른에 전해지자, 상인은 딸에게 연인에 대한 생각은 이제 그만 접고 고국으로 돌아

갈 채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너그러운 성품의 사피는 이 명령에 분개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간곡히 항변하려 했으나, 아버지는 폭압적인 명령만 거듭 되뇌며 화를 내고는 그녀의 곁을 떠나버렸다.

며칠 후, 터키인은 딸의 방으로 급히 들어와 다급하게 말을 전했다. 레그호른에서의 거처가 탄로 난 듯하니, 머지않아 프랑스 정부에 압송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었다. 그는 곧장 콘스탄티노플로 떠나기 위해 배를 빌려 두었으며, 몇 시간 후면 그곳을 향해 출항할 예정이었다. 그는 딸을 믿을 만한 하인에게 맡겨두고, 아직 레그호른에 도착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들을 챙겨 천천히 뒤따라오게 할 생각이었다.

사피는 홀로 남게 되자, 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마음을 굳게 정했다. 터키에서 사는 것은 그녀에게 끔찍한 일이었다. 그녀의 종교도, 마음도 터키에서의 삶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아버지의 서류 몇 장을 손에 넣게 되었고, 그 서류를 통해 연인이 유배되었다는 사실과 그가 머물고 있는 곳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사피는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보석 몇 점과 약간의 돈을 챙겼다. 그리고 레그호른 태생의 하인을 데리고 이탈리아를 떠났다. 그 하인은 터키의 공용어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사피는 그렇게 독일을 향해 길을 떠났다.

사피는 드 레이시의 오두막에서 약 20리그 떨어진 마을에 무사히 도착했으나, 곧 동행하던 시종이 위독해졌다. 사피는 지극한 정성으로 그녀를 간호했으나 가여운 시종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로 인해 아라비아 출신의 사피는 그 나라의 언어도 알지 못하고 세상 물정도 전

혀 모르는 채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는 좋은 사람들의 손에 맡겨졌다. 앞서 이탈리아인 시종이 그들이 향하던 곳의 이름을 말해 둔 덕분에, 시종이 죽은 뒤 함께 묵었던 집의 여주인이 사피가 연인의 오두막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보살펴 주었다.

제15장

내가 사랑하는 그 오두막 식구들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그 이야기는 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사회적 삶의 단면을 엿보며, 나는 인간의 미덕을 경외하고 인류의 악덕을 경계하는 법을 배웠다.

그 무렵 나는 범죄를 나와는 상관없는 먼 세상의 악으로만 여겼다.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애로움과 관대함이 가득했다. 수많은 훌륭한 자질이 발휘되고 드러나는 그 분주한 삶의 현장에서, 나 또한 주체적인 인물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내 안에서 꿈틀거렸다. 하지만 내 지적 성장의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그해 8월 초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빠뜨릴 수는 없다.

늘 하던 대로 근처 숲을 다니며 먹을 것을 구하고, 나를 돌봐주는 이들을 위해 땔감을 가져오던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땅 위에서 가죽 여행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이 들어 있었다. 나는 보물을 발견한 듯 서둘러 가방을 낚아채 나의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다행히도 그 책들은 내가 오두막에서 기초를 익힌 언어로 쓰여 있었다. 그 책들은 《실낙원》과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한 권, 그리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었다. 이 보물들을 갖게 된 것은 내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다. 친구들이 각자의 일상적인 일에 몰두하는 동안, 나는 이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탐독하며 정신을 단련했다.

"이 책들이 내게 미친 영향을 차마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군요. 책들은 내 안에 무수히 많은 새로운 이미지와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때로는 나를 황홀경으로 이끌기도 했지만, 대개는 나를 깊은 절망 속으로 침잠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르테르의 슬픔』은 소박하고 애틋한 이야기 자체로도 흥미로웠지만, 그동안 내게 모호하기만 했던 주제들에 대해 수많은 견해를 제시하고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나는 그 책에서 끝없는 사색과 경이로움을 발견했습니다. 책에 묘사된 다정하고 가정적인 모습들은 숭고한 정서 및 감정과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를 지향하는 그 감정들은, 나를 돌봐준 이들 사이에서 겪은 나의 경험,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던 갈망과도 잘 맞닿아 있었습니다. 나는 주인공 베르테르가 내가 지금까지 보거나 상상했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신성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성격은 겉치레가 없었으나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죽음과 자살에 관한 논의들은 나를 경탄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는 그 문제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영웅의 의견에 마음이 기울었을 뿐입니다. 나는 베르테르가 왜 죽음을 택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어 내려갈수록, 나는 그 내용에 나의 감정과 처지를 깊이 투영하게 되었다. 내가 읽고 있는 존재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나 자신을 비교해 보니, 우리는 닮은 점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기묘할 정도로 달랐다. 나는 그들에게 공감하며 어느 정도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나의 정신은 아직 형체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나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고, 그 누구와도 혈연으로 맺어져 있지 않았다. 내가 떠나더라도 갈 길은 자유로울 것이며, 나의 소멸을 슬퍼해 줄 이 또한 아무도 없었다. 나의 외양은 흉측했고 체구는 거대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 질문들은 끊임없이 되풀이되었으나, 나는 끝내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내가 가진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는 고대 공화국을 세운 초기 건국자들의 역사가 담겨 있었다. 이 책은 『베르테르의 슬픔』과는 전혀 다른 영향을 주었다. 베르테르의 상상력을 통해서는 낙담과 우울함을 배웠지만, 플루타르코스는 내게 숭고한 사상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나를 내 개인적인 고뇌라는 비참한 영역 너머로 끌어올려, 지나간 시대의 영웅들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만들었다.

책에서 읽은 많은 내용은 나의 이해력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나는 왕국이나 광활한 영토, 거대한 강과 끝없는 바다에 대해 아주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도시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규모 집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나를 돌봐준 이들의 오두막은 내가 인간의 본성을 배운 유일한 학교였으나, 이 책은 훨씬 더 새롭고 웅장한

사건들을 펼쳐 보였다. 나는 공적인 일에 관여하며 인류를 통치하거나 혹은 학살하는 사람들에 관한 글을 읽었다.

당시 나는 미덕과 악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오직 쾌락과 고통이라는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그 단어들이 뜻하는 바를 깨달으며 내 안에서 미덕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악덕에 대한 혐오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감정에 이끌린 나는 자연히 로물루스나 테세우스보다는 누마, 솔론, 리쿠르고스 같은 평화로운 입법자들을 찬양하게 되었다. 나를 돌봐준 이들의 가부장적인 삶의 방식 덕분에 이러한 인상들은 내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 잡았다. 만약 내가 인류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영광과 살육에 눈이 먼 젊은 군인이었다면, 나는 아마 전혀 다른 감정을 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낙원》은 내 안에서 전혀 다르고 훨씬 더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손에 들어오는 다른 책들을 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책을 마치 실제 역사처럼 읽어 내려갔다. 전능한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과 전쟁을 벌이는 그 광경은, 경이로움과 경외심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내 안에서 일깨웠다. 나는 책 속의 여러 상황이 내 처지와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자주 나 자신을 그 장면에 투영하곤 했다. 아담처럼 나 역시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듯 보였다. 하지만 아담의 상태는 다른 모든 면에서 나의 처지와 판이했다. 아담은 신의 손에서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피조물이었고, 행복하고 번영하며 창조주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았다. 또한 그는 자신보다 고결한 존재들과 대화하며 지식을 쌓을 수도 있었다. 반면 나는 비참하고 무력하며 홀로 남겨진 존재였다. 나는 종종 사탄이야말로 나

의 처지를 더 잘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생각했다. 나를 돌봐주는 존재들이 누리는 축복을 바라볼 때면, 사탄처럼 내 안에서도 질투라는 쓰디쓴 독기가 치밀어 오르곤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을 더욱 굳건히 만든 또 다른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직후, 당신의 실험실에서 가져온 옷 주머니 속에서 종이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으나, 이제는 그 글자들을 해독할 수 있게 되자 저는 정성을 다해 그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탄생하기 전, 당신이 보낸 4개월간의 기록이 담긴 일기였습니다. 당신은 그 종이들에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겪은 모든 단계를 세세하게 기록해 두었더군요. 그 기록들 사이에는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도 분명 이 종이들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그 기록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저의 저주받은 기원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저를 탄생시킨 그 역겨운 사건들이 어떤 과정으로 이어졌는지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의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외양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느꼈던 공포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저의 비극을 지울 수 없게 각인시키는 문장들로 말입니다. 저는 글을 읽어 내려갈수록 구역질이 났습니다.

"생명을 얻은 그날이 원망스럽다!" 저는 고통 속에서 외쳤습니다. "저주받을 창조주여! 어찌하여 당신조차 혐오감을 느끼며 고개를 돌릴 만큼 흉측한 괴물을 만드셨나이까! 신께서는 자애로움으로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닮아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만드셨거늘, 저의 모습은 당신

을 더럽게 닮아버린 형상일 뿐입니다. 닮았기에 더욱 끔찍한 모습 말입니다. 사탄에게는 그를 찬양하고 격려해 줄 동료 악마들이 있었으나, 저는 홀로 남겨진 채 모두에게 증오받는 존재입니다."

낙담과 고독 속에서 보낸 시간 동안 나는 이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저 오두막 가족의 미덕과 그들의 다정하고 자애로운 성품을 떠올릴 때면,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그들의 미덕을 얼마나 경탄하는지 알게 된다면, 그들도 나의 외형적 결함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나를 가엾게 여겨줄 것이라고 말이다. 아무리 괴물 같은 모습일지라도, 자비와 우정을 구하는 이를 그들이 문전박대할 수 있을까? 나는 적어도 절망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대신 나의 운명을 결정지을 그들과의 만남을 위해, 모든 면에서 스스로를 준비시키기로 결심했다.

이 시도는 몇 달 더 뒤로 미루었다. 이 일이 성공하느냐에 내 운명이 달려 있다는 중압감 때문에, 혹여 실패할까 두려운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일 경험을 쌓을수록 나의 이해력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다. 그래서 조금 더 지혜를 쌓아 통찰력을 기르기 전까지는 이 일을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

그사이 오두막에도 몇 가지 변화가 생겼다. 사피가 나타나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을 누렸고, 이전보다 먹을 것도 훨씬 풍족해졌다. 펠릭스와 아가타는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 일도 수월하게 해냈다. 그들이 부유해 보이지는 않았으나, 그들은 만족하며 행복하게 지냈다. 그들의 마음은 평온하고 안온했으나, 나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격정적으로 변해갔다.

지식이 늘어날수록 내가 얼마나 비참한 낙오자인지 더욱 선명하게 깨달을 뿐이었다. 물론 희망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물에 비친 내 모습이나 달빛 아래 드리워진 내 그림자를 마주할 때면, 그 가냘픈 형상과 변덕스러운 그림자처럼 나의 희망도 속절없이 사라져 버렸다.

나는 이러한 공포를 짓누르고, 몇 달 뒤에 마주할 시련에 대비해 스스로를 단련하려 애썼다. 때로는 이성이 제어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둔 채, 낙원의 들판을 거니는 상상에 빠지기도 했다. 그곳에서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내 감정에 공감하며 나의 우울함을 달래주는 상상을 감히 해보기도 했다. 그 천사 같은 얼굴들은 내게 위로의 미소를 건네는 듯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꿈일 뿐이었다. 나의 슬픔을 달래주거나 내 생각에 공감해 줄 이브는 없었다. 나는 홀로였다. 나는 창조주에게 간구하던 아담을 떠올렸다. 하지만 나의 창조주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나를 버렸다. 나는 쓰라린 마음으로 그를 저주했다.

가을은 그렇게 지나갔다. 낙엽이 썩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놀라움과 슬픔을 느꼈다. 내가 처음 숲과 아름다운 달을 마주했을 때처럼, 자연은 다시 황량하고 쓸쓸한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날씨의 삭막함에 개의치 않았다. 내 체질은 더위보다는 추위를 견디기에 더 적합했기 때문이다. 다만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은 꽃과 새, 그리고 여름의 화사한 옷차림을 구경하는 것이었는데, 그것들이 모두 사라지자 나는 오두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쏟았다.

그들의 행복은 여름이 지나갔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공감하며, 서로에게 의지해 기쁨을 나누었기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행에도 그 즐거움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을 지켜볼수록 나는 그들의 보호와 친절을 받고 싶다는 갈망이 커졌다. 이 다정한 이들에게 알려지고 사랑받고 싶어 내 마음은 간절히 타올랐다. 그들이 나를 향해 애정 어린 눈길을 보내주는 것, 그것이 내가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이었다. 그들이 경멸과 공포에 질려 나를 외면할 것이라고는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문 앞에 멈춰 선 가난한 이들을 내쫓는 법은 없었다. 물론 내가 구한 것은 약간의 음식이나 휴식보다 더 큰 보물이었다. 나는 친절과 공감을 원했다. 하지만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겨울이 깊어갔다. 내가 생명을 얻어 눈을 뜬 이후로 계절이 한 바퀴를 온전히 돌았다. 그 무렵 나의 관심은 오로지 나를 돌봐주는 이들이 사는 오두막에 어떻게 발을 들일 것인가에 쏠려 있었다. 나는 여러 계획을 세워보았으나, 결국 눈먼 노인이 혼자 있을 때 그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심을 굳혔다. 나를 이전에 보았던 이들이 공포를 느낀 주된 이유는 나의 외모가 지닌 비정상적인 흉측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나는 충분히 눈치챌 만큼 영리했다. 나의 목소리는 거칠긴 해도 딱히 무서운 구석은 없었다. 그러니 만약 아이들이 없는 틈을 타 노인 드 레이시의 호의를 얻고 그의 중재를 끌어낼 수 있다면, 그를 통해 젊은 보호자들에게도 용납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어느 날, 태양 빛이 땅에 흩뿌려진 붉은 낙엽 위로 쏟아지며 온기는 주지 못할지언정 주변을 유쾌하게 밝히고 있었다. 사피와 아가사, 그리고 펠릭스는 긴 시골 산책을 떠났고, 노인은 본인의 뜻에 따라 오두막에 홀로 남았다. 아이들이 떠나자 노인은 기타를 들고 몇 곡의 선율을 연주했다. 그 곡조는 애처로우면서도 감미로웠는데, 내가 이전에 들어본 그 어떤 연주보다도 더욱 달콤하고도 슬펐다. 처음에는 노인의 얼굴에 즐거움이 서렸으나, 연주가 계속될수록 그 자리를 사색과 슬픔이 대신했다. 마침내 노인은 악기를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의 희망이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두려움이 현실이 될지를 결정할 시련의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다. 하인들은 근처 축제에 가고 없었다. 오두막 안팎은 온통 고요했다.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막상 움직이려 하자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나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의지를 쥐어짜 내어, 은신처를 숨기려고 오두막 앞에 놓아두었던 판자들을 치웠다. 신선한 공기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나는 새로이 다진 결심을 품고 그들의 오두막 문으로 다가갔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노인이 물었다. “누구냐? 들어오너라.”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불쑥 찾아와 결례를 범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잠시 쉬어갈 곳을 찾는 여행자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불가

근처에서 몇 분만이라도 머물다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들어오게나." 드 레이시가 말했다. "자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듣고 내가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집을 비운 상태라네. 게다가 내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 자네에게 줄 음식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을까 걱정되는군."

"친절한 주인장,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음식은 충분하니,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온기와 휴식뿐입니다."

나는 자리에 앉았고, 이내 정적이 흘렀다. 매 순간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 노인이 나에게 먼저 말을 건네왔다.

"낯선 이여, 말투를 보니 나와 같은 나라 사람인 듯하구려. 프랑스인이오?"

"아니요. 하지만 프랑스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기에 그 언어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합니다. 그들이 저를 받아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그들은 독일인인가요?"

"아니요, 그들은 프랑스인입니다. 하지만 화제를 돌리지요. 저는 불행하고 버림받은 피조물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이 세상에 제 편이

되어줄 친척도, 친구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가려는 이 친절한 사람들은 저를 본 적도 없고, 저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영원히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될 테니까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의지할 친구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눈앞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는 한, 형제애와 자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희망을 품으십시오. 당신이 만날 이들이 선량하고 다정한 이들이라면,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친절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존재들이지요.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저에게 편견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선한 성품을 지녔고, 지금까지 살아오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기는커녕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편견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따뜻하고 친절한 친구를 보아야 할 그들의 눈에는, 오직 혐오스러운 괴물만이 보일 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 결백하다면,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아 줄 수는 없나요?"

"저는 이제 그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토록 압도적인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매일같이 그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자신들을 해치려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편견입니다."

"그 친구들은 어디에 사나요?"

"이 근처에 삽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그대가 들려줄 이야기의 세세한 내용들을 내게 숨김없이 털어놓는다면, 그 오해를 풀어주는 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나는 눈이 멀어 그대의 표정을 살필 수는 없지만, 그대의 말에는 나를 설득하는 무언가가 있구려. 그대가 진실하다는 확신이 드오. 나는 가난한 망명객에 불과하지만,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게는 참된 기쁨이 될 것이오."

"훌륭한 분이시군요! 당신께 감사드리며, 그 너그러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이 친절 덕분에 저는 먼지 구덩이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도움을 받아, 동족들의 사회와 온기 어린 유대감으로부터 다시는 쫓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느님, 제발 그런 말씀 마십시오! 설령 당신이 정말로 죄를 지었다 한들, 그 사실이 당신을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는 있어도 결코 미덕으로 이끌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저 또한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은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의 불행을 가엽게 여기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은인이신 당신께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까요? 당신의 입술을 통해 처음으로 저를 향한 친절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영원히 당신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주

신 당신의 인애함은, 제가 곧 만나게 될 친구들에게도 제가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 친구들의 이름과 사는 곳을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멈춰 섰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이 결정에 따라 나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도, 혹은 영원히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었다. 나는 그에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헛된 몸부림이었다. 그 시도만으로 남은 기력마저 모두 소진해 버린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소리 내어 흐느꼈다.

그때 나를 돌봐주는 젊은 보호자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노인의 손을 움켜쥐며 외쳤다.

"지금입니다! 제발 저를 구해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야말로 제가 간절히 찾던 친구들입니다. 시련의 순간에 저를 저버리지 마세요!"

"맙소사!" 노인이 외쳤다.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그 순간 오두막 문이 열리더니 펠릭스와 사피, 그리고 아가타가 들어왔다. 나를 마주한 그들이 느꼈을 공포와 경악을 그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 아가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사피는 친구를 돌볼 겨를도 없이 오두막 밖으로 뛰쳐나갔다. 펠릭스가 앞으로 달려들더니 초자연적인 힘으로, 내가 무릎에 매달려 있던 그의 아버지에게서 나를 떼어냈다. 그러고는 격분하여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지팡이로 사정없이

내리쳤다. 사자가 영양을 찢어발기듯 나 또한 그를 갈가리 찢어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쓰디쓴 병이라도 걸린 듯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기에 나는 참아냈다. 그가 다시 한번 매질을 하려는 찰나, 나는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오두막을 떠났다. 그리고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아무도 모르게 내가 사는 움막으로 도망쳤다.

제16장

"저주받을, 저주받을 창조주여! 나는 왜 살아야 했는가? 왜 그 순간, 당신이 그토록 무책임하게 부여한 생명의 불꽃을 스스로 꺼뜨리지 않았단 말인가? 나도 모르겠다. 그때는 아직 절망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기 전이었고, 내 마음은 오직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라리 그 오두막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기쁘게 파괴해 버리고, 그들이 내지르는 비명과 비참함을 탐닉하며 즐거워했을지도 모른다."

밤이 찾아오자 나는 은신처를 벗어나 숲속을 헤맸다. 이제는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공포에 질린 울부짖음으로 내 안의 고통을 터뜨릴 뿐이었다. 마치 덫을 부수고 탈출한 야수 같았다. 앞을 가로막는 것들을 마구 부수며, 사슴처럼 빠른 속도로 숲을 누볐다. 아, 그 밤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른다! 차가운 별들은 나를 비웃듯 빛났고, 앙상한 나무들은 머리 위에서 가지를 흔들어댔다. 적막이 감도는 숲속에서 이따금 새들의 감미로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를 제외한 모든 존재는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즐거움에 빠져 있었다. 오직 나만이, 마치 악마처럼 내면에 지옥을 품고 있었다.

아무도 내 고통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자, 나는 나무들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주변을 초토화하며 파괴하고 싶었다. 그러고는 그 폐허 속에 주저앉아 파멸을 만끽하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런 감각적 유희는 오래가지 못했다. 과도한 신체적 활동에 기력이 다한 나는, 절망이 가져온 병적인 무력감에 빠져 축축한 풀밭 위로 쓰러지고 말았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 중 그 누구도 나를 가엽게 여기거나 도와줄 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원수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할까? 아니, 그럴 수는 없다. 그 순간 나는 인류 전체를 상대로, 무엇보다 나를 빚어내어 이 견딜 수 없는 비극 속으로 내던진 그를 상대로 영원한 전쟁을 선포했다.

해가 떠올랐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그날 하루 동안은 은신처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나는 울창한 덤불 속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내가 처한 상황을 되짚어보며 사색하는 데 온전히 바치기로 마음먹었다.

따스한 햇살과 맑은 공기 덕분에 마음이 어느 정도 평온을 되찾았다. 오두막에서 있었던 일을 되짚어보니,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분명 나는 경솔하게 행동했다. 나의 대화가 그 집 아버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데 분명 도움이 되었음에도, 아이들에게 공포를 안겨주며 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나의 어리석음이었다. 처음부터 노인 드 레이시와 친분을 쌓은 뒤,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마쳤을 때 서서히 나를 알렸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믿었다. 깊은 고민 끝에 나는 다

시 오두막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노인을 찾아가 나의 진심을 전함으로써 그가 내 편이 되도록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생각들이 나를 진정시켜 주었고, 오후가 되자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피가 들끓는 열병 때문에 평온한 꿈을 꿀 수는 없었다. 전날의 그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여인들은 겁에 질려 달아나고, 분노한 펠릭스는 자신의 아버지 발치에서 나를 떼어놓으려 했다. 나는 기진맥진한 채 잠에서 깨어났다. 이미 밤이 깊은 것을 확인한 나는 숨어 있던 곳에서 기어 나와 먹을 것을 찾아 나섰다.

허기를 채운 뒤, 나는 오두막으로 이어지는 잘 알려진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평온하기만 했다. 나는 내가 머무는 움막으로 기어 들어가, 가족들이 일어날 평소의 시간을 조용히 기다렸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태양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음에도, 오두막 식구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어떤 끔찍한 불행이 닥친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오두막 안은 어두웠고 아무런 움직임도 들리지 않았다. 기다림 속에서 느꼈던 그 고통스러운 불안감을 나는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잠시 후 마을 사람 두 명이 지나갔다. 그들은 오두막 근처에서 발걸음을 멈추고는 격렬한 몸짓을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나를 돌봐주는 이들의 언어와 달랐기에,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곧 펠릭스가 다른 남자 한 명과 함께 다가왔다. 그가 그날 아침에는 오두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무척 놀랐다. 나는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이 이례적인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려고 초조하게 기다렸다.

"세 달 치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데다 정성껏 가꾼 채소들까지 모두 잃게 될 텐데, 정말 괜찮겠느냐?" 동행인이 그에게 물었다. "나는 결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 부디 며칠간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길 바란다."

"아무런 소용없네." 펠릭스가 대답했다. "우리는 다시는 자네의 오두막에 살 수 없어. 내가 방금 말한 그 끔찍한 상황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라네. 내 아내와 여동생도 그 충격에서 결코 회복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제발 더는 나를 설득하려 들지 말아주게. 자네는 자네 집을 차지하고, 나는 이곳을 떠나 도망치게 해주게."

펠릭스는 이 말을 하며 몸을 심하게 떨었다. 그와 동행인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몇 분간 머물다 떠났다. 나는 그 후로 드 레이시 가족 중 누구도 다시 보지 못했다.

남은 하루 동안 나는 오두막에 틀어박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절망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나를 돌봐주던 이들은 떠나갔고, 그로 인해 세상과 나를 이어주던 유일한 끈마저 끊어지고 말았다. 처음으로 내 가슴 속에는 복수심과 증오가 가득 찼다. 나는 그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 감정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오로지 해를 끼치고 죽이는 일만을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친구들을 떠올릴 때면, 드 레이시의 온화한 목소리와 아가사의 다정한 눈빛, 그리고 아라비아 여인의 빼어난 아름다움이 생각났다. 그럴 때면 슬픈 생각들은 사라졌고, 울음이 터져 나와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거부하고 버렸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면,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격노였다. 인간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었기에, 나는 그 분풀이를 무생물들에게 쏟아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오두막 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것들을 잔뜩 쌓아 두었다. 그리고 정원에 남아 있던 가꾸어진 흔적들을 모조리 파괴한 뒤, 달이 기울기를 기다렸다. 나는 억지로 초조함을 참으며 내 계획을 실행할 순간만을 기다렸다.

밤이 깊어갈수록 숲에서는 거센 바람이 일어났고, 하늘에 머물던 구름들은 순식간에 흩어졌다. 몰아치는 바람은 마치 거대한 눈사태처럼 휩쓸고 지나갔고, 그 기세에 휩쓸린 내 마음은 이성과 사려의 모든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광기에 사로잡혔다. 나는 마른 나뭇가지에 불을 붙인 뒤, 서쪽 지평선 끝에 거의 닿을 듯 걸린 달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곧 불타 사라질 그 오두막 주위를 미친 듯이 돌며 춤을 추었다. 마침내 달의 한 부분이 지평선 너머로 모습을 감추자, 나는 횃불을 휘둘렀다. 달이 완전히 가라앉는 순간, 나는 큰 비명을 지르며 모아 두었던 짚과 히스, 덤불에 불을 붙였다. 바람이 불길을 부채질하자 오두막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불꽃은 갈라진 파괴의 혀로 오두막에 달라붙어 그것을 핥아댔다.

그 거처의 그 어떤 부분도 도저히 구할 수 없으리라는 확신이 들자마자, 나는 그곳을 벗어나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제 세상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데, 나는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까요? 불행이 시작된 그곳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미움과 경멸을 받는 내게는 그 어떤 나라도 똑같이 끔찍한 곳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당신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당신이 남긴 기록을 통해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자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 존재보다 더 적합한 상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펠릭스가 사피에게 가르쳐 준 내용 중에는 지리학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가르침을 통해 지구상의 여러 나라가 서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배웠습니다. 당신은 고향의 이름이 제네바라고 언급했기에, 나는 그곳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길을 찾아야 했겠습니까? 목적지에 닿으려면 남서쪽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만 알 뿐, 오직 태양만이 저의 유일한 길잡이였습니다. 지나쳐야 할 마을들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고, 단 한 명의 사람에게조차 정보를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향해 증오 외에는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으나, 오직 당신만이 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심하고 냉혹한 창조주여! 당신은 제게 지각과 열정을 부여해 놓고는, 인류의 경멸과 공포를 받는 대상으로 저를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민을 구하고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당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형상을 한 그 어떤 존재에게

서도 헛되이 구하려 했던 그 정의를, 반드시 당신에게서 찾아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정은 길었고, 내가 견뎌낸 고통은 극심했다.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을 떠날 무렵은 이미 늦가을이었다. 나는 사람의 얼굴을 마주칠까 두려워 오직 밤에만 움직였다. 주변의 자연은 생기를 잃고 스러져 갔으며, 태양은 온기를 잃었다. 비와 눈이 사방에서 쏟아졌고, 거대한 강들은 얼어붙었다. 대지는 딱딱하고 차갑게 드러나 있었기에, 나는 머물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오, 대지여! 내가 존재하게 된 원인을 향해 얼마나 자주 저주를 퍼부었는지 모른다! 나의 온순했던 성정은 달아나 버렸고, 내 안의 모든 것은 쓴맛과 비탄으로 변해버렸다. 당신의 거처에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복수심은 더욱 깊어졌다. 눈이 내리고 강물이 얼어붙었지만, 나는 쉬지 않았다. 가끔 일어나는 사건들이 길잡이가 되어주었고 나라의 지도도 가지고 있었으나, 종종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다. 내 감정의 고통은 한순간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았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나의 분노와 비참함은 그 상황을 먹이 삼아 더욱 커질 뿐이었다. 하지만 스위스 접경 지역에 도착했을 때 겪은 일은, 나의 비탄과 공포를 유독 더 깊게 각인시켰다. 그때는 태양이 다시 온기를 되찾고 대지에 다시금 초록빛이 돌기 시작하던 때였다.

나는 대개 낮에는 휴식을 취했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밤이 되어 안전해졌을 때만 이동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가야 할 길이 깊은 숲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는 해가 뜬 뒤에도 감히 여정을 계속했다. 봄의 초입이었던 그날은 햇살이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공기마저 포근하여, 나조차도 기분이 좋아질 정도였다. 오랫동안 죽어 있

는 줄로만 알았던 온화하고 즐거운 감정들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느껴졌다. 이 생소한 감각에 내심 놀라면서도, 나는 그 감정에 몸을 맡긴 채 홀로 남겨진 외로움과 나의 기형적인 모습조차 잊고 감히 행복을 누려 보았다. 부드러운 눈물이 다시 뺨을 적셨고, 나는 나에게 이런 기쁨을 선사해 준 축복받은 태양을 향해 젖은 눈을 들어 감사를 표했다.

나는 숲길을 따라 계속해서 구불구불한 길을 헤매다 숲의 경계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깊고 물살이 센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제 막 봄기운을 머금고 싹을 틔운 나무들이 강 위로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나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라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어디선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본능적으로 사이프러스 나무 그늘 아래 몸을 숨겼다.

내가 몸을 숨기기가 무섭게 한 소녀가 내가 있는 곳을 향해 달려왔다. 소녀는 마치 누군가와 장난을 치며 도망치는 듯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소녀는 강가의 가파른 절벽을 따라 계속 나아갔으나, 갑자기 발을 헛디뎌 거센 강물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나는 숨어 있던 곳에서 뛰쳐나갔다. 그리고 거센 물살에 맞서 사력을 다한 끝에 소녀를 구해 강가로 끌어올렸다.

소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소녀를 깨우려 애쓰던 그때, 한 시골 사람이 다가오며 나의 행동을 가로막았다. 아마도 그가 소녀가 장난스럽게 도망치던 대상이었던 모양이다. 나를 발견한 그는 나에게 달려들더니, 내 품에 안겨 있던 소녀를 낚아채듯 빼앗아

숲의 깊은 곳으로 서둘러 도망쳤다. 나도 모르게 홀린 듯 그를 빠르게 뒤쫓았다. 하지만 그 남자는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총을 나에게 겨누고 발사했다. 나는 바닥으로 쓰러졌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는 더욱 빠른 속도로 숲속으로 사라졌다.

이것이 나의 선의에 돌아온 보상인가! 나는 한 인간을 파멸로부터 구했건만, 그 대가로 살점과 뼈를 으스러뜨린 상처의 비참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품고 있던 친절과 다정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지옥 같은 분노와 부득부득 이를 가는 격분이 채웠다. 고통으로 달아오른 나는 인류 전체를 향해 영원한 증오와 복수를 맹세했다. 그러나 상처의 극심한 통증이 나를 덮쳤다. 맥박이 멎더니, 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몇 주 동안 나는 숲속에서 비참한 삶을 이어가며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 애썼다. 총알이 어깨에 박혔는데, 그것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몸을 관통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어찌 됐든 총알을 뽑아낼 방법도 없었다. 그들이 가한 행위가 얼마나 부당하고 배은망덕한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져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나는 매일같이 복수를 다짐했다. 내가 겪은 모욕과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깊고도 치명적인 복수뿐이었다.

몇 주가 지나 상처가 아물자 나는 다시 여정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제 눈부신 햇살이나 부드러운 봄바람도 내가 겪는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다. 세상의 모든 기쁨은 그저 조롱에 불과했다. 그 기쁨들은 나의 황

량한 처지를 모욕하며, 내가 결코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더욱 뼈아프게 일깨워줄 뿐이었다.

하지만 고된 노력도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두 달이 흐른 뒤, 나는 제네바 근교에 도착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 호소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며, 마을을 둘러싼 들판 사이 숨을 만한 곳을 찾아 들어갔다. 피로와 허기가 나를 짓눌렀고, 마음은 너무나도 비참했다. 저녁의 부드러운 미풍도, 쥐라 산맥의 거대한 봉우리 너머로 해가 저무는 장관도 내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 무렵, 나는 잠시 잠에 들며 고통스러운 사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은신처로 한 아름다운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뛰어 들어오면서, 나의 잠은 깨고 말았다.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던 나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이 어린 생명은 편견이 없을 것이며, 외형의 기형함에 대해 공포를 느낄 만큼 긴 시간을 살아오지도 않았다는 생각이었다. 만약 내가 저 아이를 붙잡아 나의 동반자이자 친구로 길러낼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북적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토록 외롭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다.

충동에 이끌린 나는 지나가던 소년을 붙잡아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소년은 내 모습을 보자마자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나는 소년의 손을 강제로 얼굴에서 떼어내며 말했다. “얘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란다. 내 말을 들어보렴.”

그는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이것 좀 놓아줘!” 그가 비명을 질렀다. “괴물! 추악한 놈! 넌 나를 잡아먹고 갈기갈기 찢어놓으려는 거지? 넌 식인귀야. 당장 놓지 않으면 우리 아빠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

“얘야, 이제 네 아버지는 다시는 볼 수 없단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야 해.”

“끔찍한 괴물! 나를 놓아줘! 우리 아빠는 행정관이야. 프랑켄슈타인 씨라고! 아빠가 널 벌줄 거야. 감히 나를 붙잡아두지 못할걸!”

“프랑켄슈타인! 그렇다면 너는 나의 원수, 내가 영원한 복수를 맹세한 그자의 편이로구나. 너를 나의 첫 번째 희생양으로 삼겠다.”

아이는 여전히 몸부림치며 내 가슴에 절망을 안겨주는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었다. 나는 아이의 입을 막으려 목을 움켜쥐었고, 순식간에 아이는 내 발치에 죽은 채 쓰러졌다.

나는 희생자를 바라보았다. 내 마음은 환희와 지옥 같은 승리감으로 부풀어 올랐다. 나는 손뼉을 치며 외쳤다. “나 또한 파멸을 불러올 수 있다. 나의 적은 결코 무적이지 않다. 이 죽음은 그에게 절망을 안겨줄 것이며, 수천 가지의 다른 비극들이 그를 괴롭히고 파멸시킬 것이다.”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하자, 아이의 가슴 위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것을 집어 들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그려진 초상화였다. 내 안의 악의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은 내 마음을 누그러뜨리며 나를 매료시켰다. 나는 잠시 동안 짙은 속눈썹이 드리워진 그녀의 검은 눈동자와 아름다운 입술을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곧 분노

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저토록 아름다운 존재가 선사할 수 있는 기쁨을 나는 영원히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여인 역시, 나를 마주한다면 저 신성하고 자애로운 표정을 혐오와 공포가 서린 얼굴로 바꾸어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들이 나를 분노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놀라우신가요? 내가 놀라운 것은, 그 순간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토해내는 대신, 인류를 향해 돌진하여 그들을 파멸시키려다 함께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사실뿐입니다."

이런 감정들에 휩싸인 채, 나는 살인을 저지른 그곳을 벗어났다. 더 은밀하게 숨을 곳을 찾아 헤매다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헛간 하나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짚더미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젊은 여인이었다. 내가 품에 안고 있는 초상화 속 여인만큼 아름답지는 않았으나, 싱그러운 젊음과 건강함이 넘치는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저 여인이야말로 나를 제외한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는 미소를 나누어 주는 이들 중 하나라고. 나는 여인에게 몸을 굽히고 속삭였다. "깨어나세요, 아름다운 이여. 당신의 연인이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눈길 한 번을 받기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사랑, 제발 깨어나세요!"

잠든 그녀가 뒤척였다. 공포가 전율처럼 내 몸을 훑고 지나갔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깨어나 나를 보고, 나를 저주하며, 살인자인 나를 고발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만약 그녀가 흐릿한 눈을 떠서 나를 마주한

다면, 분명 그렇게 행동할 터였다. 미친 생각이었다. 그 생각이 내 안의 악마를 깨웠다.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녀였다. 내가 저지른 이 살인은 그녀가 내게 줄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영원히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 그녀가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죄의 근원은 그녀에게 있으니, 벌 또한 그녀의 몫이어야 했다. 펠릭스에게 배운 교훈과 인간 사회의 잔혹한 법규 덕분에, 나는 이제 해를 끼치는 법을 익힌 상태였다. 나는 그녀의 몸 위로 몸을 굽혀, 초상화를 그녀의 옷 주름 사이에 단단히 끼워 넣었다. 그녀가 다시 한번 움직였고, 나는 도망쳤다.

"며칠 동안 나는 이 일들이 벌어졌던 그곳을 배회했습니다. 때로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하기도 했고, 때로는 세상을 등지고 이 모든 비극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겠다고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나는 이 산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오직 당신만이 채워줄 수 있는 뜨거운 갈망에 휩싸인 채 이 거대한 산맥의 깊은 골짜기들을 헤맸습니다. 당신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겠노라 약속하기 전까지 우리는 헤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홀로 남겨져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들은 나와 어울리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처럼 기형적이고 끔찍한 존재라면, 나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반려자는 나와 같은 종이어야 하며, 나와 같은 결함을 지녀야 합니다. 당신은 바로 그런 존재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제17장

말을 마친 피조물은 내 대답을 기다리는 듯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정신이 아득해지고 혼란스러웠다. 그가 제안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진의가 어디까지인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피조물은 말을 이어갔다.

"나의 존재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나를 위한 암컷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 일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 나는 당신에게 이것을 요구한다. 당신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이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가 시골 농가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냈던 삶을 이야기할 때는 내 안의 분노도 어느 정도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가 후반부로 접어들자 그 분노가 다시금 타올랐다. 그가 말을 이어갈수록 내 안에서 들끓는 격분을 더는 억누를 수 없었다.

"거절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 어떤 고문으로도 내 동의를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당신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내 스스로가 비겁한 자라고 느끼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당신처럼 사악한 존재를 또 하나 만들어내어, 그 둘의 악행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게 두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그만 물러가십시오! 대답은 끝났습니다. 나를 고문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이 틀렸어." 악마가 대답했다. "나는 당신을 위협하는 대신,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쪽을 택하겠어. 내가 악해진 건 내가 비참하기 때문이야. 온 인류가 나를 피하고 증오하지 않나? 나의 창조주인 당신은 나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승리감을 맛보려 하겠지. 그 사실을 기억해. 그리고 말해봐, 인간이 나를 가련히 여기는 것보다 내가 왜 인간을 더 가련히 여겨야 하는지. 만약 당신이 나를 저 얼음 균열 속으로 밀어 넣어,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이 육신을 파괴한다 해도, 당신은 그것을 살인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인간이 나를 정죄하는데, 내가 어찌 인간을 존중하겠어? 만약 인간이 나와 선의를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준다면, 나는 상처를 주는 대신 그가 내 호의를 받아들여 줄 때마다 감사함의 눈물을 흘리며 온갖 은혜를 베풀었을 거야. 하지만 그럴 수는 없겠지. 인간의 감각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비굴한 노예처럼 굴지는 않을 거야. 나는 내가 입은 상처를 반드시 되갚아 주겠어.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면 공포를 심어주겠다. 특히 나의 숙적인 당신에게는 더욱 그러할 거야. 나의 창조주인 당신을 향해, 나는 결코 꺼지지 않을 증오를 맹세하노라. 조심해. 나는 당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움직일 것이며, 당신의 마음이 황

폐해져서 당신이 태어난 그 순간을 저주하게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테니까."

그 말을 내뱉는 그의 몸에는 악마 같은 분노가 휘몰아쳤다. 그의 얼굴은 인간의 눈으로 차마 바라보기 힘들 만큼 끔찍하게 일그러졌다. 하지만 이내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을 이어갔다.

"나는 이성적으로 대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격정은 내게 해롭기만 하군요. 당신은 이 감정이 지나치게 격해진 원인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존재라도 내게 자애로운 감정을 품어준다면, 나는 그 은혜를 백 배, 아니 수백 배로 갚을 것입니다. 오직 그 피조물 한 존재를 위해서라면, 나는 온 인류와도 화해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실현될 수 없는 행복을 꿈꾸며 방황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절제된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나와 다른 성별의 피조물을 원할 뿐입니다. 나만큼이나 흉측한 모습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으로 얻는 기쁨은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전부이며,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괴물로 살아가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지금 내가 겪는 이 비참함에서는 벗어나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 나의 창조주여, 제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단 한 번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 내가 당신에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살아있는 어떤 존재로부터 동정심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내 간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나의 승낙이 불러올지도 모를 결과들을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졌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는 나름의 타당함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와 지금 내비치는 감정들은 그가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를 만든 창조자로서, 내가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에게 행복을 누릴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는 나의 마음이 변한 것을 알아채고 말을 이어갔다.

"당신이 동의만 해준다면, 당신도 그 어떤 인간도 다시는 우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남미의 광활한 야생으로 떠나겠습니다. 나는 인간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식욕을 채우려 어린 양이나 염소를 죽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도토리와 열매만으로도 충분히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내 동반자 또한 나와 같은 성정을 지녔기에, 나와 같은 음식으로도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른 잎을 깔고 잠자리를 만들 것이며, 태양은 인간에게 그러하듯 우리를 비추어 먹을 것을 익혀줄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제시하는 이 모습은 평화롭고 인간적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권력을 휘두르는 자의 변덕스러운 잔인함 때문일 뿐이라는 사실을 당신도 느끼리라 믿습니다. 나를 향해 그토록 무자비했던 당신의 눈에서, 이제는 연민이 느껴집니다. 그러니 이 유리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것을 약속하도록 당신을 설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대는 인간의 거처를 떠나겠다고 말하는군." 내가 대답했다. "들짐승만이 유일한 동료가 될 황무지에서 살아가겠다고 말이야. 인간의 사랑과 공감을 갈망하는 그대가, 어떻게 이 유배 생활을 견뎌낼 수 있겠나? 결국 그대는 다시 돌아와 인간의 친절을 구걸하겠지만, 돌아오는 것은 혐오뿐일 것이네. 그러면 그대의 악한 감정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파괴를 일삼는 그 길에 힘을 보탤 동료까지 얻게 되겠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네. 더는 논쟁하지 말게. 나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니."

"당신의 감정은 어찌 이리도 변덕스럽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호소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다시 내 불평을 외면하며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는 것입니까? 내가 발을 딛고 선 이 대지와 나를 만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당신이 내게 허락한 동반자와 함께라면, 나는 인간의 거처를 떠나 설령 그곳이 가장 야만적인 곳일지라도 그곳에 머물겠습니다. 내 안의 악한 감정들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공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평온하게 흘러갈 것이며, 죽음의 순간이 닥쳐도 나는 나를 만든 창조주를 저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내게 기묘한 영향을 미쳤다. 나는 그에게 연민을 느꼈고, 때로는 그를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볼 때면, 움직이며 말을 내뱉는 그 추악한 덩어리를 마주할 때면, 내 마음은 메스꺼움으로 뒤틀렸고 연민은 공포와 증오로 변했다. 나는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에게 공감할 수는 없더라도, 내가 줄 수 있

는 아주 작은 행복만큼은 결코 거두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미 네가 보여준 악의를 생각하면, 내가 너를 믿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어쩌면 이 맹세조차 나를 속이기 위한 기만일지도 모르겠구나. 더 큰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나를 방심하게 만들려는 속셈 말이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나를 농락해서는 안 된다. 나는 대답을 요구한다. 만약 내게 맺어질 인연도, 나누어야 할 애정도 없다면, 내게 남은 것은 증오와 악덕뿐일 것이다. 타인의 사랑을 얻게 된다면 내 범죄의 원인은 사라질 것이고, 나는 누구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되어버릴 것이다. 나의 악덕은 내가 혐오하는 강요된 고독이 낳은 자식들이며, 내가 대등한 존재와 교감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나의 미덕 또한 피어날 것이다. 나는 섬세한 존재의 애정을 느끼며, 지금은 소외되어 있는 삶과 사건의 사슬 속으로 다시 연결될 것이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와 그가 내세운 여러 논거를 되짚어 보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생의 초기에 그가 보여주었던 미덕과, 이후 그를 돌보던 이들이 보여준 혐오와 경멸로 인해 그가 품었던 모든 선한 감정이 어떻게 시들어 버렸는지를 떠올렸다. 그가 가진 힘과 위협 또한 간과할 수 없었다. 빙하의 얼음 동굴에서 생존하며 접근조차 불가능한 절벽 사이사이에 몸을 숨길 수 있는 존재라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음을 의미했다. 깊은 고민 끝에 나는

결론을 내렸다. 그와 나의 동족 모두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정의를 생각할 때, 나는 그의 요청을 들어주어야만 했다. 나는 그를 향해 몸을 돌려 말했다.

"네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다만 네가 엄숙히 맹세해야 할 조건이 있다. 내가 너의 유배 생활을 함께할 암컷을 네 손에 넘겨주는 즉시, 너는 유럽을 영원히 떠나야 한다. 또한 인간이 사는 그 어떤 곳도 근처에 얼씬거려서는 안 된다."

"맹세하겠소." 그가 외쳤다. "태양과 저 푸른 하늘, 그리고 내 심장을 태우는 사랑의 불꽃을 걸고 맹세하건대, 만약 내 기도를 들어준다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 이제 집으로 돌아가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오.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겠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나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니."

그는 이 말을 남기고는 갑자기 나를 떠났다. 어쩌면 내 마음이 변할까 두려웠던 모양이다. 나는 그가 독수리의 비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산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이윽고 그는 굽이치는 얼음 바다 사이로 빠르게 사라져 버렸다.

그의 이야기는 하루 종일 이어졌고, 그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태양은 이미 지평선 끝에 걸려 있었다. 곧 어둠이 몰려올 터였기에 나는 서둘러 계곡을 향해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워 발걸음은 더디기만 했다. 오늘 겪은 일들이 불러일으킨 감정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탓에, 산길의 좁은 오솔길을 따라 굽이굽이 내려가며 발을 내디딜 때마다 중심을 잡는 일조차 버겁고 혼란스러웠다.

중간 휴식처에 도착해 샘 옆에 자리를 잡았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다. 구름이 지나갈 때마다 별들이 간간이 빛을 발했고, 눈앞에는 검은 소나무들이 솟아 있었으며, 곳곳에는 쓰러진 나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 경관은 경건할 정도로 엄숙하여 내 안의 기묘한 생각들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괴로움에 손을 맞잡은 채 서럽게 울며 외쳤다.

"오, 별과 구름과 바람들이여! 너희 모두가 나를 조롱하려 하는구나. 만약 너희가 진정 나를 가엽게 여긴다면, 차라리 나의 감각과 기억을 모두 앗아가다오.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다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발 떠나다오. 모두 떠나버리고 나를 어둠 속에 홀로 내버려 두어다오."

거칠고도 비참한 생각들이었다. 하지만 영원히 반짝이는 저 별빛이 내게 얼마나 큰 압박으로 다가왔는지, 그리고 몰아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나를 집어삼키러 오는 둔탁하고 흉측한 시로코풍처럼 느껴져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지 당신에게는 차마 설명할 길이 없다.

샤모니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침이 밝아왔다. 나는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곧장 제네바로 향했다. 내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감정들을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그 감정들은 산처럼 무겁게 나를 짓눌렀고, 그 무게가 너무도 버거워 고통조차 제대로 느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나는 가족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초췌하고 황폐해진 내 모습은 가족들에게 커다란 불안을 안겨주었으나, 나는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고 거의 입을 열지도 않았다. 마치 내가 금기된 존재가 된 것만 같았다. 그들의 동정을 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한 기분이었고, 다시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온기를 나눌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럼에도 나는 가족들을 숭배하듯 사랑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장 혐오하는 그 과업에 내 자신을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삶의 다른 모든 순간은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고, 오직 그 생각만이 나에게 유일한 현실이었다.

제18장

제네바로 돌아온 뒤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속절없이 흘러갔다. 하지만 나는 다시 일을 시작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기대를 저버린 악마가 복수해 올까 두려우면서도, 내게 주어진 그 과업에 대한 혐오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암컷을 만들려면 다시 몇 달 동안이나 심오한 연구와 고된 조사에 매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성공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어떤 발견을 한 영국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가끔은 그 목적을 위해 영국을 방문해도 좋다는 아버지의 허락을 구할까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든 일을 미룰 핑계만을 찾아냈고, 당장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희미해지기 시작하자 그 일을 향한 첫걸음을 떼는 것조차 주저했다.

내 안에는 분명 변화가 일어났다. 줄곧 나빠지기만 했던 건강은 이제 많이 회복되었고, 불행한 약속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억누르지만 않는다면 기분도 그만큼 고양되었다. 아버지는 이런 나의 변화를 기쁘게 지켜보셨다. 아버지는 내게 불쑥불쑥 찾아와 다가올 햇살을 집어삼키

는 칠흑 같은 어둠을 드리우는, 이 우울함의 잔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없앨 수 있을지 고민하셨다.

그럴 때면 나는 완벽한 고독 속으로 숨어들었다. 아무 말 없이 무기력하게 앉아, 작은 배를 타고 호수 위에서 온종일 구름을 바라보거나 물결이 일렁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신선한 공기와 밝은 햇살은 언제나 나를 어느 정도 평온하게 되돌려 놓았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전보다 더 밝은 미소와 활기찬 마음으로 친구들의 인사를 맞이할 수 있었다.

그런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뒤였다. 아버지는 나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예전의 즐거움을 되찾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참으로 기쁘구나. 하지만 너는 여전히 불행해 보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도 계속 피하고 있구나. 한동안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 막막했단다. 그러다 어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는데, 만약 내 생각이 맞다면 제발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주렴. 이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세 배의 고통을 안겨줄 뿐이란다."

그의 서두가 시작되자 나는 격렬하게 몸을 떨었다. 이어 아버지가 말씀을 계속하셨다.

"아들아, 고백하건대 나는 네가 우리의 사랑하는 엘리자베스와 결혼하기만을 늘 고대해 왔단다. 너희의 결합이 우리 가정의 안식처가 되어 주고, 쇠락해가는 나의 노년을 지탱해 줄 버팀목이 되리라 믿었기 때문이지. 너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서로에게 애착을 가졌고, 함께 공부하며 자랐으며, 성품과 취향 또한 서로에게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듯 보였단다.

하지만 인간의 경험이란 참으로 눈이 멀기 마련이구나. 내가 내 계획을 돕는 가장 훌륭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 믿었던 일이, 어쩌면 내 계획을 완전히 망쳐놓았을지도 모르겠구나. 어쩌면 너는 엘리자베스를 그저 누이처럼 여길 뿐,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을지도 모르지. 아니, 어쩌면 네가 사랑하는 다른 여인을 만났을 수도 있겠구나. 엘리자베스에 대한 명예로운 의무감 때문에 마음이 갈팡질팡하며,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비극을 겪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구나."

"사랑하는 아버지, 부디 안심하세요. 저는 사촌 누이를 진심으로, 그리고 아주 소중히 아끼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만큼 저의 깊은 경탄과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여인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전망은 오로지 우리가 결합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친애하는 빅터, 이 문제에 대한 자네의 생각을 들으니 근래 들어 그 어느 때보다 기쁘네. 자네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면, 설령 눈앞의 상황이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분명 행복할 수 있을 것이네.

하지만 자네의 마음을 이토록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그 우울함을 내가 걷어내 주고 싶구먼. 그러니 말해주게. 당장 엄숙하게 결혼식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가? 우리는 그동안 불운을 겪어왔고, 최근의 사건들은 내 나이와 건강 상태에 어울리는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갔네. 자네는 나보다 젊지 않은가. 하지만 자네는 충분한 재산을 가졌으니, 일찍 결혼한다고 해서 자네가 세운 명예롭고 유익한 미래의 계획들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네. 그렇다고 내가 자네에게 행복을 강요한다거나, 자네가 결정을 미룬다고 해서 내가 크게 괴로워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말게나.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디 솔직하고 진실하게 대답해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침묵 속에서 경청했다. 한동안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빠르게 소용돌이쳤고, 나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 애를 썼다. 아, 슬프도다! 엘리자베스와 즉시 혼인한다는 생각은 내게 공포와 절망일 뿐이었다. 나는 아직 지키지 못한 엄숙한 약속에 묶여 있었고, 감히 그 약속을 깨뜨릴 용기도 나지 않았다.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비극이 닥쳐올 것인가! 이 죽음과도 같은 무게를 목에 건 채, 나를 땅바닥으로 짓누르는 이 짐을 지고 어떻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나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야만 했다. 괴물이 그의 짝과 함께 떠나게 내버려 둔 뒤에야, 비로소 평온을 가져다줄 그 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었다.

또한 나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영국으로 직접 떠나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 필

수적인 지식과 발견을 제공해 줄 영국의 철학자들에게 긴 편지를 보내 정보를 얻는 것이었다. 하지만 편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 방식은 너무 더디고 만족스럽지도 못했다. 게다가 사랑하는 이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아버지의 집에서, 이 혐오스러운 과업에 몰두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나는 견딜 수 없는 거부감을 느꼈다. 아주 사소한 사고라도 일어나 내 주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할 만한 이야기가 새어 나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또한 이 비현실적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내가 겪을 참혹한 감정들을 숨기지 못하고, 자주 자제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 일에 매달리는 동안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져야만 했다. 일단 시작만 하면 작업은 금방 끝날 것이고, 그러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터였다. 약속한 바를 완수하고 나면 괴물은 영원히 떠나갈 것이다. 아니면, 나의 간절한 망상이 그려낸 것처럼, 그사이 어떤 사고가 일어나 괴물을 없애버리고 나의 이 영원한 노예 생활을 끝내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러한 감정들이 내 답변을 결정했다. 나는 영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그 요청의 진짜 이유는 숨겼다. 대신 아무런 의심도 사지 않을 만한 명분을 내세워 내 욕망을 포장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흔쾌히 허락하실 수 있도록 간곡하게 청했다.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강렬하고 깊은 우울함에 오랫동안 빠져 지냈던 터라, 아버지는 내가 여행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내심 기뻐하셨다. 아버지는 내가 새로운 풍경을 보고 다양한 즐거움을 누리다 보면, 돌아올 때쯤에는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셨다.

내가 떠나 있는 기간은 내 뜻에 맡겨졌다. 몇 달, 길어야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외롭지 않도록 부성애 어린 배려를 하나 해두셨다. 나에게 미리 상의도 없이, 아버지께서는 엘리자베스와 의논하여 클레르발이 스트라스부르에서 나와 합류하도록 조치해 두신 것이다. 이는 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내가 갈망하던 고독을 방해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여정을 시작할 무렵에는 친구의 존재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외롭고 미칠 것 같은 사색의 시간을 여러 시간이나 줄일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뻤다. 아니, 앙리가 내 곁에 있다면 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만약 내가 혼자 있었다면, 그 혐오스러운 존재가 때때로 내 앞에 나타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상기시키며 나를 괴롭히지는 않았을까?

그리하여 나는 영국으로 향했다. 돌아가자마자 엘리자베스와 결혼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된 상태였다. 연로하신 아버지는 무엇보다 지체되는 것을 몹시 싫어하셨다. 나 자신에게는, 이 혐오스러운 고된 노동 끝에 얻을 보상이 하나 있었다. 유례없는 고통을 견뎌낸 나에게 주어질 단 하나의 위안이었다. 그것은 바로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는 날, 엘리자베스를 나의 반려로 맞이하며 그녀와의 결합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여행을 떠날 채비를 마쳤다. 하지만 한 가지 감정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그로 인해 공포와 불안이 밀려왔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들은 적의 존재조차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남겨질 것이었다. 내가 떠남으로써 그가 더욱 분노한다면, 친구들은 그의 공격

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어디를 가든 뒤쫓아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그가 영국까지 나를 따라오지는 않을까? 이런 상상은 그 자체로 끔찍했지만, 한편으로는 친구들이 안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주기도 했다. 만약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릴 때면 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그러나 피조물의 노예로 살았던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그저 순간의 충동에 몸을 맡기며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느끼는 감각은, 그 악마가 나를 따라오되 내 가족만큼은 그의 음모로부터 지켜줄 것이라는 강한 예감을 내게 전하고 있었다.

9월 말, 나는 다시 고향을 떠났다. 이번 여정은 내가 스스로 제안한 것이었기에 엘리자베스는 내 뜻에 따랐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자기 곁을 떠나 비참함과 슬픔의 습격에 시달리게 될까 봐 깊은 불안에 휩싸였다. 내가 클레르발이라는 동행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녀가 세심하게 보살펴 준 덕분이었다. 그럼에도 남자는 여자의 정성 어린 주의가 필요한 수만 가지 세세한 사정들을 미처 살피지 못하는 법이다. 그녀는 내게 어서 돌아오라고 말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수만 가지 상충하는 감정 탓에, 그녀는 눈물 어린 침묵의 작별 인사를 건네며 입을 뗄 수 없었다.

나는 나를 실어 나를 마차 안으로 몸을 던지듯 올라탔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안중에 없었다. 오직 한 가지, 화학 실험 기구들을 챙겨서 함께 가져가도록 준비하라는 명령만을 떠올렸다. 그 사실을 되새길 때마다 쓰라린 고통이 밀려왔다. 암울한 상상에 사로잡힌 채, 나는 수많은 아름답

고 웅장한 풍경을 지나쳐 갔다. 하지만 내 눈은 그저 초점 없이 허공을 향할 뿐이었다. 내 머릿속에는 오로지 여행의 목적지와, 그 여정이 이어지는 동안 나를 붙들고 있을 작업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무기력한 나태함 속에 며칠을 보내며 수많은 길을 헤맨 끝에, 나는 스트라스부르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이틀 동안 클레르발을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왔다. 아, 우리 사이의 차이는 얼마나 극심했던가! 그는 모든 새로운 풍경에 생동감 있게 반응했다. 지는 해의 아름다움을 볼 때면 기뻐했고, 해가 떠올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모습을 볼 때면 더욱 행복해했다. 그는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의 색채와 하늘의 모습을 내게 가리켜 보여주었다.

"이것이 바로 삶이라는 거야!" 그가 외쳤다. "이제야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껴! 그런데 나의 친애하는 프랑켄슈타인, 자네는 어째서 이토록 낙담하고 슬퍼만 하고 있는 건가!"

사실 나는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저녁별이 내려앉는 것도, 라인강에 반사되는 황금빛 일출도 전혀 보지 못했다. 친구여, 자네도 내 회고를 듣는 것보다 클레르발의 일기를 읽는 편이 훨씬 즐거울 것이다. 그는 감동과 환희 어린 눈으로 풍경을 관찰했으니까. 반면 나는, 모든 즐거움으로 향하는 길을 차단해 버린 저주에 시달리는 비참한 불행아일 뿐이었다.

우리는 스트라스부르에서 로테르담까지 배를 타고 라인강을 따라 내려가기로 했다. 그곳에서 런던행 배를 갈아탈 계획이었다. 항해하는 동안 버드나무가 우거진 섬들을 수없이 지나쳤고, 아름다운 마을들도

여러 곳 보았다. 만하임에서 하루를 머물렀으며, 스트라스부르를 떠난 지 닷새째 되는 날 마인츠에 도착했다.

마인츠 아래로 흐르는 라인강의 경관은 훨씬 더 그림 같았다. 강물은 급류를 이루며 빠르게 흘렀고, 높지는 않지만 모양이 수려하고 가파른 언덕 사이를 굽이쳐 흘렀다. 절벽 끝에는 검은 숲에 둘러싸인 채 높고 험준하게 솟은 폐성들이 곳곳에 보였다.

실로 이 구간의 라인강은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풍경을 선사한다. 어느 지점에서는 거친 언덕과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로 폐성이 보이고, 그 아래로는 어두운 라인강이 세차게 몰아친다. 그러다 곶이 갑자기 꺾여 나타나면, 푸른 경사면을 따라 포도밭이 무성하게 펼쳐지고 강물이 완만하게 흐르며 사람들로 북적이는 마을이 눈앞에 나타난다.

우리는 포도 수확 철에 맞춰 여행을 떠났고, 강물을 따라 미끄러지듯 나아가며 일꾼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다. 마음은 가라앉아 있었고 우울한 감정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나조차도 기분이 좋았다. 나는 배 바닥에 누워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온함이 내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내가 이 정도였다면, 앙리의 기분은 또 어떠했을까. 그는 마치 요정의 나라로 옮겨온 듯한 기분을 느끼며, 인간이 좀처럼 맛보기 힘든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나는 우리 고국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아왔어." 앙리가 말했다. "루체른 호수와 우리 호수도 가보았지. 그곳은 눈 덮인 산들이 물가로 거의 수직에 가깝게 깎아지른 듯 내려앉아 있어. 그 산들이 드리

운 검고 깊은 그림자는, 눈을 즐겁게 해주는 화사한 섬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음울하고 슬픈 모습이었을 거야. 폭풍우로 요동치는 호수의 모습도 보았지. 바람이 물줄기를 소용돌이치게 만드는 것을 보며, 대양에서 일어나는 물기둥이 어떤 모습일지 짐작할 수도 있었어. 파도가 산기슭을 맹렬하게 몰아치는 모습도 보았지. 그곳은 신부와 그의 정부가 눈사태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곳인데, 밤마다 바람이 잠시 잦아들 때면 그들의 죽어가는 목소리가 여전히 들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야. 발레 산맥과 보 지방도 가보았어. 하지만 빅터, 이 나라는 그 모든 경이로운 곳들보다 내 마음을 더 사로잡는구나. 스위스의 산들이 더 웅장하고 기이할지는 몰라도, 이 신성한 강가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특별한 매력이 있어. 저 절벽 위로 돌출된 성을 봐. 그리고 저 섬 위,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사이에 거의 숨겨져 있는 성도 보고. 이제 포도밭 사이에서 나오는 저 일꾼 무리와 산자락 사이에 반쯤 가려진 저 마을도 좀 봐. 아, 분명 이곳을 지키고 머무는 정령은, 빙하를 쌓아 올리거나 우리 고국의 닿을 수 없는 산봉우리에 은둔하는 정령들보다 인간과 훨씬 더 조화로운 영혼을 가졌을 거야."

클레르발! 나의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의 말을 기록하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찬사를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나는 지금 이 순간 여전히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는 마치 '자연이 빚어낸 한 편의 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거칠고 열정적인 그의 상상력은 따뜻한 감수성으로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뜨거운 애정으로 넘쳐흘렀으며, 그가 보여준 우정은 세속적인 이들이 상상 속에서나마 찾아보라고 가르치는, 헌신적이고도 경이로운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

인 공감만으로는 그의 갈구하는 마음을 다 채울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그저 감탄하며 바라보기만 하는 외부 세계의 풍경을, 그는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울려 퍼지는 폭포 소리는 마치 격정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우뚝 솟은 바위와 산, 그리고 깊고 음침한 숲까지, 그 모든 색채와 형상은 그에게 하나의 갈망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감각이자 사랑이었다. 사색을 통해 얻는 어떤 매력이나,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서 빌려온 그 어떤 흥미도 필요치 않을 만큼 강렬한 사랑이었다.

[워즈워스의 「틴턴 수도원」]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는 영영 사라져 버린 것인가? 수많은 생각과 환상적이고도 장엄한 상상력으로 가득 차, 하나의 세계를 일구어냈던 그 마음은, 창조주의 생명에 의지해 존재하던 그 마음은, 이제 소멸해 버린 것인가? 그 마음은 이제 오직 나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신성하게 빚어진 채 아름다움으로 빛나던 그 형체는 쇠락했을지언정, 그 영혼만은 여전히 불행한 친구를 찾아와 위로해 주고 있다.

슬픔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이 무력한 말들은 앙리의 비할 데 없는 고결함에 바치는 작은 헌사일 뿐이지만, 그를 떠올릴 때마다 차오르는 고통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 줍니다.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퀼른을 지나 우리는 네덜란드의 평원으로 내려갔다.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고 강물조차 우리를 밀어주기에는 흐름이 너무 완만했기에, 우리는 나머지 여정을 역마차를 이용한 육로로 가기로 했다.

이곳으로 향하는 여정은 아름다운 풍경이 주는 즐거움이 점차 사라지며 단조로워졌지만, 우리는 며칠 뒤 로테르담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했다. 12월 말의 어느 맑은 아침, 나는 처음으로 영국의 하얀 절벽을 마주했다. 템스강 유역은 생경한 풍경을 선사했다. 강변은 평탄하면서도 비옥했으며, 마을마다 저마다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우리는 틸버리 요새를 보며 스페인 무적함대의 이야기를 떠올렸고, 그레이브샌드와 울위치, 그리고 그리니치도 지나쳤다. 그곳들은 내가 고향에 있을 때부터 이미 들어 알고 있던 장소들이었다.

마침내 런던의 수많은 첨탑이 눈에 들어왔다. 그중에서도 세인트 폴 대성당이 압도적인 높이로 솟아 있었고, 영국 역사에서 이름 높은 런던탑도 모습을 드러냈다.

제19장

런던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안식처가 되었다. 우리는 이 경이롭고도 유명한 도시에서 몇 달간 머물기로 했다. 클레르발은 당시 활약하던 천재적이고 재능 있는 인물들과 교류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나에게 그런 교류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었다. 나의 주된 목적은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가져온 소개장들을 활용해, 당대 가장 저명한 자연철학자들에게 빠르게 연락을 취했다.

만약 이 여정이 내가 학업에 정진하며 행복을 누리던 시절에 이루어졌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삶에는 이미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내가 이들을 찾아간 이유는 오직 하나, 내 관심사가 지독하리만큼 깊게 매몰되어 있는 그 주제에 관해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은 내게 고역이었다. 혼자 있을 때면 천지의 경이로운 풍경들로 마음을 채울 수 있었고, 앙리 클레르발의 목소리는 나를 달래주어 잠시나마 거짓된 평온 속에 나를 속일 수 있었다. 그러나 분주하고 즐거워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면, 내 마음에는 다시 절망이 밀려왔다. 나와 동료 인간들 사

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놓여 있었다. 그 장벽은 윌리엄과 쥐스틴의 피로 봉인되어 있었고, 그 이름들과 얽힌 사건들을 떠올릴 때마다 내 영혼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클레르발에게서 나는 과거의 내 모습을 보았다. 그는 호기심이 많았고, 경험과 지식을 쌓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가 관찰하는 관습의 차이는 그에게 끊임없는 배움이자 즐거움의 원천이었다. 또한 그는 오랫동안 품어온 목표를 좇고 있었다. 그는 인도의 여러 언어를 익혔고 그 사회를 깊이 연구했기에, 인도를 방문한다면 유럽의 식민지 개척과 무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직 영국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늘 무언가에 몰두해 있었는데, 그의 즐거움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나의 슬프고 낙담한 마음뿐이었다. 나는 그가 새로운 삶의 장에 들어선 이가 누려야 할 당연한 즐거움을 빼앗지 않으려, 나의 상태를 최대한 숨기려 애썼다. 그가 어떤 근심이나 쓰라린 기억에 방해받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 남고 싶을 때면 다른 약속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그와 동행하기를 자주 거절했다.

그 무렵 나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마치 머리 위로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지는 고문과도 같았다. 그 일에 몰두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 일과 관련하여 입 밖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입술은 떨렸고 심장은 요동쳤다.

런던에서 몇 달을 보낸 뒤, 우리는 스코틀랜드에 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는 예전에 제네바를 방문했던 이였다. 그는 고향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풍경만으로도 충분히 매혹적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퍼스까지 여정을 연장해 와 달라고 청했다. 클레르발은 이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싶어 했다. 나 역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몹시 싫어했으나, 자연이 선택한 안식처를 수놓는 산과 시내, 그리고 그 경이로운 만물들을 다시 한번 눈에 담고 싶었다.

우리는 10월 초에 영국에 도착했고, 어느덧 2월이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 달이 더 지나면 북쪽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여행에서는 에든버러로 이어지는 큰 길을 따라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대신 윈저와 옥스퍼드, 매틀록, 그리고 컴벌랜드 호수 지역을 차례로 방문하기로 했으며, 이 여정을 모두 마치는 시점은 7월 말쯤이 될 것이라고 계획했다. 나는 화학 실험 기구들과 그동안 수집한 재료들을 챙겨 싸두었다. 스코틀랜드 북부 고원 지대의 어느 외딴 구석진 곳에서 내 연구를 마무리 짓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3월 27일에 런던을 떠나 윈저에 며칠간 머물며 아름다운 숲속을 거닐었다. 산에서만 지내던 우리에게 이곳은 완전히 새로운 풍경이었다. 위엄 있는 참나무들과 수많은 사냥감, 그리고 우아하게 노니는 사슴 떼는 모두 우리에게 생소하고도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그곳을 떠나 우리는 옥스퍼드로 향했다. 도시로 들어서자, 백오십 년도 더 전에 이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찰스 1세가 군대를 집결시켰던 곳이 바로 여기였다. 온 나라가 의회와 자유의 기치 아래 왕을 저버렸을 때도, 이 도시는 끝까지 그에게 충성을 다했다. 불운한 왕과 그의 동료들, 즉 상냥했던 폴클랜드와 오만했던 고링, 그리고 왕비와 왕자가 머물렀을 법한 도시의 구석구석에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서려 있어 묘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그 옛날의 정취가 이곳에 깃들어 있음을 느꼈고, 그 흔적을 쫓는 일에 즐거움을 느꼈다. 설령 이러한 감상에 젖지 않았더라도, 도시의 풍경 그 자체만으로도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할 만큼 아름다웠다. 대학들은 고풍스럽고 그림 같았으며, 거리들은 장엄하기까지 했다. 또한 도시 곁을 흐르는 아름다운 이시스 강은 눈부시게 푸른 초원을 지나 잔잔하고 넓게 펼쳐져 있었다. 그 물결 위로는 오래된 나무들에 둘러싸인 고풍스러운 탑과 첨탑, 그리고 돔들이 이루는 웅장한 자태가 거울처럼 비치고 있었다.

나는 이 장면을 즐겼으나,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뒤섞여 그 즐거움은 쓰디쓴 맛을 내었다. 나는 본래 평온한 행복을 누리며 살 운명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불만이라는 감정이 내 마음을 찾아온 적이 없었다. 설령 권태에 짓눌릴 때가 있더라도,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거나 인간이 만들어낸 탁월하고 숭고한 산물들을 연구하다 보면 언제든 마음이 다시 설레고 정신이 생기를 되찾곤 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벼락을 맞은 나무와 같다. 번개가 내 영혼을 관통해 버렸다. 나는 곧 사라지게 될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살아남은 존재처럼 느껴졌다. 타인에게는 가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나

자신에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파멸해 버린 인류의 비참한 잔상일 뿐이다.

우리는 옥스퍼드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 주변을 거닐며 영국 역사의 가장 역동적인 시기와 관련된 장소라면 어디든 찾아내려 애썼다. 눈앞에 새로운 볼거리가 연이어 나타나는 바람에, 우리의 작은 탐험은 종종 길어지곤 했다. 우리는 저명한 햄든의 묘와 그 애국자가 전사한 들판을 방문했다. 그 광경을 마주한 순간, 나의 영혼은 비참하고 굴욕적인 공포에서 벗어나 고양되었다. 그곳은 자유와 자기희생이라는 신성한 가치를 기념하고 상기시켜 주는 상징물이었기 때문이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나는 나를 옭아맨 사슬을 떨쳐내고 자유롭고 드높은 정신으로 주위를 둘러볼 용기를 냈다. 그러나 이미 쇠사슬은 내 살을 파고든 뒤였다. 나는 다시 떨며 절망에 빠진 채, 비참한 나 자신 속으로 침잠해 들어갔다.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옥스퍼드를 떠나, 다음 휴식처인 매틀록으로 향했다. 이 마을 근처의 풍경은 스위스의 경치와 무척 닮아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규모가 작았다. 푸른 언덕들 위에는 내 고향의 소나무 숲 산들을 언제나 수놓던 저 멀리 보이는 하얀 알프스 산맥의 장엄함이 없었다. 우리는 경이로운 동굴과 작은 자연사 박물관들을 둘러보았다. 그곳의 진기한 수집품들은 서보와 샤모니의 박물관에 전시된 방식과 똑같이 진열되어 있었다. 앙리가 샤모니라는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나는 몸을 떨었다. 그 끔찍한 기억이 그 이름과 얽혀 있었기에, 나는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틀록을 서둘러 떠나고만 싶었다.

더비에서 출발해 계속 북쪽으로 향하던 우리는 컴버랜드와 웨스트모어랜드에서 두 달을 보냈다. 그곳에 있으니 마치 스위스의 산맥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산의 북사면에 여전히 남아 있는 작은 눈 뭉치들과 호수, 그리고 바위 사이를 세차게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내게 무척 친숙하고도 그리운 풍경이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몇몇 지인도 사귀었는데, 그들은 하마터면 나를 행복 속으로 끌어들일 뻔했다. 클레르발이 느끼는 즐거움은 나보다 훨씬 컸다. 그는 재능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정신적으로 성장했고, 자신보다 수준이 낮은 이들과 함께할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해 나갔다. 클레르발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평생을 살아도 좋겠어. 이 산들 사이에 있다면 스위스나 라인강을 떠나온 것이 전혀 아쉽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그는 여행자의 삶이란 즐거움 속에서도 수많은 고통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행자의 감각은 늘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다. 안락한 휴식 속으로 빠져들려 할 때면, 그는 즐겁게 머물던 그 자리를 떠나야만 한다. 새로운 무언가가 다시 그의 주의를 붙잡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 새로운 대상마저 또 다른 새로움을 찾아 떠나버리고 만다.

컴벌랜드와 웨스트모얼랜드의 여러 호수를 둘러보며 그곳 주민들 중 몇몇과 정이 들기도 전에, 스코틀랜드 친구와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다. 우리는 그들을 뒤로한 채 여정을 떠났다. 나로서는 오히려 아쉬울 것이 없었다. 약속을 어긴 지 이미 꽤 시간이 흐른 터라, 악마가 느낄 실망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가 스위스

에 머물며 내 친척들에게 복수를 퍼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생각은 매 순간 나를 쫓아다니며 괴롭혔고, 잠시라도 얻을 수 있었을 휴식과 평온마저 앗아갔다.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편지를 기다렸다. 편지가 늦어지기라도 하면 수천 가지 두려움에 휩싸여 비참한 기분에 빠졌다. 그러다 마침내 편지가 도착해 엘리자베스나 아버지의 필체를 확인하면, 내 운명이 어떠한지 확인하기가 두려워 차마 읽지 못할 정도였다. 때로는 그 악마가 나를 뒤쫓아오고 있으며, 나의 태만함을 벌하기 위해 내 동료를 살해함으로써 일을 서두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면, 나는 앙리 클레르발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파괴자의 망상적인 분노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마치 커다란 죄를 저지른 것만 같았고, 그 죄책감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나는 죄가 없었으나, 죄를 지은 자가 받는 것만큼이나 치명적인 끔찍한 저주를 스스로 머리 위에 불러내고 말았다.

나는 무기력한 눈과 마음으로 에든버러를 방문했다. 사실 그 도시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라 할지라도 흥미를 느낄 만큼 매력적인 곳이었다. 클레르발은 옥스퍼드만큼 그곳을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는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살아있는 옥스퍼드를 더 즐거워했다. 하지만 에든버러 신시가지의 아름다움과 정돈된 모습, 낭만적인 성,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주변 풍경—아서스 시트, 세인트 버나드 우물, 펜틀랜드 언덕—은 클레르발의 아쉬움을 달래주는 한편, 그를 활력과

감탄으로 가득 채워 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저 여정이 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우리는 일주일 만에 에든버러를 떠났다. 쿠퍼와 세인트 앤드루스를 거쳐 테이강 변을 따라 퍼스까지 향했다. 그곳에는 우리의 친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낯선 이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손님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쾌활한 태도로 그들의 감정이나 계획에 맞장구를 칠 기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클레르발에게 스코틀랜드 여행을 혼자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네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그리고 이곳을 우리의 만남의 장소로 삼자고. 한두 달 정도는 자리를 비울지도 모르네. 하지만 간곡히 부탁하건대, 내 행보에 간섭하지 말아주게. 잠시만이라도 평온함과 고독 속에 나를 내버려 두게나. 내가 돌아올 때쯤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자네의 성품과도 더 잘 어우러질 수 있기를 바라네."

앙리는 나를 만류하고 싶어 했으나, 내가 이 계획에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는 더는 간언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편지를 자주 써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앙리는 이렇게 말했다. "모르는 사람들뿐인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과 함께 있느니, 차라리 네가 홀로 거니는 그 길에 함께 있고 싶구나. 그러니 나의 친애하는 친구여, 어서 돌아오렴. 네가 곁에 없으니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구나. 네가 돌아와야 다시금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친구와 헤어진 뒤, 나는 스코틀랜드의 외딴곳으로 떠나 홀로 남은 채 남은 과업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했다. 괴물이 나를 뒤쫓아올 것이라

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내가 일을 마칠 때쯤 모습을 드러내어, 자신의 동반자를 맞이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결심을 품고 북부 고원 지대를 가로질러 간 나는, 오크니 제도의 가장 외딴 섬 중 하나를 내 연구의 거점으로 정했다. 그곳은 파도가 끊임없이 높은 절벽을 때려대는 바위 덩어리에 불과했기에, 내가 하려는 일을 수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장소였다. 땅은 척박하여 불쌍한 소 몇 마리를 먹일 풀조차 거의 나지 않았고, 주민 다섯 명의 끼니를 채울 귀리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그들의 수척하고 앙상한 팔다리만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음식을 먹으며 지내는지 알 수 있었다. 채소나 빵 같은 사치스러운 음식은 물론이고, 심지어 깨끗한 물조차 육지에서 가져와야 했다. 육지는 그곳에서 약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섬 전체에는 초라한 오두막이 단 세 채뿐이었는데, 내가 도착했을 때 그중 한 채가 비어 있었다. 나는 그곳을 빌렸다. 방은 두 개뿐이었고, 그 안은 지독한 빈곤이 불러온 불결함으로 가득했다. 초가 지붕은 내려앉았고, 벽에는 회칠조차 되어 있지 않았으며, 문은 경첩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나는 오두막을 수리하도록 시키고 가구도 몇 점 사들인 뒤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 궁핍과 비참한 가난에 짓눌려 감각이 마비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런 나의 행동은 분명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것이다. 덕분에 나는 누구의 시선도 받지 않고 방해받지도 않은 채 지낼 수 있었다. 내가 베푼 적은 양의 음식과 옷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무딘 감각마저 이토록 무디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은신처에서 나는 오전 내내 작업에 몰두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날씨가 허락할 때면, 나는 자갈이 깔린 해변을 걸으며 발치에서 포효하며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풍경은 단조로우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다. 나는 스위스를 떠올렸다. 그곳은 이곳의 황량하고도 소름 끼치는 풍경과는 전혀 달랐다. 스위스의 언덕은 포도덩굴로 뒤덮여 있고, 평원에는 작은 집들이 빽빽하게 흩어져 있다. 아름다운 호수들은 푸르고 온화한 하늘을 비춘다. 설령 바람이 불어 호수가 요동친다 해도, 거대한 대양의 포효에 비하면 그 소란스러움은 그저 활기찬 어린아이의 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처럼 일과를 나누어 보냈으나, 연구를 거듭할수록 그 과정은 날이 갈수록 끔찍하고 고통스러워졌다. 어떤 때는 며칠 동안이나 차마 실험실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작업을 끝내기 위해 밤낮없이 매달리기도 했다. 내가 매달린 일은 참으로 추잡한 과정이었다. 첫 실험을 할 때만 해도 나는 일종의 열광적인 광기에 사로잡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지 깨닫지 못했다. 오로지 연구를 완성하겠다는 생각에만 온 정신이 팔려 있었기에, 내가 행하는 일의 공포를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냉정한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하고 있으며, 내 손으로 하는 작업에 마음이 메스꺼워질 때가 많았다.

그렇게 나는 가장 혐오스러운 일에 매달린 채, 눈앞의 광경에서 단 한 순간도 주의를 돌릴 수 없을 만큼 깊은 고독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몸은 안절부절못했고 신경은 날카로워졌다. 매 순간 나를 쫓는 자와 마주칠까 두려웠다. 때로는 땅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앉아 있기도 했다.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가는 그토록 마주하기 두려운 존재와 눈이 마주칠까 겁이 났기 때문이다. 또한 동료들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것도 두려웠다. 내가 홀로 남겨졌을 때, 그가 나타나 자신의 동반자를 요구할까 봐 무서웠다.

그동안 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갔고, 이미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과 간절한 희망을 품고 그 완성을 고대했다. 차마 스스로에게 되묻기조차 두려운 희망이었으나, 동시에 가슴을 메스껍게 만드는 불길하고 막연한 예감이 그 희망과 뒤섞여 있었다.

제20장

어느 저녁, 나는 실험실에 앉아 있었다. 해는 이미 저물었고 바다 너머로 달이 막 떠오르고 있었다. 작업하기에는 빛이 충분하지 않았기에,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긴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오늘 밤은 이쯤에서 일을 멈출 것인지, 아니면 쉬지 않고 매달려 서둘러 끝낼 것인지 고민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앉아 있는 동안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고,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깊이 고찰하게 되었다. 3년 전에도 나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몰두하여 한 마리의 악마를 만들어낸 적이 있었다. 그놈의 비할 데 없는 잔혹함은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쓰라린 후회로 가득 채워 놓았다.

이제 나는 또 다른 존재를 만들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존재의 성정이 어떠할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전의 피조물보다 만 배는 더 사악해질 수도 있었고, 살인과 비극 그 자체를 즐기는 존재가 될지도 몰랐다. 이전의 피조물은 인간의 근처를 떠나 사막에 숨어 살겠다

고 맹세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사고하고 추론할 줄 아는 생명체가 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맺어진 약속을 거부할 수도 있었다.

두 존재가 서로를 증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미 살아있는 피조물은 자신의 기형적인 모습조차 혐오하고 있는데, 만약 그 모습이 여성의 형상을 하고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가 얼마나 더 큰 혐오감을 느끼겠는가? 또한 그녀가 그에게 환멸을 느끼고 인간의 우월한 아름다움을 향해 돌아서 버릴 수도 있었다. 만약 그녀가 그를 떠나 버린다면, 그는 동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새로운 모욕감에 휩싸여 다시금 홀로 남겨지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유럽을 떠나 신대륙의 사막에 정착한다 해도, 악마가 갈구하던 그 유대감이 낳을 첫 번째 결과물은 아이들일 것이다. 그리하여 이 땅에는 악마의 혈통이 번식할 것이며, 그들은 인류라는 종의 존재 자체를 위태롭고 공포스러운 조건으로 몰아넣을지도 모른다. 나의 안위를 위해, 영원히 이어질 세대들에게 이 저주를 내릴 권리가 내게 있는가? 이전에는 내가 창조한 존재의 궤변에 마음이 흔들렸고, 그의 악랄한 협박에 정신을 잃을 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내뱉은 약속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절실히 깨달았다. 나의 이기심이 어쩌면 인류 전체의 존립을 대가로 삼아 나의 평온을 사려 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니, 미래의 세대가 나를 재앙의 근원으로 여기며 저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다.

고개를 들었을 때, 창가에 서 있는 악마를 달빛 아래에서 마주한 순간 나는 몸을 떨었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가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가 내게 맡긴 과업을 수행하며 앉아 있던 나를 향해, 악마는 입술을 찌푸리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그는 내가 여행하는 내내 나를 뒤쫓아왔다. 숲속을 배회하고, 동굴 속에 몸을 숨기거나, 황량하고 넓은 황무지로 도망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지켜보며, 내가 했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그를 바라보자,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악의와 음흉함이 서려 있었다. 그와 닮은 존재를 또 하나 만들겠다는 나의 약속이 떠오르자, 나는 미칠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격정으로 몸을 떨며, 나는 작업 중이던 그것을 갈가리 찢어버렸다. 그 가련한 놈은 자신의 행복이 달려 있던 피조물이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악마 같은 절망과 복수심이 뒤섞인 울부짖음을 내뱉으며 물러갔다.

나는 방을 나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다시는 이 연구를 계속하지 않겠노라고 마음속으로 엄숙히 맹세했다. 그러고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내 방을 찾아갔다. 방 안에는 나뿐이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밀려드는 어둠을 걷어내 주거나, 가장 끔찍한 환상들이 주는 메스꺼운 압박감으로부터 나를 구해줄 이는 아무도 없었다.

몇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창가에 머물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잦아든 탓에 바다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온 자연은 고요한 달빛 아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수면 위에는 몇 척의 어선만이 점

처럼 떠 있었고, 이따금 부는 부드러운 미풍을 타고 어부들이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정적을 느끼고 있었으나, 그 침묵이 얼마나 깊은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해안 근처에서 노를 젓는 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 내 집 근처에 배를 대는 바람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을 조심스레 열려고 애쓰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떨었다. 문을 열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감이 들었고, 근처 오두막에 사는 농부 중 한 명이라도 깨우고 싶었다. 하지만 끔찍한 꿈속에서 겪는 것과 같은 무력감이 나를 덮쳤다. 다가오는 위험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무력감에 사로잡혀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이윽고 복도를 따라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더니,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불행한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문을 닫고 내게 다가와,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시작한 일을 스스로 망쳐버렸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감히 약속을 어기려는 건가요? 나는 고통과 비참함을 견뎌왔습니다. 당신을 따라 스위스를 떠났고, 버드나무가 우거진 라인강의 섬들을 지나 언덕의 봉우리들을 넘어 여기까지 기어 왔습니다. 영국의 황무지에서,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황량한 땅에서 수개월을 머물렀습니다. 나는 헤아릴 수 없는 피로와 추위, 그리고 허기를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감히 나의 희망마저 짓밟으려는 겁니까?"

"당장 사라져! 약속은 깨졌다. 너처럼 기형적이고 사악한 존재를 다시는 만들지 않으리라."

"노예여, 전에는 너와 이성적으로 대화하려 했으나, 너는 나의 배려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기억하라, 나에게는 힘이 있다. 너는 스스로 비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네가 대낮의 햇빛조차 혐오스러울 만큼 처참한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 너는 나의 창조주이지만, 너의 주인은 바로 나다. 복종하라!"

"망설이던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 당신이 권세를 휘두를 때가 왔군요. 하지만 당신의 협박 따위로 내가 악행을 저지르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협박은 당신과 같은 악을 행할 동반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나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입니다. 죽음과 비참함에서 즐거움을 찾는 악마를, 내가 어찌 냉정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풀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물러가십시오! 내 결심은 확고하며, 당신의 말은 그저 나의 분노를 자극할 뿐입니다."

피조물은 내 얼굴에 서린 결연함을 읽고는,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 이를 갈았다.

"인간은 저마다 가슴을 나눌 아내를 얻고 짐승조차 짝을 가질 수 있는데, 어찌 나만 홀로 남겨야 한단 말인가!" 그가 외쳤다. "나는 애정을 품었으나, 돌아온 것은 혐오와 경멸뿐이었다. 인간이여, 당신은 나를 미워할 수 있겠지. 하지만 조심하라! 당신의 시간은 공포와 비참함 속에서 흘러갈 것이며, 머지않아 당신의 행복을 영원히 앗아갈 재앙이 닥칠 것이다. 내가 이 극심한 불행 속에서 몸부림치는 동안, 당신만 행복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당신은 나의 다른 욕망들은 꺾을 수 있을지 몰라도, 복수만큼은 꺾지 못한다. 복수, 그것은 이제 나에게 빛이나 음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의 폭군이자 고통을 주는 당신은 당신의 비극을 지켜보는 태양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조심하라. 나는 두려움을 모르기에 강력하다. 나는 뱀처럼 교활하게 숨어 지켜보다가, 독을 품고 당신을 쏠 것이다. 인간이여, 당신은 당신이 가한 상처들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악마여, 그만두시오. 그런 악의 어린 소리로 공기를 더럽히지 마시오. 나는 이미 결심을 밝혔고, 말 몇 마디에 굴복할 만큼 겁쟁이가 아니오. 이제 물러가시오. 내 뜻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오."

"좋다. 이제 가겠다. 하지만 기억해라, 네 결혼식 밤에 내가 네 곁에 있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 달려 나가며 외쳤다. "이 악마 같은 놈! 내 사형 집행장에 서명하기 전에, 네놈 자신도 무사할지부터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거다."

그를 붙잡으려 했으나, 그는 나를 따돌리고 황급히 집을 빠져나갔다. 잠시 후, 그는 배를 타고 떠나갔다. 배는 화살처럼 빠르게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더니, 이내 파도 사이로 자취를 감추었다.

다시 정적이 찾아왔으나, 그의 말은 귓가에 계속 쟁쟁하게 울렸다. 내 평온을 앗아간 살인자를 끝까지 뒤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싶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방 안을

서성였다. 상상력은 나를 괴롭히고 찌르는 수천 가지 환영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켰다. 왜 그를 따라가 죽기 살기로 맞서 싸우지 않았을까. 하지만 나는 그를 놓아주었고, 그는 이미 육지를 향해 떠나버린 뒤였다. 그의 끝없는 복수심에 다음 희생양은 누가 될지 생각하니 몸서리가 처졌다.

그러다 다시 그의 말이 떠올랐다. "결혼식 밤에 너를 찾아가겠다." 내 운명이 결정된 시점은 바로 그때였다. 그 시간에 나는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그의 악의를 달래는 동시에 소멸시켜야만 했다. 그 앞날이 두렵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랑하는 엘리자베스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졌다. 그녀가 흘릴 눈물과 끝없는 슬픔, 그리고 연인을 이토록 야만적으로 빼앗겼을 때 마주할 절망을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졌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나는 적에게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고, 처절하게 맞서 싸우겠노라 다짐했다.

밤이 지나고 바다 너머로 해가 떠올랐다. 격렬한 분노가 깊은 절망으로 가라앉은 상태를 차마 평온이라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나의 마음은 조금 진정되었다. 나는 어젯밤의 끔찍한 다툼이 벌어졌던 그 집을 떠나 해변을 따라 걸었다. 바다는 마치 나와 인류 사이를 가로막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느껴졌다. 아니, 차라리 정말로 그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안을 파고들었다. 나는 저 황량한 바위섬 위에서 고단할지언정, 갑작스러운 불행에 휘말리지 않고 그저 무미건조하게 삶을 이어가고 싶었다. 만약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것은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이거나, 혹은 내가 직접 만들어낸 악마의 손아귀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뿐일 것이다.

나는 사랑하는 모든 것과 떨어져, 그 이별로 인해 비참함에 빠진 채 안절부절못하는 망령처럼 섬을 배회했다. 정오가 되어 태양이 높이 떠오르자, 나는 풀밭에 몸을 뉘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전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한 데다,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고, 밤샘과 비통함으로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이윽고 찾아온 잠은 나를 상쾌하게 해주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다시금 내가 인간이라는 종족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덕분에 지난 일들을 한결 차분한 마음으로 되짚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악마가 내뱉은 말들은 여전히 죽음을 알리는 조종처럼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 말들은 마치 꿈결 같으면서도, 현실만큼이나 선명하고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태양은 이미 서쪽 하늘로 한참 기울어 있었다. 나는 여전히 해변에 앉아 허기를 채우고 있었다. 몹시 허기가 진 상태였기에 귀리 케이크를 정신없이 먹어 치웠다. 그때 낚싯배 한 척이 내 근처에 정박하는 것이 보였다. 선원 중 한 명이 내게 꾸러미를 하나 가져다주었다. 그 안에는 제네바에서 온 편지들과, 나에게 합류해 달라고 간청하는 클레르발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클레르발은 편지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런던에서 사귄 친구들이 보낸 편지에는, 그가 추진하던 인도 사업의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어서 돌아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출발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런던으로

가는 여정 이후에 이어질 긴 항해가 생각보다 더 빨리 시작될지도 모르니, 부디 곁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홀로 있는 섬을 떠나 퍼스에서 자신을 만나, 함께 남쪽으로 내려가자고 청했다.

이 편지는 죽어 있던 나를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나게 했다. 나는 이틀 뒤에 섬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나는 차마 떠올리기조차 끔찍한 과업을 하나 마쳐야 했다. 화학 실험 기구들을 챙겨야 했는데, 그러려면 내 혐오스러운 작업이 벌어졌던 그 방에 들어가야만 했다.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그 도구들을 직접 손으로 만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겨우 용기를 내어 실험실 문을 열었다. 내가 파괴해 버린, 미처 완성되지 못한 피조물의 잔해들이 바닥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내가 살아있는 사람의 살점을 갈가리 찢어놓은 것만 같은 기분을 들게 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잠시 멈춰 섰다가 방 안으로 발을 들였다.

떨리는 손으로 실험 기구들을 방 밖으로 옮겼다. 그러다 문득, 내 작업의 흔적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마을 농부들의 공포와 의심을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기구들을 바구니에 담고 그 안에 돌을 가득 채워 넣었다. 일단은 그것들을 어딘가에 치워두기로 하고, 바로 그날 밤 바다에 던져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동안 나는 해변에 앉아 화학 기구들을 닦고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악마가 모습을 드러냈던 그날 밤 이후, 내 감정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전까지 나는 내가 한 약속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숙명이라 여겼고, 그 사실에 암울한 절망만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마치 눈앞을 가리고 있던 막이 걷힌 듯, 처음으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연구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단 한 순간도 들지 않았다. 그놈이 내뱉은 협박이 머릿속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내 의지로 그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 나는 내가 처음 만든 그 악마와 같은 존재를 또다시 만드는 것은 가장 비열하고 잔혹한 이기심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과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할 만한 모든 생각은 마음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렸다.

새벽 두 시와 세 시 사이, 달이 떠올랐다. 나는 바구니를 작은 보트에 싣고 해안에서 약 4마일쯤 떨어진 곳까지 배를 몰고 나갔다. 주변은 완벽하게 고요했다. 몇 척의 배가 육지를 향해 돌아오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을 피해 멀리 나아갔다. 마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처럼, 나는 동족을 마주칠까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피했다.

한때는 맑게 빛나던 달이 갑자기 두꺼운 구름에 가려진 순간이 있었다. 나는 그 어둠을 틈타 바구니를 바다로 던졌다. 바구니가 가라앉으며 내는 꾸르륵 소리를 들은 뒤, 나는 그곳을 벗어나 배를 몰았다. 하늘에는 구름이 끼었으나 공기는 맑았다. 북동풍이 불어와 공기는 차가웠지만, 오히려 그 바람이 나를 상쾌하게 했고 기분 좋은 느낌을 주었다.

나는 바다 위에 더 머물기로 마음먹었다. 키를 똑바로 고정한 뒤, 나는 배 바닥에 몸을 뉘었다.

구름이 달을 가려 모든 것이 어둑해졌다. 배의 용골이 파도를 가르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그 잔잔히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나를 달래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런 상태로 얼마나 머물렀는지 모르겠다. 정신을 차려보니 태양은 이미 상당히 높이 떠 있었다. 바람은 거세게 몰아쳤고, 파도는 끊임없이 작은 나룻배의 안전을 위협했다. 바람은 북동풍이었는데, 그 바람 때문에 배가 출발했던 해안에서 아주 멀리 떠밀려 왔음을 깨달았다. 경로를 바꾸려 애써 보았지만, 다시 시도했다가는 곧 배에 물이 가득 차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람을 안고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공포가 엄습했다. 나침반도 없었고 이 지역의 지형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거의 없었기에 태양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자칫하면 망망대해인 대서양으로 떠밀려 가 굶주림의 고통을 겪거나, 나를 에워싸고 포효하며 몰아치는 끝없는 바닷속으로 삼켜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미 바다에 나온 지 수 시간이 지나 있었기에,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의 전조와도 같은 타는 듯한 갈증이 나를 괴롭혔다. 바람을 타고 흘러가는 구름에 뒤덮인 하늘을 바라보았으나, 구름은 그저 다른 구름으로 바뀔 뿐이었다.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은 나의 무덤이 될 터였다.

"악마야," 나는 외쳤다. "네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엘리자베스, 아버지, 그리고 클레르발이 떠올랐다. 모두 뒤에 남겨진 이들, 괴물이 그 잔혹하고 무자비한 욕망을 마음껏 채울 대상들이었다. 이 생각이 나를 너무나 절망적이고 공포스러운 망상 속으로 몰아넣었기에, 그 장면이 이제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려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그것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몸서리쳐진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기울면서 바람은 점차 잦아들어 부드러운 미풍이 되었고, 바다의 거친 파도도 잦아들었다. 하지만 파도가 잦아든 자리에는 무겁게 일렁이는 너울이 밀려왔다. 속이 메스꺼워 키를 잡기조차 힘들 때쯤, 남쪽 방향에서 높게 솟은 육지의 선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지독한 피로와 공포스러운 기다림에 나는 거의 탈진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생존을 확인했다는 확신이 갑작스레 찾아왔다. 그 안도감은 마치 따스한 기쁨의 홍수처럼 내 심장으로 밀려들었고, 나는 눈물을 쏟아냈다.

인간의 감정이란 이토록 변덕스럽고, 비참함이 극에 달한 순간에도 삶을 향해 매달리는 그 애착은 어찌 이리도 기이한 것인가! 나는 옷가지 일부를 떼어내어 돛을 하나 더 만들었다. 그러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육지를 향해 배를 몰았다. 눈앞에 나타난 땅은 거칠고 바위투성이였으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곳에 사람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 선명히 보였다. 해안 근처에는 배들이 떠 있었고, 나는 문득 다시 문명인의 곁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해안선을 따라 굽이진 길을 세심히 살피다가, 작은 곶 뒤로 솟아오른 교회 첨탑을 발견하고는 반갑게 맞이

했다. 몸이 너무나 쇠약해진 상태였기에, 음식을 구하기 가장 수월할 마을로 곧장 배를 몰기로 했다. 다행히 수중에 돈이 있었다. 곶을 돌아 들어가자 깔끔하고 아담한 마을과 훌륭한 항구가 나타났다. 예상치 못한 탈출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나는 그 항구로 들어갔다.

배를 수리하고 돛을 정리하는 데 열중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곳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나의 모습에 무척 놀란 듯 보였다. 하지만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몸짓을 해댔다. 평소 같았으면 조금은 겁이 났을 법한 행동이었다. 나는 그저 그들이 영어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뿐이며, 그래서 그 언어로 말을 건넸다.

"친애하는 여러분," 내가 말했다. "부디 친절을 베풀어 이 마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곧 알게 될 거요." 쉰 목소리의 남자가 대답했다. "어쩌면 당신 취향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 도착했을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머물 곳을 정하는 데 당신 의견을 묻지는 않을 테니, 그 점은 약속하지."

낯선 이에게서 이토록 무례한 대답을 듣자 나는 몹시 당혹스러웠다. 게다가 그 일행의 얼굴에 서린 찌푸린 기색과 분노 섞인 표정을 마주하자 마음이 더욱 어지러웠다. 나는 되물었다. "어찌하여 제게 이토록 거칠게 대답하십니까? 낯선 이에게 이토록 불친절하게 구는 것은 분명 영국인의 관습이 아닐 텐데요."

"영국인의 관습이 어떤지는 모르겠소." 그 남자가 말했다. "하지만 악당을 증오하는 건 아일랜드인의 관습이지."

이 기묘한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몰려드는 군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느껴졌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는데, 그 모습에 나는 짜증이 났고 어느 정도 두려움마저 느꼈다. 나는 여관으로 가는 길을 물었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자 나를 뒤쫓으며 에워싼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인상이 험악한 사내 하나가 다가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이보시오, 선생.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설명해야 하니, 일단 나를 따라 커윈 씨에게 가야겠소."

"커윈 씨는 누구입니까? 왜 제가 제 사정을 설명해야 하죠? 이 나라는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까?"

"예, 선생님.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커윈 씨는 치안 판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어젯밤 이곳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신사의 죽음에 대해 진술하셔야 합니다."

그 대답에 깜짝 놀랐으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나는 결백했다. 그것은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말없이 안내자를 따라갔고, 마을에서 가장 좋은 저택 중 하나로 인도되었다. 피로와 허기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기에 나는 남은 힘을 모두 쥐어짜기로 했다. 육체적인 쇠약함이 혹여나 두려움이나 죄책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때의 나

는, 잠시 후 닥쳐올 재앙이 나를 집어삼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재앙은 곧 나를 덮쳐, 수치심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마저도 경악과 절망 속에서 모두 꺼뜨려 버릴 것이었다.

여기서 잠시 멈춰야겠다. 이제부터 기억을 더듬어 그 끔찍했던 사건들을 상세히 이야기하려 하는데, 그 기억을 떠올리는 데에 온 힘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21장

곧이어 나는 치안판사 앞에 서게 되었다. 그는 차분하고 온화한 태도를 지닌, 인자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소 엄격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나를 데려온 이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 이번 사건의 증인이 누구인지 물었다.

여섯 명 남짓한 사람들이 앞으로 나섰다. 그중 치안판사에게 선택된 한 남자가 증언을 시작했다. 그는 전날 밤 아들과 매제인 다니엘 뉴전트와 함께 낚시를 나갔었다고 말했다. 밤 10시쯤 북쪽에서 강한 돌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서둘러 항구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달이 아직 뜨지 않은 아주 어두운 밤이었다. 그들은 항구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평소 하던 대로 항구에서 약 2마일 아래에 있는 작은 개울가에 배를 댔다. 그는 낚시 도구 일부를 들고 앞장서서 걸었고, 일행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랐다. 모래사장을 따라 나아가던 그는 발에 무언가 걸려 바닥에 그대로 나동그라졌다. 일행이 그를 도우러 다가왔고, 랜턴 불빛에 비춰보니 그는 한 남자의 몸 위로 넘어진 상태였다. 남자는 누가 봐도 죽은 듯했다. 처음에는 파도에 밀려 해안가

로 떠밀려온 익사체의 시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옷은 젖어 있지 않았고, 심지어 몸에 아직 온기까지 남아 있었다. 그들은 즉시 시신을 근처에 있는 노파의 오두막으로 옮겨 살려내려 애썼으나 결국 실패했다. 시신은 스물다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잘생긴 청년이었다. 목에 손가락 모양의 검은 자국이 남은 것 외에는 다른 외상의 흔적이 없었기에, 그는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 죽은 것으로 보였다.

증언의 첫 부분은 내게 전혀 흥미를 끌지 못했다. 하지만 손가락 자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나는 동생의 살해 사건이 떠올라 걷잡을 수 없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사지가 떨리고 눈앞이 흐릿해져,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대어 겨우 버텨야 했다. 치안판사는 예리한 눈초리로 나를 살폈고, 당연하게도 나의 그런 태도를 보고 불길한 예감을 품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확인해주었다. 하지만 다니엘 뉴전트가 불려나오자, 그는 동료가 넘어지기 직전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한 사람이 탄 배 한 척을 분명히 보았다고 단언했다. 몇 점의 별빛에 의지해 판단하건대, 그 배는 내가 막 상륙했던 바로 그 배였다고 그는 말했다.

한 여인은 자신이 해변 근처에 살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기 약 한 시간 전, 어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오두막 문 앞에 서 있었다고 했다. 그때 그녀는 나중에 시신이 발견된 바로 그 해안가에서, 단 한 명의 사내만을 태운 배 한 척이 물을 가르며 나아가는 것을 목격했다.

또 다른 여인이 어부들이 시신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는 이야기를 확인해 주었다. 시신은 아직 차갑지 않은 상태였다. 사람들은 시신을 침대에 눕히고 몸을 문질러 온기를 주려 애썼다. 다니엘은 약제를 구하러 마을로 달려갔으나, 이미 생명의 불꽃은 완전히 꺼진 뒤였다.

내가 상륙한 경위에 대해 다른 몇몇 사람도 조사를 받았다. 그들은 밤사이 강하게 불어닥친 북풍 때문에, 내가 몇 시간 동안이나 제자리를 맴돌다 출발했던 곳과 거의 다름없는 지점으로 되돌아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게다가 그들은 내가 시신을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내가 해안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듯하니, 시신을 유기한 곳에서 —— 마을까지의 거리를 가늠하지 못한 채 무작정 항구로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 증언을 들은 커윈 씨는 나를 시신이 안치된 방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시신을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확인하려는 의도였다. 아마도 살해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내가 보여준 극심한 동요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한 모양이었다. 나는 치안판사와 다른 몇몇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여관으로 향했다. 이 격동적인 밤 동안 일어난 기묘한 우연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될 무렵 내가 머물던 섬에서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번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는 더없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시신이 놓인 방으로 들어선 나는 관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 관을 마주했을 때의 심정을 내가 어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도 그때

의 공포로 목이 메어오며, 그 끔찍했던 순간을 떠올리기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고통이 밀려온다. 내 앞에 생기 없이 늘어진 앙리 클레르발의 형체를 본 순간, 검시 과정과 치안 판사, 그리고 증인들이 있던 일은 마치 꿈처럼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갔다. 나는 숨이 막혀 헐떡이며 시신 위로 쓰러지듯 몸을 던졌다. 그리고 절규했다.

"나의 살인적인 계획이 나의 가장 소중한 앙리, 그대마저 앗아간 것인가? 이미 두 명을 파멸시켰고, 다른 희생자들도 운명을 기다리고 있구나. 하지만 클레르발, 나의 친구이자 은인인 그대만은—"

인간의 몸으로는 더 이상 내가 겪는 고통을 견뎌낼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격렬한 경련을 일으키며 방 밖으로 실려 나갔다.

그 뒤로 열병이 뒤따랐다. 나는 두 달 동안이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나중에 전해 듣기로, 당시 내가 내뱉은 헛소리들은 참혹할 정도로 끔찍했다고 한다. 나는 나 자신을 윌리엄과 쥐스틴, 그리고 클레르발을 죽인 살인자라 부르며 울부짖었다. 어떤 때는 나를 괴롭히는 그 악마를 없애달라고 간호사들에게 애원하기도 했다. 그러다가도 또 어떤 때는 괴물의 손가락이 이미 내 목을 움켜쥐는 듯한 감각에 휩싸여, 고통과 공포에 질린 채 비명을 내질렀다. 다행히 나는 모국어로 말했기에 커윈 씨만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의 몸짓과 처절한 비명만으로도 곁에 있던 다른 이들을 겁에 질리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왜 나는 죽지 못했는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 비참한 처지에 놓인 내가, 어찌하여 망각과 안식의 품으로 가라앉지 못했단 말인가? 죽

음은 헌신적인 부모의 유일한 희망인 꽃다운 아이들을 수없이 앗아갔다. 건강과 희망이 만개했던 신부와 젊은 연인들이, 바로 다음 날 벌레의 먹이가 되어 무덤 속에서 부패해가는 일은 얼마나 흔한가! 대체 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기에, 수레바퀴가 구르듯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고통을 이토록 끈질기게 견뎌낼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나는 살아야만 하는 저주를 받았다. 두 달 뒤, 나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으로 정신을 차렸다. 내가 눈을 뜬 곳은 감옥이었다. 비참한 침대에 누워 있는 내 주변에는 간수와 문지기, 빗장, 그리고 지하 감옥의 비루한 집기들이 가득했다.

이런 식으로 정신이 들었을 때가 아침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고, 그저 거대한 불행이 갑자기 나를 덮친 것 같은 기분뿐이었다. 그러나 창살이 박힌 창문과 내가 머무는 방의 지저분한 풍경을 둘러보자, 지난 일들이 기억 속에서 번뜩이며 떠올랐다. 나는 비통하게 신음했다.

그 소리에 내 곁의 의자에서 잠들어 있던 노파가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다. 그녀는 고용된 간병인이자 간수 중 한 명의 아내였는데, 그 계층의 사람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온갖 나쁜 성정들이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얼굴에 패인 주름은 거칠고 투박했다. 마치 비참한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전혀 동정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처럼 말이다. 그녀의 말투에서는 지독한 무관심이 묻어났다. 그녀는 나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내가 고통받던 시절에 들어본 적이 있는 목소리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선생님?" 그녀가 물었다.

나는 같은 언어로, 힘없는 목소리를 내어 대답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내가 꿈을 꾼 게 아니라면, 이 비참함과 공포를 느끼며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저 괴로울 뿐입니다."

"그건 그렇고," 노파가 대답했다. "당신이 죽인 그 신사를 두고 하는 말이라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앞날이 순탄치 않을 듯하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요. 나는 당신을 간호해서 건강을 회복시키라는 명을 받고 왔을 뿐이니까요. 나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내 의무를 다하고 있어요. 모두가 이와 같다면 참 좋으련만 말이에요."

방금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이에게 어찌 저토록 무정한 말을 내뱉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 여인에게 혐오감을 느끼며 몸을 돌렸다. 하지만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차분히 되짚어 볼 정신조차 없었다. 내 삶의 모든 과정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 어떤 일도 현실처럼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았기에, 나는 가끔 이 모든 것이 정말 사실인지조차 의심스러웠다.

눈앞에 떠오르는 환영들이 점점 더 또렷해지자 나는 열병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어둠이 나를 짓눌러 왔다. 곁에는 사랑이 담긴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달래줄 이도, 따스한 손길로 나를 붙들어 줄 소중한 이도 없었다. 의사가 찾아와 약을 처방했고 노파가 그 약을 지어 왔으나, 의사의 태도에는 무관심이 역력했고 노파의 얼굴에는 잔인함이 짙게 배

어 있었다. 수수료를 챙길 사형집행인 말고, 살인자의 운명에 누가 관심을 두겠는가?

이것이 나의 첫 생각이었다. 하지만 곧 커윈 씨가 내게 지극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가장 좋은 방을 내게 마련해 주었다. 물론 그 '가장 좋은 방'조차 참으로 비참한 곳이었지만 말이다. 의사와 간호사를 붙여준 것도 바로 그였다. 사실 그는 나를 보러 자주 오지는 않았다. 모든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있었으나, 살인자가 겪는 고통과 비참한 헛소리를 곁에서 지켜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내가 방치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만 가끔 찾아왔고, 그 방문은 짧았으며 그 사이의 간격은 매우 길었다.

기력을 서서히 회복하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눈을 반쯤 뜬 채, 마치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깊은 우울과 비참함이 나를 짓눌렀다. 불행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머물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자주 들었다. 한때는 차라리 내가 죄를 자백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어떨까 고민하기도 했다. 가련한 쥐스틴보다도 내가 더 죄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방 문이 열리며 커윈 씨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동정심과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내 곁으로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프랑스어로 말을 건넸다.

"이곳이 당신에게 너무 충격적일까 봐 걱정되는군요.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고맙네. 하지만 자네가 말한 그 무엇도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내가 얻을 수 있는 위안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신처럼 기이한 불행에 짓눌린 이에게 낯선 이의 동정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머지않아 이 우울한 곳을 떠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분명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쉽게 찾아내어, 당신을 향한 범죄 혐의를 벗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건 내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이한 사건들이 겹치면서, 나는 필멸의 존재 중 가장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박해와 고통을 겪어온 내게 죽음이 대체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최근에 일어난 이 기이한 불운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놀라운 사고로 인해 환대로 유명한 이 해안에 떠밀려 왔으나,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처음 마주한 광경은 친구의 시신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해당한 채, 마치 어떤 악마가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놓아둔 것처럼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커윈 씨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지난 고통을 회상하며 겪는 격한 동요 속에서도 그가 나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 내 얼굴에 경악한 기색이 역력했던 모양인지, 커윈 씨는 서둘러 말을 덧붙였다.

"당신이 쓰러지자마자 당신이 지니고 있던 모든 서류를 내게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불행과 병세에 대해 친척들에게 알릴 단서를 찾으려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지요. 여러 통의 편지를 발견했는데, 그중 한 통은 처음부터 당신의 아버지가 쓰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즉시 제네바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떠난 지도 벌써 두 달 가까이 흘렀군요. 하지만 당신은 지금 몸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격한 감정도 추스르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런 막연한 기다림은 그 어떤 끔찍한 사건보다도 수천 배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떤 죽음의 장면이 펼쳐진 것인지, 내가 이제 누구의 죽음을 슬퍼해야 하는 것인지 어서 말해 주십시오."

"가족분들은 모두 무사하십니다." 커윈 씨가 다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친구분이 당신을 만나러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사고의 흐름을 거쳐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살인자가 나의 비극을 조롱하러 왔으며, 클레르발의 죽음을 빌미로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즉각 머릿속을 스쳤다. 내가 그의 지옥 같은 욕망에 굴복하도록 다시금 부추기려는 속셈이라고 믿어버린 것이다. 나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린 채 고통스럽게 비명을 내질렀다.

"아, 제발! 저 사람을 데려가 주세요!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저 자가 안으로 들어오게만 하지 마세요!"

커윈 씨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의 외침을 유죄를 드러내는 정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 다소 엄한 어조로 말했다.

"젊은이, 자네 아버지가 곁에 계신다면 반가워해야 마땅할 일이지, 어찌 이토록 격렬한 거부감을 드러낸단 말인가."

"아버지!" 나는 외쳤다.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의 모든 이목구비와 근육이 환희로 바뀌며 이완되었다. "정말로 아버지가 오신 건가? 얼마나 친절하신가, 정말이지 너무나도 친절하셔!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왜 내게 서둘러 오지 않으시는 걸까?"

내 태도가 돌연 변하자 판사는 놀라면서도 기뻐하는 눈치였다. 아마도 그는 내가 아까 내뱉은 외침을 일시적인 섬망 증세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덕분에 그는 즉시 이전의 자애로운 태도로 돌아왔다. 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호사를 데리고 방을 나갔고, 곧이어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셨다.

그 순간, 아버지의 도착보다 더 큰 기쁨을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외쳤다.

"그럼 당신과 엘리자베스, 그리고 에르네스트는 모두 무사한 건가요?"

아버지는 가족들이 모두 무사하다는 확언으로 나를 달래주셨다. 또한 내 마음을 사로잡은 이 주제들을 거듭 이야기하며, 낙담한 내 기운을 북돋아 주려 애쓰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곧 깨달으셨다. 감옥 같은 곳에서는 결코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들아, 네가 머무는 이곳이 대체 어떤 곳이냐!"

아버지는 창살이 박힌 창문과 초라한 방 안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너는 행복을 찾아 여행을 떠났건만, 마치 불행한 운명이 너를 쫓아다니는 것 같구나. 게다가 가여운 클레르발까지—"

불행하게도 살해당한 친구의 이름은, 쇠약해진 내 상태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아,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대답했다. “가장 끔찍한 운명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 운명을 다할 때까지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분명 앙리의 관 곁에서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 내 건강 상태가 워낙 위태로웠기에,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조치든 취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커윈 씨는 방으로 들어와, 내가 너무 무리해서 기력을 소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나타나신 순간, 나는 마치 수호천사를 만난 듯한 기분이 들었고, 덕분에 점차 건강을 회복해 나갔다.

병세가 가라앉자,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무엇으로도 떨쳐낼 수 없는 어둡고 침울한 우울함이었다. 클레르발의 참혹하게 살해당한 모습이 눈앞에 끊임없이 아른거렸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몸부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친구들은 내가 다시 위험한 상태에 빠질까 봐 노심초사했다. 아, 슬프도다! 그들은 어찌하여 이토록 비참하고 혐오스러운 목숨을 살려둔 것일까? 아마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나의 운명을 완수하기 위함이리라. 머지않아, 아주 머지않아 죽음이 찾아와 이 심장의 고동을 멈춰줄 것이다. 그러면 나를 짓누르는 이 거대한 고통의 무게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으리라. 정의의 심판을 집행한 뒤, 나 또한 안식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죽음은 멀게만 느껴졌으나, 죽음을 향한 갈망만큼은 늘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때때로 몇 시간 동안이나 미동도 없이, 말도 못한 채 앉아 있곤 했다. 그저 거대한 격변이 일어나, 나 자신과 나를 파멸시킨 자를 모두 그 잔해 속에 묻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재판 시즌이 다가왔다. 수감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다. 몸은 여전히 허약했고 언제 다시 병이 도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였지만, 재판이 열리는 지방 마을까지 거의 백 마일을 이동해야만 했다. 커윈 씨는 증인을 수집하고 나의 변호를 준비하는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해 주었다. 다행히 내 사건은 생사를 결정짓는 법정까지는 넘어가지 않았기에, 범죄자로서 공개 재판을 받는 치욕은 면할 수 있었다. 친구의 시신이 발견된 시각에 나는 오크니 제도에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대배심은 기소안을 기각했다. 이송된 지 보름 만에 나는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났다.

범죄 혐의라는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금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아버지는 환희에 차 계셨다. 하지만 나는 그런 감정에 동참할 수 없었다. 내게는 지하 감옥의 벽이나 궁전의 벽이나 똑같이 혐오스러울 뿐이었다. 삶이라는 잔에는 영원히 독이 들었고, 태양은 행복하고 즐거운 이들을 비추듯 나를 비추었으나, 내 주변에는 오직 짙고 두려운 어둠만이 가득했다. 나를 쏘아보는 두 눈의 번뜩임 외에는 그 어떤 빛도 그 어둠을 뚫지 못했다. 때때로 그 눈은 죽어가는 앙리의 애처로운 눈이었다. 눈꺼풀과 길고 검은 속눈썹에 거의 가려진 채, 검게 침침해진 그 눈동자 말이다. 또 어떤 때는 잉골슈타트의 내 방에서 처음 마주했던, 괴물의 그 흐릿하고 눈물 어린 눈이었다.

아버지는 내 안에 애정의 감정을 깨워보려 애쓰셨다. 곧 방문하게 될 제네바와 엘리자베스, 그리고 에르네스트에 대해 말씀하시곤 했으나, 그 말들은 내게 깊은 신음만을 자아낼 뿐이었다. 때로는 진심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사랑하는 사촌을 떠올리며 우울한 즐거움에 잠기기도 했고, 어린 시절 그토록 소중했던 푸른 호수와 급류가 흐르는 론강을 다시 보고 싶다는 간절한 향수에 젖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전반적인 심신 상태는 무기력 그 자체였다. 그 무기력 속에서는 감옥이 차라리 안식처처럼 느껴졌고, 대자연의 그 어떤 절경도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이러한 상태는 고통과 절망이 휘몰아치는 발작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다. 그럴 때면 나는 혐오스러운 나의 삶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에 자주 휩싸였고, 내가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곁에서 끊임없이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다.

하지만 내게는 아직 완수해야 할 의무가 하나 남아 있었다. 그 의무를 떠올리자 이기적인 절망감조차 마침내 꺾이고 말았다. 나는 지체 없이 제네바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곳에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들의 안위를 살펴야 했고, 살인마를 기다려야 했다. 만약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우연히라도 발견하거나, 혹은 그가 감히 다시 나타나 나를 괴롭히려 한다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괴물 같은 형상의 생명을 끊어놓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 형상에, 그보다 더욱 괴물 같은, 영혼이라 부르기조차 우스운 것을 불어넣고 말았으니, 반드시 그 존재를 끝내야만 했다.

나는 이미 만신창이가 된 인간의 그림자에 불과했기에, 아버지는 내가 여정의 피로를 견뎌내지 못할까 염려하며 출발을 미루고 싶어 하셨다. 내 기력은 모두 소진되었다. 나는 그저 뼈만 남은 상태였고, 밤낮으로 이어지는 열병이 쇠약해진 내 몸을 갉아먹고 있었다.

내가 아일랜드를 떠나자고 그토록 불안하고 조급하게 재촉하자, 결국 아버지는 내 뜻을 따르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셨다. 우리는 아브르드그라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고, 순풍을 타고 아일랜드 해안을 떠났다. 자정이었다. 나는 갑판에 누워 별을 바라보며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일랜드를 내 시야에서 가려준 어둠을 나는 반갑게 맞이했다. 곧 제네바를 보게 되리라는 생각에 맥박이 열띤 기쁨으로 고동쳤다. 지나온 과거는 마치 끔찍한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내가 타고 있는 배와, 증오스러운 아일랜드 해안에서 나를 밀어내는 바람,

그리고 나를 둘러싼 바다는 이것이 결코 환상이 아니라고 강렬하게 일깨워 주었다. 나의 소중한 친구이자 가장 친한 동료인 클레르발이 나와 내가 만든 괴물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기억 속에서 내 삶 전체를 되짚어 보았다. 제네바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던 평온한 행복,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잉골슈타트로 떠나던 순간까지. 나는 몸을 떨며, 그 끔찍한 원수를 만들어내도록 나를 몰아붙였던 광기 어린 열정을 떠올렸고, 그가 처음으로 생명을 얻었던 그 밤을 기억해 냈다. 나는 더 이상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다. 수만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나는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열병에서 회복된 이후, 나는 매일 밤 적은 양의 라우다넘을 복용하는 습관이 생겼다. 오직 이 약을 통해서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겹겹이 쌓인 불행한 기억들이 나를 짓누르던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양을 삼켰고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잠조차 생각과 비극으로부터 나를 해방해주지는 못했다. 꿈속에서는 나를 공포로 몰아넣는 수천 가지 형상이 나타났다. 새벽녘이 되자 나는 일종의 악몽에 사로잡혔다. 악마가 내 목을 움켜쥐는 것이 느껴졌고, 나는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귓가에는 신음과 비명이 울려 퍼졌다. 나를 지켜보던 아버지는 나의 불안한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나를 깨웠다. 주변에는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고, 머리 위로는 구름 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악마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지금 이 순간과, 거부할 수 없는 재앙 같은 미래 사이에 잠시 휴전이 성립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덕분에

나는 일종의 평온한 망각에 빠져들 수 있었다. 인간의 정신이란 본래 그러한 상태에 유독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는 법이다.

제22장

항해는 끝이 났다. 우리는 상륙하여 파리로 향했다. 나는 곧 내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깨달았다.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했다. 아버지는 지칠 줄 모르는 정성으로 나를 보살펴 주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왜 고통받는지 그 근원을 알지 못하셨고,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보려 잘못된 방법만을 찾으셨다. 아버지는 내가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움을 찾길 바라셨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혐오스러웠다. 아니, 혐오했다는 말은 부족하다. 그들은 나의 형제이자 동료였다. 나는 그들 중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에게조차, 마치 천사 같은 본성과 신성한 질서를 지닌 존재를 보듯 끌림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 어울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 적을 풀어놓았다. 그 적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들이 고통에 신음하는 것을 즐거움 삼아 유린하는 존재였다. 만약 사람들이 나의 불경한 행위와 나로부터 비롯된 죄악들을 알게 된다면, 그들 모두가 나를 얼마나 혐오하며 세상에서 몰아내려 할 것인가!

결국 아버지는 사람들을 피하고 싶다는 나의 간청을 받아들여 주셨다. 그리고 여러 논거를 들어 나의 절망감을 떨쳐내려 애쓰셨다. 아버지는 때때로 내가 살인 혐의에 답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을 몹시 치욕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셨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내게 증명하려 노력하셨다.

"아, 아버지!"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저를 너무나 모르십니다. 저처럼 비참한 존재가 자만심을 품는다면, 인간의 감정과 열정은 참으로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쥐스틴도 저만큼이나 결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와 똑같은 죄목을 뒤집어썼고, 그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녀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윌리엄과 쥐스틴, 그리고 앙리까지, 그들 모두가 제 손에 죽었습니다."

내가 갇혀 지내던 시절, 아버지는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자주 들으셨다. 내가 스스로를 그렇게 비난할 때면, 아버지는 때때로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시는 듯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그저 내가 앓는 동안 헛것을 본 것이라 여기시는 듯하기도 했다. 병세가 나아진 뒤에도 내가 그런 생각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을 보며, 아버지는 그저 병 중에 생긴 망상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듯했다.

나는 설명을 피했다. 내가 만들어낸 그 가련한 존재에 대해서는 줄곧 침묵을 지켰다. 내가 미쳤다고 여겨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영원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내 이야기

를 듣는 이의 마음을 공포로 몰아넣고, 그 가슴속에 두려움과 비정상적인 경악을 심어줄 비밀을 차마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간절한 갈증을 억눌렀다. 그 치명적인 비밀을 털어놓을 수만 있다면 세상 무엇이라도 내놓을 기세였지만, 나는 침묵을 택했다. 그럼에도 내가 기록한 것과 같은 말들이 통제할 수 없이 터져 나오곤 했다. 나는 그 말들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었으나, 그 말들이 담고 있는 진실은 내 신비로운 슬픔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그때 아버지는 형언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 서린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빅터, 대체 무엇에 홀린 게냐? 내 아들아, 제발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말아다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힘주어 외쳤다. "제가 한 모든 일을 지켜본 저 태양과 하늘이 제 진실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그 더없이 순결한 희생자들을 죽인 살인자가 바로 저입니다. 제 계략 때문에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구할 수만 있었다면 제 피를 한 방울씩 천 번이라도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인류 전체를 희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맺자, 아버지는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시고는 즉시 대화의 주제를 돌려 내 생각의 흐름을 바꾸려 애쓰셨다. 아버지는 아일랜드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가능한 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하셨다.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으셨고, 내가 나의 불행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차 평온을 되찾았다. 비록 비참함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으나, 더 이상 내 죄악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지는 않았다. 그 죄를 스스로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를 가혹하게 채찍질하며, 때때로 세상 만천하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는 비참함의 오만한 목소리를 억눌렀다. 덕분에 나의 태도는 얼음 바다로 떠나던 여정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침착해졌다.

스위스로 향하기 위해 파리를 떠나기 며칠 전, 엘리자베스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친애하는 친구에게,

파리에서 보내신 삼촌의 편지를 받고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아득히 먼 곳에 계시지 않으니,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당신을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가여운 나의 사촌,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당신을 다시 만나면 제네바를 떠나실 때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모습일 것만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불안한 초조함에 시달리며 참으로 비참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부디 당신의 얼굴에서 평온을 보고, 그 마음에도 위안과 안식이 조금이나마 깃들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1년 전 당신을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었던 감정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아마 시간이 흐르며 그 고통은 더 커졌을지도 모르겠군요. 수많은 불행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이 시기에 굳이 당신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삼촌께서 떠나시기 전

에 나누었던 대화 때문에, 우리가 만나기 전에 미리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이라니요! 당신은 아마도 '엘리자베스가 대체 무엇을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되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 질문은 이미 답을 얻은 셈이고 모든 의구심도 풀린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제 곁에 없으니, 당신이 이 설명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글쓰기를 미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었으나 차마 시작할 용기가 없어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이제는 써 내려가려 합니다.

"빅터, 당신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혼인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가장 바라시던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었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 믿으며 자라왔죠. 어린 시절 우리는 다정한 놀이 친구였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남매가 그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서로 깊은 애정을 나누듯, 우리 사이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말해 주세요, 사랑하는 빅터. 우리가 함께 누릴 행복을 걸고 간곡히 부탁할게요. 있는 그대로 진실만을 말해 주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요?"

"당신은 먼 길을 여행해 왔고, 잉골슈타트에서 인생의 여러 해를 보냈지요. 친구여,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난 가을, 모든 이의 온기를 뒤로

한 채 고독 속으로 도망치듯 떠나며 그토록 불행해하던 당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당신이 우리 사이의 인연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의 뜻을 반대하셨을지라도, 당신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분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추론입니다. 친구여, 고백하건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막연한 미래를 꿈꿀 때마다 당신은 언제나 나의 변함없는 친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말하건대, 우리의 결혼이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결합은 나를 영원한 불행 속에 가둘 뿐입니다. 나는 나의 행복만큼이나 당신의 행복을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눈물이 납니다. 너무나 가혹한 불운에 짓눌린 당신이, 오직 당신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사랑과 행복을 '명예'라는 이름 아래 억누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당신을 아무런 사심 없이 아끼는 내가, 오히려 당신의 소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당신의 고통을 열 배로 키우게 될까 두렵습니다.

아, 빅터! 당신의 사촌이자 어린 시절 놀이 상대였던 내가, 이런 가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알아주세요. 친구여, 부디 행복해지세요. 만약 당신이 나의 이 간곡한 부탁을 들어준다면, 세상 그 무엇도 나의 평온을 깨뜨리지 못할 것이니 부디 안심해도 좋습니다."

"이 편지로 마음 쓰지 마세요. 내일이나 모레, 혹은 당신이 직접 이곳에 올 때까지 답장을 미뤄도 괜찮습니다. 만약 답장을 쓰는 일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삼촌께서 당신의 안부를 전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나의 이런 노력이 당신의 입가에 단 한 번의 미소라도 띄울 수 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라벤차."

"제네바, 17—년 5월 18일"

이 편지는 이미 잊고 있었던 악마의 협박을 다시금 내 기억 속으로 불러들였다. "결혼식 밤에 너를 찾아가겠다!" 그것이 내게 내려진 선고였다. 그날 밤, 악마는 나의 고통을 얼마간이나마 달래줄 듯했던 행복의 한 줄기 빛에서 나를 떼어내고 파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이 분명했다. 그는 나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죄악을 완성하겠다고 결심한 상태였다.

좋다, 정 그렇다면 받아들이겠다. 그날 밤 필연적으로 죽음의 사투가 벌어질 것이다. 만약 그가 승리한다면 나는 비로소 평온을 얻을 것이고, 나를 옭아매던 그의 권세도 끝이 날 것이다. 반대로 그를 꺾는다면 나는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다.

아, 하지만 그 자유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가족이 눈앞에서 몰살당하고, 오두막은 불타버리며, 땅은 황폐해진 채 정처 없이 떠도는 농부의 자유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집도 없고 재산도 없이 홀로 남겨진

채 얻는 자유 말이다. 내게는 엘리자베스라는 보물이 있지만, 그 보물은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나를 뒤쫓을 참혹한 후회와 죄책감이라는 무게에 맞바꿔진 것이었다.

사랑하고 소중한 엘리자베스! 나는 그녀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러자 마음 한구석에 부드러운 감정이 스며들었고,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낙원의 꿈을 감히 속삭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금단의 열매는 먹어버린 뒤였다. 천사의 팔은 나를 모든 희망으로부터 쫓아내려 차갑게 드러나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만약 괴물이 예고한 위협을 실행에 옮긴다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하지만 나는 결혼이 나의 파멸을 앞당기지는 않을지 다시금 고민했다. 나의 파멸이 불과 몇 달 일찍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만약 나의 고문자가 내가 그의 협박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다고 의심한다면, 그는 분명 더 끔찍하고 다른 방식의 복수를 찾아낼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내 결혼식 밤에 나와 함께 있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그는 그 위협이 그사이에 나를 평화롭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는 마치 아직 피에 굶주려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협박을 내뱉은 직후에 클레르발을 살해했다. 따라서 나는 사촌인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이 그녀나 나의 아버지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다면, 적의 살해 계획 때문에 단 한 시간이라도 결혼을 늦추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런 심경으로 나는 엘리자베스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차분하고도 애정 어린 마음을 담았다.

"사랑하는 그대여,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은 행복은 거의 없는 것 같아 두렵소. 하지만 내가 언젠가 누릴 모든 기쁨은 오직 그대에게만 달려 있소. 부디 쓸데없는 두려움은 떨쳐버리구려. 내 삶과 안식을 향한 모든 노력은 오직 그대만을 위해 바칠 것이오. 엘리자베스, 내게는 무시무시한 비밀이 하나 있소. 이 비밀을 그대에게 털어놓는 날, 그대는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고 말 것이오. 그러면 그대는 나의 비극에 놀라기보다,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버텨왔는지 오히려 의아해할 것이오. 우리의 결혼식이 끝나고 그다음 날, 그대에게 이 비극과 공포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나의 사랑하는 사촌이여, 우리 사이에는 완벽한 신뢰가 있어야만 하니까 말이오. 하지만 그때까지는 간곡히 부탁하건대, 이 일에 대해 언급하거나 암시조차 하지 말아 주오. 진심으로 간청하오. 그대라면 내 청을 들어줄 것이라 믿소."

엘리자베스의 편지를 받은 지 일주일쯤 지나 우리는 제네바로 돌아왔다. 그 다정한 소녀는 따뜻한 애정을 담아 나를 맞아주었으나, 수척해진 내 몸과 열에 들뜬 내 뺨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에게서도 변화가 느껴졌다. 예전에 나를 매료시켰던 그 천사 같은 생기는 많이 사라졌고 몸도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온화함과 부드러운 연민의 눈빛은, 나처럼 파멸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이에게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는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내가 누리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기억은 광기를 몰고 왔다. 지나온 일을 떠올릴 때면 실성한 듯한 기분이 나를 사로잡았다. 때로는 분노로 몸이 타오를 만큼 격렬해졌고, 때로는 깊은 우울과 절망에 빠져들었다. 나는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았다. 그저 밀려드는 수많은 불행에 정신을 잃은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나를 이런 발작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엘리자베스뿐이었다. 격정으로 몸부림칠 때면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를 달래주었고,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면 다시금 인간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나를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나와 함께 울어주었고, 나를 위해 울어주었다. 이성이 돌아오면 그녀는 나를 타일렀고, 운명을 받아들이도록 나를 격려하려 애썼다. 아! 불행한 이에게는 체념이 약이 될지 모르나, 죄를 지은 자에게는 평온이란 없다. 슬픔에 깊이 침잠하며 얻는 일시적인 위안조차, 자책이라는 고통스러운 독이 스며들면 더는 누릴 수 없게 된다.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엘리자베스와 즉시 결혼할 것을 말씀하셨다. 나는 침묵을 지켰다.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다른 정인이라도 있는 건가요?"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나는 엘리자베스를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가 될 날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결혼 날짜를 정해 주십시오. 그날이 오면, 삶을 살든 죽음을 맞이하든, 오직 사촌 누이의 행복을 위해 제 자신을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빅터,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가혹한 불행이 닥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것들에 더욱 매달려야 해요. 떠나보낸 이들에게 주었던 사랑을 아직 곁에 있는 이들에게 쏟아부읍시다. 우리의 주변에는 사람이 얼마 남지 않겠지만, 우리는 서로의 슬픔을 나누며 애정으로 더욱 단단히 묶이게 될 거예요. 시간이 흘러 당신의 절망이 조금이라도 옅어질 때쯤이면, 잔인하게 빼앗긴 이들을 대신할 새로운 소중한 존재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가르침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그 협박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 악마가 저지른 피의 행위들이 워낙 압도적이었기에, 내가 그를 거의 천하무적이라 여겼다 해도 당신은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내 결혼식 밤에 너를 찾아가겠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닥쳐올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를 잃는 대가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내게 죽음은 결코 불행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나는 만족스럽고 심지어는 쾌활하기까지 한 얼굴로 아버지의 제안에 동의했다. 사촌인 엘리자베스가 허락한다면 열흘 뒤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내 운명에 스스로 인장을 찍었다고 생각했다.

맙소사! 만약 내가 단 한 순간이라도 이 악마 같은 적이 품은 지옥 같은 의도를 생각했더라면, 차라리 고국에서 영원히 추방당해 친구 하나 없는 부랑자로 온 세상을 떠돌았을지언정, 이 비참한 결혼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괴물은 마치 마법이라도 부린 듯 그의 진짜 의도를 내 눈앞에서 가려버렸다. 나는 그저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소중한 희생자의 죽음을 재촉하고 말았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것이 비겁함 때문인지 혹은 불길한 예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내 마음은 자꾸만 가라앉았다. 나는 겉으로 즐거운 척하며 감정을 숨기려 애썼다. 덕분에 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와 기쁨이 떠올랐으나, 늘 세심하고 예리하게 나를 살피던 엘리자베스의 눈을 속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엘리자베스는 평온한 만족감 속에 우리의 결합을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과거의 불행들이 남긴 약간의 두려움도 섞여 있었다. 지금 눈앞에 확실하고 실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행복이, 순식간에 허망한 꿈처럼 흩어져 버리고 깊고 영원한 후회만을 남기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행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고, 축하 방문도 이어졌다.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불안이 끊임없이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그 불안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며, 비록 그것이 내 비극을 장식하는 허울뿐인 장식에 불과할지라도 아버지의 계획에 진심 어린 태도로 임했다. 아버지가 애써 노력해 주신 덕분에,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엘리자베스의 유산 일부를 되찾을 수 있었다. 코모 호숫가에 있는 작은 소유지 하나가 그녀의 몫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곧장 라벤차 빌라로 떠나기로 약속했다. 그곳은 아름다운 호숫가에 자리 잡고 있어, 우리의 행복한 신혼 시절을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곳이었다.

그동안 나는 그 악마가 노골적으로 나를 공격할 경우에 대비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모든 예방 조치를 취했다. 언제든 대응할 수 있도록 권총과 단검을 늘 몸에 지녔고, 어떤 계략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늘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덕분에 마음은 한결 더 평온해졌다. 사실 그날이 다가올수록, 그 위협은 마치 실체가 없는 망상처럼 느껴졌다. 내 평화를 깨뜨릴 만큼 가치 있는 위협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았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내가 꿈꾸던 행복은 더욱 확실해 보였다. 결혼식은 어떤 불행한 사고로도 막을 수 없는 필연적인 사건처럼 끊임없이 거론되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행복해 보였다. 나의 평온한 태도는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나의 소망과 운명이 실현될 그날, 그녀는 우울함에 잠겨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휘저었다. 어쩌면 다음 날 내가 밝히기로 약속했던 그 끔찍한 비밀을 그녀도 떠올리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사이 아버지는 기쁨에 겨워 있었다. 준비 작업으로 분주했던 아버지는 조카의 우울함을 그저 신부 특유의 수줍음으로만 여겼다.

예식이 끝나자 우리 아버지의 저택에 많은 손님이 모였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와 나는 배를 타고 여행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날 밤은 에비앙에서 머물고, 다음 날 다시 항해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날씨는 맑았고 바람도 순조로웠다. 우리의 결혼 기념 항해를 축복하듯 모든 것이 상서로웠다.

그 순간들은 내 생애에서 행복을 느꼈던 마지막 시간이었다. 우리는 빠르게 길을 나아갔다. 태양은 뜨거웠으나, 일종의 차양 덕분에 햇볕을 피할 수 있었다. 우리는 풍경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나아갔다. 때로는 호수 한쪽 편을 따라가며 몽 살레브와 몽탈레그르의 평온한 강둑을 바라보았고, 멀리서는 그 모든 것 위로 우뚝 솟은 아름다운 몽블랑과, 몽블랑을 흉내 내려 애쓰지만 결코 따라잡지 못하는 눈 덮인 산맥의 무리를 보았다. 때로는 호수 반대편 강둑을 따라가며 거대한 쥐라 산맥을 마주하기도 했다. 그 어두운 산맥은 고향을 떠나려는 야망에 맞서듯 서 있었으며, 침략자가 이 땅을 노예로 삼으려 할 때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보였다.

나는 엘리자베스의 손을 잡았다. "그대는 슬픔에 잠겨 있군, 내 사랑. 아!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겪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무엇을 견뎌내야 하는지 그대가 알기만 한다면,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누리는 이 평온과 절망 없는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애써 주겠지."

"행복해져요, 나의 사랑하는 빅터."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당신을 괴롭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요. 내 얼굴에 생기 넘치는 기쁨이 서려 있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평온하다는 걸 믿어주세요.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를 너무 낙관하지 말라는 속삭임이 마음 한구석에서 들려오기도 하지만, 그런 불길한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해요.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몽블랑의 돔 위로 때로는 가려지고 때로는 솟아오르는 구름이 이 아름다운 풍경을 얼마나 더 매혹적으로 만드는지 지켜보세요. 맑은 물속에서 헤엄치는 수많은 물고기도 보세요. 바닥에 놓인 조약돌 하나하나가 다 보일 정도로

물이 투명하잖아요. 정말 신성한 날이에요! 온 자연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온해 보이는지!”

엘리자베스는 우울한 주제에 대해 나와 자신 모두가 깊이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애써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기분은 수시로 변했다. 찰나의 순간 동안 그녀의 눈동자에서 기쁨이 빛나기도 했으나, 이내 그 빛은 번뇌와 망상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태양은 하늘 아래로 점점 더 낮게 가라앉았다. 우리는 드란스강을 지나며, 강물이 높은 언덕의 협곡을 지나 낮은 언덕의 골짜기로 이어지는 경로를 지켜보았다. 이곳에 이르자 알프스 산맥은 호수에 더 가까워졌고, 우리는 호수의 동쪽 경계를 이루는 거대한 산악 원형 극장으로 다가갔다. 에비앙의 첨탑은 주변을 둘러싼 숲과 그 위로 겹겹이 늘어선 산맥 사이에서 빛나고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를 놀라운 속도로 몰아붙이던 바람은 해가 저물자 가벼운 미풍으로 잦아들었다. 해안에 가까워지자 부드러운 공기가 수면을 살짝 일렁이게 했고, 나무들 사이로 기분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그 바람을 타고 꽃과 건초의 향긋한 내음이 실려 왔다. 우리가 배를 대었을 때 태양은 이미 지평선 너머로 저물어 있었다. 해안에 발을 내딛는 순간, 나는 곧 나를 옥죄고 영원히 따라다니게 될 근심과 공포가 다시금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제23장

우리가 상륙했을 때는 여덟 시였다. 잠시 해안을 따라 걸으며 스러져가는 빛을 만끽한 뒤, 우리는 여관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물과 숲, 그리고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풍경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으나, 산과 나무의 검은 윤곽만은 여전히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남쪽에서 잦아들었던 바람이 이제 서쪽에서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달은 하늘의 정점에 도달했다가 막 내려오기 시작한 참이었다. 구름은 독수리의 비행보다도 빠르게 달을 가로질러 지나가며 달빛을 흐렸고, 호수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하늘의 풍경을 그대로 비추어 냈다. 일렁이기 시작한 파도가 호수의 물결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때 갑자기 거센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낮 동안에는 평온했으나, 밤이 찾아와 사물의 형체를 어둠 속에 가려버리면 내 마음속에는 수천 가지 두려움이 일었다. 나는 불안과 경계심에 휩싸인 채 깨어 있었다. 가슴 안쪽에는 권총을 숨겨두고 오른손으

로 그것을 꽉 움켜쥐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나는 결심했다. 내 목숨이나 적의 목숨 중 어느 하나가 끊어질 때까지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내 생명을 값비싸게 지켜내겠노라고.

엘리자베스는 한동안 겁에 질린 채 침묵하며 나의 동요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내 눈빛에는 그녀를 공포로 몰아넣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결국 그녀는 몸을 떨며 물었다. "빅터,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불안하게 만드나요? 대체 무엇이 두려운 거예요?"

"오, 제발 진정하세요, 내 사랑." 내가 대답했다. "오늘 밤만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너무나도 두렵군요. 정말이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나는 한 시간 동안 그런 심경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 문득, 곧 닥쳐올 전투가 아내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될지 생각했다. 나는 아내에게 어서 방으로 들어가 쉬라고 간곡히 청했다. 적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코 아내의 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다.

엘리자베스는 내 곁을 떠났다. 나는 한동안 집 안의 복도를 이리저리 오가며, 적이 숨어들 만한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어떤 우연이 작용해 그가 가한 협박이 실행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갑자기 날카롭고도 소름 끼치는 비명이 들려왔다. 엘리자베스가 들어간 방에서 터져 나온 비명이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진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팔에 힘이 풀려 축 늘어졌고, 온몸

의 근육과 신경이 일시에 마비되었다. 혈액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감각과 사지 끝이 저릿한 느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런 상태는 찰나에 불과했다. 비명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고, 나는 정신없이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오, 신이시여! 그때 차라리 죽었어야 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희망이자 가장 순결한 존재가 파멸하는 과정을, 왜 나는 이 자리에 남아 이야기해야 한단 말인가! 그녀는 침대 위에 생기 없이 쓰러져 있었다. 머리는 아래로 늘어져 있었고, 창백하고 일그러진 얼굴은 머리카락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눈을 돌리는 곳마다 그 모습이 선하다. 살인자가 신부의 침상에 내팽개친 듯한 그녀의 핏기 없는 팔과 힘없이 늘어진 몸이 자꾸만 눈에 밟힌다. 이런 광경을 보고도 살아있을 수 있겠는가? 아, 삶이란 참으로 끈질기구나. 가장 증오스러운 순간에 더욱 지독하게 달라붙으니 말이다. 나는 아주 잠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여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숨이 막힐 듯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느끼는 그 공포는, 나를 짓누르는 이 참혹한 감정에 비하면 그저 조롱거리나 그림자에 불과해 보였다. 나는 그들을 피해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그곳에는 나의 사랑이자 아내였던, 방금 전까지 살아 있었으며 그토록 소중하고 고귀했던 엘리자베스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내가 처음 발견했을 때와는 다른 자세로 누워 있었다. 팔을 베고 누운 채 얼굴과 목 위로 손수건이 덮여 있는 모습은, 마치 잠든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나는 그녀에게 달려가 열정적으로 품에 안았다. 하지만 사지의 죽음 같은 무력함과 차가운 기운이 내게 알려주었다. 지금 내 품에 안긴 존재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엘리자베스가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녀의 목에는 악마가 움켜쥔 살벌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입술에서는 더 이상 숨결이 흘러나오지 않았다.

절망의 고통 속에서 그녀의 곁을 지키며 몸을 굽히고 있던 나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방 안은 전부터 어둠에 잠겨 있었으나, 창을 통해 스며든 창백한 노란 달빛이 방 안을 비추는 것을 보자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창문 덧창은 열려 있었다. 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며, 열린 창가에 서 있는 세상에서 가장 흉측하고 가증스러운 형체를 목격했다. 괴물은 얼굴에 비열한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는 마치 내 아내의 시신을 악마 같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나를 조롱하는 듯했다. 나는 창가를 향해 돌진하며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 발사했다. 하지만 그는 내 공격을 피하더니, 서 있던 자리에서 뛰어내려 번개 같은 속도로 달려가 호수 속으로 몸을 던졌다.

권총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방 안으로 몰려들었다. 나는 그가 사라진 곳을 가리켰고, 우리는 배를 타고 그 흔적을 쫓았다. 그물을 던져 보았으나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절망하며 돌아왔다. 동료들 대부분은 내가 환상에 사로잡혀 만들어낸 형상일 뿐이

라고 믿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숲과 덩굴 사이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을 따라가려 애쓰며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나아갔다. 하지만 머리는 빙빙 돌았고, 발걸음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다. 결국 나는 완전히 탈진해 쓰러지고 말았다. 눈앞은 뿌옇게 흐려졌고, 열병의 열기로 피부는 바짝 말라붙었다. 나는 이런 상태로 다시 실려 와 침상에 눕혀졌으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 그저 무언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듯한 눈으로 방 안을 멍하니 둘러볼 뿐이었다.

잠시 후 나는 몸을 일으켰다. 마치 본능에 이끌리듯, 사랑하는 이의 시신이 놓인 방으로 기어 들어갔다. 주변에는 여인들이 울고 있었다. 나는 시신 위로 몸을 굽힌 채 그들의 슬픔에 내 눈물을 보탰다. 그동안 내 머릿속에는 어떤 명확한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내 불행과 그 원인을 혼란스럽게 되새기며, 생각들이 이리저리 흩어질 뿐이었다. 나는 경악과 공포의 구름 속에 갇힌 채 갈피를 잡지 못했다. 윌리엄의 죽음, 쥐스틴의 처형, 클레르발의 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아내의 죽음까지. 그 순간에도 나는 내게 남은 유일한 친구들이 그 악마의 악의로부터 안전한지 알지 못했다. 어쩌면 내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놈의 손아귀에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르고, 에르네스트는 이미 그놈의 발치에서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 생각이 나를 전율케 했고, 나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가능한 한 빨리 제네바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말을 구할 수도 없었기에 호수를 돌아 돌아가야만 했다. 하지만 바람은 도와주지 않았고 비는 폭포처럼 쏟아졌다. 그래도 아직 이른 아침이었으니, 밤이 되기 전에는 도착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나는 노를 저을 사람들을 고용하고 나 역시 노를 잡았다. 몸을 움직이는 운동은 늘 정신적인 고통을 달래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느끼는 비참함은 차고 넘쳤고,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이 나를 짓눌러 도저히 기운을 낼 수가 없었다. 나는 노를 내팽개치고 두 손에 머리를 기댄 채,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우울한 생각에 몸을 맡겼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풍경은 행복했던 시절에 익숙하게 보았던 것들이었다. 바로 어제만 해도, 이제는 그림자이자 기억으로만 남은 그녀와 함께 바라보았던 풍경이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잠시 비가 그치자, 몇 시간 전처럼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노니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 그 물고기들을 지켜보았던 이는 엘리자베스였다. 거대하고 갑작스러운 변화만큼 인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없다. 해가 비치든 구름이 드리우든, 어제 보았던 풍경은 결코 예전처럼 보이지 않았다. 악마가 나의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을 앗아갔다. 그 어떤 피조물도 나만큼 비참했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토록 끔찍한 사건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마지막의 압도적인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굳이 왜 다시 되짚어야 한단 말인가. 내 삶은 공포의 연속이었다. 나는 이미 그 공포의 정점을 지나왔으니, 이제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당신에게 그저 지루하게만 느껴질 뿐일 것이다. 내 친구들이 하나둘씩 내 곁에서 앗겨져 갔고, 결국 나만이 황량한 고독 속에 남겨졌음을 알아두라. 이제 내

기력은 다 소진되었다. 그러니 이 끔찍한 이야기의 남은 부분들을 이제 몇 마디로 줄여 전하고자 한다.

제네바에 도착했다. 아버지와 에르네스트는 살아 계셨으나, 내가 가져온 비보를 접한 아버지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셨다. 지금도 그분을 떠올려 본다, 참으로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노인이셨다! 아버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맸다. 그 눈에서 매력도 기쁨도 사라져 버린 까닭이었으니, 그것은 바로 딸 그 이상의 존재였던 엘리자베스였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남은 애정이 얼마 되지 않는 이가 남아 있는 사랑에 더욱 절실히 매달리듯, 아버지는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지극히 아끼셨다. 아버지의 백발에 비극을 몰고 오고, 그분을 비참한 고통 속에서 스러지게 만든 그 악마에게 저주를, 저주를 내리고 싶다! 아버지는 자신을 둘러싼 공포를 견뎌내지 못하셨다. 삶을 지탱하던 의지가 돌연 꺾여 버린 것이다. 아버지는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며칠 지나지 않아 내 품에서 숨을 거두셨다.

그 후 내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알 수 없다. 감각을 모두 잃어버린 탓에, 나를 짓누르는 것이라고는 오직 사슬과 어둠뿐이었다. 때때로 나는 어린 시절의 친구들과 함께 꽃이 만발한 초원과 평화로운 골짜기를 거니는 꿈을 꾸기도 했다. 하지만 깨어나면 나는 언제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 슬픔이 뒤따랐으나, 시간이 흐르며 나는 내가 처한 비참한 상황을 점차 명확히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났다.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불렀고, 내가 알기로는 수개월 동안 홀로 떨어진 독방이 나의 거처였다.

하지만 이성이라는 눈을 뜨면서 동시에 복수심까지 깨닫지 못했더라면, 내게 주어진 자유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선물이 되었을 것이다. 지난 불행의 기억들이 나를 짓누를 때마다, 나는 그 원인을 되짚어 보았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만들어낸 괴물, 나의 파멸을 위해 세상 밖으로 내던져 버린 그 비참한 악마였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미칠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를 내 손아귀에 넣고, 저주받은 머리통에 막대한 복수를 퍼부을 수 있기만을 간절히,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다.

나의 증오는 무익한 망상에만 머물지 않았다. 나는 그를 붙잡을 가장 확실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석방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마을의 형사 재판관을 찾아갔다. 그리고 내 가족을 파멸시킨 자를 알고 있으니, 그 살인범을 체포할 수 있도록 재판관의 모든 권한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하며 고발 의사를 밝혔다.

판사는 주의 깊고 친절한 태도로 내 말을 경청했다. 그는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그 악당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면, 저 또한 온 힘을 다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해야 할 증언을 들어주십시오.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기이해서, 아무리 경이로운 일이라 해도 믿기 힘들 만큼 이상하게 들릴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야기는 꿈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앞뒤가 맞고, 내가 거짓을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에게 말을 건네는 나의 태도는 엄숙하면서도 차분했다. 내 마음속에는 나를 파멸시킨 존재를 죽을 때까지 쫓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고, 그 목적이 고통을 잠재워 주었기에 잠시나마 삶을 견뎌낼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나의 과거를 간결하면서도 단호하고 정확하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날짜를 엄격히 지켜가며, 결코 감정적인 비난이나 격앙된 외침에 빠지지 않고 담담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판사는 처음에는 전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으나, 내가 이야기를 계속하자 점점 더 주의 깊게 경청하며 흥미를 보였다. 때때로 그는 공포에 질려 몸서리치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불신 없이 오로지 생생한 놀라움만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다.

이야기를 마친 뒤 나는 말했다. “내가 고발하는 존재는 바로 이놈입니다. 이놈을 붙잡아 처벌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권한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것은 법관으로서 당신의 의무입니다. 또한 한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이번만큼은 그 의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믿고 또 바랍니다.”

이 말이 내 이야기를 듣던 이의 표정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는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들으며,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유령 이야기를 들을 때 흔히 갖게 되는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자, 그가 품고 있던 불신이 다시금 거세게 밀려들었다. 그럼에도 그는 온화한 어조로 대답했다.

"당신의 추적을 돕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그 피조물은 나의 모든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듯하군요. 얼음 바다를 가로지르고, 인간이라면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할 동굴이나 굴속에 머무는 짐승을 대체 누가 뒤쫓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가 범죄를 저지른 지 벌써 몇 달이나 지났으니, 그가 어디로 떠돌아다니는지, 혹은 지금 어느 지역에 머물고 있는지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내가 머무는 곳 근처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알프스에 숨어든 것이라면, 마치 샤무아(chamois)처럼 사냥당해 맹수처럼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당신의 속내를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내 이야기를 믿지 않으며, 내 원수에게 마땅히 내려져야 할 응징을 가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군요."

내가 말을 내뱉을 때마다 눈에는 분노가 서렸다. 판사는 겁에 질린 기색이었다.

"오해하고 계시는군요." 판사가 말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제 권한으로 괴물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가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고 약속드리지요. 하지만 당신이 직접 설명한 괴물의 특징을 들어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듭니다. 그러니 적절한 조치를 모두 취하겠지만, 당신 스스로도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당신에게 제 복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일 테니까요. 하

지만 복수가 악덕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제 영혼을 집어삼킨 유일한 열망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사회로 풀어놓은 그 살인자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당신은 저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셨으니, 이제 제게 남은 수단은 단 하나뿐입니다. 저는 삶을 바쳐서라도, 혹은 죽음을 맞이해서라도 반드시 그를 파멸시키고 말 것입니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지나친 동요로 몸을 떨었다. 내 태도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옛 순교자들이 지녔다고 전해지는 오만한 격정 또한 분명히 섞여 있었다. 하지만 경건함이나 영웅심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제네바의 판사에게, 나의 이런 고양된 감정은 그저 광기 어린 발작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는 마치 유모가 아이를 달래듯 나를 진정시키려 애썼으며, 내가 늘어놓은 이야기들을 그저 헛것을 보는 섬망 증세로 치부해 버렸다.

"이 사람아!" 내가 외쳤다. "그대는 지혜를 자랑하면서도 어찌 이리도 무지하단 말인가! 그만두시오. 당신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소."

나는 분노와 혼란에 휩싸인 채 집을 뛰쳐나왔다. 그러고는 다른 방도를 구상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 위해 홀로 물러났다.

제24장

지금 나의 처지는 스스로 생각할 여력조차 없이 모든 의지가 집어삼켜진 상태였다. 분노가 나를 몰아붙였고, 오직 복수심만이 나에게 힘과 평정심을 불어넣어 주었다. 복수심은 나의 감정을 다스렸으며, 자칫 망상에 빠지거나 죽음에 이르렀을 법한 순간에도 내가 냉철하게 계산하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의 첫 번째 결심은 제네바를 영원히 떠나는 것이었다. 행복하고 사랑받던 시절에는 그토록 소중했던 조국이, 불행에 빠진 지금은 증오스럽게만 느껴졌다. 나는 어머니의 유품인 보석 몇 점과 함께 얼마간의 돈을 챙겨 길을 떠났다.

이제 나의 방랑이 시작되었다. 이 방랑은 죽음이 찾아와야만 끝이 날 터였다. 나는 지구의 광활한 땅을 가로질렀으며, 사막이나 미개한 땅을 여행하는 이들이 흔히 겪는 온갖 고난을 견뎌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나조차 알기 어렵다. 기력이 다한 사지를 모래 벌판에 뻗어놓고,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

만 복수심이 나를 살게 했다. 내 적을 세상에 남겨둔 채 감히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제네바를 떠난 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악마 같은 원수가 남긴 흔적을 쫓아 그 행방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나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을 주변을 몇 시간 동안이나 헤맸다. 밤이 다가올 무렵, 나는 윌리엄과 엘리자베스, 그리고 아버지가 잠든 공동묘지 입구에 다다랐다. 나는 묘지로 들어가 그들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바람에 살랑이는 나뭇잎 소리 외에는 모든 것이 고요했다. 밤은 거의 깊어 어둑했고, 그 풍경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가 보더라도 엄숙하고 애틋한 마음이 들 만큼 숙연했다. 마치 떠나간 이들의 영혼이 주위를 맴돌며 그림자를 드리우는 듯했다. 그 그림자는 눈에 보이지는 않았으나, 슬퍼하는 이의 머리맡에서 분명한 기운으로 느껴졌다.

이 광경이 처음 불러일으킨 깊은 슬픔은 이내 분노와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죽었고 나만 살아남았다. 그들을 죽인 살인자 또한 살아 있었다.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이 지긋지긋한 삶을 억지로라도 이어가야만 했다. 나는 풀밭에 무릎을 꿇고 대지에 입을 맞추며, 떨리는 입술로 외쳤다.

"내가 무릎을 꿇은 이 신성한 대지와 내 곁을 떠도는 망령들,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 깊고 영원한 슬픔에 걸어 맹세한다. 오, 밤이여, 그리고 밤을 다스리는 영혼들이여, 그대들에게 맹세한다. 이 비극을 초래한 악마를 끝까지 쫓으리라. 그와 내가 죽음의 결투 끝에 쓰러질 때까

지 멈추지 않겠다. 이 목적을 위해 나는 내 목숨을 부지할 것이다. 이 간절한 복수를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다시 태양을 마주하고 대지의 푸른 풀밭을 밟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내 눈앞에서 이 세상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여, 복수를 위해 떠도는 사자(使者)들이여, 나의 과업을 돕고 인도해 달라. 저 저주받고 지옥 같은 괴물이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라.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절망을 그 또한 느끼게 하라."

나는 엄숙하고도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히 빌기 시작했다. 그 기도가 너무도 진실하여, 살해당한 친구들의 영혼이 내 헌신을 듣고 지지해 주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기도를 마칠 무렵, 분노의 여신들이 나를 사로잡았고 격렬한 울분 때문에 차마 말을 끝맺을 수 없었다.

정적만이 흐르던 밤, 날카롭고 악마 같은 웃음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들려왔다. 그 웃음은 길고 무겁게 귓가를 울렸다. 산맥마다 그 소리가 메아리쳤고, 마치 지옥의 모든 것이 나를 조롱하며 비웃기 위해 사방을 에워싼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 순간 나는 분명 광기에 사로잡혀 이 비참한 목숨을 스스로 끝장내고 말았을 것이다. 나의 맹세가 받아들여져 내가 복수를 위해 남겨진 몸이 아니었더라면 말이다. 웃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분명 내 귀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듯한, 너무나 잘 알기에 혐오스러운 목소리가 낮은 속삭임으로 말을 걸어왔다.

"만족스럽구나, 비참한 불쌍한 놈아! 네가 살기로 결심했다니,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 악마는 내 손아귀를 교묘히 빠져나갔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달이 떠올라,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든 속도로 도망치는 괴물의 기괴하고 뒤틀린 형체를 환하게 비추었다.

나는 그를 뒤쫓았다. 수개월 동안 이 일에 매달려 왔다. 실마리 하나를 붙잡고 론강의 굽이치는 물줄기를 따라갔으나 허사였다. 푸른 지중해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기묘한 우연이 찾아왔다. 밤중에 그 악마가 흑해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 몸을 숨기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나 역시 같은 배에 올라 그를 추적했으나, 그는 어떻게든 빠져나가 버렸다. 어떻게 도망쳤는지는 알 길이 없다.

타르타리와 러시아의 황무지 속에서, 그는 여전히 나를 따돌리려 했으나 나는 줄곧 그의 뒤를 쫓았다. 때로는 이 끔찍한 형상에 겁을 먹은 농민들이 그가 간 길을 내게 알려주기도 했다. 때로는 그가 직접 흔적을 남겨 나를 인도하기도 했다. 내가 그의 흔적을 완전히 놓쳐 절망 속에 죽어버릴까 두려워한 탓이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하얀 평원 위에 찍힌 그의 거대한 발자국이 내 눈에 들어왔다. 이제 막 삶을 시작하여 근심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당신이, 내가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추위와 허기, 그리고 피로는 내가 겪어야 할 고통 중 가장 사소한 것에 불과했다. 나는 어떤 악마에게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을 품고 살아가는 몸이었다. 그럼에도 선한 영혼이 나를 뒤따르며 발걸음을 인도해 주었다. 내가 탄식하며 무너질 때면, 그 영혼은 갑작스레 나타나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던 난관에서 나를 구해내곤 했다. 때로는 굶주림과 탈

진에 지친 내가 자연의 섭리 앞에 쓰러질 때면, 황량한 벌판에서 나를 기운 나게 할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비록 그 음식은 그 지역 농민들이 먹는 거친 음식이었으나, 나는 그것이 도움을 청했던 영혼들이 차려 놓은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모든 것이 메마르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갈증으로 타들어 갈 때면, 옅은 구름이 하늘을 가리며 나타나 나를 회생시킬 몇 방울의 빗줄기를 뿌려준 뒤 이내 사라지곤 했다.

나는 가능한 한 강줄기를 따라 이동했다. 하지만 악마는 대개 강가를 피했는데, 그곳이 이 지역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었기에, 나는 주로 길에서 마주치는 야생 동물을 잡아 연명했다. 나는 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친분을 쌓기도 했다. 때로는 직접 사냥한 음식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내가 조금 떼어 먹고 남은 음식은 언제나 불과 조리 도구를 빌려준 이들에게 대가로 건넸다.

그렇게 흘러가는 나의 삶은 참으로 혐오스러웠다. 오직 잠에 들었을 때만이 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오, 축복받은 잠이여!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나는 잠 속으로 침잠했고, 꿈은 나를 황홀경에 이를 만큼 달래주었다. 나를 수호하는 영혼들은 내가 이 고난의 순례를 완수할 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행복한 순간들, 아니 행복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었다. 만약 이런 휴식조차 없었다면, 나는 가혹한 시련 아래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낮 동안 나를 지탱하고 힘을 북돋아 준 것은 밤에 대한 희망이었다. 잠 속에서 나는 친구들과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을 보았기 때문이

다.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을 다시 마주했고, 엘리자베스의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듯한 목소리를 들었으며, 건강하고 젊은 모습의 클레르발을 보았다. 고된 행군에 지칠 때면, 나는 밤이 오기 전까지는 그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밤이 오면 사랑하는 친구들의 품 안에서 비로소 현실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들을 향해 내가 느꼈던 애틋함은 얼마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깊었던가! 때때로 깨어 있는 시간조차 그들의 모습이 환영처럼 나타날 때면, 나는 그 소중한 형상들에 매달리며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곤 했다. 그런 순간에는 내 안에서 타오르던 복수심마저 심장 속에서 사그라들었다. 나는 영혼의 뜨거운 갈망이 아니라, 마치 하늘이 내린 과업을 수행하듯, 혹은 나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이끌리는 기계적인 충동에 따라 악마를 파멸시키기 위한 길을 나아갔다.

내가 뒤쫓던 그가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때때로 그는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기거나 돌에 문구를 파 두어, 내가 자신을 따라오게 만들고 나의 분노를 부추기기도 했다. 그가 새겨 둔 글귀 중 하나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나의 통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가 살아 있는 한 나의 권능은 완전하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북쪽의 영원한 얼음 땅을 찾아 떠난다. 그곳에서 너는 추위와 서리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겠지만, 나는 그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너무 늦지 않게 나를 따른다면 이 근처에서 죽은 산토끼 한 마리를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려라. 어서 오너라, 나의 원수여. 우리는 아직 목숨을 건 결투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너는 길고도 비참한 시간을 견뎌야만 할 것이다."

비웃는 악마 같으니! 나는 다시 한번 복수를 맹세한다. 가련한 악마여, 너를 고통과 죽음의 구렁텅이로 다시 한번 몰아넣으리라. 그놈이 죽거나 내가 죽기 전까지는 결코 추적을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끝에 이르면, 나는 어떤 환희 속에 엘리자베스와 떠나간 친구들의 곁으로 달려갈 것인가!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지루한 노고와 끔찍한 순례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다!

북쪽으로 여정을 계속 이어갈수록 눈은 더욱 굵게 쏟아졌고, 추위는 견디기 힘들 만큼 혹독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오두막 안에 몸을 숨겼고, 오직 가장 강인한 소수만이 밖으로 나설 뿐이었다. 그들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은신처를 떠나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짐승들을 잡으려 애썼다. 강들은 얼음으로 뒤덮여 물고기를 구할 수도 없었다. 이로 인해 나는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식량 공급원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다.

나의 적이 거둔 승리는 내가 겪는 고난이 깊어질수록 더욱 커져만 갔다. 그가 남긴 문구 중 하나는 다음과 같았다. "준비하라! 네 고난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모피를 챙겨 몸을 감싸고 먹을 것을 마련해 두어라. 곧 우리는 여정을 떠날 것이니, 네가 겪을 고통이 나의 영원한 증오를 채워주게 되리라."

비웃음 섞인 그 말들은 오히려 나의 용기와 인내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나는 결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리라 다짐했

다. 하늘의 도움을 간절히 빌며, 나는 식지 않는 열정으로 광활한 사막을 가로질러 나아갔다. 마침내 멀리 바다가 나타나 지평선의 끝을 이루었다. 아, 남쪽의 푸르른 계절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인가! 온통 얼음으로 뒤덮인 그 바다는, 그저 육지보다 훨씬 더 거칠고 험준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땅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리스인들은 아시아의 언덕 위에서 지중해를 바라볼 때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고된 여정의 끝을 맞이하며 환희에 찬 환호를 보냈다. 나는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으나,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인도자를 향해 감사를 올렸다. 적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와 마주하여 맞서 싸우기를 고대하던 바로 그곳으로 나를 무사히 이끌어 준 것에 대해 말이다.

이 시기가 시작되기 몇 주 전, 나는 썰매와 개들을 구했다. 덕분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눈밭을 가로질러 나아갔다. 그 악마도 나와 같은 조건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추격전에서 매일 조금씩 뒤처지기만 했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거리를 좁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침내 바다가 눈앞에 보였을 때, 그놈은 불과 하루 거리 앞에 있었다. 나는 그가 해변에 닿기 전에 가로막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나는 새로 얻은 용기를 품고 계속 나아갔고, 이틀 뒤 해안가의 어느 비참한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 악마에 관해 물으니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거대한 괴물이 전날 밤에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총 한 자루와 여러 자루의 권총을 지닌 채 나타났는데, 그 끔찍한 모습에 겁을 먹은 외딴 오두막의 주민들을 쫓아버렸다고 했다. 괴물은 그들이 겨울 동안 먹을 식량을 모두 약탈해 썰매에 실었다. 그러고는 훈련된 개 무리를 붙잡아 썰매를 끌게끔 마구를

채웠다.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괴물이 그날 밤 바다를 건너 육지가 없는 방향으로 떠나버린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사람들은 그 놈이 곧 얼음이 깨지거나 영원한 추위에 얼어 죽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잠시 절망에 빠졌다. 그가 내 손을 벗어났다. 이제 나는 험준한 빙하가 가득한 바다를 가로지르는, 파괴적이고도 끝이 보이지 않을 여정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곳의 거주민들조차 오래 견디기 힘든 추위가 몰아치는 곳이었다. 온화하고 햇살이 내리쬐는 기후에서 자란 내가 그 추위를 버텨낼 수 있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그 악마가 살아남아 승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분노와 복수심이 다시 치밀어 올랐다. 그 감정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다른 모든 마음을 집어삼켰다. 죽은 이들의 영혼이 내 주변을 맴돌며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노동과 복수를 종용하는 가운데, 나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여정을 준비했다.

나는 육지에서 쓰던 썰매를 얼어붙은 대양의 험난한 지형에 맞게 제작된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고는 식량을 넉넉히 준비하여 육지를 떠났다.

그날로부터 며칠이나 지났는지 가늠할 수 없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정의로운 응보를 향한 영원한 갈망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견뎌낼 수 없었을 비참한 나날을 나는 버텨왔다. 거대하고 험준한 얼음산이 앞길을 가로막는 일도 잦았고, 나를 집어삼킬 듯 요동치는 거친 파도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서리가 내리며 바다의 길을 단단히 얼려주었다.

하지만 지체할 여유가 없었다. 나는 개들에게서 죽은 동료의 사체를 치워준 뒤 먹이를 듬뿍 주었다. 그러고 나서 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으나, 나에게는 몹시 괴롭고 따분한 시간이었다. 휴식을 마친 뒤 나는 다시 길을 재촉했다. 썰매는 여전히 눈에 보였다. 가끔 거대한 얼음 바위와 험준한 암벽이 앞을 가로막을 때를 제외하면, 썰매를 놓치는 일은 없었다. 나는 확실히 썰매와의 거리를 좁혀 나갔다. 그렇게 거의 이틀을 달려 마침내 적이 채 1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내 심장은 요동쳤다.

하지만 적을 거의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던 바로 그 순간, 나의 희망은 돌연 꺼져버렸다. 이전의 그 어떤 때보다도 철저하게 그를 놓치고 말았다.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발밑에서 물결이 요동치며 솟구칠 때마다, 그 진동은 매 순간 더욱 불길하고 공포스럽게 울려 퍼졌다. 나는 필사적으로 나아갔으나 소용없었다. 바람이 일고 바다가 포효했다. 이윽고 지진이 일어난 듯한 거대한 충격과 함께, 엄청나고 압도적인 굉음을 내며 얼음이 갈라지고 부서졌다. 파괴는 순식간에 끝났다. 불과 몇 분 만에 사나운 바다가 나와 적 사이를 가로막으며 휘몰아쳤다. 나는 점점 작아지는 얼음 조각 위에 올라탄 채 표류하게 되었고, 그 조각은 나에게 끔찍한 죽음을 예고하며 서서히 사라져 갔다.

그렇게 끔찍한 시간들이 흘러갔네. 개 몇 마리가 죽어나갔고, 나 역시 쌓여가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쓰러지기 직전이었네. 바로 그때, 자네의 배가 닻을 내리고 떠 있는 모습이 보였지. 그 광경은 마치 나에게

구원과 삶의 희망을 내미는 것 같았네. 배가 이토록 북쪽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 했기에,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네.

나는 서둘러 썰매의 일부를 부수어 노를 만들었네. 그리고 엄청난 피로를 견디며 그 노를 저어 얼음 뗏목을 자네의 배가 있는 방향으로 움직였지. 만약 자네의 배가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면, 나는 목적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바다의 자비에 몸을 맡기는 길을 택하려 했네. 자네가 보트를 한 척 내어준다면, 그것을 타고 적을 뒤쫓겠노라 간청할 생각까지 했지.

하지만 자네의 배는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네. 기력이 다해 쓰러지기 직전인 나를 자네는 배 위로 올려주었지.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겹겹이 쌓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곧 죽음을 맞이했을 걸세. 아직 완수해야 할 과업이 남아 있기에, 나는 여전히 그 죽음이 두렵기만 하네.

아, 나의 인도자가 언제쯤이면 악마에게로 나를 이끌고,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안식을 허락해 줄 것인가. 아니면 나는 죽고, 그놈은 여전히 살아남아야만 하는 것인가. 월턴, 만약 내가 죽는다면 맹세해 주게. 그놈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자네가 그를 찾아내어 나의 복수를 그의 죽음으로 완성해 주겠다고 말일세.

내가 자네에게 나의 순례를 대신해 달라고, 내가 겪은 그 고난을 자네가 감내해 달라고 감히 부탁해도 되겠나? 아니, 나는 그 정도로 이기적이지 않네. 하지만 내가 죽은 뒤에 만약 그놈이 나타난다면, 만약 복수의 사자들이 그를 자네에게 데려간다면, 그놈이 결코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해 주게. 그놈이 나의 쌓인 슬픔을 비웃으며 살아남

아, 그 어두운 죄악의 목록에 새로운 죄를 더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해 주게.

그놈은 말솜씨가 뛰어나고 설득력이 있어서, 한때는 그 말들이 내 마음마저 흔들어 놓았네. 하지만 절대로 그놈을 믿지 말게. 그놈의 영혼은 겉모습만큼이나 지옥 같아서, 배신과 악마 같은 악의로 가득 차 있네. 그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윌리엄과 쥐스틴, 클레르발과 엘리자베스, 나의 아버지, 그리고 불쌍한 빅터의 이름을 부르며 그놈의 심장에 칼을 꽂게나. 내가 곁을 맴돌며 칼날이 정확히 박히도록 인도하겠네.

월턴, 이어서.

17—년 8월 26일.

마거릿, 당신도 이 기이하고도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읽었으니, 지금 내 피가 공포로 얼어붙는 것처럼 당신의 피도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끼지 않나요? 때때로 그는 갑작스러운 고통에 사로잡혀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목소리가 갈라지면서도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고통이 가득 담긴 말들을 간신히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 아름답고 고운 눈동자는 때로는 분노로 이글거렸고, 때로는 슬픔에 잠겨 아래를 향했으며, 때로는 끝없는 비참함 속에 빛을 잃었습니다. 어떤 때는 표정과 어조를 다스리며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은 채 평온한 목소리로 가장 끔찍한 사건들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듯, 자신을 괴롭히는 자를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광기 어린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리곤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일관성이 있으며 아주 단순한 진실을 말하는 듯 들린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고백한다. 그가 내게 보여준 펠릭스와 사피의 편지들, 그리고 우리 배에서 목격한 괴물의 형체는 그 어떤 확언보다도 그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더 강력하게 확신시켜 주었다. 그가 아무리 간절하고 조리 있게 말한다 한들, 그 증거들만은 못했다. 그런 괴물이 정말로 존재한단 말인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나는 경악과 경탄 속에 길을 잃은 기분이다. 때때로 나는 프랑켄슈타인에게 피조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려 애썼지만,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친구여, 자네 미쳤나?" 그가 말했다. "아니면 그 무모한 호기심이 자네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건가? 자네 역시 자신과 세상을 파멸로 몰아넣을 악마 같은 적을 만들 셈인가? 제발, 그만하게! 나의 비극을 보고 내 고통을 배우게나. 부디 자네의 불행을 키우려 들지 말게."

프랑켄슈타인은 내가 자신의 과거를 기록한 노트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더니, 여러 곳을 직접 수정하고 내용을 덧붙였다. 특히 그는 자신의 적과 나누었던 대화들에 생동감과 정신을 불어넣는 데 주력했다. 그는 "자네가 나의 이야기를 보존해 주었으니, 온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후세에 전해지는 것은 원치 않네."라고 말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나는 상상력이 빚어낼 수 있는 가장 기이한 이야기를 경청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와 그의 고결하고 온화한 품격에 매료된 나머지, 내 생각과 영혼의 모든 감정은 오

로지 그라는 손님에게만 쏠려 있었다. 나는 그를 위로하고 싶었으나, 이토록 끝없이 비참하고 위안의 희망조차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에게 삶을 이어가라고 권할 수 있을까? 아, 그럴 수는 없다! 그가 이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은, 부서진 영혼을 추스르고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때뿐일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고독과 망상이 빚어낸 위안이 하나 있다. 그는 꿈속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 교감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달래거나 복수심을 불태우는데, 이때의 존재들이 결코 자신의 공상이 빚어낸 허상이 아니라 머나먼 세계에서 자신을 찾아온 실제 존재들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그의 공상을 엄숙하게 만들어, 그 공상은 나에게 마치 사실처럼 강렬하고 흥미롭게 다가온다.

우리의 대화가 늘 그의 과거사나 불행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문학 전반에 대해서라면, 그는 끝을 알 수 없는 지식을 보여주었으며 명민하고도 날카로운 이해력을 뽐냈다. 그의 말솜씨는 힘이 넘치면서도 마음을 울리는 구석이 있었다. 그가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거나 연민과 사랑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려 애쓸 때면,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처럼 몰락한 처지에서도 이토록 고결하고 신성한 기품을 풍기니, 그가 번창하던 시절에는 대체 얼마나 찬란한 존재였을까! 그는 자신의 가치와 자신이 맞이한 몰락의 거대함을 스스로 깊이 느끼고 있는 듯했다.

"어릴 적에는," 그가 말했다. "내가 어떤 위대한 과업을 완수할 운명이라고 믿었네. 감정은 깊었지만, 판단력만큼은 냉철했기에 명성을 떨

칠 업적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었지. 다른 이들이라면 절망에 빠졌을 상황에서도, 내 본성이 지닌 가치를 믿었기에 버텨낼 수 있었네. 동료 인간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재능을 무의미한 슬픔 속에 허비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완수한 작업, 즉 감수성과 이성을 갖춘 생명체를 창조해낸 그 일을 되돌아볼 때면, 나는 스스로를 평범한 몽상가들과는 결코 같게 두지 않았네. 하지만 내 경력의 시작을 지탱해주던 그 생각이, 이제는 나를 진흙탕 속으로 더 깊이 밀어 넣고 있을 뿐이라네. 나의 모든 사색과 희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고, 전능함을 갈망하다 추락한 타락천사처럼, 나는 영원한 지옥에 묶여버렸네. 상상력은 생생했고, 분석하고 실행하는 능력 또한 강렬했지. 이 두 능력이 결합한 덕분에 나는 인간을 구상하고 창조해낼 수 있었네. 지금도 작업이 채 끝나지 않았을 때 품었던 그 환상들을 떠올리면 격정적인 감정이 치밀어 오른다네. 내 생각 속에서 나는 천상을 거닐었지. 때로는 내 능력에 도취했고, 때로는 그 능력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생각으로 뜨겁게 타올랐네. 어린 시절부터 나는 높은 희망과 고결한 야망을 품고 자랐네.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가! 오, 나의 친구여, 만약 자네가 예전의 나를 알았더라면, 지금 이 비참한 몰골의 나를 결코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네. 내 마음에는 낙담이라는 감정이 찾아오는 법이 거의 없었네. 드높은 운명이 나를 이끌어주는 듯했지. 결코, 결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추락하기 전까지는 말일세."

그토록 경이로운 존재를 이대로 잃어야만 한단 말인가? 나는 줄곧 친구를 갈망해 왔다. 나와 마음을 나누며 나를 사랑해 줄 이를 찾아 헤맸다. 보라, 이 황량한 바다 위에서 마침내 그런 이를 찾아냈으니. 하

지만 그 가치를 깨닫자마자 그를 잃게 될까 두렵다. 그를 다시 삶으로 이끌고 싶지만, 그는 삶이라는 생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월턴, 나같이 비참한 불행아를 향해 보여준 당신의 친절한 마음에 감사하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유대와 새로운 애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떠나간 이들을 그 무엇이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오? 그 어떤 남자가 클레르발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으며, 그 어떤 여인이 엘리자베스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겠소? 설령 특별한 미덕 때문에 깊은 애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동료들은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뒤늦은 친구도 갖지 못할 특별한 힘을 남기기 마련이오. 그들은 우리의 어린 시절 성정을 알고 있소. 그 성정은 시간이 흐르며 변할지언정 결코 뿌리 뽑히지는 않는 법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 동기가 얼마나 진실한지를 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소. 형제나 자매 사이에는 설령 어릴 때부터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는 한, 서로를 속이거나 기만한다고 의심하는 일이 결코 없소. 반면 다른 친구는 아무리 깊은 애정을 나누었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될 수도 있는 법이지요. 하지만 내가 누렸던 친구들은 단순히 습관이나 친분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지닌 훌륭한 덕망 덕분에 소중한 이들이었소. 내가 어디에 있든, 엘리자베스의 다정한 목소리와 클레르발의 대화는 언제나 내 귓가에 속삭이듯 맴돌 것이오. 그들은 죽었소. 이토록 고독한 처지에서 오직 단 하나의 감정만이 나를 살아가게 할 뿐이오. 만약 내가 인류에게 커다란 이로움을 줄 고귀한 과업이나 계획에 매진하고 있다면,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오. 하지만 나의 운명은 그렇지 않소. 나는 내가

생명을 불어넣은 그 존재를 끝까지 뒤쫓아 파멸시켜야만 하오. 그래야만 이 땅에서의 내 소명이 다하고 비로소 죽을 수 있을 것이오."

사랑하는 누이에게,

9월 2일.

위험에 둘러싸인 채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운 영국, 그리고 그곳에 사는 더욱 소중한 친구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처지입니다. 제 주위는 탈출할 길 없는 얼음산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저 산들은 금방이라도 제 배를 짓눌러 버릴 듯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료가 되어 달라고 설득했던 용감한 선원들은 저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저는 그들에게 내어줄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합니다. 그럼에도 용기와 희망만은 저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의 목숨이 저 때문에 위태롭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참으로 괴롭습니다. 만약 우리가 파멸한다면, 그것은 바로 저의 광기 어린 계획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거릿,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당신은 나의 파멸 소식을 듣지 못할 것이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겠지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당신은 절망에 빠져 괴로워하다가도, 다시금 희망에 사로잡혀 고통받을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내 누이여! 당신이 품은 그 간절한 기대가 무참히 무너져 내릴 것을 생각하면, 나는 내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으니,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하늘이 당신을 축복하여 부디 행복하게 해 주기를!

불운한 나의 손님은 나를 더없이 애틋한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는 나에게 희망을 불어넣으려 애쓰며, 마치 삶이란 소중히 간직해야 할 자산이라도 되는 양 이야기한다. 그는 이 바다에 도전했던 다른 항해사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상기시켜 준다. 덕분에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가 전하는 밝은 예감에 마음이 놓이곤 한다. 선원들조차 그의 유려한 말솜씨에 압도된다. 그가 입을 열면 선원들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다. 그는 선원들의 의욕을 북돋우며, 그의 목소리를 듣는 동안만큼은 저 거대한 빙산들이 인간의 결단 앞에서는 사라져 버릴 작은 언덕에 불과하다고 믿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덧없다.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하루하루가 길어질수록 선원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나는 이 절망이 결국 반란으로 이어질까 봐 두려울 지경이다.

9월 5일.

방금 아주 이례적이고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당신에게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마 이 순간을 기록하지 않고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대한 얼음 산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산들이 서로 충돌하며 일으키는 압력에 짓눌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추위는 극심하며, 불행한 동료 중 많은 이가 이미 이 황량한 풍경 속에서 죽어 무덤에 묻혔다. 프랑켄슈타인의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열병 같은 불꽃이 번뜩이지만, 몸은 이미 기력을 다한

상태다.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에 힘을 쏟으며 깨어날 때면, 그는 이내 다시 생기 없는 모습으로 깊이 가라앉고 만다.

지난 편지에서 나는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품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늘 아침, 눈을 반쯤 감은 채 힘없이 늘어진 친구의 창백한 안색을 지켜보고 있을 때였다. 선원 대여섯 명이 선실로 들여보내 달라고 요구하며 나를 깨웠다. 그들이 들어왔고, 그중 우두머리가 나에게 말을 건넸다. 그는 자신과 동료들이 다른 선원들의 대표로 뽑혀 나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요구이기에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일을 요청하러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얼음에 갇혀 있어 아마 영영 빠져나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만약의 경우를 우려했다. 혹시라도 얼음이 녹아 항로가 열린다면,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긴 선원들을 데리고 내가 무모하게 항해를 계속하여 또 다른 위험 속으로 몰아넣을까 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엄숙한 약속을 받아내고자 했다. 만약 배가 얼음에서 풀려난다면, 즉시 남쪽으로 항로를 돌리겠다는 약속 말이다.

이 말은 나를 괴롭혔다. 나는 절망하지도 않았고, 자유를 얻는다면 돌아가겠다는 생각조차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정의의 관점에서, 혹은 실현 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내가 대답을 망설이고 있을 때, 처음에는 침묵을 지키며 기운조차 없어 보이던 프랑켄슈타인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다. 그의 눈은 번뜩였고, 뺨에는 순간적인 활기가 돌아 붉게 상기되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선장인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건가? 고작 이 정도로 결심이 흔들린단 말인가? 자네들은 이 여정을 영광스러운 원정이라고 부르지 않았나?

대체 무엇이 이 여정을 영광스럽게 만드는가? 길이 남쪽 바다처럼 평온하고 잔잔하기 때문인가? 아니다. 이 여정은 위험과 공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다. 매 순간 새로운 사건이 닥칠 때마다 자네들의 인내심을 증명해야 하고, 용기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위험과 죽음이 도처에 깔려 있으며, 자네들은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극복해야만 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여정은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과업이 되는 것이다. 자네들은 훗날 인류의 은인으로 칭송받을 것이며, 명예와 인류의 이익을 위해 죽음과 맞선 용맹한 이들의 이름으로 추앙받을 것이다.

그런데 보라. 위험이 조금이라도 예상되거나, 아니, 자네들의 용기를 시험할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시련이 처음으로 닥치자마자 자네들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추위와 위험을 견뎌낼 힘조차 없는 자들로 기억되는 것에 만족하려는 것인가? '가련한 영혼들이라, 날씨가 쌀쌀해지자 따뜻한 화로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식으로 말이다.

이런 일을 겪으려면 이런 준비 따위는 필요 없다. 고작 겁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선장을 패배의 수치로 몰아넣을 필요는 없단 말이다! 오, 제발 사람이 되어라. 아니, 인간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라! 목적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바위처럼 단단해져라. 이 얼음은 자네들의 마음처럼 나약한 물질이 아니다. 얼음은 변화하는

것이기에, 자네들이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먹는다면 결코 자네들을 막아설 수 없다.

불명예라는 낙인을 이마에 새긴 채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싸워 이겼으며, 적을 앞에 두고 등을 돌리는 법을 모르는 영웅이 되어 돌아가라."

그는 자신이 말하는 감정의 변화에 맞춰 목소리를 섬세하게 조절하며, 눈빛에는 숭고한 포부와 영웅적인 기개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런 그를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으나 차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내가 입을 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단 물러가 방금 한 말들을 깊이 숙고해 보라고 말했다. 만약 그들이 간절히 반대한다면 더 북쪽으로 나아가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충분히 생각하고 나면 다시 용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들은 물러갔고, 나는 친구를 돌아보았으나 그는 기력이 다해 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날지는 나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수치스럽게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그럼에도 나의 운명이 그리될까 두렵다. 영광과 명예라는 신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지금의 고난을 기꺼이 견뎌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9월 7일.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가 파멸하지 않는다면,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비겁함과 우유부단함이 내 희망을 꺾어버렸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실망감만 안고 돌아간다. 이 불공평한 처사를 인내하며 견뎌내기에는, 내게 필요한 철학적 깊이가 턱없이 부족하다.

9월 12일.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나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유용함과 영광을 얻으리라는 희망도, 내 친구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내 동생에게, 이 비통한 사정들을 하나하나 상세히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국으로, 그리고 당신에게로 향하는 이 여정 동안 나는 결코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9월 9일, 얼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섬들이 사방으로 갈라지고 뒤틀리며 멀리서 천둥 같은 굉음이 들려왔다.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상황을 지켜보는 것뿐이었기에, 나는 침대에 누워 꼼짝도 못 할 만큼 병세가 악화된 불행한 손님에게 온 신경을 쏟았다. 우리 뒤편에서 얼음이 갈라지더니 북쪽을 향해 거세게 밀려갔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11일이 되자 남쪽으로 향하는 통로가 완전히 열렸다. 선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환호성을 내질렀고, 그 떠들썩한 기쁨의 외침은 길게 이어졌다. 졸고 있던 프랑켄슈타인이 깨어나 무슨 소동인지 물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곧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내가 대답했다.

“그럼, 정말로 돌아가시겠다는 말입니까?”

"아아! 그렇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차마 거절할 수가 없군요. 그들을 원치 않는 위험 속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으니, 저는 반드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목적을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목적은 하늘이 내게 부여한 것이기에 감히 저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나약한 존재이나, 나의 복수를 도울 영혼들이 내게 충분한 힘을 내려줄 것이라 믿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애썼으나,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간 나머지 결국 다시 쓰러지며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가 다시 의식을 되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생명이 완전히 꺼져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자주 했다. 마침내 그가 눈을 떴으나, 숨을 몰아쉴 뿐 말 한마디 내뱉지 못했다. 외과의사는 그에게 진정제를 처방하며, 방해하지 말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 친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내게 일러주었다.

그에게 판결이 내려졌고, 나는 그저 슬퍼하며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의 침대 곁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잠든 것 같았으나, 이내 그가 가냘픈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그는 내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며 말했다.

"아, 내가 의지했던 힘이 다했구나. 곧 죽음이 닥칠 것임을 느낀다. 나의 적이자 박해자인 그놈은 여전히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지. 월턴,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전에 내뱉었던 그 뜨거운 증오와 강렬한

복수심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게. 다만 나의 적이 죽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 정당하다고 느낄 뿐이라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지난날의 행적을 되짚어 보았으나, 내 행동에 잘못된 점은 찾지 못했네. 나는 광기 어린 열정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피조물을 만들어냈고, 내 능력 안에서 그 피조물의 행복과 안녕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 그것은 나의 의무였으나, 그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의무가 또 하나 있었네. 동족을 향한 나의 의무가 더 우선시되어야 했네. 동족의 삶에는 더 큰 행복과 비극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첫 번째 피조물의 반려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네. 그리고 거절하기를 잘했다는 생각도 드네. 그 피조물은 악에 있어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사악하고 이기적이었네. 그는 내 친구들을 파괴했고, 예민한 감각과 행복, 그리고 지혜를 지닌 존재들을 파멸로 몰아넣었네. 이 복수심에 불타는 갈증이 어디서 끝날지도 알 수 없네. 그 자신도 비참한 존재이니, 더는 다른 이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네. 그를 파멸시키는 과업은 나의 몫이었으나 나는 실패했네. 이전에 내가 이기적이고 악한 동기에 사로잡혔을 때 자네에게 나의 미완성된 과업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었지. 이제는 오직 이성과 미덕에 따라, 다시 한번 그 부탁을 전하네."

"하지만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당신에게 조국과 친구들을 저버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신다면 그를 만날 기회도 거의 없을 테지요. 다만 이러한 점들을 숙고하여, 당신이 무엇을 의무로 여길지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니 제 판단력과 생각은 이미 흐트러져 있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당신에

게 해달라고 감히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저 역시 여전히 격정에 휘말려 잘못된 판단을 내릴지도 모르니까요."

"그가 살아남아 재앙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히는군요. 하지만 그 외의 면에서 보자면, 이제 곧 해방될 것이라 믿는 이 순간이야말로 지난 몇 년간 내가 누린 유일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죽은 이들의 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니, 나도 어서 그들의 품으로 달려가야겠습니다. 작별입니다, 월턴! 부디 평온 속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야망은 멀리하십시오. 설령 그것이 과학적 성취나 발견처럼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야망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나 자신은 그 희망 때문에 파멸했으나, 다른 누군가는 성공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는 말을 이어갈수록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결국 기력을 다해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약 30분쯤 지나 다시 한번 입을 떼려 애써 보았으나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힘없이 내 손을 움켜쥐었고, 입가에 머물던 온화한 미소가 서서히 사라짐과 동시에 영원히 눈을 감았다.

마거릿, 이토록 찬란한 영혼이 너무나 이른 나이에 스러져 버린 것에 대해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내 슬픔의 깊이를 네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니?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말도 부족하고 무력하기만 하다. 눈물이 흐르고, 마음은 실망이라는 먹구름에 짓눌려 있다. 하지만 나는 영국으로 향하는 중이니, 그곳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말을 잇지 못하겠다. 이 소리들은 무엇을 예고하는 것인가? 자정이다. 바람은 적당히 불고, 갑판을 지키는 파수꾼들도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다시금 사람의 목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훨씬 더 거칠고 쉰 소리다. 소리는 프랑켄슈타인의 유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선실 쪽에서 들려온다. 일어나서 확인해 보아야겠다. 잘 자요, 나의 누이여.

맙소사, 방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그 광경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머리가 어지럽다. 내가 과연 이 일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기록한 이 이야기는, 이 마지막의 경이롭고도 비극적인 참사를 빼놓는다면 결코 완성될 수 없을 것이다.

불운하면서도 경애하는 친구의 유해가 놓인 선실로 들어갔다. 그 위에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형체가 드리워져 있었다. 거대한 체구였으나, 그 비율은 기괴하고 뒤틀려 있었다. 관 위로 몸을 굽힌 채 있었기에 길게 자란 거친 머리카락에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미라처럼 색과 질감이 변해버린 거대한 손 하나가 뻗어 나와 있었다. 내가 다가가는 소리를 듣자, 괴물은 비탄과 공포에 찬 비명을 멈추고 창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토록 혐오스러우면서도 소름 끼치는 추악함을 지닌 얼굴은 내 생애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포스러운 광경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 파괴자를 상대로 내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떠올리려 애썼다. 나는 그에게 가지 말고 머물러 달라고 말했다.

그는 경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다. 그러더니 다시 창조주의 생기 없는 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마치 내 존재

를 잊은 듯했다. 그의 모든 표정과 몸짓은 걷잡을 수 없는 격정에서 비롯된 광기 어린 분노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였다.

"그 또한 나의 희생양이다!" 그가 외쳤다. "그를 죽임으로써 나의 죄악은 완성되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내 삶의 연쇄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다! 오, 프랑켄슈타인! 너는 참으로 너그럽고 헌신적인 존재로구나! 내가 지금 너에게 용서를 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파괴함으로써, 너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뜨린 내가 말이다! 아아, 그는 차갑게 식어 대답조차 할 수 없구나."

그의 목소리는 숨이 막힌 듯 가냘펐다. 친구의 마지막 부탁을 받들어 그의 원수를 없애야 한다는 의무감이 처음에는 나를 움직였으나, 이제는 호기심과 연민이 뒤섞여 그 충동이 멈춰 섰다. 나는 이 거대한 존재에게 다가갔다. 그의 추악함에는 무언가 소름 끼치고 비현실적인 구석이 있어, 감히 다시 그의 얼굴을 마주 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입술 끝에서 말이 채 나오지 못하고 흩어졌다. 괴물은 거칠고 횡설수설하는 자책을 멈추지 않고 내뱉었다. 마침내 나는 격정의 폭풍이 잠시 잦아든 틈을 타 그에게 말을 건넬 결심을 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 본들 아무 소용없소." 내가 말했다. "당신이 그 악마 같은 복수심을 이토록 극단까지 몰아붙이기 전에,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책의 고통을 받아들였더라면, 프랑켄슈타인은 아직 살아있었을 것이오."

"당신도 꿈을 꿉니까?" 악마가 물었다. "그때 내가 고통과 자책에 죽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그는 시체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는 일을 저지른 순간에는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오, 그 일을 실행하며 길게 이어지던 시간 동안 내가 겪은 괴로움의 만 분의 일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자책으로 독이 들어 있을 때, 끔찍한 이기심이 나를 몰아붙였습니다. 클레르발의 신음 소리가 내 귀에는 음악처럼 들렸을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은 본래 사랑과 동정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비참함 때문에 악과 증오로 뒤틀려 버렸으니, 그 급격한 변화의 격동을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클레르발을 살해한 뒤, 나는 상심하고 무너진 채 스위스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프랑켄슈타인을 가엾게 여겼고, 그 연민은 공포에 이를 만큼 커졌으며, 끝내 나 자신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존재와 그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동시에 빚어낸 그가 감히 행복을 바란다는 것을, 나에게는 불행과 절망만을 쌓아 올리면서도 정작 자신은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없도록 가로막힌 그 감정과 열정을 탐닉하며 즐거움을 좇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무력한 질투와 쓰라린 분노가 나를 가득 채워 채울 수 없는 복수의 갈증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했던 위협을 떠올리며 반드시 그것을 완수하리라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에게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예비하는 일임을 알았지만, 나는 내가 혐오하면서도 거역할 수 없는 충동의 주인이 아니라 그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죽었을 때! 아니, 그때 나는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망의 극치 속에서 마음껏 날뛰기 위해 모든 감정을 떨쳐 버리고 모든 고통을 억눌렀습니다. 그때부터 악이 곧 나의 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내몰린 이상, 나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 환경

에 내 본성을 맞추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나의 악마적인 계획을 완성하는 일이 채울 수 없는 열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은 끝났습니다. 저기, 나의 마지막 희생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쏟아내는 비참한 호소에 마음이 움직였다. 하지만 프랑켄슈타인이 그의 유창한 언변과 설득력에 대해 했던 말을 떠올리고, 다시금 내 친구의 생기 없는 형체로 눈길을 돌리자, 내 안에서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이 가련한 놈!" 내가 말했다. "네가 저지른 황폐함 앞에서 울며불며 하소연하러 여기까지 오다니, 참으로 가관이구나. 너는 건물 더미에 횃불을 던져 넣고는, 그것들이 다 타 버리자 폐허 사이에 앉아 그 몰락을 슬퍼하고 있구나. 위선적인 악마 같으니! 네가 애도하는 그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그는 다시금 네 저주받은 복수의 대상이자 먹잇감이 되었을 것이다. 네가 느끼는 것은 연민이 아니다. 네 악의가 만들어낸 희생자가 더 이상 네 손아귀에 있지 않기에 슬퍼하는 것뿐이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피조물이 말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내 행동의 의도가 당신에게는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비극에 누군가 공감해 주길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동정심도 내게는 결코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처음 공감을 갈구했을 때, 내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미덕에 대한 사랑이었고, 내 존재 전체에 넘쳐흐르던 행복과 애정의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덕은 내게 그림자가 되었고, 행복과 애정은 쓰디쓴 혐오와 절망으로 변해 버렸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통해 동정을 구하겠습니

까? 고통이 계속되는 한, 나는 홀로 견디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기억에 혐오와 오명만이 가득 쌓인다 해도 나는 달게 받겠습니다. 한때 내 상상력은 미덕과 명예,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꿈으로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때 나는 겉모습만 용서해 준다면 내가 펼쳐 보일 수 있는 훌륭한 자질들을 사랑해 줄 존재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헛된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명예와 헌신이라는 고결한 생각들로 마음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죄악은 나를 가장 비천한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타락시켰습니다. 그 어떤 죄책감도, 해악도, 악의도, 비극도 내 고통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내 죄악의 목록을 하나하나 훑어 내려가다 보면, 한때 선함의 아름다움과 위엄에 관한 숭고하고 초월적인 환상으로 마음을 채웠던 그 존재가 정말 나 자신인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악독한 악마가 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신과 인간의 적이었던 그 악마조차도 그 황량한 고독 속에서는 친구와 동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을 친구라 부르는 당신은, 나의 죄와 그의 불행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하군요. 하지만 그가 당신에게 들려준 이야기만으로는, 내가 무력한 열망에 휩쓸려 허비하며 견뎌온 그 수많은 시간과 달의 고통을 다 담아낼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그의 희망을 짓밟는 동안에도, 정작 나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요. 나의 갈망은 언제나 뜨겁고도 굶주려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과 동료애를 갈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번 거절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불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온 인류가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나만이

유일한 범죄자로 취급받아야 합니까? 친구를 모욕하며 문밖으로 내쫓은 펠릭스를 당신은 왜 미워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의 구원자를 죽이려 했던 그 시골뜨기를 왜 저주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은 도덕적이고 흠 하나 없는 존재들이겠지요! 하지만 비참하고 버림받은 나는, 멸시당하고 걷어차이고 짓밟혀야 마땅한 낙태아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이 불의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내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하지만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나는 사랑스럽고 무력한 이들을 살해했습니다. 잠든 무고한 이들의 목을 졸랐고, 나나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는 이의 목을 움켜쥐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나는 인간 중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한 가장 고결한 표본이자 나의 창조자인 그를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이를 때까지 나는 그를 쫓았습니다. 이제 그는 죽음 속에서 창백하고 차갑게 누워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증오하겠지만, 당신의 혐오조차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나의 혐오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꿈꾸었던 마음을 떠올립니다. 이 손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그 끔찍한 상상이 더는 내 머릿속을 괴롭히지 않을 그 순간만을 간절히 기다릴 뿐입니다."

"내가 앞으로 또 다른 재앙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과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내 존재의 연쇄를 완성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나 다른 누군가가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 자신의 죽음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내가 이 희생을 미룰 것이라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나를 이곳으로 데려다준 얼음 뗏목

을 타고 당신의 배를 떠나, 지구의 가장 북쪽 끝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장작더미를 모아 이 비참한 몸을 태워 재로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유해가, 나 같은 존재를 다시 만들려는 호기심 많고 불경한 불한당에게 조금의 단서도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를 집어삼키는 이 고통도, 채워지지 않은 채 타오르기만 하는 이 감정의 먹잇감이 되는 일도 더는 없을 것입니다. 나를 세상에 불러낸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 둘에 대한 기억조차 곧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태양과 별을 보지 못할 것이며, 뺨을 스치는 바람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빛과 감각, 모든 지각이 사라지겠지요. 나는 바로 그 상태에서 행복을 찾아야만 합니다.

몇 년 전, 이 세상이 보여주는 갖가지 형상들이 내게 처음 펼쳐졌을 때, 여름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고 나뭇잎의 바스락거림과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며 그 모든 것이 나의 전부였던 시절에는, 죽는다는 것이 서러워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만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지독한 후회로 갈기갈기 찢긴 내가, 죽음 말고 어디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안녕히! 이제 당신을 떠납니다. 내 눈에 비칠 마지막 인류도 당신과 함께 떠나가는군요. 작별입니다, 프랑켄슈타인! 만약 당신이 아직 살아있어 나를 향한 복수심을 품고 있다면, 그 복수심은 나를 파멸시키는 것보다 나를 살려 두는 편이 더 잘 채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지요. 내가 더 큰 비참함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당신은 나의

소멸을 택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여전히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면, 당신 또한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큰 복수를 나에게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파멸했을지언정, 나의 고통은 여전히 당신의 그것보다 깊습니다. 죽음이 내 상처를 영원히 덮어줄 때까지, 후회의 쓰라린 가시가 내 상처 속에서 멈추지 않고 쑤셔 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가 슬프고도 엄숙한 열망을 담아 외쳤다. "나는 죽을 것이고, 지금 느끼는 이 감정들도 더는 느끼지 않게 되겠지. 곧이 타오르는 고통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나의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 나를 괴롭히는 불꽃의 고통 속에서 환희를 누릴 것이다. 그 거대한 불길의 빛도 결국 사그라들 것이고, 나의 재는 바람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가겠지. 나의 영혼은 평온히 잠들 것이다. 설령 영혼이 무언가를 생각한다 해도, 결코 지금처럼 고통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작별이다."

그는 이 말을 하며 선실 창문에서 배 바로 옆에 놓인 얼음 뗏목 위로 뛰어내렸다. 그는 곧 파도에 휩쓸려 멀리 떠내려갔고, 어둠과 아득한 거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